

연구보고 2016-13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

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대한민국 학부모는 영유아 시기부터 자녀에게 다양한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자녀수가 감소한 반면 소득은 증가하여 자녀에게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자녀가 한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남보다 앞선 교육을 통해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러나 너무 어린 시기의 사교육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기 사교육이 지나치면 향후 삶의 기초가 되는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영유아기부터 지나친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깝게는 초등학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보내 좋은 직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어 좋은 대학 가기는 매우 어렵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좋은 직장을 갖기는 쉽지 않으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근무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더구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조차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영유아기 아동의 행복할 권리, 놀 권리를 사교육으로 대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세와 5세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응답을 통해 영유아의 하루일과, 사교육, 특별활동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부모의 인식과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사교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사교육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사교육 의존 탈피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설문조사와 사례조사에 참여해주신 1,257명의 부모와 1,035명의 교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30
II. 연구의 배경	33
1. 사교육의 정의	33
2. 사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36
3. 영유아 사교육 현황	45
4. 선행연구	61
III. 영유아 하루일과	77
1. 하루일과 개요	77
2. 2세의 하루일과	86
3. 5세의 하루일과	96
4.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 사례	107
5. 소결	112
IV.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116
1. 2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116
2. 5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155
3. 소결	195
V. 영유아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202
1. 2세의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202
2. 5세의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실태 및 인식	225
3. 소결	247

VI.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	251
1. 사례조사 대상 특성	251
2. 학원 프로그램 사례	253
3. 면담 내용 분석	256
4. 소결	266
VII. 상담치료 사례분석	268
1. 상담치료 사례의 특성	268
2. 상담사례 심층분석	276
3. 소결	293
VIII. 정책 제언	297
1. 기본 방향	298
2. 정책 방안	299
참고문헌	308
Abstract	315
부록	321
부록 1. 어린이집 2세·5세 학부모 대상 설문지	323
부록 2. 어린이집 2세·5세 교사 대상 설문지	335
부록 3. 유치원 5세 학부모 대상 설문지	342
부록 4. 유치원 5세 교사 대상 설문지	354
부록 5.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2·세아 부모 대상 설문지	361
부록 6.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 설문지 및 면담목록	374
부록 7. 상담사례분석을 위한 상담자 설문지	380

표 차례

〈표 I-3- 1〉 재원기관 및 연령별 모집단 및 표본 할당	20
〈표 I-3- 2〉 2세 부모 응답자 특성	21
〈표 I-3- 3〉 5세 부모 응답자 특성	22
〈표 I-3- 4〉 교사 응답자 특성	23
〈표 I-3- 5〉 설문지의 구성	24
〈표 I-3- 6〉 사례조사 대상자 배경	26
〈표 I-3- 7〉 상담사례조사 경향성 분석 대상자 배경	28
〈표 I-3- 8〉 상담사례조사 심층분석 대상자 배경	28
〈표 II-1-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	35
〈표 II-2- 1〉 교육부의 사교육 관련 주요 정책 변화	38
〈표 II-2- 2〉 사교육비 조사의 주요 결과 추이(2007~2015년)	40
〈표 II-2- 3〉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침	43
〈표 II-3- 1〉 보육·교육기관 이용 현황	46
〈표 II-3- 2〉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47
〈표 II-3- 3〉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47
〈표 II-3- 4〉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49
〈표 II-3- 5〉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50
〈표 II-3- 6〉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50
〈표 II-3- 7〉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과목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51
〈표 II-3- 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 비용, 이용시간	51
〈표 II-3- 9〉 개별교육 이용 현황	52
〈표 II-3-10〉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52
〈표 II-4 1〉 선행연구의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	75
〈표 III-1- 1〉 2세 하루일과 개요	78
〈표 III-1- 2〉 2세 일과시간 참여율	80
〈표 III-1- 3〉 5세 하루일과 개요	82
〈표 III-1- 4〉 5세 일과시간 참여율	85
〈표 III-2- 1〉 평일 생활시간(2세 부모)	86

〈표 III-2- 2〉 토요일 생활시간(2세 부모)	87
〈표 III-2- 3〉 일요일 생활시간(2세 부모)	89
〈표 III-2- 4〉 평일 놀이시간(2세 부모)	90
〈표 III-2- 5〉 토요일 놀이시간(2세 부모)	92
〈표 III-2- 6〉 일요일 놀이시간(2세 부모)	93
〈표 III-2- 7〉 평일 교육시간(2세 부모)	94
〈표 III-2- 8〉 토요일 교육시간(2세 부모)	95
〈표 III-2- 9〉 일요일 교육시간(2세 부모)	96
〈표 III-3- 1〉 평일 생활시간(5세 부모)	97
〈표 III-3- 2〉 토요일 생활시간(5세 부모)	98
〈표 III-3- 3〉 일요일 생활시간(5세 부모)	99
〈표 III-3- 4〉 평일 놀이시간(5세 부모)	100
〈표 III-3- 5〉 토요일 놀이시간(5세 부모)	102
〈표 III-3- 6〉 일요일 놀이시간(5세 부모)	103
〈표 III-3- 7〉 평일 교육시간(5세 부모)	104
〈표 III-3- 8〉 토요일 교육시간(5세 부모)	105
〈표 III-3- 9〉 일요일 교육시간(5세 부모)	106
〈표 III-4- 1〉 영어학원 재원 5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A2)	107
〈표 III-4- 2〉 놀이학원 재원 2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B1)	109
〈표 III-4- 3〉 놀이학원 재원 5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C3)	110
〈표 III-4- 4〉 유아체능단 재원 5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D1)	111
〈표 IV-1-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유형(2세 부모)	117
〈표 IV-1- 2〉 사교육 유형별 가짓수(2세 부모)	119
〈표 IV-1- 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2세 부모)	120
〈표 IV-1- 4〉 월간 사교육비용(2세 부모)	121
〈표 IV-1- 5〉 사교육 정도에 대한 인식(2세 부모)	122
〈표 IV-1- 6〉 사교육 선택 기준(1순위)(2세 부모)	122
〈표 IV-1- 7〉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2세 부모)	124
〈표 IV-1- 8〉 사교육 중단 경험 여부(2세 부모)	125
〈표 IV-1- 9〉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2세 부모)	126
〈표 IV-1-10〉 사교육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2세 부모)	127

〈표 IV-1-11〉 사교육 시작 연령(2세 부모)	129
〈표 IV-1-12〉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2세 부모)	129
〈표 IV-1-13〉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의 필요성(2세 교사, 부모)	130
〈표 IV-1-14〉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2세 교사, 부모)	131
〈표 IV-1-15〉 바람직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2세 교사, 부모)	132
〈표 IV-1-16〉 가구소득 대비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2세 부모)	133
〈표 IV-1-17〉 가구소득 대비 모든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2세 부모)	134
〈표 IV-1-18〉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2세 부모, 교사)	135
〈표 IV-1-19〉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 방향(2세 교사, 부모)	137
〈표 IV-1-20〉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2세 부모)	138
〈표 IV-1-21〉 사교육 실시 장소(2세 부모)	139
〈표 IV-1-22〉 사교육 이동 수단(2세 부모)	140
〈표 IV-1-23〉 사교육 강사 학력(2세 부모)	141
〈표 IV-1-24〉 사교육 강사의 전문성(2세 부모)	141
〈표 IV-1-25〉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2세 부모)	142
〈표 IV-1-26〉 사교육 프로그램 연령 구성(2세 부모)	143
〈표 IV-1-26〉 사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2세 부모)	144
〈표 IV-1-27〉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2세 부모)	144
〈표 IV-1-28〉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2세 부모)	146
〈표 IV-1-29〉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흥미(2세 부모)	147
〈표 IV-1-30〉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2세 부모)	147
〈표 IV-1-31〉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2세 부모)	148
〈표 IV-1-32〉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2세 부모)	149
〈표 IV-1-33〉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2세 부모)	150
〈표 IV-1-34〉 반일제 이상 학원 이전에 다닌 기관(2세 부모)	151
〈표 IV-1-35〉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프로그램 만족도(2세 부모)	151
〈표 IV-1-36〉 사교육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2세: tobit)	153
〈표 IV-1-37〉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2세: OLS)	154
〈표 IV-2-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유형(5세 부모)	156
〈표 IV-2- 2〉 사교육 유형별 가짓수(5세 부모)	157
〈표 IV-2- 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5세 부모)	158

〈표 IV-2- 4〉 월간 사교육비용(5세 부모)	160
〈표 IV-2- 5〉 사교육 정도에 대한 인식(5세 부모)	161
〈표 IV-2- 6〉 사교육 선택 기준(1순위)(5세 부모)	162
〈표 IV-2- 7〉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5세 부모)	164
〈표 IV-2- 8〉 사교육 중단 경험 여부(5세 부모)	165
〈표 IV-2- 9〉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5세 부모)	166
〈표 IV-2-10〉 사교육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5세 부모)	167
〈표 IV-2-11〉 사교육 시작 연령(5세 부모)	169
〈표 IV-2-12〉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5세 부모)	169
〈표 IV-2-13〉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의 필요성(5세 교사, 부모)	171
〈표 IV-2-14〉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5세 교사, 부모)	172
〈표 IV-2-15〉 바람직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5세 교사, 부모)	172
〈표 IV-2-16〉 가구소득 대비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5세 부모)	173
〈표 IV-2-17〉 가구소득 대비 모든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5세 부모)	174
〈표 IV-2-18〉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5세 교사, 부모)	175
〈표 IV-2-19〉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 방향(5세 교사, 부모)	177
〈표 IV-2-20〉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5세 부모)	178
〈표 IV-2-21〉 사교육 실시 장소(5세 부모)	179
〈표 IV-2-22〉 사교육 이동 수단(5세 부모)	180
〈표 IV-2-23〉 사교육 강사 학력(5세 부모)	180
〈표 IV-2-24〉 사교육 강사의 전문성(5세 부모)	181
〈표 IV-2-25〉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5세 부모)	182
〈표 IV-2-26〉 사교육 프로그램 연령 구성(5세 부모)	183
〈표 IV-2-27〉 사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5세 부모)	183
〈표 IV-2-28〉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5세 부모)	184
〈표 IV-2-29〉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5세 부모)	185
〈표 IV-2-30〉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흥미(5세 부모)	186
〈표 IV-2-31〉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5세 부모)	187
〈표 IV-2-32〉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5세 부모)	188
〈표 IV-2-33〉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5세 부모)	189
〈표 IV-2-34〉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5세 부모)	189

〈표 IV-2-35〉 반일제 이상 학원 이전에 다닌 기관(5세 부모)	190
〈표 IV-2-36〉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프로그램 만족도(5세 부모)	190
〈표 IV-2-37〉 사교육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남아 : tobit)	191
〈표 IV-2-38〉 사교육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여아 : tobit)	192
〈표 IV-2-39〉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남아 : OLS)	193
〈표 IV-2-40〉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여아 : OLS)	194
〈표 V-1- 1〉 기관의 특별활동 운영 여부(2세 교사)	202
〈표 V-1- 2〉 기관 전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2세 교사)	203
〈표 V-1- 3〉 기관의 2세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2세 교사)	204
〈표 V-1- 4〉 기관의 특별활동 참여 방식(2세 교사)	205
〈표 V-1- 5〉 특별활동 참여 여부 및 가짓수(2세 교사)	205
〈표 V-1- 6〉 특별활동 주당 횟수 및 회당 시간(2세 교사)	206
〈표 V-1- 7〉 특별활동 참여 여부(2세 부모)	207
〈표 V-1- 8〉 특별활동 가짓수(2세 부모)	208
〈표 V-1- 9〉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2세 부모)	209
〈표 V-1-10〉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2세 부모)	211
〈표 V-1-11〉 학습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2세 부모)	212
〈표 V-1-12〉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2세 부모)	213
〈표 V-1-13〉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2세 부모)	214
〈표 V-1-14〉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2세 부모) ...	215
〈표 V-1-15〉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2세 부모) ...	216
〈표 V-1-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2세 교사)	217
〈표 V-1-17〉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학력(2세 교사)	218
〈표 V-1-18〉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2세 교사)	219
〈표 V-1-19〉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2세 교사)	220
〈표 V-1-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연령 구성(2세 교사)	221
〈표 V-1-21〉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재·교구(2세 교사)	221
〈표 V-1-2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 소요 비용(2세 교사)	222
〈표 V-1-23〉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설 이유(2세 교사)	223
〈표 V-1-24〉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영유아의 흥미(2세 교사)	224
〈표 V-1-25〉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2세 교사)	224

〈표 V-2- 1〉 기관의 특별활동 운영 여부(5세 교사)	225
〈표 V-2- 2〉 기관 전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5세 교사)	226
〈표 V-2- 3〉 기관의 5세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5세 교사)	227
〈표 V-2- 4〉 기관의 특별활동 참여 방식(5세 교사)	228
〈표 V-2- 5〉 특별활동 참여 여부 및 가짓수(5세 교사)	229
〈표 V-2- 6〉 특별활동 주당 횟수 및 회당 시간(5세 교사)	230
〈표 V-2- 7〉 특별활동 참여 여부(5세 부모)	231
〈표 V-2- 8〉 특별활동 가짓수(5세 부모)	232
〈표 V-2- 9〉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5세 부모)	233
〈표 V-2-10〉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5세 부모)	234
〈표 V-2-11〉 학습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5세 부모)	235
〈표 V-2-12〉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5세 부모)	236
〈표 V-2-13〉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5세 부모)	237
〈표 V-2-14〉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5세 부모) ...	238
〈표 V-2-15〉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5세 부모) ...	239
〈표 V-2-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5세 교사)	240
〈표 V-2-17〉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학력(5세 교사)	241
〈표 V-2-18〉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5세 교사)	241
〈표 V-2-19〉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5세 교사)	242
〈표 V-2-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연령 구성(5세 교사)	243
〈표 V-2-21〉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재·교구(5세 교사)	244
〈표 V-2-2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 소요 비용(5세 교사)	244
〈표 V-2-23〉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설 이유(5세 교사)	245
〈표 V-2-24〉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영유아의 흥미(5세 교사)	246
〈표 V-2-25〉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5세 교사)	247
〈표 VI-1- 1〉 사례조사 대상 특성 개요	251
〈표 VI-2- 1〉 영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1 (A3)	253
〈표 VI-2- 2〉 영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2 (A1)	254
〈표 VI-2- 3〉 놀이학원 2세반 프로그램의 예 (B3)	254
〈표 VI-2- 4〉 놀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C3)	255
〈표 VI-2- 5〉 유아체능단 5세반 프로그램의 예 (D3)	255

〈표 VI-3- 1〉 학원 사례조사 면담 주요내용	256
〈표 VII-1- 1〉 아동의 주 호소 문제 (중복응답)	268
〈표 VII-1- 2〉 아동 부모의 성격유형 (중복응답)	269
〈표 VII-1- 3〉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중복응답)	270
〈표 VII-1- 4〉 부모의 양육태도	270
〈표 VII-1- 5〉 부모-자녀 친밀도 및 부부 친밀도	271
〈표 VII-1- 6〉 사교육 시작 시기	272
〈표 VII-1- 7〉 아버지 학력에 따른 사교육 시작 시기	272
〈표 VII-1- 8〉 어머니 학력에 따른 사교육 시작시기	272
〈표 VII-1- 9〉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	273
〈표 VII-1-10〉 사교육의 종류 (중복응답)	274
〈표 VII-1-11〉 사교육 수	274
〈표 VII-1-12〉 부모 양육태도와 사교육 수	275
〈표 VII-1-13〉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와 사교육 수	275
〈표 VII-1-14〉 관계에 따른 사교육 수	276
〈표 VII-2- 1〉 상담사례 개요	276
〈표 VII-2- 2〉 모-자녀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영역 및 범주	278

그림 차례

[그림 I-3- 1] 조사연구 대상	19
[그림 II-3-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이용 비중 변화	53
[그림 II-3- 2]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54
[그림 II-3- 3]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중	55
[그림 II-3- 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	56
[그림 II-3- 5] 학원 및 학습지 등 이용 시간	57
[그림 II-3- 6] 특별활동 이용 비중	58
[그림 II-3- 7]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과목별 개수	59
[그림 II-3- 8]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과목 비중	60
[그림 III-1- 1] 2세 하루일과 시간(24시간 대비 비율)	79
[그림 III-1- 2] 5세 하루일과 시간(24시간 대비 비율)	83
[그림 III-2- 1]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일 놀이시간(2세)	91
[그림 III-2- 2]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일 놀이시간(5세)	101
[그림 IV-1- 1] 사교육 이용률(2세)	118
[그림 IV-1- 2] 재원기관에 따른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2세)	118
[그림 IV-1- 3]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 2세)	123
[그림 IV-1- 4]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 2세)	127
[그림 IV-1- 5] 가구소득에 따른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2세)	130
[그림 IV-1- 6]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2세)	139
[그림 IV-1- 7] 사교육 강사 전문성(2세)	142
[그림 IV-1- 8]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2세)	143
[그림 IV-1- 9]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2세)	145
[그림 IV-1-10]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2세)	146
[그림 IV-1-11]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2세)	148
[그림 IV-1-12]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2세)	150
[그림 IV-2- 1] 사교육 이용률(5세)	156
[그림 IV-2- 2]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5세)	157
[그림 IV-2- 3] 월간 사교육비용(5세)	161

[그림 IV-2- 4]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 5세)	165
[그림 IV-2- 5]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 5세)	167
[그림 IV-2- 6] 가구소득에 따른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5세)	170
[그림 IV-2- 7]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5세)	178
[그림 IV-2- 8] 사교육 강사 전문성(5세)	181
[그림 IV-2- 9]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5세)	182
[그림 IV-2-10]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5세)	185
[그림 IV-2-11]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5세)	186
[그림 IV-2-12]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5세)	187
[그림 V-1- 1] 특별활동 참여율(2세)	208
[그림 V-1- 2]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세)	212
[그림 V-1- 3]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2세)	215
[그림 V-1- 4]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2세)	218
[그림 V-1- 5]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2세)	219
[그림 V-1- 6]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2세)	220
[그림 V-1- 7] 특별활동 프로그램 1인당 총 비용(2세)	222
[그림 V-1- 8] 특별활동 참여율(5세)	232
[그림 V-1- 9]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5세)	235
[그림 V-1-10]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5세)	240
[그림 V-1-11]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5세)	242
[그림 V-1-12]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5세)	243
[그림 V-1-13] 특별활동 프로그램 1인당 총 비용(5세)	245
[그림 VIII-1- 1] 사교육 정책 기본 방향 및 방안	297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교육 대상이 영유아로까지 확대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영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기사교육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함.
- 정부에서는 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
 -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이 사교육 요구를 흡수하도록 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사교육 및 특별활동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내용

- 사교육 관련 용어, 정의, 특성을 탐색하고 사교육 관련법 및 선행연구를 분석함.
- 영유아의 하루일과 및 사교육과 특별활동 실태를 파악함.
-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정보를 분석함.
- 상담소 사례분석을 통해 조기 사교육의 영향을 분석함.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사교육 관련 다양한 용어 정의, 사교육 관련 법, 조기 사교육 실태 및 인

식, 조기 사교육 영향 및 효과,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연구, 영유아 하루일과 등을 분석함.

- 전국 규모의 전국보육실태조사와 한국아동패널조사의 기존 자료를 분석함.

□ 조사연구

- 사교육 및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세 부모 395명, 5세 부모 467명, 교사 655명의 응답을 분석함.
- 놀이학교에 다니는 2세 영아 학부모 3명, 5세 유아 학부모 4명, 영어학원에 다니는 5세 유아 학부모 4명,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유아 학부모 5명으로 총 16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함.
- 조기사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자녀 124쌍을 대상으로 상담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5사례를 심층 분석함.

□ 워크숍,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라. 연구 범위 및 용어정의

- 본 연구의 범위는 2세와 5세 아동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임.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은 사부담 혹은 무상 공교육의 범주로 구분하고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장소에서 각 가정에서 선택하여 사부담 혹은 정부 지원으로 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체능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2. 연구의 배경

가. 사교육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이광현과 권용재(2015)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라는 원론적 사교육비의 개념으로

사교육을 정의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은 사비용 공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함.

나. 사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 사교육 관련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인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내용을 정리함.
- 사교육 경감 정책,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 관련 정책,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지침 내용을 정리함.

다. 영유아 사교육 현황

- 국가승인통계 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2015)의 결과와 전국 규모의 조사인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기초한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분석함.

라. 선행연구

- 영유아 사교육의 배경, 영유아 사교육의 결정 요인,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인식,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에 관한 연구, 영유아 하루일과 관련 선행연구 등을 분석함.

3. 영유아 하루 일과

가. 2세의 하루일과

- 2세아 평일 기준 밤잠은 약 10시간으로 하루의 42%를 차지함.
-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6~57분이었는데 가정양육의 경우 이보다 40분이 더 길게 나타남.
-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재원아의 평일 기준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9분으로 하루의 32%를 차지하였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학원 이용시간은 4시간 28분으로 하루의 19% 정도임.

-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평일 평균 13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71분, 가정양육 69분으로 어린이집 재원아가 월등하게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어린이집 재원아의 경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임.
-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15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30분, 가정양육의 경우 40분으로 가정양육이 가장 길게 나타남.
-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평일에 학습보다 예체능 시간제 사교육을 많이 이용했지만, 가정양육의 경우 예체능보다 학습 사교육을 더 많이 이용
- 가구특성별 하루일과 시간은 다음과 같음.
 - 평일 밤잠시간은 맞벌이인 경우가 9시간 42분, 외벌이인 경우가 10시간으로 맞벌이 자녀의 밤잠시간이 18분 적음.
 - 평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실내놀이시간,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 모두 맞벌이보다 외벌이인 경우 길었고, 보조양육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전자기기 놀이시간이 길게 나타남.
 -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반일제 학원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간제 사교육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놀이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나. 5세의 하루일과

- 평일 기준 밤잠은 약 10시간으로 하루의 42% 정도임. 밤잠시간은 2세와 큰 차이가 없으나 낮잠시간은 많이 줄어듦.
-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64분, 유치원 재원아가 5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73분, 가정양육의 경우 84분임. 가정양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2세보다 시간이 늘어남.
- 실내놀이는 2세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큰 차이가 없음.
-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2분, 유치원 이용시간은 7시간 33분으로 하루 시간의 약 31%를 차지함.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학원 이용시간은 5시간 54분으로 하루의 25%를 차지하였으며, 2세 때보다 1시간 20분 늘

어난 수치임.

-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68분, 유치원 재원아가 5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81분, 가정양육의 경우 175분으로 2세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가정양육의 경우는 2.5배나 증가함.
-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26분, 유치원 재원아가 1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29분, 가정양육의 경우 58분으로 가정양육이 가장 길게 나타남.
- 가구특성별 하루일과 시간은 다음과 같음.
 - 부모가 맞벌이일 때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밤잠시간이 외벌이보다 약 10분 적음.
 - 외벌이 또는 저학력 부모와,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에 5세 유아가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은 외벌이보다 주말에 시간제 강사에 의한 예체능 교육과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

-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를 보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습하면서 보내고 있음.
 - 5세의 대부분은 학원이 끝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학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TV 시청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하거나 2세의 사례처럼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음.
- 학부모는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원을 선택하고 자녀의 하루일과도 그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
 - 영어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학습에 큰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놀이학원을 보내는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고, 유아체능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발달에 큰 가치를 둬.

4.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가. 2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인식

- 조사대상 2세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35.5%였으며, 이용하는 경우 학습관련 사교육은 42.5%, 예체능 관련은 25.8%, 학습과 예체능 모두 하는 경우 31.7%임.
- 2세아는 1.7개의 사교육을 주당 2.6회, 1회당 48분 하고 있음.
- 사교육비용은 월 평균 13만 4천원이고 월 가구소득의 3.9%임.
- 현재 사교육 정도에 대해 적당하다는 응답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도 25%임.
- 부모가 사교육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녀의 흥미 50%, 내용 30%였으며,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50% 이상이 발달,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라고 응답함.
- 과거에 사교육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였으며, 그 이유는 자녀의 신체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음.
- 사교육을 처음 접한 시기는 2세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2개월임.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체육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어 25%, 미술 18%, 음악 16% 순임.
- 취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어린이집 교사의 55.2%, 부모의 6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사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 모두 '특성화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활성화'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교육 프로그램별 특성

- 조사 대상 2세아가 이용하는 총 392개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국어가 28.6%로 가장 많았고, 체육과 미술이 각각 15%, 과학·창의 10% 순임.
- 사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학력이나 전문성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37~42%로 가장 많음.
- 프로그램당 비용은 월평균 7만 2천원이었고, 과학·창의프로그램이 10만원 이상으로 가장 비쌌.

- 부모들은 자녀가 대체로 사교육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부모 스스로도 만족하는 편임. 다만, 수학과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흥미와 부모 만족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현황 및 인식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31만4천원임.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소질이나 재능개발을 위해서가 26.7%,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26.7%,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낸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 20.0% 순임.
- 반일제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척도에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2.5점으로 가장 낮음.

□ 부모 양육태도, 사교육, 영아 행동 특성 관계

- 대부분의 가구특성 변인은 사교육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사교육을 덜 이용했고, 자녀에 대해 거부적 태도보다 애정적 태도를 가진 부모가 사교육을 덜 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나. 5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인식

- 조사대상 5세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84%였으며, 2세의 2배 이상인 비율임. 학습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53%로 하나의 유형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많음.
- 가구수입이 적을 때 학습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가구수입이 많을 때 학습과 예체능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모 학력이 높을 때 예체능 사교육만 시키는 경우가 많음.
- 5세아는 평균 2.2개의 사교육을 주당 평균 5.2회, 회당 50분 동안 이용함.
- 총 사교육비용은 월 평균 16만원이 조금 넘었고, 월 소득의 4.4%를 차지함. 어린이집 재원아보다 반일제 학원, 가정양육 5세아가 지출하는 사교육비용이 더 많았고, 읍·면보다 대도시에서,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더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함.

- 부모들은 현재 사교육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4%, 부족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고 과하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함.
- 부모들의 사교육 선택 기준은 자녀의 흥미가 46%로 가장 많았고, 내용이 27%였으며,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발달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라는 응답과 자녀가 원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5세아 부모의 약 10%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특별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36.4%, 아직 어리다는 응답이 26%로 나타남.
- 5세아가 사교육을 처음 접한 시기는 평균 47개월이었는데,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가장 빨랐음.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국어가 46%로 가장 많았음.
- 취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어린이집 교사의 49%, 유치원 교사의 38%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경우 취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맞벌이보다 외벌이 부모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5세 교사와 부모 모두 특성화프로그램, 특별활동 활성화를 원함.

□ 사교육 프로그램별 특성

- 조사 대상 5세아가 이용하는 모든 사교육 프로그램 1,304개를 분석한 결과 유형은 2세와 마찬가지로 국어가 가장 많고, 체육, 수학 프로그램도 많음.
- 사교육 강사 학력은 대졸이 53%, 모르는 경우 34%였고 전문성은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가 43%, 모르는 경우가 35% 순임.
-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은 평균 7만 3천원으로 나타남. 학습보다 예체능 프로그램이 비쌌고, 세부 유형 중에서는 기타 외국어 프로그램이 12만원으로 가장 비쌌음.
- 예체능 프로그램은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거나 아이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학습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의 광고를 통해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부모들은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 흥미, 발달을 고루 기대하였고 부모들은 5세 자녀가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흥미 있어 한다고 응답함.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현황 및 인식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5세아는 월평균 학원비용은 2세보다 약 2배 비싼 60만 2천원이었음. 학원 유형별로는 영어학원이 86만 7천원으로 가장 비쌌음.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소질·재능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프로그램 수준이 높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 5세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이 많았고, 학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나, 비용 만족도는 다소 낮음.

□ 부모 양육태도, 사교육, 유아 행동 특성 관계

- 5세 남이는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가 거부적이면서 자율적인 부모보다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킴. 5세 여아는 부모 학력이 낮을 때, 가구 소득이 많을 때, 영유아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은 경우 사교육 시간이 증가함.

5. 영유아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가. 2세의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 특별활동 운영 현황

- 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85%는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관 전체에서 평균 4.2개, 2세 대상으로는 2.6개를 운영함.
- 특별활동 참여방식은 희망유아만 참여하는 경우가 88%, 동일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97%로 대부분임.
-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개설한 이유는 학부모 요구가 57%로 가장 많았고, 교사들은 2세아가 대체로 특별활동에 흥미 있어 한다고 응답함.

□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인식

- 조사 대상 2세의 75%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1주일에 평균 2.6가지를 평균 3회, 27분씩 참여함.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유형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경우가 57%, 학습과 예체능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40%임.
 - 가정에서 납부하는 특별활동 비용은 월 평균 4만 3천원임.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의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모두 합하면 20% 이상임.
 - 부모의 특별활동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2세 부모의 72%가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유는 '발달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반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로는 '부모 선택권이 적고', '상담이 어려우며',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특성
- 조사 대상 2세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프로그램 851개를 분석한 결과, 유형은 체육, 음악, 영어가 각각 20% 이상으로 대부분임.
 - 특별활동 강사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가 많음.
 - 집단 규모는 6~15명이 80%였고 단일연령이 많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소요 비용은 1만 7천원이었고, 부모 부담 비용은 1만 6천원임.

나. 5세의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 특별활동 운영 현황
- 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부분인 97%는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전체에서 평균 5.3개, 5세 대상으로는 3.9개를 운영함.
 - 특별활동에 희망하는 유아만 참여하는 경우가 77%, 한 학급의 유아가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89%임.
 - 기관에서 각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는 학부모 요구가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는 5세아들이 대부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흥미 있어 한다

고 인식하였지만 기타 외국어 프로그램에는 흥미 없어 한다는 응답도 29%로 높게 나타남.

□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인식

- 5세아의 91%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였고, 참여하는 경우 평균 3.4가지를 주당 4.4회, 회당 32분씩 참여함.
- 특별활동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30%였고, 납부하는 경우 월 평균 3만 8천원을 납부함.
-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자녀가 원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5세 부모들은 특별활동에 대체로 만족함.
- 5세 부모들은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비슷함.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발달 수준에 맞추어 진행(37%)되고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으며(29%)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23%)이기 때문이고,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 선택권이 적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특성

- 조사 대상 5세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프로그램 1,867가지를 분석한 결과, 체육, 음악, 영어 프로그램이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많음.
- 강사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 강사 전문성은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인 경우가 52%로 가장 많음.
- 반 규모는 16명 이상이 약 70%였고, 단일연령이 혼합연령보다 많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소요 비용은 1만 2천원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은 1만원임. 예체능보다 학습 특별활동 비용이 약 5천원 비쌌고, 영어 프로그램이 2만원으로 가장 비쌌.

6.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

가. 사례조사 대상 특성

- 반일제 이상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사례조사 대상자는 맞벌이보다는 외벌

이인 경우가 많았고, 가구소득은 300~1,00만원까지 편차가 있었음.

- 반일제 이상 학원비는 40~150만원까지 편차가 다양했는데,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이 유아체능단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쌌.

나. 학원 프로그램 사례

-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양한 과목별 시간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식, 토론식, 문제풀이식, 놀이중심 등의 방법을 사용함.

다. 면담 내용 분석

<표 1>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 면담내용 분석

주제	주요 내용
반일제 이상 학원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의 이유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꼼꼼한 관리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 -아이의 흥미를 끄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기대와 효과 -학원 유형에 따라 다른 기대 -눈에 보이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불만 -학원에 대한 정보 부족 -기준에 대한 규정 부재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 이전에 문화센터부터 시작
사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을 시키는 다양한 이유 -아이의 특성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 제공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기를 원함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에 끌려 다니지만 안 할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
사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요구 •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

7. 상담치료 사례분석

가. 상담치료 사례의 특성

- 아동이 상담을 받게 된 주 호소문제로는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미성숙이 가장 많음.
- 부모성격유형은 사고 중심적 성격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으

로는 비난형, 초이성형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통제형이 가장 많음.

- 부모-자녀 친밀도 및 부부 친밀도에서 아버지와 아동 간, 어머니와 아동 간, 부부간 친밀도 모두 친밀하지 않음이 가장 많음.
- 사교육 시작 시기는 5~6세가 가장 많았고,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동기는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이 가장 많았음.
- 애정-통제형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수의 사교육을 받고 있음.

나. 상담사례 심층분석

□ 사교육 경험에 대한 상담 내용 분석

<표 2> 모-자녀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영역 및 범주

영역	범주
자녀 기억 속의 사교육 경험	1. 너무 일찍 무언가를 배웠어요.
	2.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3.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좌절	1. 완수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2. 친구들은 너무 잘해요.
	3. 나에게 잘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4. 왜 그렇게 공부만 해야 되요?
	5. 지금 멈추면 다 망쳐요.
사교육에 집착하게 된 어머니와 길들여진 자녀	1. 아이가 원해서 시킨 거예요.
	2. 우리 아이는 특별해요.
	3.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하고 싶어요.
	4.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아이가 이뤄주길 바라요.
	5. 공부를 잘해야 사회적으로 특별할 수 있어요.
	6. 아이가 실패할까봐 불안해요.
사교육에 저항하는 자녀와 한계에 직면한 어머니	1. 친구들과의 소통이 불편해요.
	2. 가족들이 나만 보고 있어요.
	3. 사교육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4. 1등이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5.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요.

8. 정책 제언

가. 기본 방향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
- 학부모가 안심하고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경쟁보다는 협동을 권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나. 정책 방안

- 하루일과에서의 영유아의 놀 권리 및 균형 보장
- 사교육 의존 탈피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 회복
- 영유아 발달 이해 및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영유아 대상 학원의 질 관리
-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 욕구 최소화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욕구 흡수
- 장기종단 연구 수행 및 결과 공유를 통한 교육의 방향 제시
- 전반적인 교육정책 재고를 통한 사회 분위기 쇄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는, 최소한 자녀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대학을 자녀 교육의 목표로 정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다양한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은 그 대상이 점차 하향화하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까지 확대되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영유아 발달특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교육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부모의 기대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유치원 하원 후에 외부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다니지 않는 아이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고(김정원·이정아, 2002),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 수가 증가할수록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커졌다(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영아기에 사교육 경험이 있는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어린이집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정서불안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장은미, 200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 심지어 학원 원장까지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영유아들이 학습태도가 좋지 않고 집중력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이부미·이수정, 201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의 반일제 이상 학원을 비롯하여 피아노, 미술, 발레, 수영 등의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정에서 주당 1회 정도 1대1 교습을 받는 학습지, 일정 세트의 교재교구를 구입하여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방법이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을 통해 소질을 개발하고 조금 더 빨리 발달시키고 싶은 기대에서 다양한 사교육을 접하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크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현재 어린이

집의 특별활동이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일정한 기준 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지침 제공, 추천제 실시 등 운영 지원과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나라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정규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과는 별도로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사교육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부담 공교육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62.9%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91.2%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68.2%가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78.8%가 비용을 지출했다(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또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영유아의 70.5%는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2세 이하도 53.9%가 영어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유아의 74.9%가 영어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이진화 외, 2015).

정부의 사교육 정의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도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사교육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다. 정부는 사교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영유아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이 정부의 의도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맞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교육 프로그램들이 부모의 기대나 투자비용만큼 효과가 있는지, 영유아의 안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와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의 유형과 횟수 및 시간, 내용과 방법이 발달에 적합한지, 강사의 자격 및 자질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여 검토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공보육과 공교육의

범위에 있지만 사적인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 특히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반일제 놀이학원과 영어학원 및 유아체능단의 실재를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2세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인 5세를 대상으로 하루일과를 포함한 사교육 및 특별활동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하루일과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이유는 하루일과의 시간분배와 질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유아들이 학원이나 개별 가정에서 별도로 받고 있는 사교육과 개인 교습을 비롯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 수강 실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학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활동을 수강하도록 하는 이유와 기대 및 만족도 등 인식 전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운 반일제 이상 놀이학원과 영어학원 및 유아체능단에 대해서는 자녀를 그러한 기관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조사와 면담을 기초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실재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소에 찾아온 아동사례 분석을 통해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실태와 인식 분석을 기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와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사교육, 조기교육,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용어의 정의와 특성을 탐색하고 사교육 관련법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국 규모의 기존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사교육 및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영유아 대상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와 영향, 영유아의 하루일과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통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교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 각종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비용, 강사관련 사항, 학부모 기대와 만족도, 사교육 이용 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셋째,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 및 유아체능단 사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내용 및 방법, 교재 및 교구 사용, 강사 자격 및 자질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학원 이후 사교육에 대한 내용도 함께 분석하였다.

넷째,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의 상담소 사례분석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영유아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해 사교육이나 특별활동의 개수, 종류, 방법과의 관계 분석하였다.

다섯째,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통한 사교육 및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 실태 분석을 기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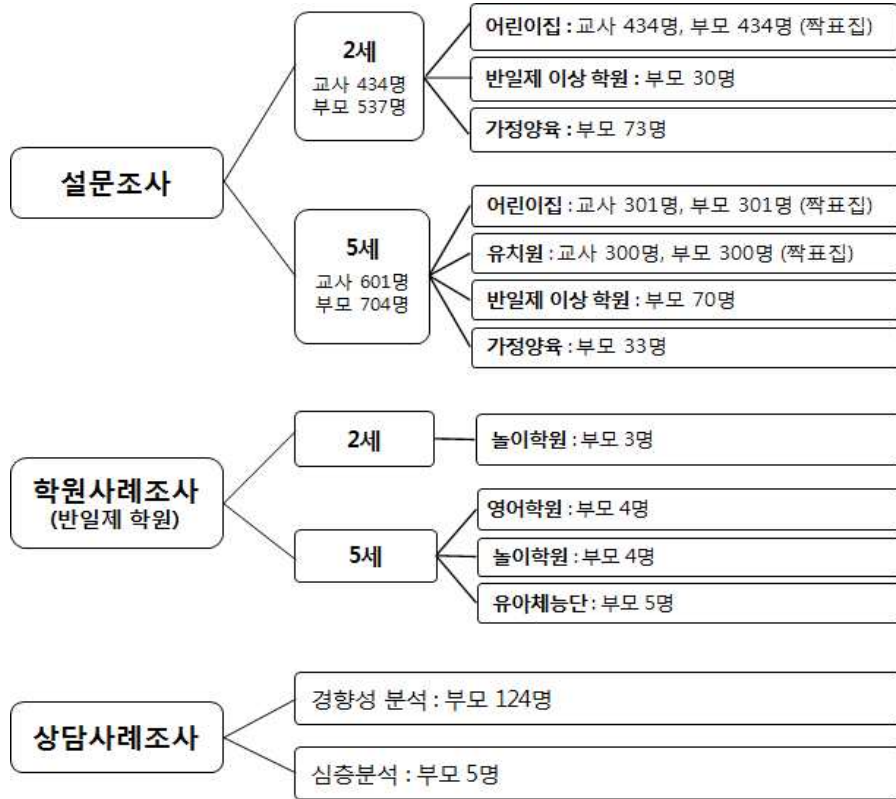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 및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교육 관련 다양한 용어 정의, 사교육 관련 법, 조기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기 사교육 영향 및 효과,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연구 등을 분석하고, 영유아 하루일과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규모의 조사인 전국보육실태조사와 한국아동패널조사의 기존 자료를 분석하여 사교육과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사교육 및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원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기사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학원사례조사, 상담사례조사의 대상 및 인원은 [그림 I-3-1]과 같다.



[그림 1-3-1] 조사연구 대상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2세 영아 400명, 5세 유아 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300명 총 1,000명의 학부모와 교사로 총 2,000명을 목표로 하였다.¹⁾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영유아 1,000명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 1,000명과 교사 1,000명이 짝이 되어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립유형과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기관표집을 먼저 하고 그 기관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원기관별 연령별 모집단과 최종 선정 기관수는 <표 I-3-1>과 같다.

1) 본 연구에서의 연령은 생활연령이 아닌 보육·교육 연령 기준임.

〈표 I-3-1〉 재원기관 및 연령별 모집단 및 표본 할당

구분		전국 원아수(명)	비율(%)	조사대상 영유아 수(기관 수)
어린이집	2세	419,252	40.0	400
	5세	147,278	30.0	300
유치원	5세	260,544	30.0	300
합계		827,074	100.00	1,000

자료: 모집단 출처는 2015년 보육통계를 참고함.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세 영아와 5세 유아 각 100명씩 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양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2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 70명,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영아 30명으로 할당하였으며, 5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하는 유아 30명,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유아 70명으로 할당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2세 부모 537명, 2세 교사 434명, 5세 부모 704명, 5세 교사 601명이었다. 대상별, 재원기관별 응답자의 특성은 <표 I-3-2> ~ <표 I-3-4>와 같다.

나) 설문조사 도구

설문지는 사교육 및 특별활동과 특성화프로그램 관련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부모대상 설문지는 자녀의 하루일과,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 현황 및 인식,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자녀의 기질,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대상 설문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해당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 해당 영유아의 행동 특성,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1차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5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수정 후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교수 4인과 원장 2인, 관련 공무원 3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3-5>와 같으며, 설문지는 부록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2〉 2세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린 이집	학원	가정 양육	구분	어린 이집	학원	가정 양육
자녀 성별				자녀와의 관계			
남아	60.1	33.3	58.9	어머니	95.4	56.7	47.9
여아	39.9	66.7	41.1	아버지	4.6	43.3	52.1
출생순위				응답자 연령			
첫째	44.5	53.3	60.3	20대	3.0	6.7	2.7
둘째	42.9	36.7	32.9	30대	87.3	90.0	84.9
셋째 이상	12.7	10.0	6.8	40대 이상	9.7	3.3	12.3
총 자녀 수				응답자 학력			
1명	18.7	36.7	38.4	고졸 이하	9.7	0.0	4.1
2명	64.4	50.0	53.4	전문대 졸업	30.8	16.7	12.3
3명 이상	16.9	13.3	8.2	대학교 졸업	47.4	63.3	64.4
맞벌이 유무				대학원 졸업 이상	12.2	20.0	19.2
맞벌이	63.6	56.7	39.7	부 직업형태			
외벌이	36.4	43.3	60.3	정규직	62.8	75.9	78.1
가족 형태				계약직	6.7	10.3	4.1
한부모가족	4.4	6.7	2.7	자영업	22.1	13.8	13.7
다문화가족	0.7	0.0	0.0	기타	8.5	0.0	4.1
해당 없음	94.9	93.3	97.3	부 주당 근무시간			
보조양육자 유무				30시간 미만	50.6	24.1	16.4
있음	33.2	56.7	31.5	30~39시간	0.0	6.9	0.0
없음	66.8	43.3	68.5	40~49시간	29.3	55.2	63.0
월평균 가구수입				50시간 이상	20.1	13.8	20.5
265만원 미만	15.2	10.0	13.7	모 직업형태*			
265~370만원	21.2	23.3	23.3	정규직	64.6	72.2	75.9
370~480만원	20.0	16.7	27.4	계약직	14.4	22.2	10.3
480만원 이상	43.5	50.0	35.6	자영업	10.8	5.6	6.9
거주지역				기타	10.1	0.0	6.9
대도시	40.6	50.0	52.1	모 주당 근무시간*			
중소도시	53.0	40.0	42.5	30시간 미만	45.3	27.8	34.5
읍·면	6.5	10.0	5.5	30~39시간	10.9	5.6	0.0
				40~49시간	34.1	61.1	58.6
				50시간 이상	9.8	5.6	6.9
총계					100.0	100.0	100.0
					(434)	(30)	(73)

주: * 해당되는 경우만 응답함.

〈표 1-3-3〉 5세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린 이집	유치 원	학원	가정 양육	구분	어린 이집	유치 원	학원	가정 양육
자녀 성별					자녀와의 관계				
남아	46.5	52.0	52.9	45.5	어머니	94.4	94.0	67.1	60.6
여아	53.5	48.0	47.1	54.5	아버지	5.6	6.0	32.9	39.4
출생순위					응답자 연령				
첫째	55.6	47.8	69.0	60.6	20대	0.3	1.7	1.4	0.0
둘째	38.2	45.3	31.4	36.4	30대	71.4	70.3	92.9	84.8
셋째 이상	6.9	6.9	0.0	3.0	40대 이상	28.2	28.0	5.7	15.2
총 자녀 수					응답자 학력				
1명	20.9	13.0	24.3	21.2	고졸 이하	15.9	12.3	4.3	6.1
2명	57.1	61.5	71.4	69.7	전문대 졸업	29.8	25.2	8.6	21.2
3명 이상	21.9	25.6	4.3	9.1	대학교 졸업	47.0	48.8	65.7	54.5
맞벌이 유무					대학원 졸업 이상	7.3	13.6	21.4	18.2
맞벌이	63.8	57.3	47.1	42.4	부 직업형태 ¹⁾				
외벌이	36.2	42.7	52.9	57.6	정규직	64.7	63.2	80.0	84.8
가족 형태					계약직	2.0	7.1	5.7	3.0
한부모가족	1.0	1.3	4.3	12.1	자영업	25.0	22.6	11.4	12.1
다문화가정	2.7	1.7	0.0	3.0	기타	8.3	7.1	2.9	0.0
해당 없음	96.3	97.0	95.7	84.8	부 주당 근무시간*				
보조양육자 유무					30시간 미만	36.0	46.3	37.1	21.2
있음	31.6	24.7	30.0	24.2	30~39시간	4.7	0.3	0.0	0.0
없음	68.4	75.3	70.0	75.8	40~49시간	31.7	27.7	30.0	51.5
월평균 가구수입					50시간 이상	27.7	25.7	32.9	27.3
265만원 미만	20.3	10.4	7.1	6.1	모 직업형태*				
265~370만원	18.3	26.1	20.0	27.3	정규직	62.7	61.9	63.6	50.0
370~480만원	26.6	22.4	25.7	36.4	계약직	18.7	14.8	12.1	21.4
480만원 이상	34.9	41.1	47.1	30.3	자영업	10.4	14.2	9.1	14.3
거주지역					기타	8.3	9.1	15.2	14.3
대도시	37.9	31.0	58.6	30.3	모 주당 근무시간*				
중소도시	54.2	52.7	38.6	60.6	30시간 미만	34.2	46.6	57.6	28.6
읍·면	8.0	16.3	2.9	9.1	30~39시간	19.2	4.0	0.0	7.1
					40~49시간	38.3	38.6	42.4	57.1
					50시간 이상	8.3	10.8	0.0	7.1
계						100.0	100.0	100.0	100.0
						(301)	(300)	(70)	(33)

주: * 해당되는 경우만 응답함.

〈표 1-3-4〉 교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2세 어린 이집	5세 어린 이집	5세 유치원	구분	2세 어린이 집	5세 어린 이집	5세 유치원
설립유형				성별			
국공립	19.6	28.6	63.0	남	0.0	1.0	0.3
민간·가정/사립	56.2	34.9	37.0	여	100.0	99.0	99.7
법인·직장	24.2	36.5	0.0	연령			
기관 원아 수				20대	20.3	34.2	25.3
20명 미만	30.9	8.6	22.0	30대	35.5	40.2	36.7
20~49명	38.5	23.6	29.7	40대 이상	44.2	25.6	38.0
50~99명	23.0	50.2	22.3	교육경력			
100명 이상	7.6	17.6	26.0	3년 미만	15.7	8.3	9.7
(유)방과후과정 원아 수				3~9년	45.2	56.8	32.0
20명 미만	-	-	25.3	10~19년	35.5	30.2	33.0
20~49명	-	-	37.0	20년 이상	3.7	4.7	25.3
50~99명	-	-	24.0	학력			
100명 이상	-	-	13.7	고졸 이하	7.4	4.7	0.0
담당 연령구성				전문대 졸업	47.0	49.8	21.0
단일연령	87.6	64.8	71.7	대학교 졸업	40.3	40.9	46.0
혼합연령	12.4	35.2	28.3	대학원 졸업 이상	5.3	4.7	33.0
계					100.0 (434)	100.0 (301)	100.0 (300)

다) 설문조사 절차

설문지는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웹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을 3배수로 표집하여 표집된 기관에 설문조사 협조요청 전화를 하여 허락을 받았다. 설문조사를 수락한 기관에 설문조사 참여 협조에 대한 공문 발송과 함께 설문조사 웹주소를 배포하였다. 조사대상의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세·5세 담임교사 중 생월일이 가장 빠른 교사를 선정한 후에 해당 교사가 담당하는 반의 출석부 순서상 가운데 위치한 영유아 부모를 표집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학부모의 경우는 조사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이메일로 조사 안내를 한 후 연구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전체 설문조사는 8월 23일~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표 1-3-5〉 설문지의 구성

구분	설문 내용	설문대상				
		부모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가정 양육		
조사 대상 자 및 배경 특성	소속 기관	지역, 설립유형, 학급 수, 원아 수, 방과후과정 학급구성 형태 및 원아수(유치원)				○
	개인	성별, 연령, 학력	○	○	○	○
		경력, 전공				○
	가족	맞벌이 유무, 직업형태 및 근로시간, 월평균 가구 수입, 가족 형태, 보조양육자 유무, 거주지역	○	○	○	
자녀	성별, 연령, 형제순위	○	○	○		
자녀의 하루일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하루일과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		○	○		
어린이집·유 치원의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 램 현황 및 인식	해당 아동의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여부, 요일별 개수 및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유형, 강사, 집단구성, 교재·교구, 비용, 선택경로, 해당아동의 흥미 정도, 예체능 영역과 학습 영역 활동의 발달적합성					○
	자녀의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가짓수, 비용, 참여 이유, 만족도, 사교육 대치 가능 여부 및 이유	○				
반일제 이상 학원 현황 및 인식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이유		○			
	수강료, 교재비		○			
	정규 프로그램에 만족도		○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유형별 가짓수, 참여 방식, 참여 이유, 만족도		○			
사교육 현황 및 인식	사교육 참여 여부, 요일별 개수 및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유형, 장소, 이동수단, 강사, 집단구성, 교재·교구, 비용, 선택경로, 기대, 자녀 흥미·몰입도, 만족도	○	○	○		
	사교육 정도에 대한 인식, 사교육 선택 기준,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이유, 사교육 시작 시기 및 유형, 비용 지출 의향	○	○	○		
부모와 자녀의 행동 특성	해당 아동의 행동 특성					○
	자녀의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	○	○		
사교육 관련 인식 및 요구	바람직한 시작시기에 대한 인식, 사교육 연구결과에 대한 생각	○	○	○		○
	사교육 정책 인식, 사교육에 대한 자유 기술	○	○	○		○

라) 설문조사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소속기관과 개인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 검증, t 검증,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토빗(tobit) 분석을, 영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2) 학원사례조사

가) 학원사례조사 대상

사례조사 대상은 놀이학교에 다니는 2세와 5세 영유아, 영어학원이나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5세 유아이다. 조사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선문을 통해 자녀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2세와 5세 학부모를 섭외하였다. 최종 사례조사 대상은 놀이학교에 다니는 2세 영아 학부모 3명, 5세 유아 학부모 4명, 영어학원에 다니는 5세 유아 학부모 4명,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유아 학부모 5명으로 총 16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체적인 배경은 <표 I-3-6>과 같다.

나) 학원사례조사 도구

사례조사는 사전 설문조사와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설문조사는 자녀 및 가족 배경 특성과 함께 반일제 이상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녀의 하루 일과, 자녀의 행동 특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내용이다. 면담 질문은 자녀 특성, 개인 및 가족 특성, 자녀의 하루일과, 반일제 이상 학원 교육, 학원 이외의 사교육, 사교육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다) 학원사례조사 절차

조사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 조사 참여대상을 섭외하였다. 섭외된 대상에게 사전에 설문조사지를 발송하여 수거하였다. 기관과 연령별로 4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조사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표 1-3-6〉 사례조사 대상자 배경

학원/연령	면담일	구분	월 가구 수입	맞벌이 여부	자녀 성별	월비용*	이전 기관
영어학원 5세반	16. 9. 6.	A1	1000만원	외벌이(부)	남	110 (30)	사립유치원
		A2	1000만원	맞벌이	여	100 (30)	사립유치원
		A3	480만원	외벌이(부)	쌍둥이 (여)	115 (35)	(5세)유치원 (6세)어학원
		A4	1000만원	외벌이(부)	여	150 (50)	(5세)다른 영어학원
놀이학원 2세반	16. 9. 7.	B1	450만원	외벌이(부)	여	100	-
		B2	700만원	맞벌이	남	100	-
		B3	900만원	외벌이(부)	여	105 (10)	-
놀이학원 5세반	16. 9. 8.	C1	350만원	외벌이(부)	남	(30)	(3,4세)어린이집 (5,6세)유치원
		C2	1000만원	외벌이(부)	여	87(+방과 후 10~15) (50)	-
		C3	300~400 만원	외벌이(부)	남	60 (12)	(3세)가정어린이 집→유치원
		C4	400만원	외벌이(부)	남	47 (5)	가정어린이집
유아 체능단 5세반	16. 9. 9.	D1	370~400 만원	맞벌이	여	60 (15)	(~4세)어린이집
		D2	400만원	맞벌이	남	40 (25)	(1~5세)어린이집
		D3	500만원	외벌이(부)	남	56 (15)	(3,4세)어린이집
		D4	300만원	외벌이(부)	여	60 (10)	(~4세)어린이집 (5)유치원
		D5	400만원	외벌이(부)	남	57 (20)	(5세)유치원

주: * 월비용은 반일제 학원비용이며, 괄호 안은 반일제 학원 이외의 사교육비용임.

라) 학원사례조사 분석

학원과 연령별로 사례결과를 정리하였다. 우선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의 배경, 자녀를 보내는 학원의 특징 및 프로그램을 요약·정리하였다. 그 다음 면담조사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주요내용을 하이라이터로 표시하였다. 핵심단어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3) 상담사례조사

가) 상담사례조사 대상

조기사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소의 기존 상담 영유아 사례 중 조기 사교육과 관련된 상담 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경향성 분석을 위해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담자 50명 중 본 조사에 동의한 42명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하였다. 각 상담자가 사교육과 관련되어 상담을 온 사례라고 응답한 분석 대상 수는 부모-자녀 124쌍이다. 사례조사 대상자의 구체적인 배경은 <표 I-3-7>과 같다.²⁾

심층사례분석 대상은 서울과 경기 소재 상담센터에서 조기에 시작된 사교육으로 인한 정서, 사회, 행동문제를 보이는 상담사례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내담아동과 어머니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이다. 첫째, 만 4세에서 만 12세에 해당하는 내담아동 및 어머니, 둘째, 심리상담기관에 의뢰되어 아동 전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상담사례, 셋째, 내담아동이나 어머니로부터 사교육과 관련된 주 호소가 있는 사례, 넷째 사교육의 시작 시기가 취학 전 시기인 사례, 다섯째 사교육 스트레스로 인해 내재화 또는 외현화의 정서, 사회, 행동문제가 발현된 사례, 여섯째 보호자의 서면 연구동의서가 제출된 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내담아동 5명과 어머니 5명으로 총 10명이다. 심층사례분석에 포함된 각 사례들의 치료 기간은 32회기(8개월) 이상 상담을 받았고 내담아동과 주 1회씩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45~50분간 상담하였으며, 아동상담이 끝난 후 부모상담이 매회 15분간 이루어졌던 사례이다. 심층사례분석 대상의 구체적인 배경은 <표 I-3-8>과 같다.

2) 상담소 사례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이유는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 시기의 사교육을 조사하는 것은 아님.

〈표 1-3-7〉 상담사례조사 경향성 분석 대상자 배경

구분			명(%)	구분			명(%)
아동연령	3~5세		5(4.0)	가족형태	양부모가족	114(91.9)	
	6~7세		27(21.8)		한부모가족	10(8.0)	
	8~9세		25(20.2)				
	10~11세		49(39.5)				
	12~13세		17(13.7)				
아버지 연령	30~34세		2(1.6)	어머니 연령	30~34세	3(2.4)	
	35~39세		29(23.4)		35~39세	52(41.9)	
	40~44세		58(46.8)		40~44세	47(37.9)	
	45~49세		31(25.0)		45~49세	17(13.7)	
	50~60세		3(2.4)		50~60세	4(3.2)	
아버지 학력	고졸		9(7.3)	어머니 학력	고졸	15(12.1)	
	대졸		75(60.5)		대졸	79(63.7)	
	석사		25(20.2)		석사	25(20.2)	
	박사		5(4.0)		박사	-	
	기타		2(1.6)		기타	-	

주: 결측값(무응답)으로 인해 전체(N)수가 다름

〈표 1-3-8〉 상담사례조사 심층분석 대상자 배경

사 례	어머니			아 동				
	나이	직업	학력	나이	학년	출생 순위	성별	사교육 종류
A	45	주부	대졸	10	4 학년	첫째	여	-취학 전: 원어민 영어회화, 학습지, 수학, 한문 등 -취학 후: 영재교육, 영어학원, 수학학원, 수영, 농구, 인터넷강의
B	42	비서 실장	대졸	11	5 학년	외동	여	-취학 전: 영재교육, 영어, 수학, 수영, 악기 등 -취학 후: 영재교육, 영어학원, 수학학원, 수영, 노래 부르기, 악기, 논술, 학습지3개
C	43	컨설 팅	석사	11	5 학년	첫째	여	-취학 전: 문화센터(미술, 영어노래), 피아노, 영어유치원, 학습지, 발레 등 -취학 후: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수학학원, 학습지, 수영, 손글씨아트, 플루트, 발레, 하모니카
D	37	개인 사업	고졸	6	유치 원	둘째	남	-영어유치원, 검도학원, 수학영재교육, 플루트, 학습지(한글, 수학, 영어, 중국어)
E	35	주부	대졸	6	유치 원	둘째	남	-놀이학교, 중국어, 발레, 숲교육, 태권도, 미술, 놀이학습, 학습지(한글)

나) 상담사례조사 내용 및 자료수집 절차

경향성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내용은 아동이 상담을 받게 된 주 호소 문제, 내담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 부모성격유형, 부모자녀관계, 사교육의 종류와 수, 사교육 시작시기 등이다. 경향성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를 접촉하여 본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본 조사에 동의한 42명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심층상담사례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작성한 접수상담 내용과 심리치료 기록, 부모 면담 기록, 심리검사 결과기록, 내담아동 및 부모의 동의를 얻고 녹음한 상담 내용 축어록을 수집하였다. 아동상담 내용 중 내담아동이 했던 말, 비언어적 특징, 놀이의 내용, 놀이의 주제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을 기록하여 수집하였고, 분석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내담아동과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아동의 놀이장면이나 모래놀이치료 사진도 모두 수집하여 분석의 도움자료로 사용했다. 연구자와 내담아동, 어머니는 상담을 통해 사교육과 관련된 과거의 문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을 노출하고 이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아동과 어머니의 삶의 여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의 장소, 시간, 사건과 줄거리에 속으로 들어가서 삼차원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다) 상담사례조사 분석방법

상담사례를 통한 경향성 분석은 SPSS 20.0(Window용)을 사용하여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내용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경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심층사례분석은 사교육에 관련된 아동의 경험 및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을 이해하여 사교육이 아동의 정서·사회·행동적인 문제측면, 부모-자녀 관계측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했다. 각각의 독립적인 사례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더 넓은 일반화를 위해 (Yin, 2009) 각각의 개별적 사례들이 보여준 사교육과 관련한 이야기, 경험, 주관적 의미 등에서 사례 간의 중요한 일치점을 찾는 Stake(1995)의 집합적

(collective) 사례연구를 적용했다. 이 방법은 사례에서 나타난 행위를 배열하고 특성을 범주화한 다음 직관적인 합산으로 분류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각 경험들을 범주들로 분류하면서 그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시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논의를 통해 그 경험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검토와 동료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질을 검증하였다. 연구 참여자 검토는 연구의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보내어 내용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연구 참여자의 답변을 정리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개별 사례들을 각자 분석한 뒤 연구자들 간의 분석 차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반복 작업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7개월에 걸쳐 참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답변의 일관성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과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상담 및 심층면담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기록물을 비교, 분석하면서 자료들 간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사례는 교수 이상의 전문가 집단인 슈퍼바이저로부터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받았다.

다.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검토, 사교육의 용어 정의, 사교육 실태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 설문지 수정을 위한 서면 자문, 부처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4.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2세와 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유치원의 방과 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다. 2세와 5세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세의 경우 영아기에서 유아기

로 넘어가면서 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며, 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기 직전의 단계로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학습 분야의 사교육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 실태와 함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는 이유는 사교육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이후에 일정 부분 사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실태를 사교육과 비교함으로써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함이다.

나. 용어의 정의³⁾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은 사부담 혹은 무상 공교육의 범주로 구분하고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장소에서 각 가정에서 선택하여 사부담 혹은 정부 지원으로 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체능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활동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영유아 발달이나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기초한 음악, 미술, 체육, 수, 과학, 언어 관련 분야별 혹은 통합 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에서 교육과정(누리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유아 발달이나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기초한 음악, 미술, 체육, 수, 과학, 언어 관련 분야별 혹은 통합 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교육부가 정의하는 사교육의 범위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제외한 것으로 '사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제외해야 하나, 영유아의 하루일과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사교육과 함께 사적비용이 드는 공보육과 공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사교육의 특성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함.

3) 사교육

각 가정에서 자녀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사부담으로 선택하는 활동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의 장소에서 개인 및 그룹교습으로 시간제 혹은 반일제로 이루어지는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활동과 수, 과학, 언어 등의 학습활동과 함께 학습지와 온라인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II. 연구의 배경

1.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2년으로,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⁴⁾ 사교육의 정의나 사교육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한 논의는 영유아가 아닌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교육(私敎育)을 ‘사립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⁵⁾ 김시월(1999)은 사교육비를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는 공교육비를 제외한 학교 교과목 관련 과외비, 학원비, 예체능·교양을 위한 과외, 학습지, 참고서 문구류 등”(p. 103)으로 파악하였고, 김홍주 등(1999, 김지경, 2004 재인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즉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총칭하는 개념”(p. 69)으로 사교육비를 정의하고 학교 재학을 위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교육경비를 일반사교육비로, 개인의 추가 학습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경비를 과외사교육비로 구분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2006년까지 부정기적으로 사교육비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대상과 사교육비의 정의 등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2007년부터는 매년 통계청에서 일관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망의 과외비”(p. 1)로 측정하는 한편,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는 사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사교육을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것⁶⁾으로 정의한다면,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은 사교육이 아니라 사적비용을 부담하는 공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무상 공보육을 수행하고 있

4)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5)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6)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교육의 대상 연령이 영유아기까지 내려오면서 1990년대에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 2011), 아직 영유아 사교육에 대하여 합의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서문희·양미선, 2013).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는데, 사교육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서는 영유아 사교육의 하위범주로서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를 '민간학원 및 사교육'으로, 친인척 돌봄, 이웃이나 아이돌보미, 문화센터를 '기타 사교육 및 돌봄'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지경(2004)은 미취학 영유아의 사교육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p. 70)로, 이정선과 김주후(2010), 이정원(2009), 한유미(2010)도 유사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비용이 드는 교육으로 개념화하였다. 하지만 강이주(2007), 서문희와 양미선(2013), 송정 외(2011) 등은 사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으로 개념화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까지 포함하였다.

한편, 이광현과 권용재(2015)는 유아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육비와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는데, 원론적 사교육비는 "학교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학원비, 개인과외비, 학습지 등)"(p. 86)를 의미하며, 협의의 사교육비는 원론적 사교육비에 학교 내 보충수업, 방과후과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을 포함하고, 광의의 사교육비는 협의의 사교육비에 기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수학여행, 현장학습, 급간식, 행사 비용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II-1-1>과 같다. 사교육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사교육비의 정의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사교육의 정의로 간주하였으며, 사교육 이외에 조기교육, 특기교육, 조기사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광현과 권용재(2015)가 원론적 사교육비라고 정의한 '학교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서 사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교습'으로 사교육을 정의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은 사비용 공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교육과 사비용 공교육을 포함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표 II-1-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

선행연구	개념	유형	특별활동 포함 여부
김지경 (2004)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개인·그룹과의, 학습지, 방과후교실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p. 70)		
우남희외 (2005)	조기사교육: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하여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 교육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 자극(p. 6)		
이정원 (2009)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에 의한 비용 지원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 모든 형태의 사적비용이 드는 교육(p. 36)	학원, 학습지, 교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지도,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p. 36)	×
이경선·김주후(2010)	학원, 개인·그룹과의, 학습지(온라인학습지 포함)(p. 24)		
한유미 (2010)	어린이집 외에 가정방문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등(p. 84)		
정익중 (2012)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학원, 개인 또는 그룹과의, 학습지(p. 262)		
서문희·양미선(201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기(별)활동, 각종 학원, 방문학습지, 개인·그룹 과외비, 인터넷교육, 전화교육 등 기타 교육(p. 191-192)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윤(2010)	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교육활동(특별활동)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p. 25)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학원, 개별교육(학습지, 문화·주민센터 교육, 과외 등), 기타 교육(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문화생활 등)(p. 26)	○
송정외(2011)	정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보육·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교육(p. 36-37)	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활동, 사설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및 방문과외, 문화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램 등(P. 37)	
이광현·권용재(2015)	1) 원론적 사교육비: 학교 밖의 사설 교육기관에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학원비, 개인과외비, 학습지 등) 2) 협의의 사교육비: 원론적 사교육비+학교 내 보충수업, 방과후과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반 납부금 3) 광의의 사교육비: 협의의 사교육비+기본적(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수학여행, 현장학습, 급간식, 행사 비용 등) (P. 86. 표 1)		범주화

선행연구	개념	유형	특별활동 포함 여부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a)	유아 조기·특기교육: '적기교육'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무관하게 주로 초등학교나 그 이후 교육에 대비한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P. 154)	학원, 개인·소집단 과외, 가정 학습지, 가정방문교육, 유치원 특별활동 등(p. 154)	다른 용어 사용
이명순 (2007)	유아조기교육: 0-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흥미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P. 162)	가정 방문 학습지, 각종 학원, 국가적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에 준하지 않는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P. 162)	
백혜정 외(2005)	조기사교육: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 교육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 자극(p. 25)		명시하지 않음

출처: 저자에 따른 본문의 참고문헌(p. 308~312) 참조

2. 사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가. 사교육 관련 법령

사교육 관련법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자치법규로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의2에 의하면 학원의 종류는 학과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는데, 이 중 전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포함한다. 교습소 설립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제이며, 제15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군·구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제7조에 의하면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에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규정하여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금하고 있다.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에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28조의2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 1항에서는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사교육 관련법은 대체로 초·중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교습과정과 교수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많지는 않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등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교직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밤늦도록 사교육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습시간을 규정하는 등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나. 사교육 관련 정책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을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 관련 정책,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지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사교육 경감 정책

저출산 현상의 주범으로 양육비 부담,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가 지적되는 등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막고자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교육,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비롯한 사교육 관련 각종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매년 전국적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보완한다.

가) 사교육 관련 주요 정책 변화

교육부는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는데, 최근의 주요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면 <표 II-2-1>과 같다. 2009년에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12-29). 2011년에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내 놓았는데, 교실 환경을 변화하고, 사교육이 가장 활발한 영어·수학 공교육과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05-18).

‘선행학습 금지법’이라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4대 핵심전략, 9대 중점과제가 공표되어 추진 중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12-18). 여기에서는 특히,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고,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를 검토기로 했다.

<표 II-2-1> 교육부의 사교육 관련 주요 정책 변화

정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2009. 7.)	1)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 2) 유관기관 공조체계 운영 3) 불법 고액 개인과의 단속 강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2011. 5.)	1)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직업교육 강화 - 공교육 중심의 입시제도 구축 - 교육기부, 학부모 참여 활성화
	2)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 실용영어 중심 학교 영어 공교육 정책 추진 - 수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개선
	3)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육성·활용 - 방과후학교 민간 참여 활성화 - 방과후학교 행정지원체제 정비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4)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 구축	- 추진 중인 대책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추어 보완·정비 - 학교현장 차근에 주력

정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 12.)	핵심전략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중점과제①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 노력 지속 중점과제② 수학 학습내용 적정화, 수능 준비 부담 완화
	핵심전략 2)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중점과제③ (초등)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중점과제④ (중등)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지 원,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에 맞게 고 입전형 출제 중점과제⑤ (고교) 대입부담 지속적 완화
	핵심전략 3) 법·제도 인프라 구축	중점과제⑥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 토 근절 중점과제⑦ 방과후학교 참여율·만족도 제고
	핵심전략 4)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중점과제⑧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도모 중점과제⑨ 학부모 등 사회 인식 개선 노력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12-29). '신고포상금제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성과 및 2010년 지속추진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05-18).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4-12-18).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나) 사교육비 조사

교육부와 통계청은 2007년부터 연 2회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교육비를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로 측정하고,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는 별도로 조사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교육비 조사의 주요 결과는 <표 II-2-2>와 같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7조8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이며,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감소하나 예체능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체육과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교육부, 2016-02-26). 하지만 지역별, 소득계층별 격차가 크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고려했을 때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사교육 절감 효과가 실제로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조세일보, 2016-02-26). 또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병행하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사교육 의식조사'의 공개 범위를 2010년부터 축소하고, 2015년에는 조사를 전면 중단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경향신문, 2016-06-06).

〈표 II-2-2〉 사교육비 조사의 주요 결과 추이(2007~2015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교육비 총 규모 (조원)	20.0	20.9	21.6	20.9	20.1	19.0	18.6	18.2	17.8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24.9	24.8	25.0	24.0	23.1	21.6	21.0	20.7	20.4
가처분 소득 대비 1인당 사교육비 비중 (%)	8.4	8.4	8.6	8.1	7.7	7.1	7.1	6.9	6.8 (3/4분기)
사교육 참여율 (%)	77.0	75.1	75.0	73.6	71.7	69.4	68.8	68.6	68.8
사교육 참여시간 (시간)	7.8	7.6	7.4	7.0	6.6	6.0	5.9	5.8	5.7
사교육비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	89.024	94.131	96.984	100.0	103.9	109.28	113.88	116.82	119.83
방과후학교(유+무 상) 참여율 (%)	-	45.1	51.3	55.6	56.6	57.6	60.2	59.3	57.2

주: * 초등·중·고등학생 학원비, 음악학원비, 미술학원비, 운동학원비, 이터닝 이용료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6-02-26).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초등 방과후과정 활성화 방안 마련,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학원 지도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평가에 방과후 활성화, 학원 점검 등의 노력을 확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02-26). 2015년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동안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되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근 교육부는 중고등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는 최초의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뉴스1, 2016-6-25).

그 동안의 사교육 조사는 초중등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취학 전 유아들의 사교육 규모도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유아들의 사교육도 통계청 조사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 정책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닌 사설 학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반일제 이상의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학원들이 미술, 태권도 등의 예체능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명 ‘영어유치원’이 성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놀이 중심의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명 ‘놀이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유아체능단’ 등도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체하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부모들이 이러한 기관과 유치원·어린이집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이 야기되자, 2012년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닐 경우 ‘유치원’,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⁷⁾ 하지만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은 그 수와 이용 아동 수가 3년째 증가추세에 있고,⁸⁾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놀이학원과 유아체능단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기관들은 ‘학원’⁹⁾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인가절차 없이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하고(제6조) 운영자 변경도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E-2 비자를 지닌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교육부, 2014), ‘학원’의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등(학원법 제13조의2) 같은 연령대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

7)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본조신설 2012.3.21.),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5조(과태료) 1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65조(학교 등의 폐쇄)2항, 전문개정 2012.3.21.),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벌칙)2항, 개정 2016.5.29.).

8) 유아가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영어학원의 수와 현원 수는 2013년 311개, 15,487명, 2014년 327개, 17,397명, 2015년 339개, 20,309명임(강은희 의원실 제출 교육부 내부자료, 김지하 외, 2015 재인용).

9)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일반적으로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집에 비해 낮거나 미미한 인력, 시설, 비용, 교육내용 기준 하에 운영된다.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들은 다른 사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안감, 경쟁심을 조성하고 고급화전략을 내세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아발달에 맞지 않는 분절적 일과 운영, 아동중심이 아닌 활동, 과도한 교육적 자극 등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일제 학원 외에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 교구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취학 전 유아는 교육부의 사교육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렵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3)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침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정규과정 시간에도 특별활동을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지침을 <표 II-2-3>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 모두 오후 시간대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수납 한도액과 관련규정 위반 시의 벌칙 조항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지침

어린이집에서는 특기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 다양한 용어로 보육과정 외에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20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다. 각 어린이집은 매년 초에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영유아에 한해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운영한다(보건복지부, 2016).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보건복지부, 2016), 영어, 수학, 한글 등 학습 위주의 활동보다는 음악, 체육, 미술, 통합 활동 등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특별활동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매년 지정·고시하는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

을 따른다. 서울시의 경우 이전의 구 단위로 편차가 컸던 특별활동비 상한액¹⁰⁾을 2015년부터 통일하여 2016년 기준 정부지원시설(서울형 포함) 월 5만원, 정부미지원시설 월 8만원으로 운영 중이다(서울특별시, 2016).

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침

많은 유치원에서 정규교육과정 혹은 방과후에 특별활동이라는 명칭 하에 다양한 특기교육 혹은 준비학습 위주의 교육이 내용, 교수방법, 강사 자격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성행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4월 「종일제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특별활동을 ‘종일제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면서 일정 부분 허용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질 관리방안을 도입했다(김은영·이윤진·강수경·박수연·차기주, 2010; 김은영·장명림·김시내·심재연, 2010; 김은영·장명림·심재연, 2012; 김은영·장명림·심재연·황미영, 201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고, ‘종일제 특성화프로그램 추천제’를 실시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언어, 문화 예술, 과학창의, 생활체육의 4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심사 후 추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김은영 외, 2010).

이후 2012년에는 ‘종일제’ 용어가 ‘방과후과정’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현재 유치원의 일과는 ‘아침돌봄교실 - 교육과정 - 방과후과정 - 저녁돌봄교실’로 구성된다(교육부, 2014).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①교육과정의 심화·확장, ②돌봄, ③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등으로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특성화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휴식, 안전, 영양 및 건강, 바깥놀이, 확장·심화 활동을 포함한 돌봄 위주의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교육부,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의 경감 효과가 반감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별활동과 동일 개념으로 받아들여 혼란이 초래되면서, 정부는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운영 형태와 방법 등이 유아 발달에 적합하도록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연초에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10) 2014년 기준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최저·최고액은 국공립 성동구 5만원, 서초구 17만원, 민간 가정 중랑구 8만원, 강남구 19만원임(보건복지부, 2014).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방과후과정 운영비로 방과후 학급당 5,000천원을 지급하고,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에게 1인당 15,450천원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연2회 방과후과정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경기도교육청, 2016). 강원도의 경우 공립·사립유치원에 방과후과정 급당 2,000천원을 지원한다(강원도교육청, 2016). 이러한 지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표 II-2-3〉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침

구분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정의	- 국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에 유아발달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기초한 음악, 미술, 체육, 화학, 언어 관련 분야별 활동 프로그램	-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인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대상	-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	- 참여를 희망하는 24개월 이상 영유아(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으면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 가능)
운영 시간	-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에서만 실시 -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 낮12시~오후6시
프로그램	- 교육부 개발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 프로그램 우선사용 권고 - 이외의 프로그램은 추천제 평가지표에 의한 자율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예체능, 언어, 창의 등의 분야
강사 요건	- 예·체능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직교사 및 방과후과정 강사 - 외국인 체류자격 중 회화지도(E-2) 자격자 근무 불가	- 건강검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비용	-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내에서 운영, 수익자 부담 최소화 적정 비용 산정	- 각 지자체에서 매년 상한액 지정·고시(교재교구비 포함)
관리	- 방과후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유치원 자체 점검,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 과목명, 대상 연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공개 - 관련규정 위반시 운영정지 15일~3개월

자료: 교육부(2014).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안).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사업안내. p.8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6.3.30., 일부개정] 제30조의2, 별표 9.

3. 영유아 사교육 현황

영유아의 사교육 현황에 관한 전수 자료 혹은 행정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는 응답 대상 및 설문 구성, 표집 방식 등이 각기 달라서 연구결과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보다 공신력이 있다고 사료되는 국가승인통계 자료인 전국보육실태조사(2015)의 결과와 전국 규모의 조사인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기초한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전국보육실태조사

전국보육실태조사는 크게 기관 조사와 가구 조사로 구분되는데, 기관 조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학교, 특별활동 실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가구 조사를 통해서도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개인 교습,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등 전반적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가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사교육으로 보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현황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육·교육기관 이용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보육·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97.7%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닌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1 참조).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률은 2세부터 5세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세(취학 1년 전)에서 2.9%로 나타나 영유아 평균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인 1.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1〉 보육·교육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5.8	31.9	1.4	0.9	100.0 (2,535)	
영유아구분						
영아	98.4	0.6	0.5	0.5	100.0 (1,032)	779.1(3)***
유아	46.7	50.2	1.9	1.1	100.0 (1,503)	
보육연령						
0세	100.0	-	-	-	100.0 (121)	918.8(15)***
1세	99.4	-	-	0.5	100.0 (372)	
2세	97.4	1.1	1.0	0.5	100.0 (539)	
3세	63.3	33.3	1.2	2.2	100.0 (505)	
4세	41.7	56.1	1.7	0.5	100.0 (535)	
5세	35.2	61.3	2.9	0.7	100.0 (463)	

주: 1)현재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함.

2)기타 기관에는 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주민센터, 시간제 보육기관 등이 속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22 <표 V-2-1>에서 부분 발췌함.

2)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¹⁾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수는 평균 2.4개였으며, 특별활동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빈값은 3개로 19.5%를 차지했다(표 II-3-2 참조). 다음으로 2개의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13.2%, 4개 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0개의 특별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0.3%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30.7%였으며, 영아 대상으로는 41.3%가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유아 대상으로는 24.5%가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표 II-3-3>를 보면, 특별활동 종류별로는 체육과 영어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용기관별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체육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0.3%, 영어 45.4%, 음악 37.1%, 미술 36.8% 순이었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영어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아 46.9%, 체육 46.2%, 미술 43.6%, 음악 38.3% 순이었다.

1)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특별활동으로 통칭하고 있음.

〈표 II-3-2〉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수)	평균
전체	30.7	7.9	13.2	19.5	13.0	7.1	4.0	2.4	1.4	0.7	0.3	100.0 (2,535)	2.4
영유아구분													
영아	41.3	7.7	13.3	20.5	9.8	5.1	1.1	1.0	0.1	0.0	0.0	100.0 (1,032)	1.8
유아	24.5	8.0	13.1	18.9	14.8	8.2	5.7	3.2	2.0	1.1	0.5	100.0 (1,503)	2.8
$\chi^2(df)$													161.8(10) ^{***}
보육연령													
0세	95.1	3.7	1.2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21)	0.1
1세	53.4	11.1	13.5	12.2	6.7	2.6	0.5	0.0	0.0	0.0	0.0	100.0 (372)	1.2
2세	25.4	5.9	14.8	29.3	13.2	7.7	1.6	2.0	0.2	0.0	0.0	100.0 (539)	2.4
3세	20.9	7.5	13.9	22.1	14.4	8.3	8.1	3.1	0.8	0.5	0.3	100.0 (505)	2.9
4세	24.7	6.3	12.9	18.5	16.0	9.3	4.3	3.4	2.7	1.5	0.3	100.0 (535)	2.9
5세	27.9	10.0	12.6	16.2	14.1	7.0	4.6	2.9	2.6	1.3	0.9	100.0 (463)	2.6
$\chi^2(df)$													461.5(50) ^{***}

*** p < .001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42 <표 V-7-1>에서 부분 발췌함.

〈표 II-3-3〉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이용 비율	의무 이용 비율	이용 비율	의무 이용 비율	이용 비율	의무 이용 비율
미술	36.8	55.3	43.6	52.0	12.9	37.2
음악	37.1	57.7	38.3	61.8	12.1	39.7
체육	50.3	55.1	46.2	59.0	13.0	30.3
과학	5.4	49.8	18.4	57.1	9.9	39.7
수학	8.3	67.5	11.7	57.6	14.9	69.8
한글	14.0	61.7	16.4	64.9	23.7	20.2
컴퓨터	0.4	90.6	0.6	83.0	-	-
교구	25.8	57.0	22.8	58.3	4.2	69.9
한자	2.2	60.3	3.8	70.6	6.1	49.0
영어	45.4	53.4	46.9	52.6	12.4	55.8
외국어	0.5	15.3	1.6	85.7	-	-
기타	5.7	39.3	9.1	26.3	3.5	-
(전체 수)	(1,745)	(1,207)	(749)	(576)	(23)	(9)

주: 실시 비율은 각 기관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의무비율은 각 기관 이용자 중 12개 특별활동 가운데 1개 이상 이용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439 <부표 V-7-1>

이는 유치원 이용 대상인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아에 비해 영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은 영어를 제외하고는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어 특별활동 비중이 1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영어를 주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50~60% 전후의 수치를 보이는데, 컴퓨터, 외국어와 같이 참여 비율이 낮은 과목일수록 의무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학부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체육이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영어 25.6%, 미술 13.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¹²⁾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값으로, 대부분 과목당 월평균 2만 원대였으며, 영어가 28,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이 19,700원으로 상대적으로 평균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4 참조). 하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활동 비용의 경우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특별활동 이용 가구 중에서는 이 비용으로 상당액을 지불하고 있는 가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과목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특별활동 비용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면서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표본이 작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특별활동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영어의 경우 월평균 이용 비용이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높고, 유치원이 평균 32,900원으로 어린이집 26,100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12) 김은설 외(2016), p147. <표 V-7-6>의 수치를 참고함.

<표 II-3-4>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기관별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기타	F	
미술	24.5	15.6	5.0	175.0	23.5	25.6	65.8	48.9	14.6***	(853)
음악	20.9	12.7	4.0	150.0	20.6	21.3	32.3	-	4.0*	(905)
체육	22.3	15.2	3.0	166.0	22.2	21.8	72.5	39.7	23.2***	(1,106)
과학	20.3	18.8	4.0	175.0	17.1	20.9	70.8	-	17.7***	(169)
수학	19.7	13.9	4.0	100.0	18.9	19.1	44.6	-	11.8***	(202)
한글	20.4	13.7	4.0	88.0	19.9	19.2	48.6	-	21.8***	(352)
컴퓨터	24.0	8.7	10.0	50.0	25.4	22.3	-	-	0.4	(14)
교구	22.6	13.2	3.0	150.0	21.6	25.0	62.6	-	7.6***	(537)
한자	21.7	18.4	4.0	84.0	21.3	22.0	30.0	-	0.2	(59)
영어	28.7	19.4	5.0	166.0	26.1	32.9	77.8	68.7	26.8***	(1,044)
외국어	20.7	10.9	4.0	50.0	25.2	16.7	-	-	3.6	(16)
기타	26.7	18.5	3.0	120.0	21.3	32.6	120.0	-	24.7***	(149)

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15 <표 V-7-3>

3) 시간제 학원 및 개별 교육 이용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시간제 학원이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한 아동의 특기교육을 위한 학원, 보습 학원, 문화센터 등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개별교육은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학습지 등 개인 또는 그룹지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김은설 외, 2016).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은 다른 종류의 기관 혹은 학원 등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중은 17.5%로, 영아의 경우 6.7%에 그친 반면 유아의 경우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생활연령별로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중은 5세 이상인 경우 36.7%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학습지는 전체 응답자의 14.1%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간제 학원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 교재교구 개별교육은 2.1%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예체능 개별지도 1.4%, 통신 교육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시간제 학원	학습지	예체능 개별지도	교재교구 개별 교육	통신 교육	(수)
전체	17.5	14.1	1.4	2.1	0.2	(3,560)
영유아구분						
영아	6.7	3.1	0.1	1.5	0.1	(1,625)
유아	24.0	20.6	2.3	2.5	0.3	(1,935)
생활연령						
0세	3.6	0.2	-	0.7	-	(539)
1세	9.1	2.7	-	1.2	-	(518)
2세	6.6	5.1	0.2	2.2	0.3	(568)
3세	8.5	13.2	0.9	3.0	0.2	(568)
4세	19.4	18.8	3.6	2.0	0.8	(534)
5세 이상	36.7	26.5	2.4	2.5	0.1	(833)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64 <표 X-1-1>에서 부분 발췌함.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은 82.5%였으며, 이용하는 시간제 학원의 프로그램 수는 1개가 12.0%로 대부분이고, 2개 3.9%, 3개 이상인 경우가 1.7%였다.

〈표 II-3-6〉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전체	82.5	12.0	3.9	1.1	0.4	0.2	100.0(3,560)
영유아구분							
영아	93.3	5.4	1.1	0.1	0.1	-	100.0(1,625)
유아	76.0	15.9	5.5	1.6	0.7	0.3	100.0(1,935)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66 <표 X-2-1> 에서 부분 발췌함.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과목은 주로 체육으로 53.0%가 체육과 관련된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미술이 28.1%, 음악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특별활동 중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영어의 경우 7.5%만이 시간제 학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기관에서 이뤄지는 특별활동 이외에 추가적인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영어와 마찬가지로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높았던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 이용 비

중 또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영유아 학부모들의 요구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3-7〉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과목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전체	28.1	13.6	53.0	1.4	8.0	9.2	0.1	6.6	1.9	7.5	1.2	12.2
영유아구분												
영아	8.8	9.5	33.1	0.5	1.7	10.1	-	21.9	-	3.5	-	28.1
유아	31.4	14.3	56.3	1.6	9.0	9.0	0.1	4.0	2.3	8.2	1.4	9.5

주: 중복응답이므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67 <표 X-2-2> 에서 부분 발췌함.

시간제 학원의 이용 비용은 아동당 월평균 116,800원¹³⁾이었는데, 과목별로는 영어학원의 이용 비용이 월평균 119,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이 92,300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한편, 과목별 시간제 학원의 주당 이용 시간은 대체로 평균 2시간 남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3-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 비용, 이용시간

단위: 천원, 시간

구분	월평균 이용 비용(A)		주당 이용시간(B)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술	74.5	37.6	2.4	1.8
음악	81.6	34.1	2.9	1.9
체육	92.3	41.0	3.1	2.0
과학	88.2	43.8	2.1	1.8
수학	76.5	47.1	2.0	1.7
언어	62.3	47.2	1.6	1.2
컴퓨터	20.0	-	2.0	-
교구활용	66.8	40.6	1.5	1.2
한자	45.5	29.6	1.4	0.8
영어	119.2	84.3	2.5	1.6
기타 외국어	54.7	26.8	3.6	1.8
기타	64.5	44.7	1.9	1.4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72-373 <표 X-2-8>

13) 김은설 외(2016) p.370 <표 X-2-5>의 내용을 인용.

학습지 등 개별교육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교육 이용자 중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81.0%, 교재교구 이용자가 12.2%, 예체능 과목 개별 또는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8.3%, 통신교육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1.6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개별교육 서비스의 경우 1.1개 정도였다. 주로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는 그룹지도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학습지와 교재교구의 경우 개인 교습의 비중이 높았다.

〈표 II-3-9〉 개별교육 이용 현황

단위: %(명), 개, 천원

구분	이용비율	이용 평균 개수	주된 형태			(수)
			개인	그룹	개인+그룹	
학습지	81.0	1.6	98.4	1.5	0.2	(453)
예체능	8.3	1.1	39.6	38.0	22.4	(41)
교재교구	12.2	1.1	85.3	11.8	2.9	(56)
통신교육	1.5	1.0	100.0	-	-	(9)

주: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75 <표 X-3-1>

개별교육 프로그램의 월평균 이용 비용은 예체능이 142,6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재교구가 99,600원, 학습지가 74,600원, 통신교육이 39,300원 정도였다. 개별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빈도와 이용 비용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생활연령 5세 이상 유아들의 경우 개별교육 프로그램 이용 또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0〉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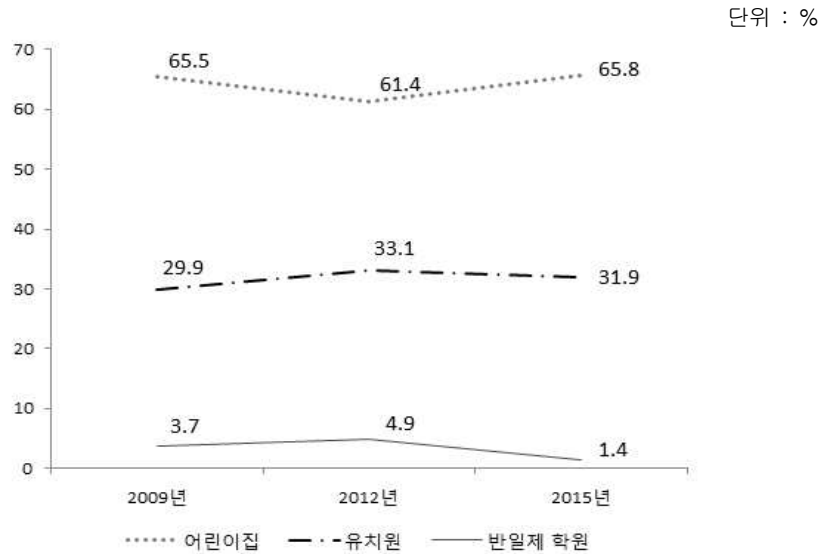
구분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학습지	67.4 (44)	75.3 (409)	160.0 (1)	64.1 (11)	66.5 (32)	61.7 (65)	66.0 (117)	83.6 (227)	74.6 (453)
예체능	10.0 (1)	145.1 (40)	-	-	10.0 (1)	89.0 (5)	127.4 (13)	174.6 (22)	142.6 (41)
교재교구	54.2 (17)	115.2 (39)	84.2 (2)	72.4 (3)	41.4 (12)	115.2 (15)	102.9 (11)	122.5 (13)	99.6 (56)
통신교육	30.0 (2)	41.6 (7)	-	-	30.0 (2)	34.0 (3)	44.2 (2)	40.0 (2)	39.3 (9)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78 <표 X-3-5> 에서 부분 발췌함.

4) 영유아 사교육 서비스 이용 변화

여기서는 2009년과 2012년 2015년 보육실태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해 영유아가구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및 사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실태조사 자료는 매 3년 주기로 전국 대표 표집을 통해 조사가 실시되므로 표본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현황 및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비중은 [그림 II-3-1]과 같다. 여기서 사교육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비중은 2009년도에 3.7%이던 것이 2012년도 4.9%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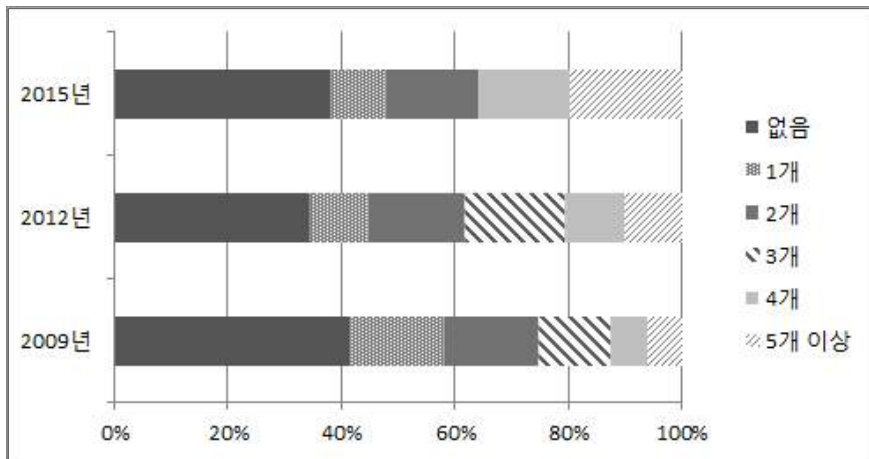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22 <표 V-2-1>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II-3-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이용 비중 변화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실시되는 특별활동 참여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특별활동 이용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은 2009년도 41.5%였으나, 2012년도에는 34.5%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30.7%

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를 보더라도 2009년도에는 1개(16.7%) 혹은 2개(16.6%)를 이용한다는 비중이 높은 반면, 2012년에는 3개(17.9%), 2개(17.0%)로 이용 개수가 많은 쪽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2015년에는 3개 이용한다는 응답이 19.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1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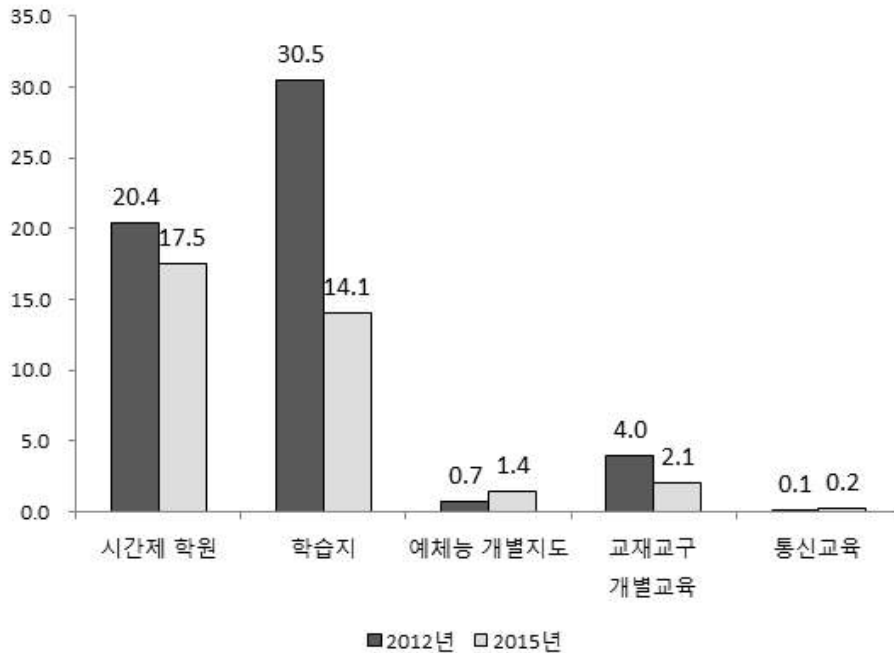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42-143 <표 V-7-1>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II-3-2]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은 2012년도에 20.4%이던 것이 2015년 17.5%로 감소하였으며, 학습지 이용 비중도 2012년 30.5%에 달하던 것이 2015년 14.1%로 감소하였다. 예체능 개별지도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2012년 0.7%에서 2015년 1.4%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교재교육 개별교육 이용 비중은 2012년 4.0%에서 2015년 2.1%로 다소 감소하였다. 통신교육은 2012년과 2015년 모두 매우 낮은 이용 비중을 보였다. 종합하면 2012년 대비 2015년에 보육·교육기관을 통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시간제 학원 등에 대한 이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



자료: 김은설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64 <표 X-1-1>의 수치를 이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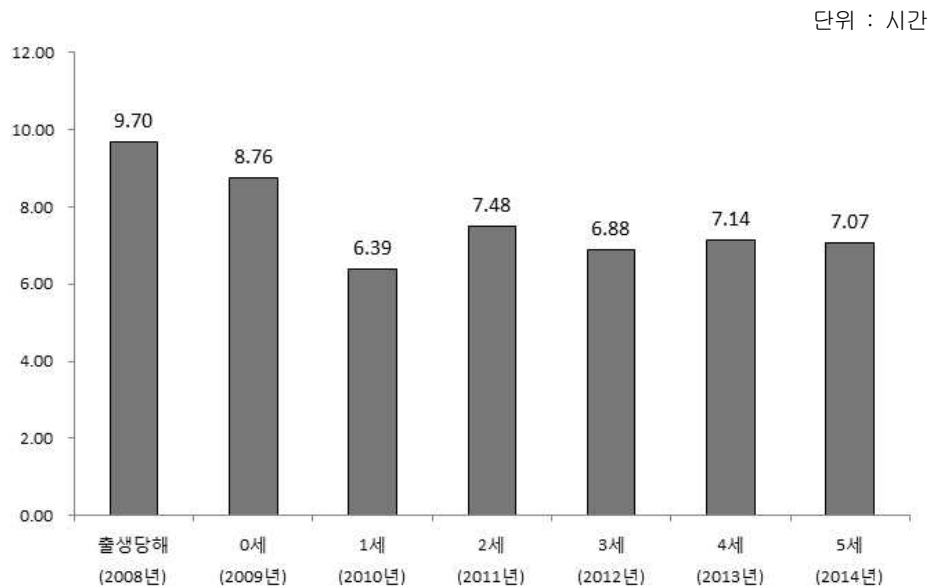
[그림 II-3-3]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중

나. 한국아동패널조사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들의 보육·교육기관 및 사교육 이용 시간 등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와 달리 종단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동일한 영유아의 이용 패턴의 변화를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표집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는 2008년에 출생한 아이들을 원표본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이 변화하지만 이러한 변화 양태가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 상태의 논의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은 각 차수별로 조사 문항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은 출생당해년도인 2008년에는 9.70시간에서 0세 8.76시간, 1세 이후 6시간~8시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이 긴 이유는 평균 시간 산출 시 기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3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이후 시간제 학원이나 개별 과외 등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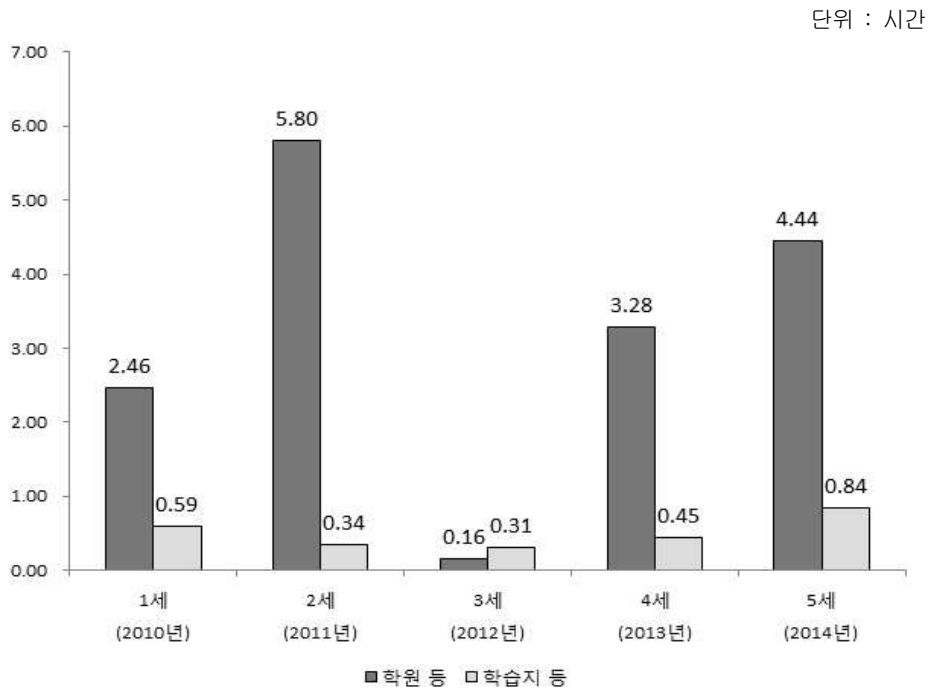
주: 2세는 등하원 시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3세는 일상생활시간 조사, 4세와 5세는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 출생당해, 0세, 1세, 3세의 이용 시간은 이정림 외(2015) p.80 <표 III-2-2>에서 재인용, 2세, 4세는 2016년 기준 공개용 release 버전, 5세는 학술대회용 버전을 기준으로 산출함.

[그림 II-3-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

아동패널 응답자의 학원 등 이용 시간은 1세 2.46시간이었으며, 2세 5.80시간, 3세 3.28시간, 5세 4.44시간이었다. 3세의 학원 등 이용시간이 0.16시간으로 평균이 매우 낮아진 것은 해당 차수에 설문구조가 달라, 학원 등 이용 시간을 기관

이용 시간이 아닌 일상 생활시간 조사 문항을 통해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지 등 이용 시간은 1세 때에 평균 0.59시간(35.4분), 2세 때 0.34시간(20.4분), 3세 때 0.31시간(18.6분), 4세 때 0.45시간(27분), 5세 때 0.84시간(50.4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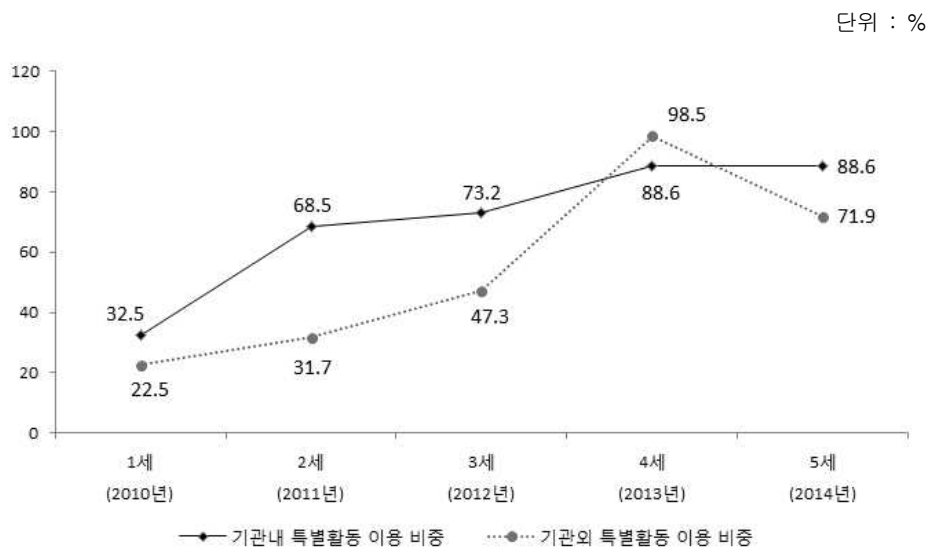
자료: 1세, 3세의 이용 시간은 이정림 외(2015) p.80 <표 III-2-2>에서 재인용, 2세, 4세는 2016년 기준 공개용 release 버전, 5세는 학술대회용 버전을 기준으로 산출함.

[그림 II-3-5] 학원 및 학습지 등 이용 시간

특별활동 이용 비중은 크게 육아지원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과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으로 구분된다.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의 경우 육아지원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차수에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통해 제공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으로 보았으며, 그 외 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기관 외 특별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 특기·보습학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기관 외 특별활동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6차년도(2013년도) 조사에서는 설문 문항이 다른 차수와 다소 달

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설문 문항이 차수별로 조금씩 상이하여 동일 범주에 속하는 특별활동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 육아지원 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그 외 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중이라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세에 32.5%이던 이용 비중은 2세에 크게 상승하여 68.5%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5세에는 88.6%가 기관 내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비중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설문 구조가 다른 4세(2013년)의 경우에는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비중이 98.5%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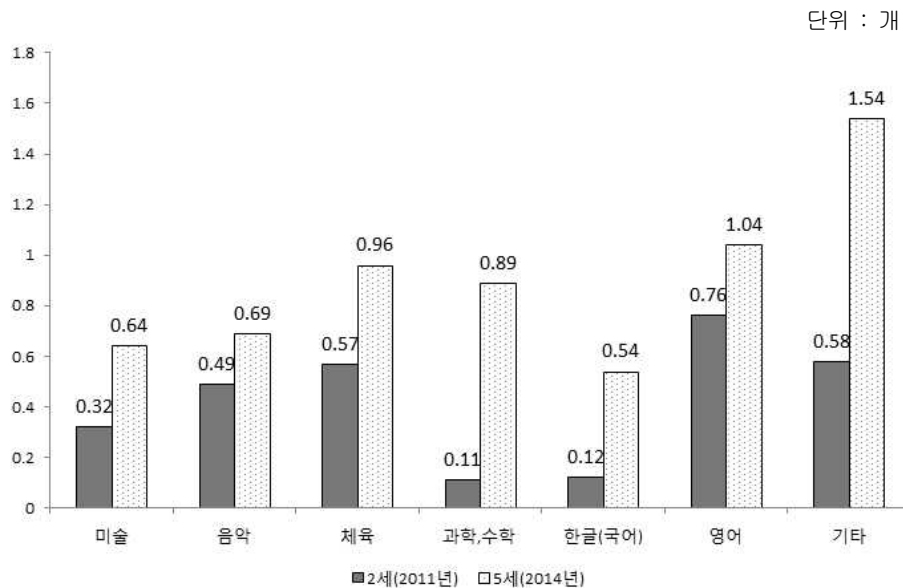


주: 5차(2012년)~7차(2014) 자료는 기관 내 특별활동의 경우 부모조사에서 기관 조사로 변경하여 질문하였으며, 기관 외 특별활동의 경우 다른 차수에는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를 질문한 반면, 6차년도(2013년)에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질문하여 설문 문항에 차이가 있음.

자료: 아동패널 3차(2010년)~6차(2013년) 공개용 원자료, 7차(2014년) 학술대회용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그림 II-3-6] 특별활동 이용 비중

기관 내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2세와 5세 때의 과목별 이용 개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5세의 특별활동 이용 개수는 2세 때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2세 때 가장 많이 이용한 특별활동 과목은 영어로 평균 0.76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합 프로그램 등 기타 과목이 0.58개, 체육 0.57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세 때의 특별활동 이용 프로그램 개수를 살펴보면, 통합 프로그램이 1.5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1.04개, 체육 0.96개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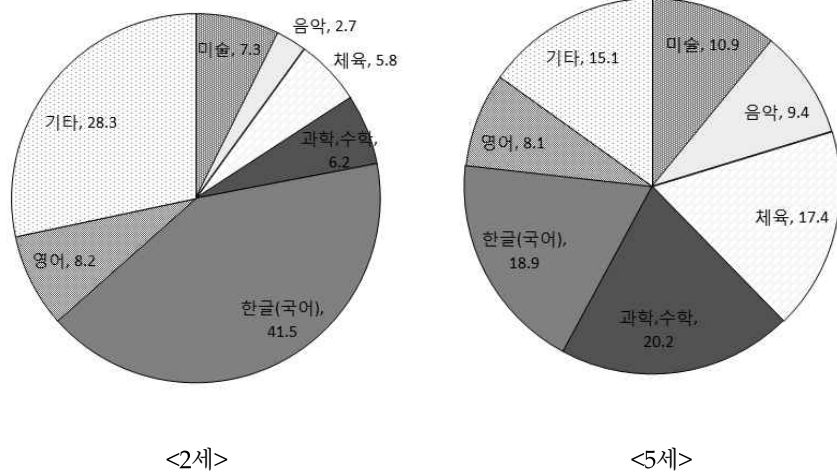
주: 기관 내 특별활동을 한 개라도 이용한 경우(2세 991명, 5세는 1,066명)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특별활동 이용은 중복 응답 문항임.
 자료: 아동패널 4차(2011년) 공개용 원자료, 7차(2014년) 학술대회용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그림 II-3-7]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과목별 개수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과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2세 때에는 한글(국어) 프로그램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아 41.5%에 달했으며, 기타 28.3%, 영어 8.2%순이었다. 5세가 되면 과학·수학의 비중이 20.2%로 크게 증가하며, 다음으로 한글(국어) 18.9%, 체육 17.4%, 통합프로그램 등 기타 15.1%, 미술 10.9%, 음악 9.4%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영어 이용 비중은

2세 때 8.2%, 5세 때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영유아기 영어 프로그램이 기관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2세의 경우, 한글을 배우기 위한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다가, 5세가 되면 과학·수학을 배우기 위한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단위 : %



주: 기관 외 특별활동을 이용한 경우 전체로 하여 해당 과목의 비중을 산출한 것으로, 2세 총 이용 건수는 791건, 5세는 3,300건임.
 자료: 아동패널 4차(2011년) 공개용 원자료, 7차(2014년) 학술대회용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그림 II-3-8]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과목 비중

4. 선행연구

가. 영유아 사교육의 배경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팽창하게 된 현상에 대하여 학벌 중시, 교육을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와 연관이 있다(우남희·김유미·신은수, 2009)는 데에 공감한다. 여기에 더하여 영유아기라는 시기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 유아교육·보육 현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명순(2007)은 조기교육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조기교육의 배경으로 첫째, 유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적절한 교육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여 유아기를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시기라고 부모를 부추기는 상업성, 둘째,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자신들의 교육적 성취가 억눌린 상황에서 자녀교육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권력을 확보하려 하는 전업주부의 특성, 셋째, 한국의 학벌·학력사회, 넷째,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유치원도 학원의 일종으로 여기는 학부모들의 인식을 지적하였다(이명순, 2007).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방향으로는 첫째, 유아기를 완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닌 유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재조명, 인간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계발하는 전인적 교육의 필요, 두뇌 각 부분의 발달시기에 맞는 적기교육의 필요를 제안하였다(이명순, 2007).

이부미와 이수정(2010)은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특성과 가족구조의 변화로써 영유아 사교육 현상을 설명하였다. 저성장고용불안정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속화된 경쟁력이 교육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고,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경쟁에서 유리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이부미·이수정, 2010). 특히,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대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육아에 관한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바람직한 양육방식에 대한 공적 담론이 미비한 상황에서 극심한 경쟁사회의 도래로 인해 육아철학을 갖추지 못하고 '얼떨결에' 부모가 된 젊은 부모들은 불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교육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부미·이수정, 2010).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유교적 가족주의에 근간을 둔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 연구자도 있다. 부부 관계에 초점을 두는 서양의 가

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와 일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녀의 성공과 성취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장유진, 2014). 연구자는 유아 대상 사교육 현상을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이기보다 '기획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아이 존재의 부재, 확고한 교육관을 갖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하지 못하는 엄마 존재의 부재,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어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부모 존재의 부재로 해석하였다(장유진, 2014).

나. 영유아 사교육의 결정 요인

사교육 이용 여부 혹은 사교육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지경(2004)은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어린 연령이 6세 이상보다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용은 반대로 6세 이상과 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많이 지출하였다(김지경, 2004). 또한, 3~5세의 사교육 이용여부나 지출비용은 소득, 어머니 취업, 비핵가족 형태 등이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반면, 6~7세는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동일하게 서울 거주, 소득이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것을 통해 영아의 사교육은 보육의 측면이, 유아의 사교육은 예비학습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하였다(김지경, 2004).

도현심·박보경·김수진·조숙인(2009)의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 유아 429명, 초등학생 600명 가운데 93.0%가 사교육을 실시하고, 유아는 평균 2.55개의 사교육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고졸일 때보다 대졸일 때, 가정의 월수입 많을 때 사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 사교육을 제외하고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실시여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도현심 외, 2009).

서문희와 양미선(2013)은 전국 125개 조사구의 976가구의 만3~5세 유아 1,648명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의 결정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아 연령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이용 아동이 사교육을 많이 받았고, 사교육비는 가구소득과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일 때,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서문희·양미선, 2013). 한국복지패널 2007년 자료를 분석한 이경선과 김주후(2010)도 이와 유사하게 영유아 연령이 높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실시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광현과 권용재(2015)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만4세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사교육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론적 의미의 사교육과, 여기에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까지 포함한 협의의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익자 경비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교육비는 유치원이 더 많았다(이광현·권용재, 2015).

이정원(2009)은 이상의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대상인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 실태와 사교육 이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48.5%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 이용 정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2009).

한유미(2010)의 연구에서 서울,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3~5세 유아 173명의 사교육 이용률은 56%로 나타났고, 유아 한 명당 평균 1.22개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른 연구들은 사교육의 인구통계학적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과 달리, 한유미(2010)는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과 부모 인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부모가 가정에서 형식적 교육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유아의 능력'이 학업성취에 중요하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질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비형식적 교육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어머니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시작 연령은 낮아졌고, 가정의 월 소득은 사교육 개수나 시작 연령에 유의한 예측력이 없었다(한유미, 2010).

사교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교육 이용비율은 높은 아동 연령(이경선·김주후, 2010; 김지경, 2004; 서문희·양미선, 2013; 이정원, 2009), 높은 부모 학력(도현심 외, 2009), 높은 가구소득(이경선·김주후, 2010; 도현심 외, 2009; 서문희·양미선, 2013)과 관련이 있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이경선·김주후, 2010; 서문희·양미선, 2013)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김지경, 2004; 서문희·양미선, 2013; 이광현·권용재, 2015),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강이주, 2009; 이광현·권용재, 2015) 커지는 경향이 있다. 모취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영아기에는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취업모의 사교육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나(김지경, 2004),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현심 외, 2009),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이나 양의 사교육을 시킨다고 보고한 연구(서문희·양미선, 2013; 이기숙 외, 2002a)도 있다.

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인식

1) 학부모 인식

영유아 사교육의 동기, 만족도 등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이주(2007)에 의하면 미취학 자녀의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동기는 크게 선행학습 및 소질개발, 균형적인 발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행학습 및 소질개발'로 분류된 동기는 '타인과의 경쟁에 우위 확보를 위함', '초기 지능과 소질 개발을 위함', '아이의 특별한 소질을 발견했기 때문', '주위의 권유' 등이며, '균형적인 발달'로 분류된 동기는 '학교 적응을 위해', '균형 있는 신체·정서발달을 위해', '또래와 어울리게 함으로써 사회성 증진을 위해', '나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일찍부터 제공해주고 싶어서' 등이 해당된다(강이주, 2007). 또한, 부모들은 신체 발달과 사회성발달에는 체육이, 정서발달에는 미술이, 언어·지적능력 발달에는 컴퓨터가 다른 교육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였다(강이주, 2007).

0세부터 11세 자녀의 어머니 931명을 대상으로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을 알아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였고, 지식이나 특기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였지만, 실제로는 인지 중심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 2009). 어머니의 77.3%가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고 신생아기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71.7%였으며, 자녀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사교육비와 양육비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우남희·김영심 외, 2009). 또한, 영유아기와 초등학생 어머니들 모두 발달시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특히 수 개념, 읽기, 쓰기 등의 발달시기를 기준 연령보다 몇 년 빠르게 인식하고 있었다(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 2010). 10% 이상의 어머니는 영유아기에 사교육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스스로 적절한 교육시기라고 생각하는 연령보다 이른 연령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남희 외, 2010).

이기숙 등(2002a)은 전국 2,279 가정의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조기·특기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고, 30세 미만 어린 어머니와 취업모가 30세 이상 어머니와 비취업모보다 교육의 시기가 빠르고 교육의 종류, 비용이 많다고 조기·특기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전지형(2005)은 유아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45.2%의 학부모가 유아의 문자언어교육에 대해 걱정을 하였고, 언제 문자언어교육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가 한글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때'라는 응답이 49.5%로, '개인적으로 한글 교육을 빨리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20.2%)'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즉, 부모 자신의 양육철학이나 교육관에 의하기 보다는,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심에 의해 문자언어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가 자녀의 한글 습득 정도를 빠른 편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보다 조금 더 빠른 단 한명의 유아를 발견함으로써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이 인터뷰를 통해 발견되었고, 아동발달이나 교육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교육방법을 즉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지형, 2005).

한편,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배경이나 그 효과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질적 연구도 있다. 장유진(2014)은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유아 부모들을 관찰, 면담한 결과 목동 유아 사교육의 상황적인 구조는 '세계화와 영어의 필요성', '한국 사회 여성의 교육·취업·육아구조', '한국의 학력·학벌주의'이며, '사교육 기관, 주위의 동네 엄마들, 대중매체의 담론' 등이 이러한 상황적 구조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교육을 위해 무리하게 목동으로 이주 온 엄마들은 다양한 학원을 접하면서 더욱 손쉽게 사교육을 시키게 되고, 자녀가 엄마의 요구를 잘 따라주거나 가시적인 성취를 보였을 때 사교육 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장유진, 2014).

민선옥과 배지희(2014)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10인을 인터뷰하였다. 영아기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을 돕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사교육 시작 계기는 무상보육비 지원과 주변의 권유 등이 있었다(민선옥·배지희, 2014). 유아기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사교육을 시작한 계기는 주변의 권유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등이었다(민선옥·배지희, 2014).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면서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내용, 자녀와의 관계 악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하였다(민선옥·배지희, 2014).

하정희(2007)는 영어교육에 초점을 두어 미취학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머니 대상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어머니들이 영유아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는 어머니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상실된 데에 있다(하정희, 2007). 즉,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교육을 시작해서는 중등학교 이상의 영어교육에 대응할 수 없고, 학교는 개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줌마 네트워크'를 통해 영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듣고, 사교육을 함께 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고, 어머니들에게서 글로벌 시대에 엘리트 계급으로 이동하고 싶은 기대와 계급하락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하정희, 2007).

이상에서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 및 성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으로 인해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지 중심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 인식

유아교육·보육현장의 교사들이 영유아 사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부미와 이수정(2010)은 사교육(강남의 유아 대상 학원 원장)과 공교육(공립 초등학교 교사)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을 인터뷰하였다. 원장은 너무 많은 양의 교육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교육적 소신을 갖고 학원을 운영하지만 사교육시장의 또 다른 공급자가 되었다는 딜레마를 느끼고 있었다(이부미·이수정, 2010). 원장은 대학입시가 유치원까지 내려오면서 약 10%의 부모는 사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증에 가까우며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하였다(이부미·이수정, 2010). 원장이 생각하는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안함, 불신감이다(이부미·이수정, 2010). 다른 아이들이 선행학습으로 배워오기 때문에 교사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학교와 부모 사이에는 소통이 부족한 반면 사교육과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이부미·이수정, 2010).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여 교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공교육환경이 점점 더 척박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이부미·이수정, 2010).

조미영, 이문옥(2009)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현재 기관에서는 조기에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부모의 요구 때문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기관에서의 영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영어강사의 자질, 유아교육의 상실, 검증되지 않고 선정 기준이 없는 영어교재, 교사의 역할 혼란, 유치원장의 확고한 교육철학과 신념의 부재를 지적하였다(조미영·이문옥, 2009). 또한, 외국어교육은 5세나 초등학교 이후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단어 읽고 쓰기, 단어시험 등 잘못된 교수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어민교사에 대해 유아와의 의사소통, 교육적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고, 책임감 부족, 잦은 이직으로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까 우려가 된다고 평가하였다(조미영·이문옥, 2009).

유아의 초등학교 준비도에 대한 유치원 5세 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지성애 등(2006)에 의하면, 세 집단 모두 초등학교준비도의 요소 가운데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교사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 '기능'과 '성향'을, 학부모는 '지식'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유아교사의 73.8%가 학부모·주양육자를, 25.1%가 사교육을 든 반면, 학부모는 62.1%가 사교육, 36.7%가 학부모·주양육자라고 응답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지성애·정대현·정효은·안지송·박은영, 2006).

이상의 연구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현상에 대하여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관 운영상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

1) 영유아 사교육의 효과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들은 학습 성취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와 영유아에게 직접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로 구분된다. 이부미과 이수정(201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입학 전에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지적인 면에서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들은 집단생활에 익숙하여 처음에는 뛰어난 듯 보이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차이가 사라지고 오히려 대충 아는 것을 안

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진지한 학습태도를 갖기 어려우며 쉽게 싫증내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이부미·이수정, 2010). 반대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배워 오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에 더 충실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성취도에 더 잘 도달한다고 하였다(이부미·이수정, 2010).

한편, 이정립 등(2015)은 다양한 연령대의 외국어교육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외국어 습득은 어린 연령에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의 진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5세, 초등학교 3학년, 대학생에게 중국어교육을 직접 실시한 결과 통념과는 달리 말하기, 읽기 능력에 있어서 성인의 수업 효과가 가장 컸고 유아는 가장 낮았다(이정립 외, 2015). 또한 안구운동을 측정하여 의미 처리 민감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인 집단은 중국인 성인과 유사한 안구운동 양상을 보였으나 아동 집단은 중국인 성인 집단과 안구운동의 양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제시된 문장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립 외, 2015). 연구자는 일련의 실험과 측정을 통하여 동일한 양의 중국어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성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취학 전 영유아에게 외국어 학습은 큰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이정립 외, 2015).

이렇게 영유아 사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습에 불리해 진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조기영어교육을 통한 이중언어 습득의 가능성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 황혜신(2004)은 원어민이 수업을 하는 영어종일제학원과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08명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파악한 결과, 영어능력은 영어종일제학원에 다니는 유아가 유의하게 높았고, 한국어 능력은 차이가 없었으며, 영어교육에 노출된 기간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두고 영어 조기교육이 모국어 발달의 희생 없이 영어능력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중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였다(황혜신, 2004).

2) 사교육과 사회·정서발달

사교육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를 직접 관찰·측정하거나 교사의 진술을 통해 사교육 경험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예컨대, 유치원 하원 후에 외부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다니지 않는 아이보다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과 모든 하위항목인 비난·공격

성, 불안·좌절, 자존심 수준이 높았고(김정원·이정아, 2002), 유아가 경험하는 사교육 수가 증가할수록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커졌으며, 문제행동은 사교육 시작 시기나 소요 시간보다는 가정수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백혜정 외, 2005).

장은미(2008)는 영아기의 사교육 경험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 시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문화센터나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받은 영아들은 사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영아보다 어린이집 초기 적응 시기에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서불안 행동을 많이 보였다.

원장이나 교사들도 영유아의 사교육 경험이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우남희 등(2005)은 유치원 원장에게 조기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우선, 인지적 측면에서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을 받아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조기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학습요령을 더 잘 습득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끈기, 자율성, 문제해결능력 등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학습태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우남희 외, 2005). 정서적 측면에서 조기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신체적 증상, 주의 산만, 성급함 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사회성 측면에서는 조기사교육을 통한 유아의 자신감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나 자기 과시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우남희 외, 2005).

이부미와 이수정(2010)의 연구에서 영유아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사교육으로 바쁜 아이들이 집중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늘고 있지만 학원을 그만둘까봐 부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고,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거나 반대로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이부미·이수정, 2010).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도 사교육을 많이 받는 영유아가 사회성 결여, 정서적 불안 행동, 모국어 언어습득의 혼란을 겪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보고한다(조미영·이문옥, 2009).

신의진(2002)은 인지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상관

없이 부적절한 학습 자극을 가함으로써 유아의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회로 중 스트레스 관련 부분의 조절력에 손상을 주어 더 나아가 면역기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뇌 발달상의 문제가 사회성 및 인지 발달의 저하 등의 발달 지연 및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우남희 외, 2005, 재인용).

한편, 정익중(2012)은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1,151가구 자료로 사교육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수준이 높았고 정서발달과는 부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빈곤가구에서는 사교육이 사회성발달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고, 방임 상황에서 높은 사교육은 방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켰으나, 과보호 상황에서 높은 사교육은 과보호가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켰다(정익중, 20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일방향이 아닌,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정익중, 2012).

마.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에 관한 연구¹⁴⁾

1) 특별활동 실시 현황

이미화와 김은영(2008)은 전국의 어린이집을 무선표집하여 1,003개소에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95.4%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평균 약 3개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64.7%에서 특별활동이 의무였고,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경우 60.3%, 오전시간대 실시하는 경우가 76.7%로 나타났다(이미화·김은영, 2008).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이 특별활동 실시 개수가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적었으며,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실시하였다(이미화·김은영, 2008). 연구자는 이미 대부분의 현장에서 특별활동을 일상적인 보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활동 실시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는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해 여러 보육활동을 기본 보육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미화·김은영, 2008). 이를 위해 특별활동의 목적에 영유아가 중심이 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별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14) 본 항에서는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특별활동'으로 통칭함.

특별활동의 비용, 참여방법, 담당자, 시간 등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와 특별활동의 영향에 대한 장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결국에는 보육프로그램의 정상화, 내실화가 특별활동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이미화·김은영, 2008).

김진미(2014)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만3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의 68.5%가 기관 내 특별활동을 받고 있었고, 평균 2.9개를 이용하였으며, 월평균 지출비용은 약5만원이었다. 영어 특별활동 참여율이 75%로 가장 많았고, 전업모가 취업모보다 특별활동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미, 2014). 이를 통해 연구자는 특별활동 과목 내용,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현재 필요경비 상한선이 지방마다 다르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강사 경력 등을 공개하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진미, 2014)

김영명과 서영숙(2006)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이 확대된 배경으로 첫째, 원아모집, 운영비 보충, 교사의 업무부담 감소 등의 운영 여건, 둘째,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 셋째, 영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아동발달이론과 연구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특별활동의 발달적합성, 효과, 프로그램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 특별활동 관련 인식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교사나 원장,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동기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원장과 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바람직하다 34%, 바람직하지 않다 23%로 나타났다(최광희·이연승, 200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교사와 학부모가 찬성하였으나 운영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박은혜·박신영·최성진, 2015). 교사의 89.5%는 '취업모 가정 자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63.2%는 '원하는 유아 모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이러한 응답률은 6.7%에 불과하였다(박은혜·박신영·최성진, 2015).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조사한 이미화와 김은영(2008)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4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모 요구는 27.1%였다. 정영희(2015)의 연구 대상인 직장어린이집에서 특별활

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장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함 54.5%, 부모 요구에 부응 30.7% 순이었다(정영희, 2015). 반면, 사립유치원을 조사한 이기숙 등(2002b)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원하고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어서(65.9%), 유아 잠재능력 조기 개발(49.3%), 종일제 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43.7%), 별도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42.4%) 순으로 나타났다. 정영희와 김덕희(2012), 최광희와 이연승(2006)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육기관 교직원들은 부모의 요구가 특별활동 실시의 가장 큰 동기라고 인식하였고,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과정 보완·심화 등의 동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부모들은 특별활동을 선택할 때에 유아 흥미와 프로그램 내용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응답하였다(김정은·허영림, 2013). 유치원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으로 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호한 것과 달리 학부모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비율이 61%로 가장 컸고, 방과후과정 교사 자격에 대해서도 교사는 '오전을 담당하는 교사와 동일한 자격, 능력 소유자'를 희망한 반면, 학부모는 '특기적성 지도교사'를 원하였다(박은혜 외, 2015).

정영희와 김덕희(2012)의 연구에서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대체로 특별활동 강사에 만족하고 비용이 적정하며, 교수방법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졌다. 다만,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사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3세는 특별활동 횟수가 적은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정영희·김덕희, 2012). 김정은과 허영림(2013)의 연구에서는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통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고 그들이 인식한 유아 흥미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언어프로그램은 유아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특별활동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기숙 등(2002b)의 연구에서 전국의 사립유치원 1,116곳의 교사들은 특별활동의 문제점으로 특별활동 담당자 자질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는데, 유아의 발달적 특징이나 요구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지 않은 유아교육 비전공자의 유아 지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정규 유아교육내용과의 연계성, 통합성이 부족하고 유아 개개인의 발달이나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최광희·이연승, 2006). 김정은과 허영림(2013)도 유사하게 방과후 담당교사들이 특별활동 운영 시 문제점으로 우수 강사 확보 및 질 관리의 어려움, 부모 요구와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였다. 고학력이거나 경력이 오래된 교사일수록 특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

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숙 외, 2002b).

이정화와 정선아(2004)는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5명의 유치원 원장을 심층면담 하였는데, 특별활동은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지만, 진정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맛보기에 그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특별활동과 정규과정의 통합을 강조하지만, 원장들은 특별활동을 유치원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외부 업체만의 교육이라고 인식하였고, 특별활동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정화·정선아, 2004). 또한, 원장들은 특별활동을 기능 습득 단계가 분명한 학습으로 인식하여, 부모들에게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 효과를 단기간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이정화·정선아, 2004). 원장들은 유치원의 수요자가 부모이므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하는 특별활동을 실시해야만 유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고,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특별활동은 교육적 소신에 앞서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도 같았다(이정화·정선아, 2004). 이러한 특별활동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특별활동 및 방과후과정의 명백한 성격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이용 대상, 비용, 교사자격 등을 설정해야 하며(박은혜 외, 2015; 최광희·이연승, 2006), 전인교육에 주력하는 유아교사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광희·이연승, 2006).

3) 특별활동의 영향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교사에게 설문을 실시하거나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나 스트레스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최광희와 이연승(2006)은 원장과 교사에게 특별활동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질문하였는데, 원장과 교사는 특별활동의 긍정적 영향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증대, 유아 재능의 조기 발견 및 계발을 들었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단편적 지식과 기능 획득으로 의미 있는 지식의 재구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5%로 가장 많았다.

하영례와 정효은(2009)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반 교사 7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가 많을수록 만5세 유아의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행동 하위유형인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하영례·정효은, 2009).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과 영유아가 느끼는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김정원과 이정아(2002)는 서울, 경기지역 유치원 유아 380명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는데 유치원 방과후 교육에 참여한 아이가 참여하지 않은 아이보다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하위항목 중에서 특히 불안·좌절이 높았다. 최미진과 유희정(2013)은 3~5세 학급의 12주간 일과시간대별로 빈도사건표집에 의한 관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아의 스트레스 양상은 연령 높아질수록, 일과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는데 일과시간대별로 3, 4, 5세 모두 오후 자유선택활동, 특별활동, 하원시간 순서로 스트레스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최미진·유희정, 2013). 따라서 연구자는 특별활동을 학문적, 성취지향적 내용의 특강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아의 개인차와 흥미가 반영된 발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외부강사에 의한 경우 유아발달과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미진·유희정, 2013).

바. 영유아 하루일과 관련 선행연구

영유아의 하루일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말과 주중 영유아의 하루일과를 모두 살펴본 연구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과를 분석한 연구, 유아교육기관 하원 후의 일과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으며 연구에 따라 시간일지 방법, 관찰법,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도남희·김정숙·하민경(2013)은 서울, 경기, 인천의 어머니 500명 대상으로 시간일지(time diary)를 사용하여 1~4세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영유아 성별, 영유아 연령, 모 취업여부, 모 양육행동(방임형, 민주형, 통제형, 적대형)에 따른 생활시간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4세 영유아는 개인유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교제 및 여가활동, 대리양육 이용, 이동, 학습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남희 외, 2013). 교제 및 여가활동 중에서는 놀이와 미디어 이용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놀이 시간과 낮잠시간이 감소하고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도남희 외, 2013).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하루 7시간 정도를 기관에서 보내고 있었고, 모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비취업모 자녀가 개인유지, 학습, 교제 및 여가활동영역의 시간량과 참여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남희 외, 2013).

〈표 II-4-1〉 선행연구의 영유아 행동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개인유지	수면, 식사·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개인양육받기, 기타 일상활동
학습	학원 및 기관 이용 과제활동, 학습지 활동, 온라인 학습, 특기적성 관련 활동, 교구 이용학습, 기타 학습활동
대리양육 이용하기	기관이용, 양육도우미
가정관리 돕기	음식 준비 및 정리 돕기, 의류관리 돕기, 청소 및 정리 돕기, 기타 가정관리 돕기
교제 및 여가활동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참여,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놀이, 따라가기, 아무것도 안 하고 쉼, 기타 여가 관련 행동
이동하기	개인유지 관련 이동, 학습 관련 이동, 대리양육 이용 전후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기타행동	그 외 기타 행동

출처: 도남희 외(2013). 영유아 생활시간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p 19-20 <표 I-34>를 재구성함.

이기숙과 손수연(2012)는 3~6세 유아 총 5,172명의 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유아의 일상생활을 비교하였는데, 연구결과 한국 유아들이 다른 나라 유아에 비해 기상시각과 취침시각, 아침식사와 저녁식사 시간이 늦었고, 유아교육기관에 더 늦게 등원하고 귀가는 빠른 편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시간은 국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이 다른 나라 유아들보다 조기·특기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 관련 활동의 참여율이 높았다(이기숙·손수연, 2012). 또한, 한국 유아들이 전자매체, 특히 컴퓨터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숙·손수연, 2012).

한편, 최미진과 유희정(2013)은 어린이집 3~5세 학급의 12주간 일과시간대별로 빈도사건표집에 의한 관찰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스트레스 양상을 분석하였다. 유아의 스트레스 양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과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는데, 일과시간대별로 3, 4, 5세 모두 오후 자유선택활동, 특별활동, 하원시간 순서로 스트레스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최미진·유희정, 2013).

이경미와 이기숙(2009)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와 5세를 대상으로 관찰을 통해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일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는 쌓기놀이, 대근육활동, 탈것, 동물관찰과 돌보기에, 여아는

역할놀이, 언어영역 놀이, 조형활동, 음률활동, 그네타기, 대화하기 등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5세가 3세에 비해 집단활동과 특별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이경미·이기숙, 2009).

한편, 김희정(2010)은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 유아의 일과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유아의 43.6%가 TV, 비디오, 컴퓨터 등 미디어를 활용하였고, 34.2%가 가정에서 놀이를 하였으며, 16.8%가 조기교육(학원 및 학습지), 2.3%가 실외놀이를 보내고 있었다. 즉, 유아의 대부분이 미디어나 조기교육으로 하원 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실외놀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김희정, 2010). 연구자는 또 다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3~5세 유아가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에 어떠한 일상생활을 보내는지 부모 대상 질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김희정, 2014). 연구결과 귀가시간은 한국이 5시, 일본이 2~3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한국 유아들은 귀가 후에 놀이, TV와 비디오 시청, 실외놀이, 조기교육, 컴퓨터 순으로 참여하였으나 일본 유아들은 기타(부모와 함께 쇼핑, 문화센터, 도서관, 친구 가정 방문 등), 조기교육, TV와 비디오 시청, 실외놀이, 집에서의 놀이, 컴퓨터의 순으로 나타났다(김희정, 2014).

Ⅲ. 영유아 하루일과

본 장에서는 2세아와 5세아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2세와 5세의 하루일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각 연령 영유아의 하루일과가 재원기관과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하루일과 개요

가. 2세의 하루일과 개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2세아의 취침시각은 오후 10시 경으로 나타났고, 기상시각은 평일 7시 48분, 토요일 8시 18분, 일요일 8시 6분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2세아와 가정 양육인 2세아도 취침 시각은 오후 10시 경으로 유사했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2세아는 평일 7시 36분, 토요일 7시 48분, 일요일 7시 54분에 일어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아는 평일 7시 42분, 토요일 8시 6분, 일요일 8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세아는 평균 9시간 50분~10시간 20분 정도 밤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기관별로 전체 2세아가 각 하루일과시간에 참여하는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재원 2세아의 경우, 평일 하루일과 중 밤잠시간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459.3분(7시간 39분, 하루 24시간 중 31.9%)으로 가장 길었으며, 실내놀이시간이 1시간 48분(7.5%)으로 두 번째로 길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일과 중에는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이 각각 4시간 4분(17%), 4시간 19분(18%)으로 가장 길었고 실내놀이시간이 2시간 53분(12%), 2시간 49분(11.8%)으로 두 번째로 길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2세아의 경우, 평일 하루일과 중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시간이 4시간 28분(18.6%)으로 가장 길고, 실내놀이와 기본생활시간이 1시간 46분(7.4%)으로 두 번째로 길었다. 토요일 하루일과 중에는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이 2시간 15분(9.4%), 기타 시간이 1시간 59분(8.5%) 순서로 길었고 일요일은 기타시간 2시간 13분(9.3%),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 2시간 8분(8.9%)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양육 2세아의 경우,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 하루일과 중 실내놀이시간이 각각 2시간 46~48분(11.6~11.7%)으로 가장 길었고 평일에는 기본생활시간(2시간 11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2시간 21분, 2시간 33분)이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교육시간(시간제 교육과 기타 교육을 합한 시간)은 어린이집 2세아 22~31분, 반일제 이상 학원 1시간 18~1시간 40분, 가정양육 1시간 15분~1시간 48분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2세 하루일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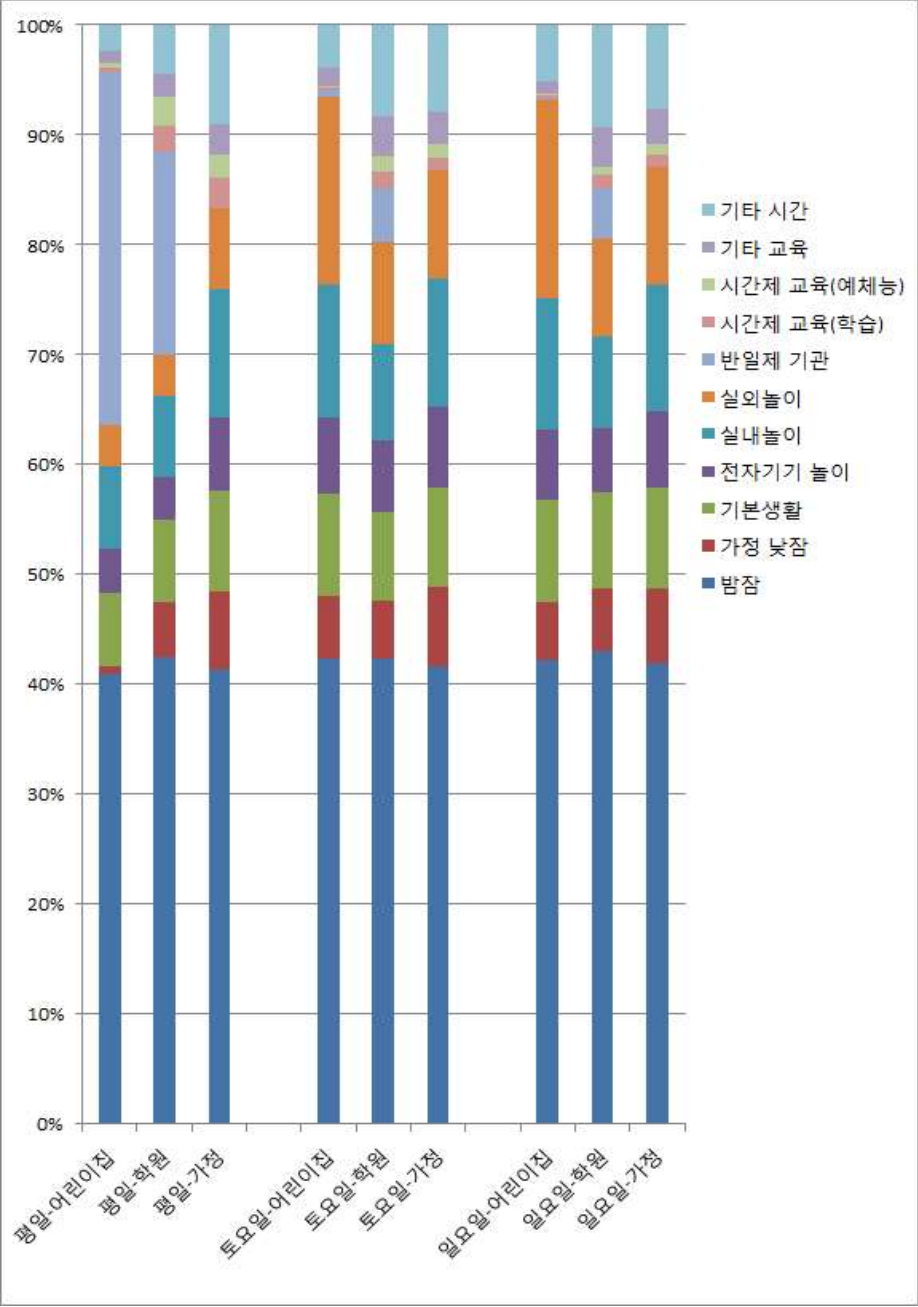
단위: 시(표준편차), 분(24시간 대비 비율)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취침 시각	22.1 (0.6)	22.2 (0.9)	22.0 (0.8)	21.8 (1.0)	22.0 (1.1)	22.0 (1.1)	21.8 (0.8)	22.0 (0.9)	21.9 (0.9)	
기상 시각	7.8 (0.6)	8.3 (0.7)	8.1 (0.7)	7.6 (1.5)	7.8 (1.7)	7.9 (1.7)	7.7 (0.9)	8.1 (1.0)	8.0 (1.0)	
밤잠	586.1 (40.7)	606.1 (42.1)	603.7 (41.9)	612.0 (42.5)	610.4 (42.4)	619.4 (43)	597.7 (41.5)	600.5 (41.7)	604.8 (42.0)	
가정 낮잠	10.9 (0.8)	80.8 (5.6)	76.9 (5.3)	73.0 (5.1)	75.0 (5.2)	82.7 (5.7)	100.3 (7.0)	103.6 (7.2)	97.9 (6.8)	
기본생활 시간*	95.5 (6.6)	134.1 (9.3)	132.1 (9.2)	106.0 (7.4)	116.0 (8.1)	126.0 (8.8)	131.9 (9.2)	131.2 (9.1)	131.1 (9.1)	
전자기기 놀이	57.4 (4.0)	97.5 (6.8)	91.5 (6.4)	56.3 (3.9)	93.7 (6.5)	83.7 (5.8)	96.3 (6.7)	106.6 (7.4)	98.8 (6.9)	
실내놀이	107.5 (7.5)	173.4 (12.0)	169.3 (11.8)	106.0 (7.4)	125.0 (8.7)	120.0 (8.3)	168.1 (11.7)	166.4 (11.6)	166.8 (11.6)	
바깥놀이 및 외출	53.6 (3.7)	244.3 (17.0)	258.5 (18.0)	52.9 (3.7)	134.9 (9.4)	127.9 (8.9)	105.9 (7.4)	141.9 (9.9)	153.7 (10.7)	
반일제 기관 이용 시간	459.3 (31.9)	6.8 (0.5)	2.0 (0.1)	268.1 (18.6)	71.0 (4.9)	68.0 (4.7)	-	-	-	
시간 제 교육**	전체	12.8 (0.9)	7.8 (0.5)	6.2 (0.4)	70.7 (4.9)	42.7 (3.0)	26.7 (1.9)	68.8 (4.8)	33.4 (2.3)	30.5 (2.1)
	학습	6.3 (0.4)	4.5 (0.3)	4.3 (0.3)	33.7 (2.3)	20.7 (1.4)	16.7 (1.2)	40.5 (2.8)	15.9 (1.1)	16.3 (1.1)
	예체능	6.5 (0.5)	3.3 (0.2)	1.8 (0.1)	37.0 (2.6)	22.0 (1.5)	10.0 (0.7)	28.3 (2.0)	17.5 (1.2)	14.2 (1.0)
기타 교육***	15.2 (1.1)	23.1 (1.6)	16.1 (1.1)	30.0 (2.1)	52.0 (3.6)	52.0 (3.6)	40.1 (2.8)	43.0 (3.0)	45.1 (3.1)	
기타 시간	33.8 (2.3)	56.4 (3.9)	74.1 (5.1)	64.9 (4.5)	119.3 (8.3)	133.6 (9.3)	131.0 (9.1)	113.3 (7.9)	111.2 (7.7)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

***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그림 III-1-1] 2세 하루일과 시간(24시간 대비 비율)

〈표 III-1-2〉 2세 일과시간 참여율

단위: %(명)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정 낮잠	12.9 (100)	72.6 (360)	68.0 (347)	86.7 (26)	86.7 (26)	86.7 (26)	90.4 (66)	93.2 (68)	87.7 (64)	
기본생활 시간*	98.4 (425)	98.8 (428)	96.7 (425)	96.7 (29)	90.0 (27)	93.3 (28)	100.0 (73)	98.6 (72)	98.6 (72)	
전자기기 놀이	83.2 (380)	91.0 (405)	85.2 (399)	80.0 (24)	83.3 (25)	80.0 (24)	94.5 (69)	95.9 (70)	94.5 (69)	
실내놀이	98.7 (426)	98.2 (426)	96.3 (422)	96.7 (29)	93.3 (28)	93.3 (28)	100.0 (73)	100.0 (73)	100.0 (73)	
바깥놀이 및 외출	86.5 (377)	97.9 (425)	98.8 (429)	80.0 (24)	93.3 (28)	90.0 (27)	91.8 (67)	95.9 (70)	95.9 (70)	
반일제 기관 이용 시간	99.2 (431)	1.6 (12)	0.5 (5)	100.0 (30)	30.0 (9)	26.7 (8)	0.0 (0)	0.0 (0)	0.0 (0)	
시간 제 교육**	전체	24.5 (134)	12.1 (66)	10.5 (51)	66.7 (20)	36.7 (11)	23.3 (7)	54.8 (40)	28.8 (21)	26.0 (19)
	학습	16.1 (101)	8.9 (54)	10.5 (51)	46.7 (14)	30.0 (9)	23.3 (7)	49.3 (36)	26.0 (19)	26.0 (19)
	예체능	12.3 (64)	5.8 (34)	3.1 (26)	56.7 (17)	30.0 (9)	16.7 (5)	38.4 (28)	23.3 (17)	20.5 (15)
기타 교육***	34.9 (184)	38.4 (184)	27.6 (161)	53.3 (16)	60.0 (18)	60.0 (18)	52.1 (38)	52.1 (38)	53.4 (39)	
기타 시간	48.9 (208)	54.1 (248)	61.5 (255)	63.3 (19)	76.7 (23)	83.3 (25)	69.9 (51)	69.9 (51)	69.9 (5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

***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2세의 일과시간 참여율을 살펴보면(표 III-1-2), 어린이집 재원 2세아의 경우 기본생활시간과 실내놀이 참여율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90%가 넘었다. 전자기기놀이도 평일과 일요일은 83%~85%가 참여했으며, 토요일은 91%로 더 높았다. 바깥놀이 및 외출도 평일 참여율은 86.5%였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98% 수준으로 거의 모든 2세아가 주말에 바깥놀이 및 외출을 하였다.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보다는 시청각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 참여율이 높았으며, 시간제 교육 참여율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하여 평일에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2세아는 가정 낮잠, 기본생활시간, 전자기기 놀이, 실내놀이, 바깥놀이 및 외출 참여율이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80% 이상으로 높았다. 실내놀이는 주말보다 평일 참여율이 높고, 바깥놀이 및 외출은 평일보다 주말 참여율이 높았다. 시간제 교육은 주말보다 평일 참여율이 높았으며, 학

습보다 예체능 참여가 많았다.

가정양육 2세아의 경우 가정 낮잠, 기본생활시간, 전자기기 놀이, 실내놀이, 바깥놀이 및 외출 모두 90%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주말보다 평일 시간제 교육 참여율이 높았으며, 예체능보다 학습 부문 참여가 높았다.

즉, 2세아의 경우 바깥놀이 및 외출은 평일보다 주말에, 실내놀이와 시간제 교육은 주말보다 평일에 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5세의 하루일과 개요

5세아의 취침시각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후 9시 30분~10시, 기상시각은 평일 7시 30~40분, 토요일과 일요일 약 8시 경으로 나타나 평균 약 10시간 정도 밤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재원 5세아의 경우, 평일 하루일과 중 밤잠시간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7시간 21분(하루 24시간 중 30.7%)으로 가장 길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일과 중에는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이 각각 3시간 36분(15%), 3시간 41분(15.3%)으로 가장 길었고 실내놀이가 2시간 32분(10.5%), 2시간 33분(10.6%)으로 두 번째로 길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의 평일은 유치원 이용 시간이 7시간 33분(31.5%), 기본생활시간 1시간 27분(6.0%) 순이었다. 토요일은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 3시간 28분(14.4%), 실내놀이가 2시간 53분(12.0%), 일요일은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 3시간 48분(15.9%), 실내놀이가 2시간 47분(11.6%) 순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5세아는 평일에 평균 5시간 54분(24.6%)을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보냈고, 기본생활시간 1시간 35분(6.6%), 실내놀이가 1시간 26분(6%), 시간제 교육시간 1시간 21분(5.6%) 순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이 3시간 20~40분으로 가장 길었고, 실내놀이 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 전자기기를 이용한 놀이시간은 2시간 이상이였다.

가정 양육 5세아의 경우 평일은 기타 시간이 가장 길고, 시간제 교육시간도 3시간 가까이 되었다. 가정 양육 5세아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2시간 38, 54분으로 반일제 이상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의 주말보다 주말 하루 평균 40분~1시간 정도 짧았다.

한편, 예체능과 학습 시간제 교육시간과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을 합쳐서 가정 양육의 경우 평일 하루 3시간 50분을 할애했지

만,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1시간 50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는 1시간 20~30분으로 나타났다. 주말도 반일제 이상 기관 재원아의 교육시간이 약 1시간인 반면 가정 양육은 하루 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또한, 반일제 이상 기관에 다니는 5세아는 평일에는 예체능 교육보다 학습 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나 가정양육 5세아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예체능보다 학습 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5세 하루일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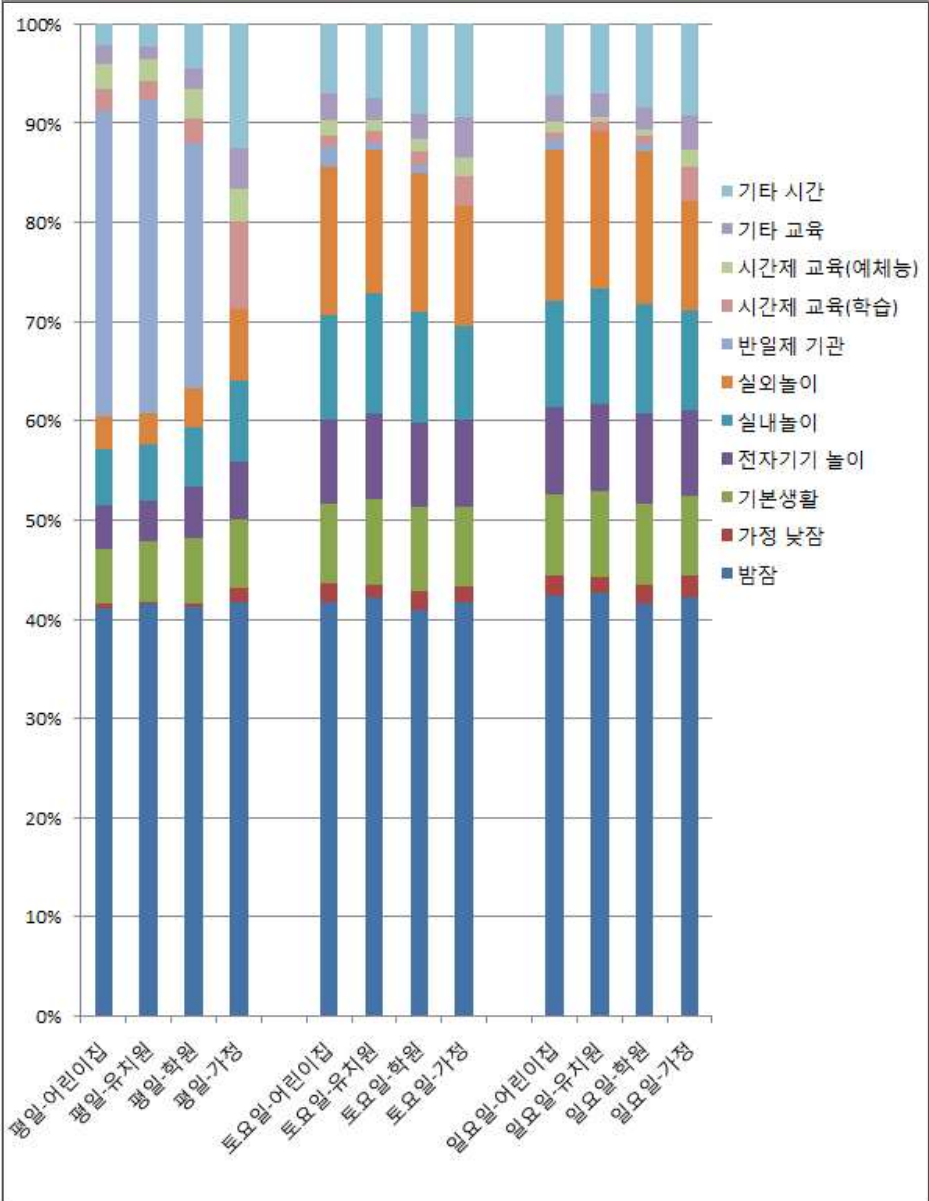
단위: 시(표준편차), 분(24시간 대비 비율)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취침 시각	21.7 (0.6)	22.1 (0.8)	21.9 (0.8)	21.6 (0.7)	22.0 (0.8)	21.8 (0.7)	21.8 (0.6)	22.3 (0.7)	22.0 (0.7)	21.5 (0.6)	21.9 (0.8)	21.6 (0.7)	
기상 시각	7.6 (0.6)	8.1 (0.9)	8.0 (0.8)	7.6 (0.5)	8.1 (0.8)	8.0 (0.8)	7.7 (0.5)	8.1 (0.8)	7.9 (0.8)	7.5 (0.8)	7.9 (1.0)	7.8 (1.1)	
밤잠	589.7 (41)	600.0 (41.7)	608.7 (42.3)	599.0 (41.6)	605.8 (42.1)	613.0 (42.6)	593.5 (41.2)	590.4 (41)	596.9 (41.5)	599.4 (41.6)	600.6 (41.7)	607.0 (42.2)	
가정 낮잠	7.2 (0.5)	25.2 (1.8)	28.6 (2.0)	3.3 (0.2)	19.4 (1.3)	23.6 (1.6)	6.0 (0.4)	25.3 (1.8)	27.9 (1.9)	20.0 (1.4)	23.6 (1.6)	32.1 (2.2)	
기본생활 시간*	79.2 (5.5)	117.2 (8.1)	118 (8.2)	87.0 (6.0)	124.4 (8.6)	123.8 (8.6)	94.8 (6.6)	121.7 (8.5)	117.6 (8.2)	101.2 (7.0)	115.5 (8.0)	115.8 (8.0)	
전자기기 놀이	64.0 (4.4)	121.4 (8.4)	127.3 (8.8)	58.8 (4.1)	124.2 (8.6)	126.2 (8.8)	72.9 (5.1)	121.7 (8.5)	132.3 (9.2)	84.2 (5.8)	127.3 (8.8)	123.6 (8.6)	
실내놀이	81.8 (5.7)	151.9 (10.5)	153.3 (10.6)	82.2 (5.7)	173.4 (12.0)	167.2 (11.6)	85.7 (6.0)	161.9 (11.2)	156.9 (10.9)	117.3 (8.1)	136.4 (9.5)	144.5 (10.0)	
바깥놀이 및 외출	47.0 (3.3)	215.7 (15.0)	220.5 (15.3)	46.1 (3.2)	208.0 (14.4)	228.3 (15.9)	58.1 (4.0)	202.3 (14.0)	221.9 (15.4)	104.5 (7.3)	174.5 (12.1)	158.2 (11.0)	
반일제 기관 이용 시간	441.8 (30.7)	27.7 (1.9)	14.3 (1.0)	453.3 (31.5)	9.6 (0.7)	1.6 (0.1)	354.1 (24.6)	11.1 (0.8)	12.0 (0.8)	-	-	-	
시간 제 교육**	전체	68.4 (4.8)	39.3 (2.7)	25.9 (1.8)	59.2 (4.1)	32.3 (2.2)	19.6 (1.4)	80.7 (5.6)	39.0 (2.7)	21.1 (1.5)	174.5 (12.1)	70.0 (4.9)	74.8 (5.2)
	학습	31.7 (2.2)	16.7 (1.2)	10.5 (0.7)	27.4 (1.9)	18.0 (1.3)	12.7 (0.9)	36.6 (2.5)	20.1 (1.4)	12.7 (0.9)	125.2 (8.7)	41.8 (2.9)	50.0 (3.5)
	예체능	36.7 (2.5)	22.6 (1.6)	15.5 (1.1)	31.8 (2.2)	14.4 (1.0)	6.9 (0.5)	44.1 (3.1)	18.9 (1.3)	8.4 (0.6)	49.4 (3.4)	28.2 (2.0)	24.8 (1.7)
기타 교육***	26.2 (1.8)	38.0 (2.6)	38.7 (2.7)	18.5 (1.3)	33.7 (2.3)	33.7 (2.3)	29.4 (2.0)	36.9 (2.6)	32.3 (2.2)	58.2 (4.0)	57.3 (4.0)	50.9 (3.5)	
기타 시간	31.2 (2.2)	100.9 (7.0)	102.0 (7.1)	32.6 (2.3)	106.6 (7.4)	100.4 (7.0)	64.7 (4.5)	129.7 (9.0)	121.3 (8.4)	180.6 (12.5)	134.8 (9.4)	133.0 (9.2)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

***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그림 III-1-2] 5세 하루일과 시간(24시간 대비 비율)

5세의 일과시간 참여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원 5세아의 경우 기본생활시간과 전자기기 놀이, 실내놀이는 평일과 주말 모두 90% 이상 참여하였다. 어린이집 재원 5세아는 평일에 10% 미만인, 주말에는 35% 정도가 낮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재원 5세아의 80% 이상이 평일 시간제 교육을 받았고, 기타 교육은 50% 수준이었다.

유치원 재원 5세아의 가정낮잠 참여율은 평일과 주말 모두 어린이집 재원 5세아보다 낮아, 평일은 7.3%, 토요일과 일요일은 25%~28% 수준이었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놀이 참여율은 주말이 평일보다 높았으며, 평일은 85%, 토요일과 일요일은 95%로 나타났다. 유치원 재원 5세아의 시간제 교육 참여율은 평일 77.2%, 토요일 37.2%, 일요일 24.6%였으며, 예체능보다 학습 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기타교육은 평일과 주말 모두 4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5세아는 평일에 8.6%가 가정에서 낮잠을 자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30% 정도가 낮잠을 잤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놀이 참여율은 평일은 90% 미만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9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5세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5세아와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바깥놀이 및 외출 참여율이 80% 미만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의 모든 5세아가 바깥놀이 및 외출에 참여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5세아의 평일 시간제 교육 참여율은 다른 기관 재원아에 비하여 조금 높아 82.9%였으며 토요일 참여율도 47.1%로 높았다. 평일에는 예체능과 학습 교육 참여율이 비슷하였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체능보다 학습 사교육 위주로 참여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5세아의 평일 기타 교육 참여율은 52.9%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5세아에 비하여 높았다.

가정양육 5세아는 기관이나 학원 재원 5세아보다 평일 가정에서의 낮잠 참여율이 높아 24.2%였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놀이 참여율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90%가 넘었으며, 실내놀이와 바깥놀이 및 외출 참여율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100%로 나타났다. 가정 양육 5세아의 평일 시간제 교육 참여율은 90.9%로 모든 재원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기타 교육 참여율도 다른 기관이나 학원 재원 5세아보다 평일은 30% 이상, 주말은 20% 이상 높았다.

모든 5세아들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학습 및 예체능 시간제 교육을 2배 이상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5세 일과시간 참여율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정 낮잠	9.4 (19)	34.9 (94)	36.9 (97)	7.3 (20)	25.2 (74)	28.4 (84)	8.6 (6)	31.4 (22)	30.0 (21)	24.2 (8)	30.3 (10)	39.4 (13)	
기본생활 시간*	95.2 (293)	98.8 (295)	99.2 (296)	98.9 (297)	98.8 (297)	98.4 (295)	97.1 (68)	95.7 (67)	91.4 (64)	100.0 (33)	100.0 (33)	100.0 (33)	
전자기기 놀이	91.8 (266)	94.5 (281)	92.9 (281)	84.7 (253)	94.1 (284)	95.4 (286)	87.1 (61)	92.9 (65)	95.7 (67)	90.9 (30)	93.9 (31)	90.9 (30)	
실내놀이	99.2 (295)	99.1 (295)	98.9 (293)	97.0 (290)	99.0 (297)	97.3 (291)	98.6 (69)	98.6 (69)	95.7 (67)	100.0 (33)	100.0 (33)	100.0 (33)	
바깥놀이 및 외출	78.3 (233)	96.8 (289)	99.1 (293)	77.7 (233)	97.5 (292)	98.2 (294)	77.1 (54)	98.6 (69)	97.1 (68)	100.0 (33)	100.0 (33)	100.0 (33)	
반일제 기관 이용 시간	99.7 (299)	6.7 (21)	3.3 (10)	100.0 (300)	2.1 (6)	0.3 (1)	100.0 (70)	4.3 (3)	4.3 (3)	0.0 (0)	0.0 (0)	0.0 (0)	
시간 제 교육**	전체	81.5 (233)	41.4 (119)	28.5 (91)	77.2 (229)	37.2 (109)	24.6 (75)	82.9 (58)	47.1 (33)	24.3 (17)	90.9 (30)	45.5 (15)	45.5 (15)
	학습	65.6 (187)	25.9 (92)	28.5 (91)	61.7 (183)	31.4 (93)	24.6 (75)	62.9 (44)	31.4 (22)	24.3 (17)	81.8 (27)	39.4 (13)	45.5 (15)
	예체능	58.3 (152)	26.0 (57)	17.4 (35)	51.6 (153)	17.3 (50)	7.9 (25)	61.4 (43)	25.7 (18)	12.9 (9)	69.7 (23)	30.3 (10)	27.3 (9)
기타 교육***	48.4 (122)	45.1 (140)	44.9 (133)	40.5 (121)	44.8 (133)	42.3 (123)	52.9 (37)	47.1 (33)	42.9 (30)	81.8 (27)	66.7 (22)	63.6 (21)	
기타 시간	60.8 (150)	77.9 (198)	77.8 (206)	56.0 (164)	76.4 (228)	72.9 (218)	71.4 (50)	74.3 (52)	72.9 (51)	81.8 (27)	75.8 (25)	75.8 (25)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

***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2. 2세의 하루일과

가. 생활시간

2세의 하루일과 중 생활시간, 놀이시간 및 교육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평균값을 재원기관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2세아의 평일 생활시간의 경우 밤잠은 9시간 49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1시간 36분, 기본생활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였다.

2세아의 평일 밤잠시간은 지역과 맞벌이 여부, 부모학력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읍·면은 9시간 40분인 반면 대도시는 10시간이었으며, 맞벌이인 경우 9시간 41분, 외벌이인 경우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은 9시간 50분 정도이며, 대학원졸 이상은 9시간 40분, 고졸 이하는 9시간 30분으로 고졸 이하 부모의 2세아의 경우 밤잠시간이 가장 짧았다.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기본생활시간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는 1시간 36분, 중소도시는 1시간 50분, 읍·면은 1시간 29분으로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가 기본생활시간이 길었다.

〈표 III-2-1〉 평일 생활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589.2 (41.2)	96.1 (43.7)	102.5 (46.7)
재원기관			
어린이집	586.1 (36.6)	84.1 (28.8)	97.0 (41.1)
학원	612.0 (58.1)	84.3 (30.6)	109.7 (57.4)
가정양육	597.7 (54.0)	110.9 (53.4)	131.9 (60.2)
<i>F</i>	na	na	na
지역			
대도시	600.9 ^b (41.0)	87.3 (37.8)	95.6 ^{ab} (47.9)
중소도시	580.4 ^a (38.9)	105.4 (48.9)	110.3 ^b (45.7)
읍·면	581.0 ^a (42.1)	100.2 (39.2)	88.5 ^a (35.6)
<i>F</i>	17.13 ^{***}	3.06	8.10 ^{***}
맞벌이여부			
맞벌이	581.8 (38.5)	94.3 (32.9)	100.0 (48.2)
외벌이	600.1 (42.8)	97.8 (52.1)	106.5 (44.0)
<i>t</i>	-5.16 ^{***}	-0.49	-1.58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595.4 (43.9)	105.4 (50.2)	96.9 (32.7)
265~370만원	588.6 (44.7)	95.7 (55.1)	105.2 (39.8)
370~480만원	591.2 (38.3)	93.9 (34.5)	95.2 (49.8)
480만원 이상	586.3 (39.8)	94.8 (38.9)	106.8 (51.8)
<i>F</i>	na	0.30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571.9 ^a (41.9)	95.3 (33.3)	108.4 (41.7)
전문대졸	590.3 ^b (38.6)	82.2 (30.6)	87.3 (35.7)
대졸	593.5 ^b (41.7)	102.4 (48.9)	106.6 (50.4)
대학원졸 이상	581.4 ^{ab} (41.3)	98.0 (43.5)	114.6 (47.9)
<i>F</i>	4.61 ^{**}	1.92	na

** $p < .01$. *** $p < .0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1) 각 생활시간에 참여하는 사례의 평균임.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세아의 토요일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밤잠시간은 10시간 6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1시간 50분, 기본생활시간은 2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밤잠시간은 재원기관 및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읍·면에 사는 2세아는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이 2시간 5분으로 대도시 1시간 43분보다 약 20분 길었다.

2세아의 기본생활시간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 대도시와 읍·면은 2시간 정도인 반면 중소도시는 2시간 30분으로 길었다.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대학원졸 이상 부모의 2세 자녀는 2시간 44분으로 다른 학력수준에 비하여 25~50분정도 길게 기본생활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토요일 생활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605.6 (53.4)	109.8 (39.0)	135.0 (55.2)
재원기관			
어린이집	606.1 (52.2)	111.4 (35.3)	135.8 (53.7)
학원	610.4 (67.8)	86.6 (37.3)	128.9 (65.3)
가정양육	600.5 (54.5)	111.2 (51.8)	133.1 (60.5)
<i>F</i>	0.47	na	0.25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지역			
대도시	609.6 (50.9)	103.4 ^a (38.7)	119.4 ^a (53.9)
중소도시	601.8 (54.4)	112.8 ^{ab} (37.8)	150.4 ^b (52.7)
읍·면	609.3 (60.7)	124.6 ^b (44.1)	117.7 ^a (49.5)
<i>F</i>	1.39	5.01 ^{**}	22.91 ^{***}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16.2 (45.5)	107.9 (37.7)	139.2 (44.6)
265~370만원	592.7 (56.1)	113.8 (46.1)	142.3 (53.2)
370~480만원	597.9 (46.6)	109.8 (35.9)	131.2 (52.8)
480만원 이상	612.2 (56.1)	108.4 (37.2)	131.8 (60.4)
<i>F</i>	na	0.43	1.24
부모학력			
고졸 이하	592.5 (57.2)	132.8 (41.8)	139.9 ^a (55.2)
전문대졸	605.7 (54.4)	114.9 (33.2)	117.2 ^a (52.5)
대졸	609.0 (54.8)	102.5 (40.4)	136.1 ^a (53.1)
대학원졸 이상	600.8 (42.1)	118.5 (36.9)	164.0 ^b (56.0)
<i>F</i>	na	na	12.46 ^{***}

** $p < .01$, *** $p < .0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세아의 일요일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밤잠시간은 10시간 5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1시간 52분, 기본생활시간은 2시간 16분이었다.

일요일 밤잠시간은 맞벌이 여부, 부모학력,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외벌이는 10시간 16분, 맞벌이는 9시간 57분으로 외벌이 부모 2세 자녀의 일요일 밤잠시간이 길었다. 부모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졸 이상이 9시간 43분인 반면, 다른 부모의 2세 자녀는 밤잠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는데 특히, 고졸이하는 10시간 20분으로 가장 길었다.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10시간 8분으로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보다 10분정도 일요일 밤잠시간이 길었다.

2세아의 일요일 생활시간 중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생활시간은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만 보였다. 대학원졸업 이상 2세 자녀는 2시간 47분으로 다른 학력수준에 비하여 일요일 기본생활시간이 30~50분정도 길었다.

〈표 III-2-3〉 일요일 생활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604.7 (48.5)	111.6 (37.8)	136.0 (54.6)
재원기관			
어린이집	603.7 (46.8)	113.0 (34.0)	136.6 (53.5)
학원	619.4 (63.1)	95.4 (40.2)	135.0 (57.4)
가정양육	604.8 (51.1)	111.7 (50.7)	132.9 (60.4)
<i>F</i>	1.47	na	0.14
지역			
대도시	617.4 (42.0)	106.4 (38.5)	121.1 (52.8)
중소도시	593.7 (49.7)	113.8 (37.1)	150.5 (52.7)
읍·면	607.2 (58.3)	123.2 (37.2)	117.3 (50.7)
<i>F</i>	na	na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597.1 (49.5)	113.4 (35.6)	133.8 (57.8)
외벌이	616.1 (44.6)	108.6 (41.2)	139.4 (49.1)
<i>t</i>	-4.54 ^{***}	1.22	-1.14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13.8 (40.5)	111.7 (35.5)	145.9 (43.9)
265~370만원	607.2 (54.4)	117.3 (44.0)	141.9 (50.5)
370~480만원	596.8 (48.6)	111.4 (34.3)	130.5 (52.3)
480만원 이상	604.1 (47.4)	108.7 (36.8)	132.7 (60.1)
<i>F</i>	na	0.98	1.87
부모학력			
고졸 이하	621.2 ^b (50.3)	129.1 (40.1)	138.7 ^a (52.3)
전문대졸	610.8 ^b (48.9)	116.9 (29.9)	119.8 ^a (51.7)
대졸	604.6 ^b (45.4)	105.2 (39.8)	136.0 ^a (53.7)
대학원졸 이상	582.7 ^a (50.9)	118.0 (37.2)	167.0 ^b (52.3)
<i>F</i>	7.81 ^{***}	na	12.69 ^{***}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598.8 (50.6)	116.8 (45.7)	136.3 (56.7)
없음	607.8 (47.1)	109.2 (33.3)	135.8 (53.6)
<i>t</i>	-2.06 [*]	1.66	0.10

** $p < .05$, *** $p < .0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나. 놀이시간

2세아가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 평일 평균 1시간 14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은 1시간 57분,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은 1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

2세아의 평일 놀이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자기기놀이(9분), 실내놀이(20분), 바깥놀이 및 외출(16분) 모두 맞벌이보다 외벌이 부모의 2세 자녀가 참여하는 경우 더 긴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놀이 시간은 부모학력,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이하 1시간 33분, 대졸 1시간 20분, 전문대졸 1시간 6분, 대학원졸 이상 57분 순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과 고졸 이하 자녀의 전자기기 놀이시간은 평일 하루 40분 이상의 차이가 났다.

〈표 III-2-4〉 평일 놀이시간(2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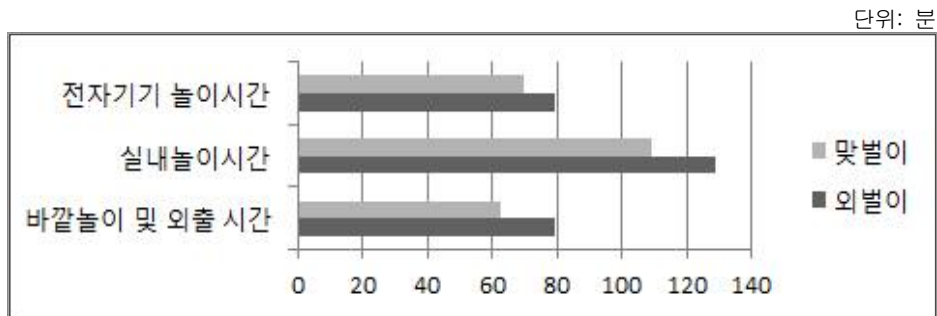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74.1 (45.1)	117.1 (66.0)	69.8 (40.2)
재원기관			
어린이집	69.0 (40.9)	108.9 (56.6)	61.9 (30.5)
학원	70.4 (37.5)	109.7 (81.5)	66.2 (34.0)
가정양육	101.9 (57.1)	168.1 (86.0)	115.4 (57.2)
<i>F</i>	na	na	na
지역			
대도시	73.4 (48.8)	127.0 (70.2)	74.9 (42.2)
중소도시	74.4 (42.6)	111.5 (63.5)	63.6 (35.6)
읍·면	76.4 (37.1)	95.1 (45.3)	80.8 (51.8)
<i>F</i>	0.07	na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70.0 (42.9)	109.2 (62.7)	62.7 (36.4)
외벌이	79.2 (47.3)	129.0 (69.2)	79.1 (43.0)
<i>t</i>	-2.15 [*]	-3.43 ^{***}	-4.35 ^{***}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59.8 (35.8)	145.2 (79.6)	80.1 (45.7)
265~370만원	81.0 (49.2)	110.9 (68.1)	74.5 (48.2)
370~480만원	86.2 (50.0)	113.2 (53.4)	72.2 (38.0)
480만원 이상	69.8 (41.3)	112.3 (63.4)	63.2 (33.8)
<i>F</i>	na	na	na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부모학력			
고졸 이하	93.1 ^c (34.7)	112.1 (49.6)	68.4 (28.8)
전문대졸	65.8 ^{ab} (44.2)	105.3 (56.1)	64.0 (35.6)
대졸	79.5 ^{bc} (45.8)	122.3 (72.5)	73.2 (45.7)
대학원졸 이상	57.3 ^a (42.6)	124.5 (66.1)	69.1 (28.3)
<i>F</i>	8.00 ^{***}	na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64.0 (39.3)	122.5 (74.9)	69.4 (32.9)
없음	79.4 (47.0)	114.2 (60.8)	70.0 (43.5)
<i>t</i>	-3.71 ^{***}	1.29	-0.16

* $p < .05$,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 c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그림 III-2-1]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일 놀이시간(2세)

2세아의 토요일 놀이시간을 살펴보면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1시간 48분, 실내놀이시간 2시간 53분, 바깥놀이 및 외출 3시간 50분으로 나타났다. 2세아의 토요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내놀이시간은 재원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바깥놀이 및 외출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2세아는 토요일 실내놀이시간이 2시간 45~55분 정도였으나, 학원 이용 2세아는 2시간 14분으로 실내놀이시간이 짧았다. 바깥놀이 및 외출은 외벌이 가구 2세아는 3시간 39분, 맞벌이는 3시간 58분으로 맞벌이가 길었다.

〈표 III-2-5〉 토요일 놀이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108.0 (62.3)	172.9 (89.2)	230.3 (104.0)
재원기관			
어린이집	107.1 (61.3)	176.5 ^b (89.0)	249.6 (99.3)
학원	112.4 (70.5)	133.9 ^a (79.4)	144.6 (80.8)
가정양육	111.1 (65.2)	166.4 ^{ab} (90.7)	148.0 (80.5)
<i>F</i>	0.189	3.24*	na
지역			
대도시	102.6 (66.9)	179.8 (98.9)	245.5 (115.7)
중소도시	111.1 (59.7)	169.3 (79.9)	218.2 (91.5)
읍·면	116.1 (51.6)	154.8 (88.2)	225.2 (103.9)
<i>F</i>	na	1.62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109.1 (62.9)	168.7 (97.0)	237.9 (105.0)
외벌이	106.2 (61.4)	179.2 (75.7)	218.8 (101.5)
<i>t</i>	0.51	-1.39	2.07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03.4 (46.7)	174.1 (61.8)	233.8 (97.7)
265~370만원	120.5 (60.3)	188.1 (90.7)	204.3 (96.6)
370~480만원	115.6 (56.0)	144.7 (74.8)	250.8 (118.4)
480만원 이상	98.8 (68.8)	178.5 (99.7)	232.4 (100.1)
<i>F</i>	na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25.1 (41.4)	209.3 (89.7)	215.7 (105.2)
전문대졸	110.7 (58.9)	161.4 (66.2)	250.1 (116.8)
대졸	108.3 (70.0)	183.6 (96.0)	224.4 (96.5)
대학원졸 이상	91.1 (44.0)	132.7 (86.0)	221.0 (99.1)
<i>F</i>	na	na	na

* $p < .05$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세아의 일요일 놀이시간을 살펴보면,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1시간 47분, 실내놀이시간은 2시간 52분, 바깥놀이 및 외출은 4시간 2분으로 바깥놀이 및 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요일 실내놀이시간은 재원기관, 월평균 가구수입, 보조 양육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학원이용 2세아의 일요일 실내놀이시간은 2시간

9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은 2시간 47분, 2시간 56분으로 각각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370~480만원이 2시간 22분으로 실내 놀이시간이 짧았으며 다른 수입수준 가구의 2세 자녀 일요일 실내놀이시간은 3시간대였다. 보조 양육자 유무에 따라서는 양육자가 없는 경우 실내놀이시간이 2시간 42분, 보조자가 있는 경우 3시간 10분으로 보조자가 있는 경우 2세아의 일요일 놀이시간이 길었다.

바깥놀이 및 외출은 재원기관 및 보조 양육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 2세아는 일요일 놀이시간이 4시간이 넘었으나 학원과 가정양육 2세아는 3시간 미만이었다. 한편,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이 30분 정도 길었다.

〈표 III-2-6〉 일요일 놀이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106.9 (59.2)	171.9 (89.9)	242.0 (111.4)
재원기관			
어린이집	107.5 (58.1)	175.7 ^b (89.6)	261.6 ^b (107.1)
학원	104.6 (62.5)	128.6 ^a (73.9)	142.1 ^a (80.0)
가정양육	104.5 (64.5)	166.8 ^{ab} (93.3)	160.3 ^a (88.3)
<i>F</i>	0.09	3.79 [*]	41.91 ^{***}
지역			
대도시	102.3 (62.1)	186.6 (104.9)	244.0 (130.1)
중소도시	110.2 (58.3)	164.0 (76.4)	240.2 (93.4)
읍·면	110.0 (46.4)	141.6 (69.6)	242.4 (110.6)
<i>F</i>	1.01	na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03.3 (44.7)	185.5 ^b (82.9)	217.3 (95.0)
265~370만원	120.9 (58.8)	180.4 ^b (80.8)	219.4 (93.1)
370~480만원	111.1 (52.1)	141.9 ^a (76.2)	262.3 (115.4)
480만원 이상	98.6 (66.0)	178.0 ^b (100.0)	252.1 (120.1)
<i>F</i>	na	5.53 ^{***}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22.1 (36.8)	165.6 (64.6)	244.9 (91.9)
전문대졸	103.5 (57.3)	177.3 (70.0)	242.4 (114.9)
대졸	107.9 (65.5)	181.8 (101.1)	243.5 (114.6)
대학원졸 이상	98.5 (47.3)	129.1 (84.2)	233.4 (104.7)
<i>F</i>	na	na	0.17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00.7 (57.8)	189.8 (110.7)	221.0 (103.8)
없음	110.0 (59.8)	162.4 (74.9)	253.0 (113.8)
<i>t</i>	-1.59	2.98**	-3.16**

** $p < .05$, * $p < .01$,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다. 교육시간

2세아의 평일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강사에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중 학습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평균 56분, 예체능은 61분이었으며,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51분으로 나타났다. 통계검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집, 학원, 가정양육 순서로 평일 교육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2-7〉 평일 교육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학습	예체능	
전체	55.9(52.3)	60.9(32.3)	50.8(35.1)
재원기관			
어린이집	39.2 (27.2)	52.7 (23.8)	43.6 (23.5)
학원	72.1 (50.7)	65.3 (21.8)	56.3 (21.6)
가정양육	82.1 (74.3)	73.8 (45.4)	77.1 (58.7)
<i>F</i>	na	na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48.6 (20.4)	42.5 (16.2)	49.7 (32.1)
265~370만원	67.0 (59.2)	71.7 (54.5)	46.9 (23.9)
370~480만원	60.3 (70.7)	65.2 (27.1)	59.6 (53.0)
480만원 이상	48.2 (37.6)	57.2 (23.2)	47.3 (24.1)
<i>F</i>	0.94	na	1.58

2세아의 토요일 교육시간은 학습 56분, 예체능 1시간 6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1시간 6분으로 나타났다. 2세아의 토요일

교육시간도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일 교육시간과 마찬가지로 2세아의 토요일 교육시간도 어린이집 이용 2세아보다 학원과 가정양육 2세아의 교육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었다.

〈표 III-2-8〉 토요일 교육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학습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예체능	교육시간	
전체	55.9 (25.9)	66.0 (36.1)	66.1 (42.7)
재원기관			
어린이집	50.3 (25.8)	57.1 (21.6)	60.2 (34.5)
학원	68.9 (20.3)	73.3 (26.5)	86.7 (45.9)
가정양육	61.1 (26.2)	75.3 (52.7)	82.6 (63.1)
<i>F</i>	2.51	na	na
지역			
대도시	58.5 (24.5)	64.7 (39.4)	69.4 (50.8)
중소도시	51.9 (27.9)	69.1 (32.9)	60.7 (33.4)
읍·면	56.9 (27.5)	62.0 (21.1)	85.0 (45.6)
<i>F</i>	0.49	0.10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0.6 (18.9)	54.2 (24.6)	75.3 (50.9)
265~370만원	49.0 (26.9)	62.5 (34.2)	62.0 (34.8)
370~480만원	52.5 (24.5)	92.7 (64.6)	74.9 (54.4)
480만원 이상	60.0 (30.5)	61.3 (23.1)	60.1 (34.4)
<i>F</i>	0.84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37.0 (16.3)	57.2 (99.5)	70.1 (34.8)
전문대졸	50.9 (30.6)	54.9 (28.5)	77.8 (44.8)
대졸	60.1 (24.7)	69.0 (39.2)	60.0 (46.3)
대학원졸 이상	52.4 (14.4)	72.0 (30.3)	64.4 (27.2)
<i>F</i>	1.07	0.49	na

2세아의 일요일 교육시간은 학습 54분, 예체능 1시간 4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1시간 7분으로 나타났다. 강사에 의한 개인 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중 학습은 재원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 2세아는 46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학원과 가정양육 2세아는 1시간이 넘었다.

〈표 III-2-9〉 일요일 교육시간(2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학습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교육시간	예체능	
전체	54.1 (25.6)	63.8 (42.1)	67.0 (44.6)
재원기관			
어린이집	45.9 ^a (20.9)	58.9 (36.7)	58.4 (34.4)
학원	71.4 ^b (22.7)	60.0 (0.0)	86.7 (45.9)
가정양육	66.1 ^{ab} (29.1)	69.3 (53.4)	84.4 (62.0)
<i>F</i>	6.63 ^{**}	0.23	na

** $p < .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3. 5세의 하루일과

가. 생활시간

5세아의 평일 생활시간 중 밤잠시간은 10시간 가까이 되었으며,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 평일 평균 1시간 6분, 기본생활시간은 1시간 28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잠시간은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에 재원 중이거나 가정양육을 하는 5세아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재원 5세아보다 밤잠을 조금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밤잠시간이 길었고,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구 5세아의 밤잠시간이 15분가량 길었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265만원 미만 가구 5세아의 밤잠시간이 10시간을 넘어 가장 길었고, 480만원 이상 가구 5세아가 가장 짧았다.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서는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밤잠시간이 조금 길었다.

기본생활시간은 맞벌이 여부와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벌이 가구 5세아가 맞벌이 가구 5세아보다 기본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9분 정도 길었다. 또한,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보다 기본생활시간이 10분 길었다.

〈표 III-3-1〉 평일 생활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594.5 (37.8)	65.7 (32.5)	87.6 (40.7)
재원기관			
어린이집	589.7 (33.8)	76.6 (31.3)	83.3 (40.8)
유치원	599.0 (40.0)	44.4 (21.1)	88.0 (38.5)
학원	593.5 (39.0)	70.0 (24.5)	97.6 (45.5)
가정양육	599.4 (43.4)	82.5 (41.7)	101.2 (44.6)
<i>F</i>	3.31*	na	na
지역			
대도시	599.2 (39.4)	70.1 (38.9)	90.9 (43.2)
중소도시	592.3 (36.5)	62.0 (25.6)	85.7 (39.2)
읍·면	589.5 (37.1)	62.3 (32.8)	86.0 (39.4)
<i>F</i>	3.37	na	1.25
맞벌이여부			
맞벌이	587.7 (36.1)	63.3 (31.2)	83.7 (38.5)
외벌이	604.0 (38.1)	67.8 (33.9)	92.9 (43.1)
<i>t</i>	-5.79**	-0.55	-2.89**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02.6 ^b (39.4)	81.8 (35.3)	84.9 (49.8)
265~370만원	595.8 ^{ab} (38.9)	58.2 (29.2)	89.8 (38.5)
370~480만원	600.5 ^b (37.7)	73.0 (44.1)	85.0 (38.5)
480만원 이상	586.9 ^a (35.3)	55.0 (21.8)	89.0 (39.8)
<i>F</i>	6.94***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586.6 (35.5)	71.9 (23.0)	77.4 (38.8)
전문대졸	596.1 (37.2)	55.0 (32.4)	87.1 (36.3)
대졸	595.9 (39.0)	71.1 (35.4)	89.6 (43.3)
대학원졸 이상	593.7 (35.4)	58.8 (29.8)	91.0 (39.0)
<i>F</i>	1.59	1.10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589.0 (37.7)	62.1 (29.0)	80.3 (39.3)
없음	596.7 (37.6)	67.5 (34.3)	90.5 (41.0)
<i>t</i>	-2.44*	-0.62	-2.98**

* $p < .05$, ** $p < .01$, *** $p < .0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1)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5세아의 토요일 생활시간은 밤잠시간 10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1시간 15분, 기본생활시간 2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밤잠시간은 맞벌이 여부와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 5세아의 토요일 밤잠시간이 길었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265만원 미만 가구 5세아의 토요일 밤잠시간이 10시간 20분으로 가장 길었고, 480만원 이상 가구 5세아는 10시간이 되지 않아 가장 짧았다. 토요일에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과 기본생활시간은 재원기관 및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2〉 토요일 생활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601.6 (45.6)	75.2 (33.7)	122.4 (53.5)
지역			
대도시	605.8 (45.8)	81.4 (35.2)	125.0 (54.6)
중소도시	599.5 (45.8)	69.6 (29.7)	121.1 (53.4)
읍·면	597.5 (43.5)	84.1 (43.3)	120.0 (50.2)
<i>F</i>	1.80	na	0.48
맞벌이여부			
맞벌이	598.5 (44.5)	72.0 (34.9)	121.7 (54.0)
외벌이	605.9 (46.9)	80.2 (31.4)	123.3 (52.9)
<i>t</i>	-2.13*	-1.74	-0.40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21.3 ^b (47.3)	86.8 (34.6)	110.3 (54.5)
265~370만원	597.9 ^a (45.3)	75.7 (34.2)	120.9 (52.6)
370~480만원	604.4 ^a (44.5)	69.4 (35.1)	125.6 (57.0)
480만원 이상	594.6 ^a (43.9)	74.4 (31.0)	125.5 (50.8)
<i>F</i>	9.17**	1.87	2.22
부모학력			
고졸 이하	592.5 (43.5)	80.9 (36.3)	108.7 (50.4)
전문대졸	600.1 (39.3)	85.1 (36.7)	121.4 (49.6)
대졸	604.4 (48.9)	69.3 (31.0)	125.7 (57.0)
대학원졸 이상	602.4 (45.2)	79.7 (33.7)	125.1 (47.9)
<i>F</i>	na	na	2.45

* $p < .05$, ** $p < .0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5세아의 일요일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밤잠시간 10시간 9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1시간 21분, 기본생활시간 2시간 3분이었다. 일요일 밤잠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외벌이 가구 5세아가 맞벌이 가구 5세아보다 일요일 밤잠시간이 길었다. 일요일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은 370만원 미만 가구의 5세아는 1시간 30분이 넘게 낮잠을 자는 반면, 370~480만원 가구의 5세아는 일요일에 낮잠을 1시간 정도 자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요일 기본생활시간은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길었다. 전문대졸 이하는 2시간 미만, 대졸 이상은 2시간 이상이었다.

〈표 III-3-3〉 일요일 생활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밤잠시간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기본생활시간*
전체	609.3 (46.6)	81.2 (50.0)	122.6 (53.3)
지역			
대도시	615.0 (50.3)	84.6 (42.6)	127.9 (56.2)
중소도시	604.7 (44.6)	74.4 (37.1)	120.3 (51.4)
읍·면	611.9 (41.1)	103.9 (96.0)	116.6 (52.1)
<i>F</i>	na	na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605.9 (44.3)	79.9 (56.8)	120.8 (53.0)
외벌이	614.1 (49.3)	83.4 (35.8)	125.3 (53.8)
<i>t</i>	-2.30*	-0.50	-1.10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21.5 (50.1)	97.5 ^b (38.3)	111.8 (52.1)
265~370만원	605.6 (46.5)	91.5 ^{ab} (70.8)	121.2 (53.9)
370~480만원	613.4 (50.4)	68.1 ^a (44.6)	124.3 (56.1)
480만원 이상	604.3 (41.6)	77.8 ^{ab} (37.1)	126.3 (51.4)
<i>F</i>	na	3.74*	1.83
부모학력			
고졸 이하	605.8 (42.5)	97.9 (49.4)	106.9 (44.4)
전문대졸	610.9 (40.1)	86.9 (73.3)	119.6 (49.1)
대졸	609.0 (51.0)	73.5 (36.6)	126.0 (57.2)
대학원졸 이상	611.0 (44.6)	84.6 (36.7)	132.0 (51.1)
<i>F</i>	na	na	4.10**

* $p < .05$, ** $p < .01$

주: *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나. 놀이시간

5세아는 평일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12분 참여하였고,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은 1시간 26분,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1시간 4분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맞벌이 여부, 부모학력,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구 5세아의 평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이 길었으며, 부모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가구 5세아가 다른 학력수준보다 20~30분가량 더 오래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5세아의 평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이 길었다.

5세아의 평일 실내놀이시간은 재원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5세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30분가량 더 오래 실내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5세아의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가 9분 길었으며, 다른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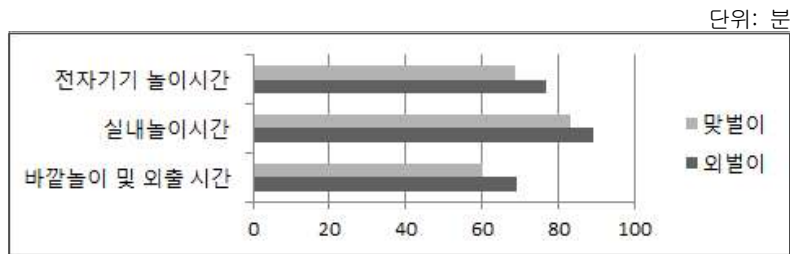
〈표 III-3-4〉 평일 놀이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72.1 (42.7)	85.6 (46.4)	63.9 (35.0)
재원기관			
어린이집	69.7 (39.3)	82.5 ^a (43.3)	60.1 (25.9)
유치원	69.4 (42.0)	84.8 ^a (46.1)	59.4 (30.7)
학원	83.6 (47.7)	87.0 ^a (41.2)	75.4 (42.1)
가정양육	92.7 (57.4)	117.3 ^b (70.5)	104.5 (65.9)
<i>F</i>	na	5.74 ^{***}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68.5 (37.6)	83.1 (47.4)	60.0 (28.4)
외벌이	76.9 (48.4)	88.9 (44.7)	69.0 (41.5)
<i>t</i>	-2.34 [*]	-1.62	-2.89 ^{**}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77.5 (50.9)	78.7 (38.6)	60.8 (30.7)
265~370만원	85.1 (49.3)	83.9 (48.3)	63.8 (37.4)
370~480만원	65.8 (36.5)	84.8 (47.9)	71.3 (38.0)
480만원 이상	66.5 (36.8)	89.4 (46.7)	60.6 (32.7)
<i>F</i>	na	1.40	na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부모학력			
고졸 이하	91.6 ^b (46.6)	80.3 (50.2)	58.7 (25.7)
전문대졸	72.6 ^a (38.8)	84.3 (43.7)	66.4 (30.6)
대졸	67.2 ^a (42.7)	83.4 (42.3)	63.6 (36.5)
대학원졸 이상	69.5 ^a (40.4)	102.8 (59.5)	66.1 (43.9)
<i>F</i>	7.37 ^{***}	na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79.5 (46.8)	87.5 (45.5)	64.4 (29.9)
없음	69.0 (40.5)	84.8 (46.7)	63.8 (36.6)
<i>t</i>	2.79 ^{**}	0.68	0.17

* $p < .05$, ** $p < .01$,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그림 III-2-2]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일 놀이시간(5세)

5세아의 토요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2시간 11분, 실내놀이시간 2시간 43분,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 3시간 35분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여, 265~370만원 가구의 5세아가 다른 5세아에 비하여 20분 정도 더 오래 전자기기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 가구의 5세아가 다른 학력수준보다 20~30분 더 길었고, 보조양육자가 있는 가구의 5세아가 없는 경우보다 25분 정도 길었다.

5세아의 토요일 실내놀이시간은 재원기관과 가구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며, 유치원 재원 5세아의 토요일 실내놀이시간은 3시간 가까이 되었으나 가정양육 5세아는 2시간 16분 수준이었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480만원 이상 가구 5세아의 토요일 놀이시간이 3시간 정도로 가장 길었고, 265~370만원인 가구 5세아는 2시간 30분으로 가장 짧았다. 5세아의 토요일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재원기관 및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5〉 토요일 놀이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130.5 (67.3)	162.9 (85.8)	214.7 (109.0)
재원기관			
어린이집	128.5 (66.4)	153.3 ^{ab} (80.4)	222.7 (109.9)
유치원	131.9 (68.3)	175.1 ^b (90.7)	213.4 (109.3)
학원	131.1 (63.5)	164.2 ^{ab} (85.3)	205.2 (114.5)
가정양육	135.5 (75.4)	136.4 ^a (73.9)	174.5 (72.9)
<i>F</i>	0.18	4.36 ^{**}	2.22
지역			
대도시	130.6 (65.4)	164.1 (86.3)	221.0 (118.6)
중소도시	125.6 (61.7)	162.1 (80.4)	213.3 (103.7)
읍·면	153.3 (90.5)	162.6 (107.5)	199.6 (98.0)
<i>F</i>	na	0.04	1.15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22.5 (68.0)	155.0 ^{ab} (82.2)	203.4 (88.3)
265~370만원	143.7 (76.0)	151.0 ^a (89.1)	221.1 (118.4)
370~480만원	125.4 (62.3)	153.1 ^{ab} (79.5)	222.0 (126.0)
480만원 이상	128.9 (63.7)	178.9 ^b (87.0)	209.9 (96.8)
<i>F</i>	2.76 [*]	5.27 ^{**}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52.1 ^b (69.4)	162.2 (81.7)	204.1 (103.4)
전문대졸	137.9 ^{ab} (64.8)	153.8 (81.8)	220.2 (118.2)
대졸	121.6 ^a (67.4)	163.5 (86.7)	212.9 (107.0)
대학원졸 이상	130.2 ^{ab} (62.9)	179.9 (92.9)	220.6 (102.5)
<i>F</i>	5.70 ^{**}	1.77	0.52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48.6 (76.4)	160.7 (74.9)	210.7 (101.1)
없음	123.7 (62.3)	163.7 (89.8)	216.2 (112.0)
<i>t</i>	3.91 ^{***}	-0.44	-0.60

** $p < .01$, *** $p < .001$

주: 1)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5세아의 일요일 놀이시간을 살펴보면,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2시간 15분, 실내놀이시간 2시간 43분, 바깥놀이 및 외출 3시간 44분이었다.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0분 가량 더 길었다. 실내놀이시간은 외벌이 가구 5세아가 맞벌이 가구 5세아보다 길었고,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재원기관 및 가구특성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6〉 일요일 놀이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전자기기 사용한 놀이시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신체활동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전체	135.1 (69.3)	162.5 (85.7)	224.2 (110.6)
재원기관			
어린이집	137.0 (71.8)	155.0 (82.2)	222.4 (104.9)
유치원	132.3 (66.7)	171.7 (90.1)	232.5 (115.8)
학원	138.2 (68.2)	163.9 (81.0)	228.4 (115.6)
가정양육	136.0 (75.0)	144.5 (79.2)	158.2 (80.9)
<i>F</i>	0.27	2.39	na
지역			
대도시	130.4 (63.4)	164.4 (89.0)	233.2 (108.3)
중소도시	134.1 (69.5)	161.4 (83.8)	221.9 (110.8)
읍·면	154.6 (82.7)	160.9 (84.5)	204.2 (116.0)
<i>F</i>	na	0.10	2.16
맞벌이여부			
맞벌이	133.3 (65.0)	155.6 (83.0)	220.1 (109.5)
외벌이	137.5 (75.1)	172.1 (88.6)	230.0 (112.1)
<i>t</i>	-0.77	-2.49*	-1.16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34.8 (84.0)	174.4 (87.6)	212.0 (111.0)
265~370만원	144.4 (72.8)	154.8 (90.4)	219.8 (109.4)
370~480만원	128.9 (61.8)	155.2 (83.3)	219.5 (119.4)
480만원 이상	133.5 (65.9)	167.5 (83.2)	234.3 (104.9)
<i>F</i>	na	1.76	1.32
부모학력			
고졸 이하	165.2 (87.9)	163.5 (79.0)	215.8 (111.5)
전문대졸	135.7 (60.6)	151.4 (84.1)	234.1 (116.3)
대졸	129.4 (67.1)	167.1 (88.4)	219.1 (105.7)
대학원졸 이상	125.3 (65.7)	165.5 (83.2)	233.3 (117.1)
<i>F</i>	na	1.34	1.07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49.0 (76.2)	161.5 (79.2)	215.4 (112.5)
없음	129.7 (65.8)	162.9 (88.1)	227.7 (109.8)
<i>t</i>	3.03**	-0.19	-1.31

* $p < .05$, ** $p < .01$

다. 교육시간

5세아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평균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강사에 의한 개인 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54분, 예체능 교육시간은 1시간 4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53분이다. 기본가정 미충족으로 통계적 검증이 부적절하나, 가정양육 5세아의 평일 학습 교육시간이 다른 기관이나 학원 재원 5세아보다 약 100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평일 교육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학습	예체능	
전체	53.9(50.9)	63.8(32.1)	52.6(35.0)
재원기관			
어린이집	48.4 (27.9)	62.9 (22.1)	54.2 (40.1)
유치원	44.4 (30.0)	61.7 (39.1)	45.6 (27.7)
학원	58.2 (21.9)	71.9 (35.4)	55.7 (29.3)
가정양육	153.0 (144.9)	70.9 (37.2)	71.1 (35.4)
<i>F</i>	na	na	na
지역			
대도시	58.2 (52.4)	64.1 (33.3)	61.0 (43.7)
중소도시	52.2 (53.1)	63.5 (32.4)	46.3 (27.3)
읍·면	48.0 (28.2)	64.7 (23.6)	54.5 (27.8)
<i>F</i>	1.03	0.03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0.5 (49.0)	57.8 (22.5)	59.5 (44.9)
265~370만원	55.8 (59.0)	72.0 (35.3)	58.7 (43.6)
370~480만원	52.4 (42.9)	67.1 (39.5)	50.6 (29.8)
480만원 이상	51.3 (52.1)	60.5 (26.7)	47.4 (26.8)
<i>F</i>	0.61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44.6 (26.4)	64.0 (24.0)	46.4 (29.1)
전문대졸	47.3 (34.0)	70.8 (41.4)	52.1 (28.8)
대졸	60.2 (58.9)	61.1 (29.5)	53.4 (37.5)
대학원졸 이상	55.7 (70.4)	62.6 (28.9)	56.4 (41.7)
<i>F</i>	2.61	na	0.53

5세아의 토요일 교육시간의 경우, 강사에 의한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은 1시간 수준이었으나 강사에 의한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은 1시간 24분으로 학습보다 길었다.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1시간 20분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가정양육 5세아의 토요일 학습 교육시간이 다른 5세아보다 40분 이상 길었다.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구 5세아가 외벌이 가구 5세아보다 더 오래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토요일 교육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학습	예체능	
전체	63.8(41.4)	84.4(49.6)	79.9(45.3)
재원기관			
어린이집	64.5 (34.1)	86.9 (36.7)	84.1 (43.8)
유치원	57.3 (30.9)	82.9 (64.6)	75.1 (47.6)
학원	64.1 (35.4)	73.3 (53.1)	78.2 (38.9)
가정양육	106.2 (100.7)	93.0 (45.7)	85.9 (48.4)
<i>F</i>	na	0.48	1.02
맞벌이여부			
맞벌이	63.6 (48.8)	91.0 (48.9)	85.7 (46.7)
외벌이	64.0 (33.2)	75.8 (49.6)	72.0 (42.1)
<i>t</i>	-0.07	1.92	2.76**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74.1 (37.7)	88.5 (66.2)	64.4 (31.8)
265~370만원	59.3 (29.3)	74.3 (27.5)	85.1 (53.7)
370~480만원	57.5 (35.5)	87.6 (47.5)	78.0 (38.2)
480만원 이상	65.5 (50.9)	83.3 (51.5)	83.7 (47.8)
<i>F</i>	1.409	0.509	na

** $p < .01$

5세아의 일요일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강사에 의한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은 1시간 2분이고, 강사에 의한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과 시청각이나 교재를 이용한 교육시간은 1시간 20여분으로 더 길었다. 강사에 의한 시간제 학습 교육시간은 재원기관 및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강사에 의한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과 시청각 및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맞벌이 여

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맞벌이 가구 5세아가 외벌이 가구 5세아보다 시간제 예체능 교육시간은 35분, 시청각 및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15분 더 길었다.

〈표 III-3-9〉 일요일 교육시간(5세 부모)

단위: 분(표준편차)

구분	강사의 의한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시간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학습	예체능	
전체	61.7(44.7)	86.2(51.2)	82.1(45.4)
재원기관			
어린이집	55.3 (27.5)	88.7 (44.9)	86.2 (45.1)
유치원	55.9 (32.6)	86.7 (71.0)	79.7 (49.3)
학원	59.3 (41.5)	65.6 (34.3)	75.3 (33.1)
가정양육	117.9 (95.9)	91.1 (38.9)	80.0 (38.3)
<i>F</i>	na	0.55	0.71
맞벌이여부			
맞벌이	65.3 (50.1)	97.9 (56.8)	88.1 (46.8)
외벌이	57.0 (36.5)	62.7 (24.6)	73.5 (42.1)
<i>t</i>	1.141	4.20**	2.89**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54.2 (35.9)	63.0 (19.2)	70.8 (36.4)
265~370만원	55.3 (29.1)	70.4 (32.7)	83.8 (55.0)
370~480만원	60.2 (34.5)	97.1 (54.1)	83.6 (36.1)
480만원 이상	69.1 (60.0)	80.8 (62.2)	84.1 (48.1)
<i>F</i>	0.92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49.3 (29.2)	96.6 (80.7)	75.2 (40.6)
전문대졸	56.9 (35.2)	115.4 (43.4)	91.8 (50.3)
대졸	64.2 (51.3)	59.1 (15.4)	81.3 (44.2)
대학원졸 이상	75.6 (48.4)	93.5 (80.3)	68.8 (41.2)
<i>F</i>	1.60	na	2.24

** $p < .01$

4.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 사례

본 장에서는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에서 사전질문지로 하루일과를 작성한 내용 중 학원별 일반적인 유형을 추출해 내고 그 중 가장 충실하게 응답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여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영유아의 한 주간 생활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가. 영어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

영어학원에 다니는 5세아 하루일과의 예는 <표 III-4-1>과 같다. 해당 유아는 평일에 보통 8시에 기상하여 10시에 반일제 이상 학원의 일과를 시작한다.

<표 III-4-1> 영어학원 재원 5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A2)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8:00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9:00	등원	등원	등원	등원	등원	등원		
	10:00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자유시간	자유시간		
	11:00					점심	점심		
	12:00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점심	점심		
1:00	하원					하원		주말마다 다름	
2:00									
3:00	미술학원		미술학원						
4:00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5:00	씻기		숙제		씻기				
6:00							숙제		
7:00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오후	8:00	튼튼영어	튼튼영어	튼튼영어	튼튼영어	튼튼영어	튼튼영어		
	9:00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오후 3시 하원 후 주 3회 놀이터를 가고 주 2회 미술학원, 주 1회 학습지를 하거나 도서관에 가고, 주 1회 중국어를 한다. 이후 씻고 숙제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다. 저녁 식사 후 8시에는 튠튼영어와 로제타스톤(영어학습 소프트웨어)으로 다시 영어공부를 하고 취침 전 30분 정도 책읽기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는 디즈니 채널을 시청하고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가진 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주말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한다. 주말에도 저녁식사 이후 8시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2가지 영어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취침한다. 해당 유아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의 영어공부 뿐 아니라 매일 저녁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영어공부에 할애하며, 주말에 TV 시청조차 영어로 된 디즈니를 시청하여 영어에의 노출을 최대화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유아는 평일 하루 중 놀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이며, 주말에는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학습으로 채워져 있다.

나. 놀이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

1) 놀이학원 2세아

놀이학원에 다니는 2세아 하루일과의 예는 <표 III-4-2>와 같다. 해당 영아는 평일 8시 30분경 기상해서 놀다가 9시경 식사 후 등원을 한다. 놀이학원은 10시에 시작해서 2시쯤 끝나며, 하원 후 집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잔다. 낮잠 후에는 간식을 먹고 6시부터 8시까지 월수금은 놀이도우미가 와서 놀아주고, 화목은 영어도우미가 와서 놀이를 한다. 8시경 저녁을 먹고 9시경 책읽기와 퍼즐을 한 후 10시에 목욕을 하고 11시경 자장가나 음악을 들으며 잠을 잔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기상 시간은 같으며, 오전에 주로 공원이나 놀이동산으로 외출을 하여 외식과 야외놀이를 한다. 평일과 동일한 시간에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은 후 놀이를 한다. 저녁 시간 이후도 평일과 동일하게 지낸다.

2) 놀이학원 5세아

놀이학원에 다니는 5세아 하루일과의 예는 <표 III-4-3>과 같다. 해당 유아는 평일 7시 30분경에 기상하여 한글수학 학습지 복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등원준비를 하여 학원에 간다. 놀이학원은 9시에 시작하여 2시에 끝난다. 하원 후에는 보통 간식을 먹고 3시경에 미술학원, 도서관, 블록카페

〈표 III-4-3〉 놀이학원 재원 5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C3)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 전	7:00	기상 학습지복습 (한글수학)	기상 학습지복습 (한글수학)	기상 학습지복습 (한글수학)	기상 학습지복습 (한글수학)	기상 학습지복습 (한글수학)	기상 학습지복습 (한글수학)	
	8:00	아침식사 등원준비	아침식사 등원준비	아침식사 등원준비	아침식사 등원준비	아침식사 등원준비	아침식사 TV시청	
	9:00	반일제 이상 놀이학원					가족행사	TV시청
	10:00							마트
	11:00							
	12:00							
	1:00							
	2:00	하원 간식	하원 간식	하원 간식	하원 간식	놀이터	장난감놀이 간식	
	3:00	미술학원	도서관	놀이터 재능학습지	블록카페		놀이터	공원산책
	4:00	놀이터		<피자>				
5:00	놀이터	놀이터	장난감놀이	놀이터	놀이터	자전거		
6:00	목욕 TV시청	목욕 TV시청	목욕 TV시청	목욕 TV시청		목욕 TV시청	목욕 TV시청	
7:00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8:00	간단한놀이 책읽어주기	간단한놀이 책읽어주기	간단한놀이 책읽어주기	간단한놀이 책읽어주기	간단한놀이 책읽어주기	간단한놀이 책읽어주기	간단한놀이 책읽어주기	
9: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다. 유아체능단 재원아의 하루일과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5세아 하루일과의 예는 <표 III-4-4>와 같다. 해당 유아는 평일에 7시 30분경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유아체능단에 가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낸다. 하원 후 간식을 먹고 월수금은 피아노, 화목은 비즈와 블록놀이, 창의력 수학, 알파벳, 학습지 등은 한다. 이후에는 자유놀이를 하거나 놀이터, 도서관 등에 간다. 6시경 저녁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주로 놀이터, 자전

거, 싱싱이, 인라인, 산책 등의 실외활동을 한다. 저녁 8시경 월수는 창의력수학을 하고, 대부분은 외출에서 돌아와 샤워하고 양치한 후 9시경 잠자리에 든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기상시간은 유사하나 아침을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먹고 TV를 보고 놀이를 한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주로 놀이터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친구 및 가족과 놀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잔 후 놀이와 영화보기로 시간을 보낸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로 가까운 서울대공원에 가서 동물 관람, 도토리 줍기, 다슬기 잡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표 III-4-4〉 유아체능단 재원 5세아의 하루일과의 예 (D1)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 전	7:00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8:00					아침 TV시청 및 놀이	아침 TV시청	
	9:00	반일제 이상 유아체능단				간식	놀이	
	10:00					놀이터 /공원		
	11:00					자전거타기 가족 및 친구와놀이	예배	
	12:00					점심 치킨간식	서울대공원 점심 동물관람 도시락	
	1:00							
	2:00							
오 후	3:00	하원후간식	하원후간식	하원후간식	하원후간식	하원후간식	낮잠	
	4:00	피아노	비즈 및 블록놀이	피아노	알파벳 학습지	피아노	도토리줍기 다슬기잡기	
			자유놀이	도서관	놀이터	자유놀이	자유놀이	
	6:00	저녁식사 놀이터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샤워 저녁식사
		7:00	자전거 싱싱이 샤워·간식	산책	간식 및 놀이터	색칠놀이 간식	산책	자유놀이
	8:00	창의력수학	샤워·양치	창의력수학		자전거 인라인	영화보기	
				샤워·양치	샤워·양치	샤워·양치		취침
	9:00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5. 소결

가. 2세의 하루일과

2세아의 경우 평일 기준 밤잠은 약 10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중 42%를 차지했으며, 가정에서의 낮잠은 어린이집 재원아 11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 73분, 가정양육인 경우 100분이었다.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96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106분, 가정양육은 132분이었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6~57분이었는데 가정양육의 경우 이보다 40분이 더 길었다. 실내놀이 시간은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106~108분이고 가정양육의 경우 이보다 60분 더 길었다.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 역시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3분인데 비해 가정양육은 그 2배인 106분이었다. 기본생활이나 실내외 놀이에서 가정양육인 경우 시간이 가장 길게 나온 것은 어린이집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영아들이 기관에서 낮잠이나 기본생활시간, 놀이에 사용하는 시간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기기 놀이 시간이 가정양육의 경우가 월등하게 길게 나온 부분은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집 재원아의 평일 기준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39분으로 하루의 32%를 차지하였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학원 이용시간은 4시간 28분으로 하루의 19% 정도였다.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여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평일 평균 13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71분, 가정양육 69분으로 어린이집 재원아가 월등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재원아의 경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정양육 2세아는 평일에 예체능보다 학습 사교육을 오랜 시간 이용하였다.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15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30분, 가정양육의 경우 40분으로 가정양육이 가장 길었다.

2세의 일과시간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기본생활과 실내놀이는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양육 모두 모든 요일에서 90%가 넘었고, 바깥놀이 및 외출 참여율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다니는 2세의 평일을 제외하고 90%가 넘었다. 평

일 기준 시간제 교육 참여율은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66.7%였고, 가정양육은 54.8%, 어린이집 재원아는 24.5%로 낮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평일에 학습보다 예체능 시간제 사교육을 많이 이용했지만, 가정양육의 경우 예체능보다 학습 사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 참여율은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와 가정양육 2세는 50%가 넘었고, 어린이집 재원아는 35%였다.

가구특성별로 평일 밤잠시간은 맞벌이인 경우가 9시간 42분, 외벌이인 경우가 10시간으로 맞벌이 자녀의 밤잠시간이 18분 적었고, 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다른 부모들보다 밤잠시간이 짧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기본생활시간은 부모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일 경우에 다른 부모들보다 20분 이상 길었다. 평일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실내놀이시간,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 모두 맞벌이보다 외벌이인 경우 길었고, 보조양육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전자기기 놀이시간이 길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토요일과 일요일 실내놀이시간이 다른 아이들보다 30분 이상 짧았고, 맞벌이 자녀가 외벌이보다 토요일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이 약 20분 길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 일요일 시간제 교육시간도 어린이집 재원아에 비해 약 30분 길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2세아는 상대적으로 긴 기관 생활로 인해 평일에 잠을 적게 자고 놀이시간이 짧지만, 평일에 부족한 자녀와의 시간을 주말에 바깥놀이나 외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 보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반일제 학원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간제 사교육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놀이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2세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형식적 교육시간과 놀이시간 측면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5세의 하루일과

5세아의 경우 평일 기준 밤잠은 약 10시간으로 하루의 42% 정도를 차지했으며, 가정에서의 낮잠은 가정양육은 20분, 그 외에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3~7분이었다. 밤잠시간은 2세와 큰 차이가 없으나 낮잠시간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79분, 유치원 재원아가 87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95분, 가정양육의 경우는 101분이었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64분, 유치

원 재원아가 5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73분, 가정양육의 경우 84분이었다. 가정양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2세보다 시간이 늘어났다.

실내놀이 시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아가 82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86분, 가정양육의 경우 117분이었다.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아가 47분, 46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8분, 가정양육 105분이었다. 실내놀이는 2세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대부분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및 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와 가정양육의 경우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아의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이 더 길 것으로 예상된다.

5세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2분, 유치원 이용시간은 7시간 33분으로 하루 시간의 약 31%를 차지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학원 이용시간은 5시간 54분으로 하루의 25%를 차지하였다. 5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세보다 18분 적고, 반일제 이상 학원은 1시간 20분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등 강사에 의한 시간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68분, 유치원 재원아가 5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81분, 가정양육의 경우 175분으로 2세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가정양육의 경우는 2.5배나 증가하였다.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은 어린이집 재원아가 26분, 유치원 재원아가 1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29분, 가정양육의 경우 58분으로 가정양육이 가장 길었다.

가구특성별로는 평일 어린이집 재원아의 밤잠시간이 다른 기관보다 적었고, 부모가 맞벌이일 때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밤잠시간이 외벌이보다 약 10분 적었다. 평일 전자기기 놀이시간과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약 10분 길었고, 일요일 실내놀이시간도 외벌이가 더 길었다. 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일 때 전문대 이상인 경우보다 평일과 토요일 전자기기 놀이시간이 약 20분 길었다. 보조양육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전자기기 놀이시간이 10~20분 길었다. 즉, 외벌이 또는 저학력 부모와,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에 5세 유아가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측면이 있다. 가정양육 5세아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보다 실내놀이시간이 평일에는 길고 주말에는 짧았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은 외벌이보다 주말에 시간제 강사에 의한 예체능 교육과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이 더 길었다.

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하루일과를 보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목별로 이루어지는 학원의 일과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습하면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시 30분이나 8시 30분에 일어나 9시 30분 정도에는 잠자리에 드나, 11시에 잠드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은 학원이 끝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학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TV 시청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하거나 2세의 사례처럼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영어학원을 다니는 사례에서는 영어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어학습을 매일 1시간씩 하고 있었고, 그 밖에 학습지나 중국어를 추가로 하고 있었다. 놀이학원을 다니는 2세 사례에서는 영아의 연령특성상 학원을 보내지는 않지만 놀이나 영어학습을 위해 1대1로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었다. 놀이학원을 다니는 5세 사례에서는 기상과 동시에 학습지 복습을 하고 학원을 마친 후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요일마다 다른 활동을 하였다. 유아체능단 사례에서는 유아체능단을 다녀온 후에도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처럼 학부모는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원을 선택하고 자녀의 하루일과도 그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가장 학습에 큰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놀이학원을 보내는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고, 유아체능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발달에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IV. 영유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본 장에서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부모 및 교사의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연령에 대해서는 재원기관과 가구특성에 따라 사교육 실태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특성을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의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1. 2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가.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인식

조사대상 2세아 35.5%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학습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42.5%, 예체능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25.8%, 학습과 예체능 사교육 모두를 이용하는 경우가 31.7%로, 학습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원기관별로는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2세의 사교육 이용률이 76.7%로 가장 높았고, 가정양육의 경우 54.8%, 어린이집 재원아가 29.4%로 가장 낮았다. 이용하는 사교육의 유형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는 학습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51.0%로 가장 많은 반면, 학원 재원아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 이용 비중이 높았고, 가정양육 2세는 학습과 예체능 사교육 모두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기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읍·면, 중소도시 순으로 2세의 사교육 이용이 높았다. 읍·면지역은 예체능 사교육만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학습과 예체능 모두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에서 사교육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 유형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수입별로는 사교육을 이용할 경우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265만원 미만 가구의 2세아는 다른 수입 수준의 가구보다 예체능 없이 학습 관련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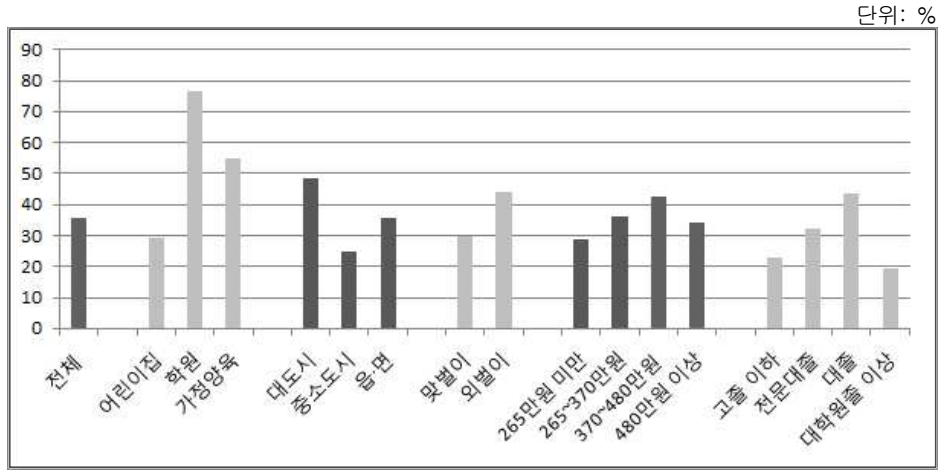
부모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대학원졸 이상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문대졸이나 대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유형(2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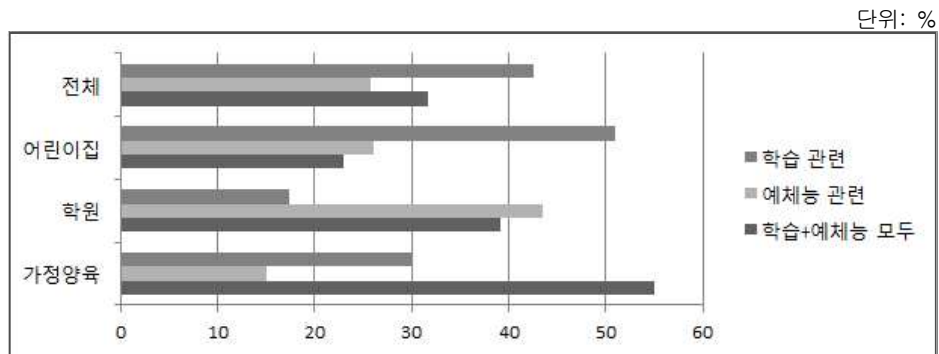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함	안함	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모두
전체	35.5	64.5	100.0(537)	42.5	25.8	31.7
재원기관						
어린이집	29.4	70.6	100.0(434)	51.0	26.0	23.0
학원	76.7	23.3	100.0(30)	17.4	43.5	39.1
가정양육	54.8	45.2	100.0(73)	30.0	15.0	55.0
$\chi^2(df)$	40.88(2) ^{***}			22.148(4) ^{***}		
지역						
대도시	48.3	51.7	100.0(245)	37.5	29.0	33.4
중소도시	24.7	75.3	100.0(205)	49.9	24.1	26.0
읍·면	35.6	64.4	100.0(87)	47.0	6.2	46.8
$\chi^2(df)$	31.21(2) ^{***}			5.23(4)		
맞벌이여부						
맞벌이	29.7	70.3	100.0(307)	41.0	25.4	33.6
외벌이	44.1	55.9	100.0(230)	44.1	26.2	29.8
$\chi^2(df)$	11.62(1) ^{***}			0.40(2)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28.7	71.3	100.0(66)	66.7	5.8	27.5
265~370만원	36.0	64.0	100.0(143)	49.0	30.8	20.2
370~480만원	42.5	57.5	100.0(128)	41.1	32.6	26.3
480만원 이상	34.1	65.9	100.0(200)	32.9	24.8	42.2
$\chi^2(df)$	4.10(3)			15.89(6) [*]		
부모학력						
고졸 이하	22.8	77.2	100.0(59)	56.0	5.2	38.7
전문대졸	32.0	68.0	100.0(151)	43.5	34.2	22.4
대졸	43.7	56.3	100.0(269)	42.2	25.3	32.4
대학원졸 이상	19.6	80.4	100.0(58)	32.4	16.6	51.0
$\chi^2(df)$	20.87(3) ^{***}			na		

* $p < .05$, *** $p < .001$



[그림 IV-1-1] 사교육 이용률(2세)



[그림 IV-1-2] 재원기관에 따른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2세)

2세아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학습 관련 사교육 1.3가지, 예체능 관련 사교육 1.4가지를 이용하였고, 학습과 예체능을 모두 합쳐서 평균 1.7가지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이용자의 경우 예체능 사교육 이용 가짓수가 다른 기관 이용자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사교육 가짓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480만원 이상 가구의 2세아가 2가지를 이용하여 다른 수입수준에 비하여 높았다.

〈표 IV-1-2〉 사교육 유형별 가짓수(2세 부모)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총계
전체	1.3(0.6)	1.4(0.8)	1.7(1.0)
재원기관			
어린이집	1.3(0.6)	1.2(0.4)	1.5(0.8)
학원	1.2(0.4)	1.8(1.7)	2.2(1.9)
가정양육	1.3(0.6)	1.4(0.5)	2.1(0.8)
<i>F</i>	0.05	na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2(0.5)	1.0(0.0)	1.5(0.7)
265~370만원	1.3(0.5)	1.4(0.5)	1.6(0.7)
370~480만원	1.2(0.6)	1.2(0.4)	1.5(0.8)
480만원 이상	1.3(0.7)	1.5(1.1)	2.0(1.3)
<i>F</i>	0.47	na	3.28*
부모학력			
고졸 이하	1.3(0.5)	1.1(0.4)	1.7(0.7)
전문대졸	1.4(0.8)	1.3(0.7)	1.6(0.9)
대졸	1.2(0.6)	1.3(0.5)	1.7(0.8)
대학원졸 이상	1.3(0.5)	1.8(2.2)	2.3(2.3)
<i>F</i>	0.32	na	1.89

* $p < .05$

주: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2세아의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주 2.6회 참여하였고, 회당 평균 이용시간은 47.6분이었다. 재원기관에 따라서는 주당 횟수와 회당 시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당 참여 횟수는 가정양육아가 주 3.6회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재원아가 2.3회로 가장 적었다. 회당 평균 시간은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2세아가 이용하는 사교육이 60.6분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나 가정 양육 2세아에 비해 긴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회당 시간에 차이를 보여, 대도시 50분, 중소도시 45분, 읍·면 37분으로 대도시일수록 길었다. 월평균 가구수입과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보조 양육자가 없을 경우 주당 회수 2.9회로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 2.1회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표 IV-1-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2세 부모)

단위: 회, 분(표준편차)

구분	주당 횟수*	회당 시간**
전체	2.6(2.3)	47.6(20.0)
재원기관		
어린이집	2.3 ^a (2.2)	44.5 ^a (19.7)
학원	2.5 ^{ab} (2.1)	60.6 ^b (17.8)
가정양육	3.6 ^b (2.5)	50.3 ^{ab} (19.4)
<i>F</i>	5.48 ^{**}	7.14 ^{**}
지역		
대도시	2.4(2.0)	50.3 ^b (16.9)
중소도시	2.8(2.7)	45.2 ^{ab} (24.3)
읍·면	3.0(2.9)	36.7 ^a (15.5)
<i>F</i>	na	3.42 [*]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2.5(2.4)	43.6(19.6)
265~370만원	2.7(3.2)	46.3(23.8)
370~480만원	2.5(2.0)	45.9(23.0)
480만원 이상	2.6(1.9)	50.6(15.6)
<i>F</i>	0.09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3.5(3.4)	34.0(16.7)
전문대졸	2.3(1.7)	46.6(23.9)
대졸	2.6(2.4)	48.0(16.6)
대학원졸 이상	2.7(2.4)	57.8(29.3)
<i>F</i>	0.68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2.1(1.7)	50.1(16.3)
없음	2.9(2.6)	46.2(21.9)
<i>t</i>	-2.46 [*]	1.38

* $p < .05$, ** $p < .01$

주: * 한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교육 프로그램을 종합한 1주일 간 참여 횟수를 의미함.

** 해당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교육의 회당 평균 시간을 의미함.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세아 부모가 한 달에 지불하고 있는 사교육비용은 수강료 약 10만7천원, 교재교구비 2만7천원이었으며, 총 비용은 약 13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3.9%였다. 재원기관별 사교육비용을 살펴보면 통계적 검증의 한계가 있으나, 가정양육아의 사교육비가 19만9천원으로 가장 많고, 월 소득 대비 비율도 6.5%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정양육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반일제 학원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 이를 일부 보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수강료와 총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수입 480만원 미만 가구의 2세아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이었으나 480만원 이상은 13만원이 넘었다. 총 비용도 월평균 가구수입 480만원 미만은 11만원 수준이었으나 480만원 이상 가구 2세아의 총 비용은 16만원으로 약 5만원 비쌌다.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치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1-4〉 월간 사교육비용(2세 부모)

단위: 천원, %(표준편차)

구분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 비용	월 소득 대비 비율
전체	106.9(95.0)	27.4(53.7)	134.3(121.4)	3.9(5.4)
재원기관				
어린이집	89.1(79.2)	20.3(35.8)	109.4(89.8)	3.0(2.7)
학원	141.0(125.5)	18.4(32.4)	159.3(128.2)	4.7(4.1)
가정양육	143.8(107.2)	55.5(90.7)	199.4(171.5)	6.5(10.0)
<i>F</i>	na	na	na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85.7(100.1)	24.3(93.5)	110.0(178.1)	6.9(13.6)
265~370만원	94.2(103.7)	18.2(30.2)	112.4(112.0)	3.9(3.8)
370~480만원	88.7(71.1)	27.7(50.9)	116.5(102.9)	3.7(2.8)
480만원 이상	130.7(97.7)	33.1(49.7)	163.8(112.4)	3.3(2.1)
<i>F</i>	2.93*	0.72	2.71*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91.6(77.6)	7.9(12.7)	99.5(77.0)	4.2(2.9)
전문대졸	94.0(102.5)	37.2(74.7)	131.2(152.5)	5.0(9.5)
대졸	107.5(83.6)	22.6(41.0)	130.1(102.2)	3.4(3.0)
대학원졸 이상	154.6(150.2)	49.6(72.5)	204.2(161.2)	5.0(3.2)
<i>F</i>	1.60	na	1.94	1.28

* $p < .05$

주: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2세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 정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적당하다는 인식이 69.4%로 가장 많고, 조금 부족함 24.9%, 조금 과함 3.7%로 나타났다. 매우 과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재원기관별로는 학원 재원 2세아 부모가 조금 과하다는 응답이 13.0%로 다른 기관 이용 부모보다 높았고, 어린이집 재원 2세아 부모는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적당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부족하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표 IV-1-5〉 사교육 정도에 대한 인식(2세 부모)

단위: %(명), 점(표준편차)

구분	매우 부족함	조금 부족함	적당함	조금 과함	매우 과함	계	집수	
							평균	Ft
전체	2.0	24.9	69.4	3.7	0.0	100.0(221)	2.7(0.6)	
재원기관								
어린이집	2.2	32.5	62.9	2.4	0.0	100.0(158)	2.7(0.6)	
학원	0.0	8.7	78.3	13.0	0.0	100.0(23)	3.0(0.5)	na
가정양육	2.5	10.0	85.0	2.5	0.0	100.0(40)	2.9(0.5)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3.9	7.3	88.8	0.0	0.0	100.0(22)	2.8(0.5)	
265~370만원	2.2	19.7	75.3	2.8	0.0	100.0(62)	2.8(0.5)	
370~480만원	3.3	22.8	73.5	0.5	0.0	100.0(54)	2.7(0.5)	na
480만원 이상	0.5	34.1	58.1	7.2	0.0	100.0(83)	2.7(0.6)	

주: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한해 질문함.

2세아 부모의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기준은 '자녀의 흥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용'이 29.5%였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기준이 조금씩 달랐다. 재원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의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기준은 자녀의 흥미가 68.3%로 가장 많은 반면 학원재원아 부모와 가정양육아 부모는 '내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이나 부모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읍·면지역 부모가 사교육 선택 기준으로 '장소'를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았고, 부모학력 중 대학원졸 이상 부모가 '내용'을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력 부모보다 높았다.

〈표 IV-1-6〉 사교육 선택 기준(1순위)(2세 부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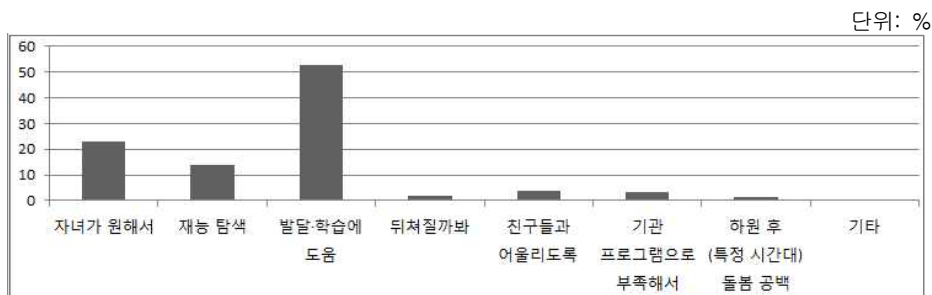
구분	장소	시간	강사	내용	비용	자녀 흥미	인지도	초등 준비	계
전체	6.1	7.3	2.7	29.5	2.4	50.4	0.3	1.3	100.0(221)
재원기관									
어린이집	3.7	3.1	0.8	20.6	1.2	68.3	0.4	1.9	100.0(158)
학원	8.7	13.0	13.0	56.5	0.0	8.7	0.0	0.0	100.0(23)
가정양육	12.5	17.5	2.5	42.5	7.5	17.5	0.0	0.0	100.0(40)
$\chi^2(df)$						na			
지역									
대도시	5.7	7.0	2.9	24.4	1.2	57.8	0.5	0.5	100.0(114)
중소도시	5.1	8.5	1.9	36.6	3.2	41.6	0.0	2.8	100.0(78)
읍·면	14.9	3.5	4.7	36.5	8.0	32.3	0.0	0.0	100.0(29)
$\chi^2(df)$						na			

구분	장소	시간	강사	내용	비용	자녀 흥미	인지도	초등 준비	계
맞벌이여부									
맞벌이	5.0	6.0	2.7	32.9	2.0	49.8	0.6	1.0	100.0(111)
외벌이	7.3	8.6	2.7	26.1	2.7	51.0	0.0	1.5	100.0(110)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8	13.9	0.0	18.0	5.2	60.3	0.0	0.8	100.0(22)
265~370만원	8.7	4.7	6.9	30.1	3.1	43.2	0.0	3.1	100.0(62)
370~480만원	10.8	7.4	0.0	26.8	4.3	48.5	0.0	2.1	100.0(54)
480만원 이상	3.2	6.7	2.8	34.1	0.0	52.5	0.7	0.0	100.0(83)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3.1	3.7	4.2	28.8	14.6	37.7	0.0	8.0	100.0(19)
전문대졸	1.9	3.8	7.0	25.9	3.5	55.5	1.1	1.4	100.0(61)
대졸	6.3	9.9	1.1	27.7	1.2	52.9	0.0	0.8	100.0(120)
대학원졸 이상	20.9	0.0	0.0	56.9	0.0	22.1	0.0	0.0	100.0(21)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8.0	7.1	3.0	26.3	1.4	52.8	0.0	1.4	100.0(71)
없음	5.0	7.4	2.4	31.4	3.0	49.1	0.4	1.2	100.0(150)
$\chi^2(df)$					na				

주: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한해 질문함.

2세아 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가 위해서 23.0%, 재능 탐색 13.7% 순이었다.

재원기관별로는 학원 재원 2세아의 부모는 다른 기관 부모보다 재능탐색을 위해서, 또는 또래보다 뒤쳐질까봐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도시와 대학원졸 이상 부모가 기관프로그램으로 부족하여 사교육을 시킨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V-1-3]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 2세)

〈표 IV-1-7〉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재능 탐색	발달· 학습에 도움	뒤쳐질 까봐	친구들 과 어울리 도록	기관 프로그램 으로 부족*	하원 후 (특정 시간대) 돌봄공백	기타	계
전체	23.0	13.7	52.7	1.7	3.6	3.2	1.4	0.6	100.0(221)
재원기관									
어린이집	26.6	11.1	55.2	0.2	3.8	0.9	1.4	0.9	100.0(158)
학원	17.4	26.1	39.1	8.7	4.3	4.3	0.0	0.0	100.0(23)
가정양육	15.0	15.0	52.5	2.5	2.5	10.0	2.5	0.0	100.0(40)
$\chi^2(df)$					na				
지역									
대도시	24.9	11.0	53.0	2.7	2.6	4.1	1.0	0.7	100.0(114)
중소도시	20.6	18.9	49.7	0.0	5.6	2.4	2.2	0.6	100.0(78)
읍·면	19.9	9.8	65.4	1.6	1.6	0.0	1.7	0.0	100.0(29)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20.3	12.8	58.9	1.0	3.2	1.7	1.6	0.4	100.0(111)
외벌이	25.8	14.7	46.4	2.3	3.9	4.8	1.3	0.8	100.0(110)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2.1	12.3	61.9	4.4	4.9	4.4	0.0	0.0	100.0(22)
265~370만원	26.5	22.0	33.2	2.9	8.4	1.5	3.7	1.9	100.0(62)
370~480만원	15.2	9.6	67.6	0.0	2.1	4.2	0.5	0.8	100.0(54)
480만원 이상	29.1	12.3	51.3	1.3	1.5	3.2	1.3	0.0	100.0(83)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6.6	16.8	55.1	2.0	9.6	0.0	0.0	0.0	100.0(19)
전문대졸	12.7	8.2	64.4	4.2	5.2	2.5	1.1	1.6	100.0(61)
대졸	28.4	13.5	50.0	0.8	2.8	2.5	1.9	0.0	100.0(120)
대학원졸 이상	17.4	31.8	34.3	0.0	0.0	14.0	0.0	2.6	100.0(21)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8.3	14.6	55.7	2.8	5.2	1.4	1.4	0.5	100.0(71)
없음	25.8	13.2	50.9	1.0	2.6	4.3	1.5	0.6	100.0(150)
$\chi^2(df)$					na				

주: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한해 질문함.

* 가정양육 대상자의 응답지는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서”임.

2세아의 21.6%는 과거에 사교육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중단 비율은 지역과 월 평균 가구수입, 부모학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 2세

중에서 중단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32.5%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중단경험이 많았다.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부모의 2세아가 중단한 경험은 32.3%로 다른 학력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사교육 중단 경험 여부(2세 부모)

구분	중단한 적 있음	중단한 적 없음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21.6	78.4	100.0(537)	
지역				
대도시	32.5	67.5	100.0(245)	29.04(2)***
중소도시	12.4	87.6	100.0(205)	
읍·면	22.0	78.0	100.0(87)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9.6	90.4	100.0(66)	18.248(3)***
265~370만원	16.2	83.8	100.0(143)	
370~480만원	18.8	81.2	100.0(128)	
480만원 이상	29.9	70.1	100.0(200)	
부모학력				
고졸 이하	19.4	80.6	100.0(59)	15.251(3)**
전문대졸	32.3	67.7	100.0(151)	
대졸	18.7	81.3	100.0(269)	
대학원졸 이상	12.0	88.0	100.0(58)	

** $p < .01$, *** $p < .001$

주: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한하여 질문함.

2세아가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는 '신체적인 부담'이 2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유사한 특별활동 생겨서' 순이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별로는 가정 양육 2세아의 사교육 중단 이유는 '학원·자택 이사'의 비중이 높았다. 대도시 2세아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읍·면지역은 '유사 특별활동이 생겨서'와 '학원·자택 이사'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맞벌이 가구의 2세아는 신체적 부담 때문에, 외벌이는 기타 이유로 사교육을 중단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부담 때문에 중단하였다는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낮을 때는 유사 특별활동이 생겨서, 학력이 높을 때는 교육수준의 부적합을 이유로 사교육을 중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신체적 부담 때문에,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사교육을 중단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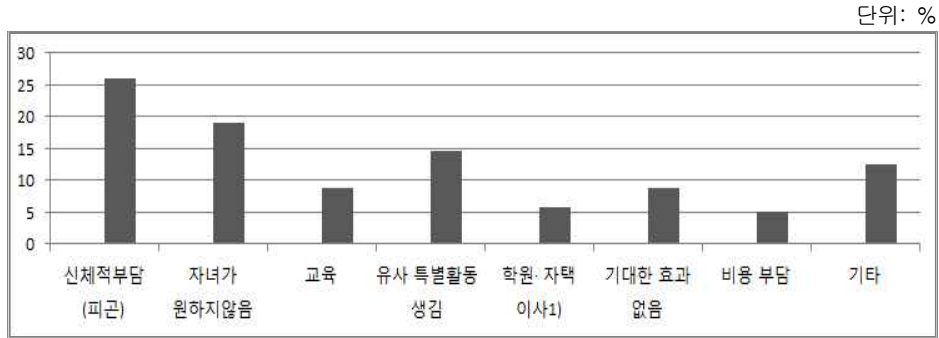
〈표 IV-1-9〉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신체적 부담 (피곤)	자녀가 원하지 않음	교육 수준 연령에 부적합	유사 특별활동 생김	학원·자택 이사*	기대한 효과 없음	비용 부담	기타	계
전체	25.9	19.1	8.8	14.5	5.7	8.7	5.0	12.4	100.0(126)
재원기관									
어린이집	26.6	17.2	9.8	15.7	1.7	7.6	6.1	15.3	100.0(104)
학원	37.5	25.0	0.0	25.0	0.0	12.5	0.0	0.0	100.0(8)
가정양육	14.3	28.6	7.1	0.0	35.7	14.3	0.0	0.0	100.0(14)
$\chi^2(df)$					na				
지역									
대도시	27.9	23.0	7.6	15.3	2.7	6.4	2.7	14.4	100.0(64)
중소도시	22.1	11.2	12.0	10.4	8.9	15.0	10.4	10.1	100.0(46)
읍·면	23.4	15.8	5.6	24.1	21.1	4.6	2.6	2.8	100.0(16)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35.2	21.1	5.6	14.5	5.0	8.1	5.6	4.9	100.0(69)
외벌이	10.6	15.8	14.0	14.4	6.8	9.9	3.9	24.6	100.0(57)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2.3	10.2	0.0	40.1	34.6	9.7	3.1	0.0	100.0(11)
265-370만원	25.7	7.3	9.7	17.5	0.0	28.6	5.1	6.0	100.0(33)
370-480만원	4.3	49.2	18.3	0.8	0.0	7.1	13.5	6.8	100.0(25)
480만원 이상	35.1	14.1	6.6	15.0	5.8	3.7	2.5	17.2	100.0(57)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2.4	8.9	2.0	36.2	11.5	17.1	11.7	0.0	100.0(16)
전문대졸	26.7	27.0	3.3	23.3	3.4	8.9	4.0	3.4	100.0(42)
대졸	26.8	12.8	13.2	4.7	5.9	7.2	4.5	25.0	100.0(56)
대학원졸 이상	29.5	22.8	19.3	2.0	11.4	8.8	6.1	0.0	100.0(12)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43.2	11.1	0.8	27.5	2.1	8.2	1.5	5.7	100.0(40)
없음	13.8	24.7	14.3	5.4	8.2	9.1	7.4	17.0	100.0(86)
$\chi^2(df)$					na				

주: 사교육을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에 한하여 질문함.

* 폐원 포함



[그림 IV-1-4]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 2세)

사교육을 현재 이용하지 않고, 과거에 중단한 적도 없는 2세아 부모가 사교육을 한 번도 시키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아직 어려서’라는 응답이 75.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체적 부담(6.6%)’, ‘특별활동으로 충분(6.3%)’, ‘이동 시 안전에 대한 걱정(5.7%)’ 등이었다.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별로 어린이집 재원아와 가정양육아 모두 ‘아직 어려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양육아의 경우에는 주변에 기관이 부족함(17.2%)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 2세아 부모는 특별활동으로 충분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맞벌이와 월평균 가구수입 480만원 이상 부모는 이동 시 안전이 걱정된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모학력별로는 고졸이하 부모의 특별활동으로 충분하다는 비율이 다른 학력의 부모보다 높았고, 대학원졸 이상은 신체적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다.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신체적 부담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표 IV-1-10> 사교육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신체적 부담 (피곤)	자녀가 원하지 않음	아직 어려움	특별활동으로 충분*	주변에 기관 없음	적합한 프로그램 부재	비용 부담	이동 시 안전 걱정	기타	계
전체	6.6	0.9	75.9	6.3	2.0	0.4	1.7	5.7	0.6	100.0(253)
재원기관										
어린이집	6.2	0.2	78.7	7.1	0.2	0.4	1.0	5.6	0.6	100.0(224)
가정양육	10.3	6.9	51.7	0.0	17.2	0.0	6.9	6.9	0.0	100.0(29)
$\chi^2(df)$	na									

구분	신체적 부담 (피곤)	자녀가 원하지 않음	아직 어렵	특별활동으로 충분*	주변에 기관 없음	적합한 프로그램 램부재	비용 부담	이동 시 안전 걱정	기타	계
지역										
대도시	3.4	1.2	78.7	8.3	4.3	0.9	1.4	0.9	0.9	100.0(106)
중소도시	8.7	0.7	75.3	4.8	1.1	0.1	0.8	7.9	0.5	100.0(96)
읍·면	0.0	1.3	69.2	13.0	0.0	0.0	11.0	5.5	0.0	100.0(51)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9.7	0.7	71.1	6.6	0.8	0.4	1.7	8.1	0.9	100.0(156)
외벌이	0.7	1.3	85.2	6.0	4.2	0.2	1.5	1.0	0.0	100.0(97)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2	0.0	86.5	7.2	0.0	0.0	2.7	2.5	0.0	100.0(39)
265~370만원	0.0	1.6	86.6	5.3	1.6	0.0	3.5	1.6	0.0	100.0(65)
370~480만원	4.9	1.7	83.8	6.7	0.9	0.4	0.0	0.3	1.2	100.0(62)
480만원 이상	14.3	0.4	59.8	6.4	3.8	0.7	0.9	12.7	0.8	100.0(87)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5.3	0.0	81.6	12.6	0.0	0.0	0.5	0.0	0.0	100.0(34)
전문대졸	0.3	0.0	88.0	6.6	0.7	1.4	0.3	1.8	0.7	100.0(70)
대졸	1.8	1.2	74.2	6.4	2.4	0.0	2.5	11.3	0.3	100.0(120)
대학원졸 이상	27.3	1.9	60.3	2.3	3.8	0.0	2.2	1.1	1.2	100.0(29)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8.1	1.5	70.4	5.1	3.0	0.0	0.7	0.4	0.9	100.0(79)
없음	1.7	0.6	78.3	6.9	1.5	0.5	2.1	8.0	0.4	100.0(174)
$\chi^2(df)$	na									

주: 사교육을 현재 이용하지 않고, 중단한 경험도 없는 영유아에 한하여 질문함.

* 가정양육 대상자의 응답지는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임

2세아가 사교육을 시작한 연령은 만2세가 5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1세가 32.5%, 6~12개월 10.7%였으며 평균 22개월로 나타났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모두 만2세가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집 재원 2세아 부모는 만1세에 시작하였다는 비율이 36.4%로 다른 기관보다 높았고, 12개월 이전에 시작한 경우도 15.2%로 나타났다.

〈표 IV-1-11〉 사교육 시작 연령(2세 부모)

단위: %(명), 개월(표준편차)

구분	0~6개월	6~12개월	만1세	만2세	계	개월	
						평균	FA
전체	1.6	10.7	32.5	55.1	100.0(284)	22.1(8.5)	
재원기관							
어린이집	1.8	13.4	36.4	48.4	100.0(210)	21.1(8.6)	
학원	3.3	0.0	13.3	83.3	100.0(30)	26.1(6.3)	na
가정양육	0.0	6.8	29.5	63.6	100.0(44)	23.7(8.4)	

주: 사교육을 현재 이용하지 않고, 중단한 경험도 없는 영유아는 제외됨.

2세아가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체육이 39.7%로 가장 많았고, 국어, 미술, 음악 순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처음 접한 사교육으로 미술이 가장 많았고, 국어는 다른 재원기관보다 적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이,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월평균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보조양육자가 없을 때에 처음 접한 사교육이 국어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월평균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2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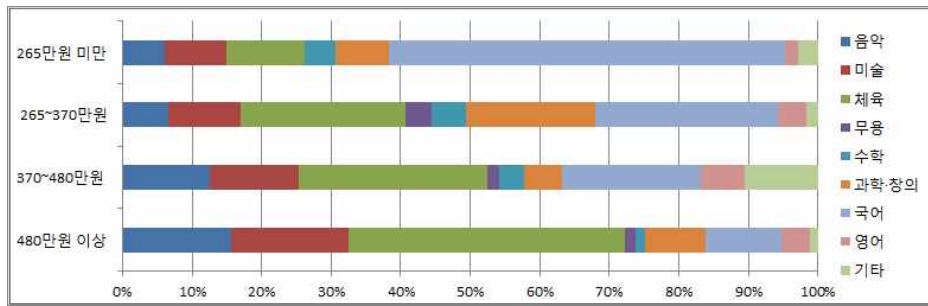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
전체	15.6	17.8	39.7	2.4	3.5	12.5	25.3	5.7	4.4
재원기관									
어린이집	12.1	16.7	39.3	1.2	1.1	13.2	27.4	1.9	5.6
학원	26.7	36.7	26.7	13.3	6.7	13.3	6.7	20.0	0.0
가정양육	22.7	9.1	50.0	0.0	11.4	9.1	29.5	11.4	2.3
지역									
대도시	15.7	16.2	46.9	1.2	4.0	6.6	22.3	4.2	2.8
중소도시	16.6	22.0	29.8	3.6	1.8	19.1	29.1	8.0	5.6
읍·면	9.7	8.3	30.7	6.8	8.6	28.1	31.6	5.9	12.0
맞벌이여부									
맞벌이	16.8	16.7	44.4	1.9	1.3	10.8	20.4	7.0	5.0
외벌이	14.2	18.9	34.2	3.0	6.1	14.4	31.1	4.1	3.7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6	9.5	12.2	0.0	4.7	8.3	61.5	2.0	3.0
265~370만원	8.2	13.1	29.9	4.6	6.2	23.3	33.1	5.2	2.0
370~480만원	16.7	16.9	36.2	2.3	4.8	7.2	26.5	8.3	14.1
480만원 이상	20.1	21.8	51.0	2.1	1.6	11.2	14.0	5.4	1.4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
부모학력									
고졸 이하	14.3	12.5	28.8	0.0	1.5	36.3	46.1	18.1	0.0
전문대졸	7.9	9.1	45.1	2.8	3.2	9.9	26.7	2.6	4.3
대졸	19.9	23.0	38.2	2.8	4.4	10.4	23.0	3.3	5.0
대학원졸 이상	14.4	15.8	37.3	0.0	0.0	20.9	23.1	25.5	3.2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20.3	20.7	46.5	1.0	2.0	9.7	19.5	8.0	1.5
없음	12.6	15.9	35.3	3.3	4.5	14.3	29.1	4.2	6.3

주: 복수응답임

* 한글, 독서, 논술 포함



[그림 IV-1-5] 가구소득에 따른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2세)

2세아 부모와 교사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사의 55.2%, 부모의 66.6%가 입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월평균 265만원 미만과 370~480만원 수준의 부모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가구보다 높았다.

<표 IV-1-13>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의 필요성(2세 교사, 부모)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단위: %(명)
어린이집 교사	55.2	44.8	100.0(434)	$\chi^2(df)$
전체	66.6	33.4	100.0(537)	
월평균 가구수입				
부 265만원 미만	74.2	25.8	100.0(66)	
모 265~370만원	63.2	36.8	100.0(143)	
370~480만원	75.1	24.9	100.0(128)	8.95(3)*
480만원 이상	61.5	38.5	100.0(200)	

* $p < .05$

2세 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는 5세가 37.1%로 가장 많았고, 평균 3.6세로 나타났다.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도 5세가 3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세와 4세가 각각 24%, 평균 4.1세로 나타났다. 재원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재원 2세 부모는 평균 4.2세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연령을 답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부모가 4.5세로 다른 지역보다 예체능 사교육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2세아 부모는 5세를 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나, 대도시 부모는 3세가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았다. 월평균 265만원 미만은 평균 4.7세인데 반해, 480만원 이상은 3.8세로 약 1년 빨랐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모학력별로는 고졸이하 부모가 답한 연령이 가장 높았다.

〈표 IV-1-14〉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2세 교사, 부모)

단위: %(명), 세(표준편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세	
								평균	FA
어린이집 교사	0.0	5.2	31.3	14.8	11.7	37.1	100.0(201)	3.6(1.6)	
전체	0.7	3.1	15.3	24.7	24.1	32.1	100.0(336)	4.1(1.5)	
재원기관									
어린이집	0.5	2.6	13.8	24.0	24.4	34.6	100.0(274)	4.2(1.4)	
학원	0.0	0.0	18.2	36.4	22.7	22.7	100.0(22)	3.8(1.3) 3.24*	
가정양육	2.5	7.5	22.5	22.5	22.5	22.5	100.0(40)	3.5(1.6)	
지역									
대도시	1.1	4.5	15.9	35.8	14.4	28.2	100.0(159)	3.6(1.4)	
중소도시	0.5	2.0	13.4	13.7	33.7	36.7	100.0(130)	4.5(1.4) 5.12**	
읍·면	0.0	0.7	22.3	22.0	26.1	28.9	100.0(47)	3.8(1.3)	
부모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0.0	1.9	11.4	9.0	12.2	65.4	100.0(39)	4.7 ^a (1.2)	
265~370만원	0.0	4.1	10.0	20.9	27.1	37.9	100.0(80)	4.2 ^{ab} (1.3)	
370~480만원	0.0	1.6	11.2	29.6	37.1	20.5	100.0(80)	4.0 ^a (1.3) 8.31***	
480만원 이상	1.9	3.9	22.2	29.5	18.6	23.9	100.0(137)	3.8 ^a (1.6)	
부모학력									
고졸 이하	0.0	2.6	10.7	17.4	29.5	39.8	100.0(35)	4.5(1.4)	
전문대졸	0.8	2.0	17.2	24.7	13.3	42.0	100.0(93)	4.1(1.5)	
대졸	1.0	3.8	17.8	29.5	24.5	23.3	100.0(171)	4.0(1.5) na	
대학원졸 이상	0.0	2.6	5.6	12.2	39.0	40.6	100.0(37)	4.2(1.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3)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바람직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도 예체능과 마찬가지로 교사, 부모 모두 5세가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 예체능보다 늦은 4세 중반을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로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 재원기관 별로는 어린이집 재원 2세아 부모들이 늦은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했다. 부모 학력별로도 차이를 나타내,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 사교육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5〉 바람직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2세 교사, 부모)

단위: %(명), 세(표준편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세	
								평균	F/t
어린이집 교사	0.2	0.1	2.9	19.4	16.5	60.9	100.0(187)	4.6(1.3)	
전체	0.0	0.9	9.1	18.9	23.4	47.7	100.0(315)	4.5(1.3)	
재원기관									
어린이집	0.0	0.2	8.8	16.8	23.2	51.1	100.0(257)	4.6(1.3)	
학원	0.0	0.0	14.3	33.3	23.8	28.6	100.0(21)	4.0(1.3)	3.55*
부 가정양육	0.0	5.4	8.1	24.3	24.3	37.8	100.0(37)	4.2(1.4)	
모 부모학력									
고졸 이하	0.0	0.0	19.9	25.3	26.2	28.6	100.0(31)	4.5 ^a (1.6)	
전문대졸	0.0	0.0	8.4	23.5	18.2	49.9	100.0(89)	4.4 ^{ab} (1.2)	5.30**
대졸	0.0	1.1	9.4	20.2	30.3	39.1	100.0(163)	4.5 ^{ab} (1.4)	
대학원졸 이상	0.0	2.3	5.0	4.1	8.4	80.3	100.0(32)	4.8 ^b (1.0)	

* $p < .05$, ** $p < .01$

주: 1)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3)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2세아 부모에게 가구소득 가운데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로 어느 정도 비율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0%미만이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20% 투자 의향이 33.7%였다. 자녀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20%~40%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1/3에 달했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수치상으로 읍·면지역 2세 부모와 월평균 가구 수입 265만원 미만 부모는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로 비교적 높은 비율인 20%~40%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부모보다 많았다. 부모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장 작은 10%미만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 IV-1-16〉 가구소득 대비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10%미만	10~20%	20~40%	40~60%	60~80%	80% 이상	계
전체	58.2	33.7	7.0	0.9	0.0	0.2	100.0(537)
재원기관							
어린이집	60.5	33.4	5.4	0.6	0.0	0.1	100.0(434)
학원	33.3	33.3	33.3	0.0	0.0	0.0	100.0(30)
가정양육	54.8	35.6	5.5	2.7	0.0	1.4	100.0(73)
$\chi^2(df)$				na			
지역							
대도시	59.1	31.1	8.1	1.4	0.0	0.4	100.0(245)
중소도시	59.7	36.1	3.5	0.6	0.0	0.1	100.0(205)
읍·면	41.0	31.8	26.8	0.4	0.0	0.0	100.0(87)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59.5	31.5	8.2	0.8	0.0	0.1	100.0(307)
외벌이	56.3	37.0	5.2	1.1	0.0	0.5	100.0(230)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59.2	27.8	10.3	1.5	0.0	1.3	100.0(66)
265~370만원	65.0	32.4	1.5	1.0	0.0	0.0	100.0(143)
370~480만원	56.3	35.8	7.2	0.7	0.0	0.0	100.0(128)
480만원 이상	55.4	35.3	8.5	0.7	0.0	0.1	100.0(200)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45.2	47.8	7.0	0.0	0.0	0.0	100.0(59)
전문대졸	55.8	35.3	8.0	0.2	0.0	0.7	100.0(151)
대졸	60.9	30.9	6.5	1.6	0.0	0.1	100.0(269)
대학원졸 이상	61.2	32.0	6.6	0.2	0.0	0.0	100.0(58)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50.0	40.6	8.4	0.9	0.0	0.1	100.0(173)
없음	62.5	30.1	6.3	0.9	0.0	0.3	100.0(364)
$\chi^2(df)$				na			

한편, 자녀가 2세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의 사교육비로도 가구소득 대비 10% 미만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49.5%로 가장 많았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 2세아 부모는 10%~20%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4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40%로 다른 기관의 부모보다 투자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과 외벌이 부모도 20%~40%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17〉 가구소득 대비 모든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10%미만	10~20%	20~40%	40~60%	60~80%	80% 이상	계
전체	49.5	36.1	13.1	1.2	0.0	0.1	100.0(387)
재원기관							
어린이집	53.6	33.3	12.1	0.9	0.0	0.1	100.0(323)
학원	10.5	47.4	36.8	5.3	0.0	0.0	100.0(19)
가정양육	33.3	53.3	11.1	2.2	0.0	0.0	100.0(45)
$\chi^2(df)$				na			
지역							
대도시	45.8	42.2	10.1	2.0	0.0	0.0	100.0(166)
중소도시	55.0	29.8	14.4	0.7	0.0	0.1	100.0(153)
읍·면	28.1	48.7	22.6	0.6	0.0	0.0	100.0(68)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59.0	31.3	8.4	1.2	0.0	0.1	100.0(214)
외벌이	36.3	42.8	19.6	1.3	0.0	0.0	100.0(173)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43.4	24.1	29.5	3.0	0.0	0.0	100.0(52)
265~370만원	53.0	35.7	10.5	0.8	0.0	0.0	100.0(106)
370~480만원	44.0	45.7	10.3	0.0	0.0	0.0	100.0(87)
480만원 이상	52.7	36.8	9.0	1.3	0.0	0.1	100.0(142)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46.8	38.7	13.0	1.5	0.0	0.0	100.0(43)
전문대졸	51.9	38.9	9.0	0.3	0.0	0.0	100.0(110)
대졸	45.0	37.6	15.4	1.9	0.0	0.1	100.0(191)
대학원졸 이상	65.1	21.9	12.6	0.3	0.0	0.0	100.0(43)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45.5	34.5	18.6	1.2	0.0	0.2	100.0(120)
없음	51.5	36.9	10.4	1.2	0.0	0.0	100.0(267)
$\chi^2(df)$				na			

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세아 교사에게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들도 조기 사교육이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가능(2.7), 지적능력이 뛰어나지 않음(2.5) 순이었다.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기적이라는 것과 학습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다른 기관 부모보다 덜 동의하였다.

조기 사교육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창의성이 낮아진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도시 가구가 2.3점으로 가장 낮고,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지적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의견은 중소도시 부모가 2.6점으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이중언어 가능, 이기적임, 학습태도 진지하지 않음에 대해 외벌이 가구 부모의 동의 정도가 맞벌이 부모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과 480만원 이상 부모가 조기 사교육이 효과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월평균 480만원 이상 부모는 다른 수입 수준 부모보다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지적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결과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부모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대학원졸업 이상 부모가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낮음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수준보다 높았다.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교육 영향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에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부정적인 인식을 더 보였다.

<표 IV-1-18>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2세 부모, 교사)

단위: 점

구분	창의성 낮음	효과 없음	이중언어 가능	문제행동 유발	이기적 임	지적능력 뛰어나지 않음	학습태도 진지하지 않음	집중력 없고 쉽게 싫증
어린이집 교사	2.3	2.3	2.5	2.8	2.2	2.4	2.2	2.4
전체	2.4	2.3	2.7	2.9	2.3	2.5	2.2	2.3
재원기관								
부 어린이집	2.4	2.3	2.7	2.9	2.2	2.5	2.1	2.2
모 학원	2.2	2.1	2.9	2.7	2.4	2.4	2.4	2.2
가정양육	2.5	2.4	2.5	2.9	2.5	2.5	2.4	2.3
<i>F</i>	na	1.18	na	na	4.34*	0.08	4.66**	2.03

구분	창의성 낮음	효과 없음	이중언 어 가능	문제행동 유발	이기적 임	지적능력 뛰어나지 않음	학습태도 진지하지 않음	집중력 없고 쉽게 싫증
지역								
대도시	2.3	2.4	2.6	2.9	2.3	2.4	2.1	2.2
중소도시	2.5	2.3	2.8	2.9	2.2	2.6	2.2	2.3
읍·면	2.4	2.1	2.8	2.9	2.3	2.4	2.2	2.3
<i>F</i>	6.82**	na	2.40	0.13	na	3.54*	1.34	1.62
맞벌이여부								
맞벌이	2.4	2.3	2.7	2.9	2.2	2.5	2.1	2.3
외벌이	2.4	2.3	2.8	3.0	2.4	2.5	2.3	2.3
<i>t</i>	-0.55	0.40	-2.12*	-0.82	-2.45*	0.66	-2.76**	0.99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2.3	2.4	2.6	3.2	2.4	2.4	2.4	2.3
265~370만원	2.5	2.2	2.9	3.0	2.3	2.4	2.2	2.2
370~480만원	2.4	2.2	2.8	2.7	2.3	2.4	2.2	2.3
480만원 이상	2.3	2.4	2.6	2.9	2.2	2.6	2.1	2.3
<i>F</i>	1.27	4.00**	na	na	na	3.34*	na	1.11
부모학력								
고졸 이하	2.5 ^b	2.5	2.6	2.9	2.4	2.6	2.4	2.4
전문대졸	2.3 ^a	2.3	2.7	2.9	2.4	2.3	2.1	2.3
대졸	2.4 ^{ab}	2.3	2.7	2.9	2.1	2.6	2.1	2.2
대학원졸 이상	2.5 ^{ab}	2.3	2.7	3.2	2.4	2.4	2.5	2.2
<i>F</i>	3.12*	na	na	na	na	na	na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2.2	2.4	2.7	3.0	2.2	2.3	2.1	2.1
없음	2.5	2.3	2.7	2.9	2.3	2.6	2.2	2.4
<i>t</i>	-3.65***	1.94*	-1.26	2.52*	-1.32	-4.01***	-2.41*	-2.2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어느 정도 동의함, 4=매우 동의함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3)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2세아 교사와 부모에게 정부 사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와 부모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9.3%, 53.9%로 가장 많았고, 정부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교육 요구를 흡수하는 방향은 각각 30.7%, 26.7%,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홍보하여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은 18.3%, 13.0%였다. 반면, 사교육을 유지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교사와 부모 모두 10% 미만이었다.

재원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특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특히 더 많이 응답했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은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 부모들이,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광고하여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은 가정양육 부모들의 응답이 많았다. 한편, 자녀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다른 부모보다 높은 비율인 16.7%가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바랐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는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광고하여 사교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맞벌이 부모도 외벌이 부모보다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광고로 사교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서는 보조 양육자가 없는 경우 특성화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1-19〉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 방향(2세 교사, 부모)

단위: %(명)

구분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광고로 사교육 축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	$\chi^2(df)$
어린이집 교사	39.3	30.7	18.3	9.5	2.2	100.0(434)	
전체	53.9	26.7	13.0	4.0	2.4	100.0(537)	
재원기관							
어린이집	58.6	24.3	11.4	2.6	3.0	100.0(434)	
학원	26.7	43.3	13.3	16.7	0.0	100.0(30)	na
가정양육	37.0	34.2	21.9	6.8	0.0	100.0(73)	
지역							
대도시	51.6	28.2	15.2	5.0	0.0	100.0(245)	
중소도시	52.7	26.7	12.5	3.4	4.7	100.0(205)	22.39(8)**
부 모							
읍·면	78.3	17.3	2.2	1.6	0.6	100.0(87)	
맞벌이여부							
맞벌이	51.9	24.6	16.2	3.3	4.1	100.0(307)	17.47(4)**
외벌이	56.9	30.0	8.2	4.9	0.0	100.0(230)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55.6	22.5	20.9	1.0	0.0	100.0(66)	
265~370만원	52.1	33.2	10.9	3.8	0.0	100.0(143)	
370~480만원	66.6	21.3	5.7	6.2	0.2	100.0(128)	na
480만원 이상	48.0	27.6	14.8	4.0	5.6	100.0(200)	

구분	특성화 프로그램·특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광고로 사교육 축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	$\chi^2(df)$
부모학력							
고졸 이하	63.3	33.1	2.3	1.3	0.0	100.0(59)	na
전문대졸	53.0	28.1	13.9	4.8	0.1	100.0(151)	
대졸	52.0	28.5	14.8	4.6	0.0	100.0(269)	
대학원졸 이상	56.7	13.5	10.8	1.4	17.6	100.0(58)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48.2	26.6	14.1	4.1	7.1	100.0(173)	26.88(4)***
없음	56.8	26.8	12.4	3.9	0.0	100.0(364)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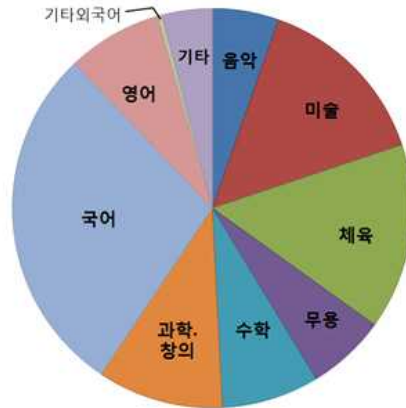
나. 사교육 프로그램별 특성¹⁵⁾

여기서는 조사 대상 2세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국어가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이 15.1%, 미술 14.5%, 과학·창의 10.2%, 수학 7.9%, 영어 7.7%, 무용 6.4%, 음악 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0〉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2세 부모)

N = 392			
유형	비율(사례수)	유형	비율(사례수)
음악	5.4(21)	과학·창의	10.2(40)
미술	14.5(57)	국어	28.6(112)
체육	15.1(59)	영어	7.7(30)
무용	6.4(25)	기타외국어	0.3(1)
수학	7.9(31)	기타	4.1(16)
계		100.0(392)	

15) 모든 조사 대상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들을 종합한 결과임.



[그림 IV-1-6]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2세)

2세아가 이용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집이 53.1%, 문화센터가 23.7%로 가장 많았고, 학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교육은 문화센터(48.1%)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원과 집이 많았다. 학습 사교육은 집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79.9%로 가장 많아 예체능과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음악과 체육, 무용은 문화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미술은 학원과 문화센터, 집이 골고루 분포되었다.

<표 IV-1-21> 사교육 실시 장소(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학원	문화센터	집	체육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계
전체	10.5	23.7	53.1	3.6	2.8	6.4	100.0(392)
대분류 ¹⁾							
예체능	17.9	48.1	17.3	8.0	4.9	3.7	100.0(162)
학습	5.1	6.1	79.9	0.5	0.9	7.5	100.0(214)
$\chi^2(df)$				171.81(5) ^{***}			
소분류							
음악	9.5	38.1	28.6	0.0	9.5	14.3	100.0(21)
미술	36.8	29.8	29.8	1.8	0.0	1.8	100.0(57)
체육	8.5	54.2	8.5	16.9	8.5	3.4	100.0(59)
무용	4.0	84.0	0.0	8.0	4.0	0.0	100.0(25)
수학	6.5	3.2	90.3	0.0	0.0	0.0	100.0(31)
과학·창의	12.5	10.0	65.0	0.0	2.5	10.0	100.0(40)
국어	0.9	2.7	87.5	0.0	0.9	8.0	100.0(112)
영어	10.0	16.7	60.0	3.3	0.0	10.0	100.0(30)

구분	학원	문화센터	집	체육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	계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0.0	0.0	100.0(1)
기타	6.3	12.5	56.3	0.0	6.3	18.8	100.0(16)

*** $p < .001$

주: 음악, 미술, 체육, 무용 프로그램을 예체능으로 분류하고,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외국어 프로그램을 학습으로 분류함.

사교육을 이용할 때의 이동 수단은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42.6%, 자가용이 28.3%, 도보가 23.7%로 많이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과 학습 간에 차이를 보여 예체능은 자가용이 46.3%로 가장 많았고, 학습은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66.4%로 가장 많았다.

〈표 IV-1-22〉 사교육 이동 수단(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도보	학원차량	유치원·어 린이집 차량	자가용	해당 없음 (이동 안 함)	계
전체	23.7	4.1	1.3	28.3	42.6	100.0(392)
대분류						
예체능	32.7	9.3	0.6	46.3	11.1	100.0(162)
학습	17.8	0.5	1.9	13.6	66.4	100.0(214)
$\chi^2(df)$				128.23(4)		
소분류						
음악	23.8	4.8	4.8	52.4	14.3	100.0(21)
미술	40.4	5.3	0.0	33.3	21.1	100.0(57)
체육	30.5	15.3	0.0	49.2	5.1	100.0(59)
무용	28.0	8.0	0.0	64.0	0.0	100.0(25)
수학	12.9	0.0	0.0	12.9	74.2	100.0(31)
과학·창의	12.5	2.5	2.5	27.5	55.0	100.0(40)
국어	17.9	0.0	1.8	7.1	73.2	100.0(112)
영어	30.0	0.0	3.3	20.0	46.7	100.0(30)
기타외국어	0.0	0.0	0.0	0.0	100.0	100.0(1)
기타	12.5	0.0	0.0	43.8	43.8	100.0(16)

*** $p < .001$

부모들은 2세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학력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다. 학력을 알고 있는 경우 대학교 졸업이 40.6%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대학원졸 등은 10% 미만이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체능 강사는 대졸이 40.7%로 가장 많고 학습은 모름이 43.9%로 가장 많았다.

〈표 IV-1-23〉 사교육 강사 학력(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모름	계
전체	2.6	9.4	40.6	5.9	41.6	100.0(392)
대분류						
예체능	3.1	12.3	40.7	7.4	36.4	100.0(162)
학습	2.3	7.0	42.1	4.7	43.9	100.0(214)
$\chi^2(df)$						5.51(4)
소분류						
음악	4.8	23.8	38.1	9.5	23.8	100.0(21)
미술	3.5	12.3	36.8	12.3	35.1	100.0(57)
체육	3.4	11.9	44.1	3.4	37.3	100.0(59)
무용	0.0	4.0	44.0	4.0	48.0	100.0(25)
수학	3.2	3.2	41.9	9.7	41.9	100.0(31)
과학·창의	2.5	15.0	40.0	2.5	40.0	100.0(40)
국어	0.9	4.5	41.1	3.6	50.0	100.0(112)
영어	6.7	10.0	46.7	6.7	30.0	100.0(30)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0.0	100.0(1)
기타	0.0	12.5	18.8	6.3	62.5	10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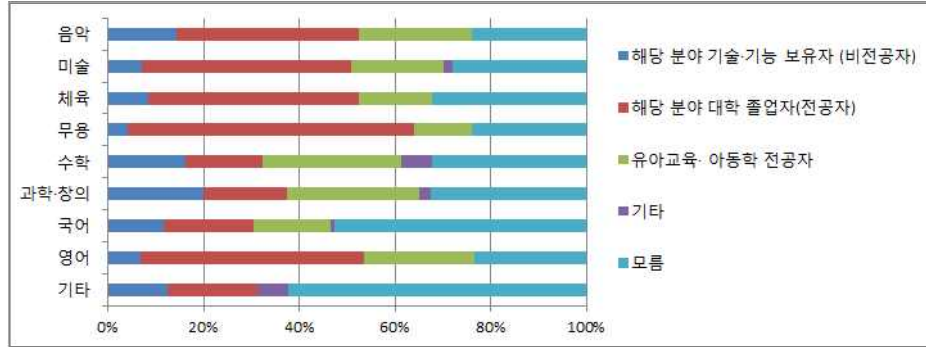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모른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인 경우가 31.6%로 다음을 차지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예체능은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학습은 모른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학습 프로그램 중 영어의 경우는 모른다는 응답 비율보다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 비율이 46.7%로 더 높았다.

〈표 IV-1-24〉 사교육 강사의 전문성(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 (비전공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전공자)	유아교육· 아동학 전공자	기타	모름	계
전체	11.0	31.6	18.6	1.5	37.2	100.0(392)
대분류						
예체능	8.0	45.7	17.3	0.6	28.4	100.0(162)
학습	13.1	22.0	21.0	1.9	42.1	100.0(214)
$\chi^2(df)$						24.79(4) ^{***}

^{***} $p < .001$



[그림 IV-1-7] 사교육 강사 전문성(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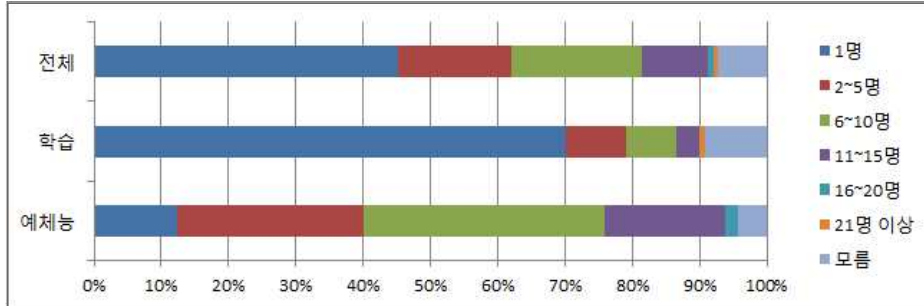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의 반 규모는 1명이 4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10명, 2~5명 순이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예체능은 6~10명이 35.8%로 가장 높은 반면, 학습은 1명이 70.1%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예체능은 그룹을 선호하는 데 반해, 학습은 1:1 지도를 선호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미술은 다른 예체능 프로그램에 비해 소그룹인 2~5명의 비율이 높았다.

<표 IV-1-25>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1명	2~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모름	계
전체	45.2	16.8	19.4	9.7	1.0	0.5	7.4	100.0(392)
대분류								
예체능	12.3	27.8	35.8	17.9	1.9	0.0	4.3	100.0(162)
학습	70.1	8.9	7.5	3.3	0.0	0.9	9.3	100.0(214)
$\chi^2(df)$	154.28(6)***							
소분류								
음악	23.8	14.3	33.3	23.8	0.0	0.0	4.8	100.0(21)
미술	21.1	47.4	24.6	3.5	1.8	0.0	1.8	100.0(57)
체육	5.1	20.3	37.3	25.4	3.4	0.0	8.5	100.0(59)
무용	0.0	12.0	60.0	28.0	0.0	0.0	0.0	100.0(25)
수학	80.6	3.2	6.5	0.0	0.0	0.0	9.7	100.0(31)
과학·창의	62.5	20.0	10.0	5.0	0.0	0.0	2.5	100.0(40)
국어	75.9	4.5	3.6	0.9	0.0	0.9	14.3	100.0(112)
영어	46.7	16.7	20.0	13.3	0.0	3.3	0.0	100.0(30)
기타외국어	100.0	0.0	0.0	0.0	0.0	0.0	0.0	100.0(1)
기타	43.8	12.5	12.5	12.5	6.3	0.0	12.5	100.0(16)

*** $p < .001$



[그림 IV-1-8]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2세)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혼합연령보다는 단일연령이 59.4%로 많았고, 부모가 모른다는 응답도 13.5%였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예체능은 단일연령과 혼합연령 비율이 비슷한 데 반해, 학습은 단일연령이 69.2%로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1-26> 사교육 프로그램 연령 구성(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단일연령	혼합연령	모름	계
전체	59.4	27.0	13.5	100.0(392)
대분류				
예체능	45.7	46.3	8.0	100.0(162)
학습	69.2	13.1	17.8	100.0(214)
$\chi^2(df)$		52.18(2) ^{***}		
소분류				
음악	42.9	42.9	14.3	100.0(21)
미술	61.4	35.1	3.5	100.0(57)
체육	40.7	45.8	13.6	100.0(59)
무용	24.0	76.0	0.0	100.0(25)
수학	77.4	6.5	16.1	100.0(31)
과학·창의	62.5	25.0	12.5	100.0(40)
국어	68.8	7.1	24.1	100.0(112)
영어	70.0	26.7	3.3	100.0(30)
기타외국어	100.0	0.0	0.0	100.0(1)
기타	68.8	18.8	12.5	100.0(16)

^{***} $p < .001$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교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지나 워크북이 44.6%, 책이 30.6%로 많았다. 예체능은 교구가

70.4%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학습의 경우는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6〉 사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전체	44.6	30.6	58.9	0.3	7.4	2.6
대분류						
예체능	12.3	13.0	70.4	0.0	16.0	5.6
학습	68.2	40.7	50.0	0.5	1.4	0.5
소분류						
음악	19.0	14.3	76.2	0.0	14.3	4.8
미술	17.5	22.8	86.0	0.0	1.8	1.8
체육	3.4	1.7	64.4	0.0	23.7	8.5
무용	16.0	16.0	44.0	0.0	32.0	8.0
수학	74.2	29.0	58.1	0.0	0.0	0.0
과학·창의	57.5	37.5	72.5	0.0	5.0	2.5
국어	74.1	41.1	41.1	0.0	0.0	0.0
영어	53.3	53.3	46.7	3.3	3.3	0.0
기타외국어	100.0	100.0	0.0	0.0	0.0	0.0
기타	56.3	75.0	62.5	0.0	0.0	0.0

주: 복수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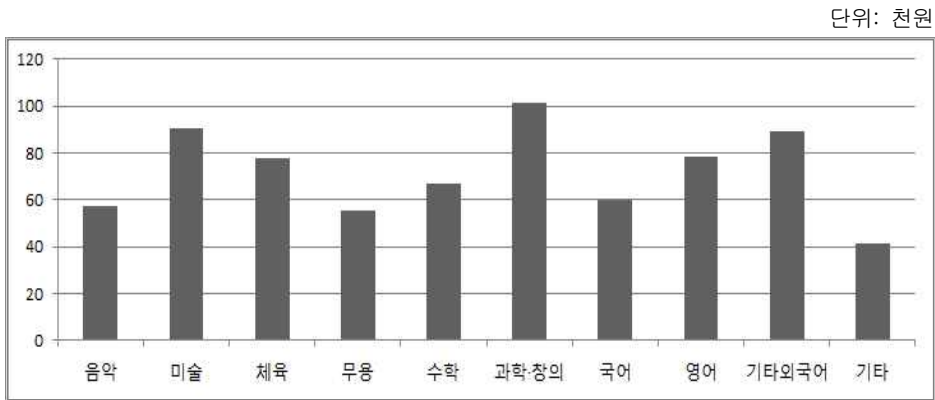
2세아 부모가 지불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수강료는 5만7천원, 교재교구비용은 1만5천원으로 총 비용 7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예체능의 수강료가 학습보다 8만원 비쌌으며 교재교구비는 학습이 비싸 총 비용은 예체능이 7만6천원, 학습은 7만1천원이었다. 세부 프로그램별 총 비용을 살펴보면, 과학·창의가 10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술 9만1천원, 기타외국어 8만9천원, 영어 7만8천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7〉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2세 부모)

단위: 천원(표준편차)

구분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 비용
전체	57.4(53.1)	14.6(30.0)	72.0(64.6)
대분류			
예체능	63.6(55.2)	12.4(23.4)	76.0(63.2)
학습	55.6(52.0)	15.7(33.4)	71.3(66.4)
<i>t</i>	1.44	-1.10	0.70

구분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 비용
소분류			
음악	49.3(50.7)	7.7(15.1)	57.0(56.8)
미술	78.3(71.6)	12.5(17.3)	90.8(76.1)
체육	61.4(43.3)	16.0(32.6)	77.4(58.7)
무용	47.2(28.0)	7.9(12.1)	55.1(30.8)
수학	56.6(43.7)	10.5(28.3)	67.1(58.7)
과학·창의	68.6(59.6)	33.0(52.4)	101.5(83.6)
국어	48.8(51.7)	10.8(22.7)	59.6(58.4)
영어	61.7(49.1)	16.5(33.6)	78.2(67.2)
기타외국어	89.0(0.0)	0.0(0.0)	89.0(0.0)
기타	18.7(16.9)	22.7(39.6)	41.4(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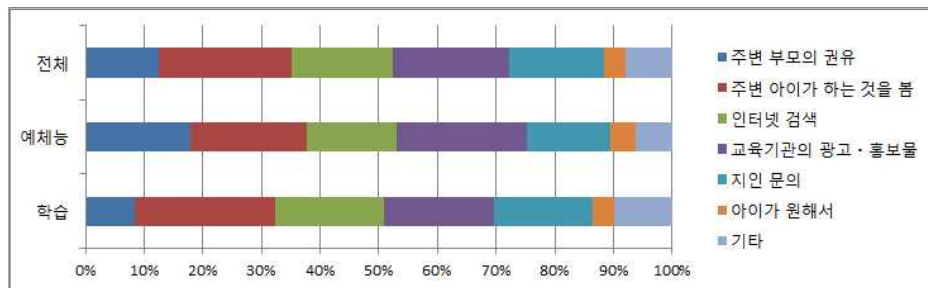
[그림 IV-1-9]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2세)

2세아의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경로는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22.7%)이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19.9%), 인터넷 검색(17.1%)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예체능은 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22.2%)이 가장 많았고, 학습은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23.8%)하는 것이 많았다. 세부 프로그램별로는 무용만이 아이가 원해서 선택했다는 비율이 16.0%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높았다.

〈표 IV-1-28〉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주변 부모의 권유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봄	인터넷 검색	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	지인 문의	아이가 원해서	기타	계
전체	12.5	22.7	17.1	19.9	16.1	3.8	7.9	100.0(392)
대분류								
예체능	17.9	19.8	15.4	22.2	14.2	4.3	6.2	100.0(162)
학습	8.4	23.8	18.7	18.7	16.8	3.7	9.8	100.0(214)
$\chi^2(df)$				10.44(6)				
소분류								
음악	19.0	9.5	4.8	42.9	14.3	0.0	9.5	100.0(21)
미술	22.8	22.8	14.0	15.8	12.3	3.5	8.8	100.0(57)
체육	11.9	20.3	22.0	20.3	22.0	1.7	1.7	100.0(59)
무용	20.0	20.0	12.0	24.0	0.0	16.0	8.0	100.0(25)
수학	6.5	9.7	22.6	22.6	19.4	6.5	12.9	100.0(31)
과학·창의	7.5	25.0	15.0	17.5	25.0	2.5	7.5	100.0(40)
국어	8.0	27.7	17.0	17.9	16.1	3.6	9.8	100.0(112)
영어	13.3	23.3	23.3	20.0	6.7	3.3	10.0	100.0(30)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0.0	0.0	0.0	100.0(1)
기타	12.5	37.5	12.5	12.5	25.0	0.0	0.0	100.0(16)



[그림 IV-1-10]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2세)

2세아 부모들은 자녀가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체로 흥미를 가지고 몰입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수학의 경우 자녀가 흥미 없어 한다는 응답이 16.1%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1-29〉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흥미(2세 부모)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전혀 흥미 없음	별로 흥미 없음	어느 정도 흥미 가지고 몰입	매우 흥미 있어 하며 몰입	계	점수	
						평균	<i>F/t</i>
전체	1.0	6.1	45.2	47.7	100.0(392)	3.4(0.7)	
대분류							
예체능	1.9	7.4	40.1	50.6	100.0(162)	3.4(0.7)	0.17
학습	0.5	5.6	49.1	44.9	100.0(214)	3.4(0.6)	
소분류							
음악	0.0	9.5	47.6	42.9	100.0(21)	3.3(0.7)	1.46
미술	0.0	5.3	42.1	52.6	100.0(57)	3.5(0.6)	
체육	3.4	8.5	33.9	54.2	100.0(59)	3.4(0.8)	
무용	4.0	8.0	44.0	44.0	100.0(25)	3.3(0.8)	
수학	0.0	16.1	45.2	38.7	100.0(31)	3.2(0.7)	
과학·창의	0.0	2.5	32.5	65.0	100.0(40)	3.6(0.5)	
국어	0.0	3.6	53.6	42.9	100.0(112)	3.4(0.6)	
영어	3.3	6.7	56.7	33.3	100.0(30)	3.2(0.7)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100.0(1)	3.0(0.0)	
기타	0.0	0.0	43.8	56.3	100.0(16)	3.6(0.5)	

2세아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으로, 흥미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발달 28.1%, 학습 15.3%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예체능은 흥미, 발달, 재능발견 순으로 높은 반면, 학습은 흥미, 학습, 발달 순으로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예체능 가운데 체육은 발달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습 가운데 수학은 흥미보다 학습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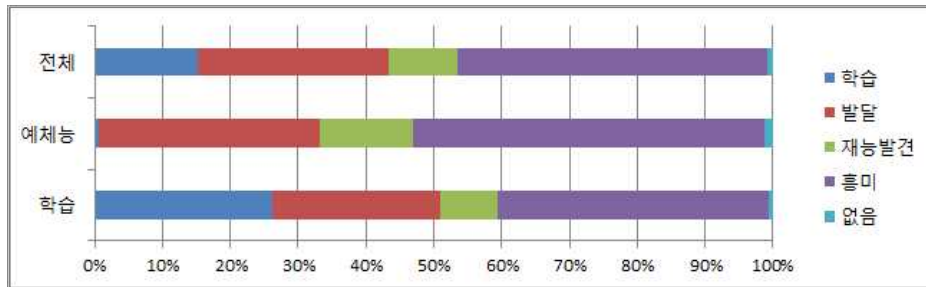
〈표 IV-1-30〉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2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학습	발달	재능발견	흥미	없음	계
전체	15.3	28.1	10.2	45.7	0.8	100.0(392)
대분류						
예체능	0.6	32.7	13.6	51.9	1.2	100.0(162)
학습	26.2	24.8	8.4	40.2	0.5	100.0(214)
$\chi^2(df)$	47.55(4)**					

구분	학습	발달	재능발견	흥미	없음	계
소분류						
음악	0.0	19.0	19.0	57.1	4.8	100.0(21)
미술	0.0	17.5	7.0	75.4	0.0	100.0(57)
체육	1.7	55.9	10.2	30.5	1.7	100.0(59)
무용	0.0	24.0	32.0	44.0	0.0	100.0(25)
수학	35.5	22.6	12.9	29.0	0.0	100.0(31)
과학·창의	12.5	32.5	10.0	45.0	0.0	100.0(40)
국어	28.6	26.8	2.7	41.1	0.9	100.0(112)
영어	26.7	10.0	23.3	40.0	0.0	100.0(30)
기타외국어	0.0	0.0	0.0	100.0	0.0	100.0(1)
기타	18.8	25.0	0.0	56.3	0.0	100.0(16)

*** $p < .001$



[그림 IV-1-11]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2세)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 28.8%, 불만족 6.1%였다. 세부 프로그램별로는 특히 수학과 영어에 대한 불만족이 16%대로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31>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2세 부모)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	점수	
						평균	Ft
전체	0.5	6.1	64.5	28.8	100.0(376)	3.2(0.6)	
대분류							
예체능	0.6	6.8	59.3	33.3	100.0(21)	3.3(0.6)	1.18
학습	0.5	5.6	69.2	24.8	100.0(57)	3.2(0.5)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계	접수	
						평균	Ft
소분류							
음악	0.0	4.8	66.7	28.6	100.0(21)	3.2(0.5)	
미술	0.0	5.3	57.9	36.8	100.0(57)	3.3(0.6)	
체육	1.7	8.5	55.9	33.9	100.0(59)	3.2(0.7)	
무용	0.0	8.0	64.0	28.0	100.0(25)	3.2(0.6)	
수학	0.0	16.1	58.1	25.8	100.0(31)	3.1(0.7)	
과학·창의	0.0	0.0	67.5	32.5	100.0(40)	3.3(0.5)	0.94
국어	0.9	1.8	74.1	23.2	100.0(112)	3.2(0.5)	
영어	0.0	16.7	63.3	20.0	100.0(30)	3.0(0.6)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100.0(1)	3.0(0.0)	
기타	0.0	6.3	56.3	37.5	100.0(16)	3.3(0.6)	

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현황 및 인식

2세아의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지출하는 월 수강료는 평균 28만4천원이며, 교재비 3만원 정도로 총 비용은 31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2세아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비용은 표준편차가 컸는데, 특히 영어학원 수강료의 편차가 매우 컸다. 학원별 총 비용은 영어학원이 43만9천원으로 가장 컸고, 놀이학원 32만1천원, 체능단 12만2천원 순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73.3%가 정규프로그램 외의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2세아 중 81.8%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놀이학원의 특별활동 운영 비율이 80.0%로 다른 학원보다 높았다.

〈표 IV-1-32〉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2세 부모)

단위: 천원(표준편차), %(명)

구분	월 평균 비용			특별활동					
	수강료	교재비	총 비용	운영여부			(운영할 경우) 참여율		
				운영함	안 함	계	참여함	안 함	계
전체	284.2 (321.3)	29.8 (32.3)	314.0 (334.0)	73.3	26.7	100.0(30)	81.8	18.2	100.0(22)
영어학원	400.0 (465.8)	39.2 (35.8)	439.2 (474.7)	50.0	50.0	100.0(6)	100.0	0.0	100.0(3)
놀이학원	291.0 (294.0)	29.5 (33.6)	320.5 (308.4)	80.0	20.0	100.0(20)	81.3	18.8	10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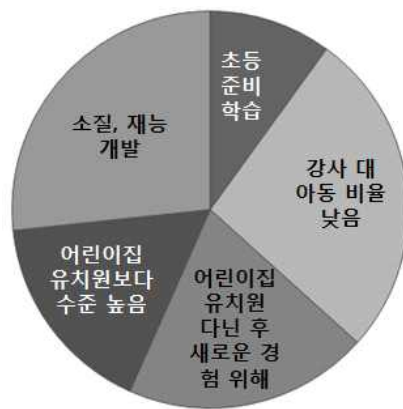
구분	월 평균 비용			특별활동					
	수강료	교재비	총 비용	운영여부			(운영할 경우) 참여율		
				운영함	안 함	계	참여함	안 함	계
유아체능단	98.3 (52.5)	23.3 (20.8)	121.7 (33.3)	66.7	33.3	100.0(3)	50.0	50.0	100.0(2)
기타	10.0 (0.0)	0.0 (0.0)	10.0 (0.0)	100.0	0.0	100.0(1)	100.0	0.0	100.0(1)
$F/\chi^2(df)$	na	na	na	na			na		

2세아 부모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와 '소질·재능 개발을 위해'라는 응답이 각각 26.7%로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경험한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20.0%)',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16.7%)', '초등학교 준비학습을 위해(10.0%)' 순이었다.

〈표 IV-1-33〉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초등 준비 학습	강사 대 아동 비율 낮음	어린이집·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소질·재능 개발	계
전체	10.0	26.7	20.0	16.7	26.7	100.0(30)
영어학원	16.7	16.7	16.7	50.0	0.0	100.0(6)
놀이학원	10.0	35.0	25.0	5.0	25.0	100.0(20)
유아체능단	0.0	0.0	0.0	33.3	66.7	100.0(3)
기타	0.0	0.0	0.0	0.0	100.0	100.0(1)
$\chi^2(df)$	na					



[그림 IV-1-12]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2세)

반일제 이상 학원 이전에 다닌 기관은 어린이집 53.3%, 놀이학원 50.0%,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16.7%였다. 현재 영어학원에 다니는 2세아의 66.7%는 이전에도 다른 영어학원을 다녔고, 50%는 놀이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놀이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닌 비중이 65.0%로 가장 많았다.

〈표 IV-1-34〉 반일제 이상 학원 이전에 다닌 기관(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없음
전체	6.7	53.3	16.7	50.0	20.0	3.3	6.7
영어학원	16.7	16.7	66.7	50.0	16.7	16.7	16.7
놀이학원	5.0	65.0	5.0	55.0	15.0	0.0	5.0
유아체능단	0.0	33.3	0.0	33.3	66.7	0.0	0.0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주: 중복응답임

2세아 부모가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램 내용, 강사, 집단구성,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어학원은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놀이학원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유아체능단은 시설과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2.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35〉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프로그램 만족도(2세 부모)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비용	프로그램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전체 평균
전체	2.5(0.8)	3.0(0.6)	2.8(0.6)	3.0(0.6)	3.1(0.7)	3.0(0.6)	2.9(0.5)
영어학원	2.7(1.0)	2.8(0.8)	3.2(0.8)	3.0(0.9)	3.2(1.0)	3.0(0.6)	3.0(0.6)
놀이학원	2.5(0.7)	3.1(0.4)	2.8(0.6)	3.0(0.6)	3.1(0.7)	3.2(0.4)	2.9(0.4)
유아체능단	2.3(1.2)	3.0(1.0)	2.7(0.6)	3.0(0.0)	2.7(0.6)	2.3(1.2)	2.7(0.7)
기타	3.0(0.0)	3.0(0.0)	3.0(0.0)	2.0(0.0)	3.0(0.0)	2.0(0.0)	2.7(0.0)
<i>F</i>	na	na	na	na	na	na	na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약간 만족, 4=매우 만족

라. 부모 양육태도, 사교육, 영아 행동 특성 관계

여기서는 2세아의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사교육시간이 2세아들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교육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tobi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은 통상적인 선형회귀분석(OLS)를 실시하였다. 사교육 시간에 관한 분석을 토빗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아, 사교육시간이 0인 아이들이 다수 있어, 치우쳐진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영유아 기질 척도는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가 각 영역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천희영, 1992). 부모의 양육태도는 Schaefer, Bell, 그리고 Bayley(1959)가 개발한 7요인, 154문항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후속 연구자들(고영미, 1996; 이수경, 2003; 배선미, 2010 등)이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4요인으로 구분하고 선별한 것을 참고하여 4요인,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애정-거부적 태도 가운데 우세한 특성과 자율-통제적 태도 가운데 우세한 특성으로 교차집단을 구성하여 애정-자율, 애정-통제, 거부-자율, 거부-통제 네 유형의 양육태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2세아의 문제행동은 McGuire와 Richman(1988)의 PBCL(Pre-School Behaviour Checklist)을 황혜정(1998)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교사가 평정하고 정서적 문제, 품행 문제, 사회적 관계, 집중하여 건설적으로 놀이하는 문제, 발버둥치면서 떼쓰는 문제, 언어습관과 대소변 문제의 6개 하위항목 2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교육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구특성만을 고려한 모형1로부터 시작하여, 영유아기질, 양육태도 등을 순차적으로 추가해가며 독립변인들의 변화를 고찰해보았으며,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사교육시간을 마지막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해석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통제가 많이 된 모형 3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사교육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특성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10%유의수준에서 사교육 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영

유아의 기질은 사교육 시간에 크게 상관되어 있지 않았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2세아들의 사교육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인 경우에 비해 애정적이면서 자율적인 경우, 애정적이면서 통제적인 경우에 사교육 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해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가 애정적 양육태도의 부모보다 사교육을 더 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IV-1-36〉 사교육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2세: tobit)

	모형1	모형2	모형3
아동 성별 (기준=남아)	-0.728	-2.327	-2.230
전체 자녀 수	1.943	0.994	2.710
부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14.229 ⁺	-14.049	-16.094
대졸	-6.047	-6.071	-8.015
대학원졸이상	-19.325	-18.254	-22.090
맞벌이 여부(맞벌이 =1)	-15.012	-14.967	-17.352 ⁺
가구소득 (기준=265만원 이하)			
265~370만원	-0.910	-1.342	-1.852
370~480만원	11.548	11.325	12.306
480만원 이상	5.296	5.838	6.514
지역규모 (기준=읍/면)			
대도시	24.340 ⁺	23.833 ⁺	21.647
중소도시	14.455	14.100	12.809
보조양육자 유무(있음=1)	-11.371	-11.967	-10.605
영유아 기질			
적응성		0.640	0.600
활동성		0.811	0.742
생리적규칙성		-2.794	-2.588
반응성		-1.504	-1.155
정서성		-2.425	-2.660
양육태도 (기준=거부-통제)			
애정-자율			-23.137 ⁺
애정-통제			-32.037 [*]
거부-자율			-37.828
상수	98.609 ^{***}	153.740 ^{**}	172.125 ^{**}
N	537	537	53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37〉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2세: OLS)

	모형1	모형2	모형3
아동 성별 (기준=남아)	4.171 ^{***}	4.169 ^{***}	4.169 ^{***}
전체 자녀 수	0.244	0.239	0.235
부모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2.068	2.060	2.054
대졸	0.768	0.770	0.771
대학원졸이상	0.145	0.006	-0.001
맞벌이 여부(맞벌이 =1)	0.686	0.671	0.668
가구소득 (기준=265만원 이하)			
265~370만원	-3.208 [*]	-3.219 [*]	-3.221 [*]
370~480만원	-3.833 [*]	-3.828 [*]	-3.831 [*]
480만원 이상	-1.895	-1.905	-1.910
지역규모 (기준=읍/면)			
대도시	-1.753	-1.735	-1.736
중소도시	-2.166 ⁺	-2.151 ⁺	-2.153 ⁺
보조양육자 유무(있음=1)	-1.196	-1.204	-1.204
영유아 기질			
적응성	0.076	0.075	0.076
활동성	0.290 [*]	0.290 [*]	0.290 [*]
생리적 규칙성	0.133	0.131	0.130
반응성	-0.260	-0.260	-0.260
정서성	-0.266	-0.267	-0.267
양육태도 (기준=거부-통제)			
애정-자율	-1.953	-1.959	-1.963
애정-통제	0.008	-0.006	-0.012
거부-자율	16.422 [*]	16.383 [*]	16.374 [*]
사교육 + 특별활동 총 시간	0.001		
사교육 총시간		0.000	
학습관련 사교육 총시간			0.000
상수	30.477 ^{***}	30.641 ^{***}	30.683 ^{***}
N	434	434	434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세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제 행동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4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세 남아가 여아보다, 영유아의 기질 중에서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이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문제 행동 점수가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양육 특성

은 거부-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에 비해 거부-자율적인 양육특징을 보이는 집단에서만 5% 유의수준에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시간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시간은 사교육과 특별활동을 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시간, 모든 종류의 사교육을 위해 소요된 총 시간, 학습관련 사교육에 소요된 총 시간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으나,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교육 개수 혹은 이용 횟수 등도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사교육이 진행되는 시점과 문제행동 점수를 측정할 시점이 거의 동일한 시점으로, 사교육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현재 이용하는 사교육에 대한 이용 시간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교육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5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가.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인식

5세아의 83.6%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학습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는 27.4%, 예체능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19.9%, 학습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5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교육 이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학습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평균 가구수입별로 살펴보면, 370~480만원 미만인 가구 5세아의 사교육 이용이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수입 370만원 미만은 학습 관련 사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70만원 이상 가구의 5세아는 학습과 예체능 모두 이용한다는 비율이 50%를 넘었다.

부모학력이 대학원졸업 이상일 경우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7.2%로 저학력자 부모보다 컸으며,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은 대졸 이상보다 학습 사교육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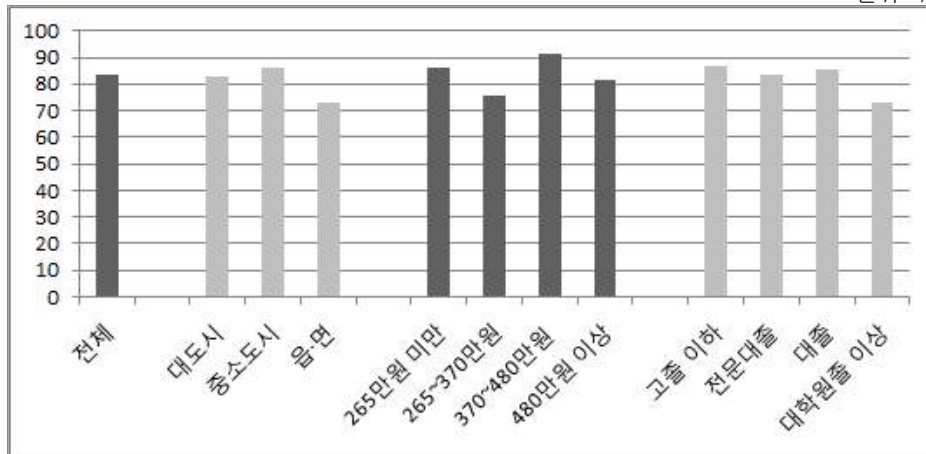
〈표 IV-2-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유형(5세 부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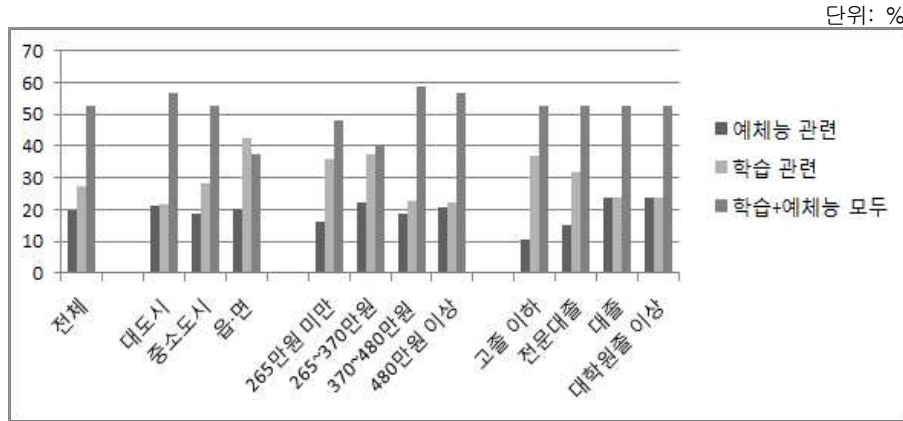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함	안함	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모두
전체	83.6	16.4	100.0(704)	27.4	19.9	52.7
지역						
대도시	82.7	17.3	100.0(264)	21.9	21.3	56.8
중소도시	86.4	13.6	100.0(316)	28.4	18.9	52.6
읍·면	73.2	26.8	100.0(124)	42.5	20.2	37.3
$\chi^2(df)$		8.59(2)*			10.57(4)*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86.4	13.6	100.0(86)	36.0	16.2	47.9
265~370만원	75.8	24.2	100.0(166)	37.6	22.4	40.0
370~480만원	91.6	8.4	100.0(177)	22.5	18.8	58.7
480만원 이상	81.7	18.3	100.0(275)	22.4	20.8	56.8
$\chi^2(df)$		16.66(3)**			17.40(6)**	
부모학력						
고졸 이하	86.6	13.4	100.0(104)	36.7	10.7	52.6
전문대졸	83.3	16.7	100.0(178)	31.9	15.3	52.8
대졸	85.5	14.5	100.0(332)	23.6	23.7	52.6
대학원졸 이상	72.8	27.2	100.0(90)	23.8	23.7	52.5
$\chi^2(df)$		8.91(3)*			12.96(6)*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



[그림 IV-2-1] 사교육 이용률(5세)



[그림 IV-2-2]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5세)

5세아가 참여하는 학습 관련 사교육 가짓수는 평균 1.6개, 예체능 관련 사교육은 1.4개였으며, 총 2.2가지로 2세에 비해 학습 관련 사교육과 총 사교육 가짓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가정양육 5세의 사교육 가짓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5세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구의 5세아가 더 여러 개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예체능 관련 가짓수가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월평균 가구수입 480만원 이상 가구의 5세아의 사교육 이용 가짓수는 학습과 예체능 모두 가구수입이 적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 부모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와 대학원졸 이상인 가구의 5세아가 학습과 예체능 모두 사교육 가짓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사교육 유형별 가짓수(5세 부모)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총계
전체	1.6(0.8)	1.4(0.6)	2.2(1.2)
재원기관			
어린이집	1.5(0.7)	1.3(0.7)	2.2(1.1)
유치원	1.6(0.7)	1.3(0.5)	2.2(1.1)
학원	1.6(0.7)	1.5(0.7)	2.5(1.1)
가정양육	1.8(1.0)	1.4(0.8)	2.6(1.4)
<i>F</i>	1.18	na	2.75*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총계
맞벌이여부			
맞벌이	1.5(0.8)	1.3(0.6)	2.1(1.1)
외벌이	1.6(0.8)	1.4(0.7)	2.4(1.2)
<i>F</i>	-1.02	-1.62	-2.80**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4(0.6)	1.4(0.7)	2.1(0.9)
265~370만원	1.5(0.6)	1.3(0.5)	2.0(1.0)
370~480만원	1.4(0.7)	1.2(0.5)	2.1(1.0)
480만원 이상	1.8(0.9)	1.5(0.8)	2.5(1.4)
<i>F</i>	na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8(0.9)	1.5(0.9)	2.6(1.3)
전문대졸	1.5(0.7)	1.3(0.6)	2.1(1.0)
대졸	1.5(0.7)	1.3(0.6)	2.2(1.1)
대학원졸 이상	1.7(0.8)	1.5(0.7)	2.4(1.3)
<i>F</i>	na	na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5(0.7)	1.5(0.7)	2.3(1.2)
없음	1.6(0.8)	1.3(0.6)	2.2(1.1)
<i>F</i>	-0.31	1.99 ^a	1.02

* $p < .05$, ** $p < .01$

주: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5세아는 사교육 프로그램에 주당 5.2회 참여하며, 회당 시간은 50.1분으로 나타났다. 재원기관별로 사교육 이용 회당 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나 학원 재원 5세아가 61.2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가정양육아, 유치원 재원아, 어린이집 재원아 순이었다. 가구수입이 클수록 사교육 주당 횟수가 증가하였고, 부모의 학력에 따라 회당 시간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관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IV-2-3〉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5세 부모)

구분	주당 횟수*	단위: 회, 분(표준편차)
		회당 시간**
전체	5.2(3.8)	50.1(23.5)
재원기관		
어린이집	4.9(3.2)	47.1 ^a (16.1)
유치원	5.2(4.0)	50.0 ^a (29.9)
학원	5.1(3.5)	61.2 ^b (19.4)
가정양육	7.4(6.6)	56.0 ^{ab} (18.4)
<i>F</i>	na	6.71***

구분	주당 횟수*	회당 시간**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4.3 ^a (2.9)	51.4(42.8)
265~370만원	4.7 ^{ab} (3.8)	46.7(18.9)
370~480만원	5.0 ^{ab} (4.1)	49.2(17.2)
480만원 이상	5.9 ^b (3.8)	52.3(18.7)
<i>F</i>	5.35 [*]	1.64
부모학력		
고졸 이하	6.1(5.1)	49.3(20.6)
전문대졸	4.5(3.3)	45.9(17.3)
대졸	5.1(3.2)	52.5(27.1)
대학원졸 이상	5.9(5.0)	49.8(19.5)
<i>F</i>	na	2.66 [*]

* $p < .05$, ** $p < .01$, *** $p < .001$

주: * 한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교육 프로그램을 종합한 1주일 간 참여 횟수를 의미함.

** 해당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교육의 회당 평균 시간을 의미함.

1)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5세아 부모가 지불하는 월간 사교육비용은 수강료가 14만8천원, 교재교구비용이 1만4천원이었으며, 총비용은 16만1천원이었다.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의 비율은 4.4%였다.

재원기관별로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와 가정양육의 경우 월간 사교육비가 20만원 이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5세아의 사교육비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세아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교육비 수강료와 총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가 4.9%인데 반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로, 대도시일수록 비용과 월 소득 대비 비율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맞벌이보다 외벌이의 경우 월간 사교육비용은 20만원 많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1.7% 높았다.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소득 대비 비율은 외벌이 5.4%, 맞벌이 3.7%로 이는 맞벌이가구에 비해 외벌이 가구의 소득이 다소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인 부모의 경우에 사교육 수강료와 총비용이 가장 적었으며, 총 비용의 경우 대학원졸 이상은 18만2천원이나 전문대졸은 13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월간 사교육비용(5세 부모)

단위: 천원,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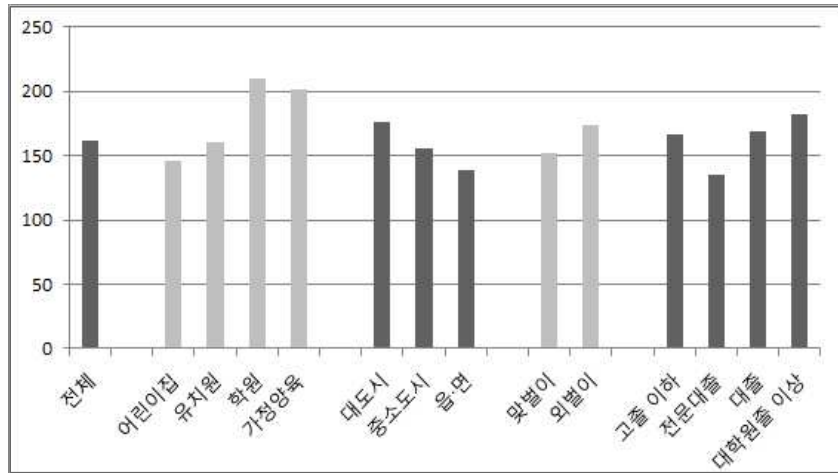
구분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 비용	월 소득 대비 비율
전체	147.7(104.2)	13.6(27.5)	161.3(114.7)	4.4(3.7)
재원기관				
어린이집	136.2 ^a (99.0)	9.7(19.0)	145.8 ^a (106.4)	4.3(4.1)
유치원	144.8 ^a (98.9)	15.9(32.6)	160.7 ^{ab} (110.6)	4.1(2.8)
학원	196.1 ^b (123.4)	14.0(20.9)	210.0 ^b (130.1)	5.2(5.0)
가정양육	174.0 ^{ab} (121.4)	27.9(45.5)	201.9 ^b (149.6)	5.9(4.0)
<i>F</i>	6.19 ^{**}	na	6.55 ^{**}	na
지역				
대도시	161.4 ^b (106.6)	14.7(29.1)	176.1 ^b (116.0)	4.9 ^b (4.5)
중소도시	143.2 ^{ab} (103.0)	12.1(24.7)	155.3 ^{ab} (115.6)	4.2 ^{ab} (3.2)
읍·면	121.5 ^a (96.3)	17.5(35.4)	139.0 ^a (98.8)	3.7 ^a (2.8)
<i>F</i>	3.98 [*]	na	3.32 [*]	3.62 [*]
맞벌이여부				
맞벌이	139.9(103.5)	12.3(28.6)	152.1(115.3)	3.7(2.6)
외벌이	158.4(104.5)	15.3(25.9)	173.7(112.9)	5.4(4.7)
<i>t</i>	2.14 [*]	1.32	2.26 [*]	-5.23 ^{***}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29.6(92.2)	10.6(16.3)	140.2(104.5)	6.7(6.6)
265~370만원	130.5(92.2)	12.1(30.4)	142.5(98.3)	5.0(3.4)
370~480만원	129.5(78.9)	13.1(27.0)	142.6(87.2)	3.9(2.5)
480만원 이상	177.2(123.0)	15.8(29.6)	193.0(136.0)	3.5(2.5)
<i>F</i>	na	0.96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53.0(107.3)	13.3(23.9)	166.3 ^{ab} (113.2)	4.9(3.4)
전문대졸	127.1(96.8)	7.5(17.1)	134.6 ^a (103.0)	4.3(3.7)
대졸	153.5(103.1)	15.4(30.5)	168.9 ^{ab} (114.4)	4.4(4.0)
대학원졸 이상	162.7(118.1)	19.6(33.9)	182.4 ^b (135.6)	4.1(2.9)
<i>F</i>	2.76 [*]	na	3.90 ^{**}	0.724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단위: 천원



[그림 IV-2-3] 월간 사교육비용(5세)

5세아 부모는 자녀의 사교육 정도에 대해 적당하다(54.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금 부족함 34.5%, 매우 부족함 5.6%, 조금 과함 5.2% 순이었다. 즉, 약 40%가 현재 사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5.6%가 과하다고 인식하였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교육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고졸 이하 부모의 경우 사교육이 조금 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별로는 학원 재원 5세아 부모는 적당하거나 조금 과하다는 응답이 다른 기관 이용아 부모보다 많은 편이었다.

<표 IV-2-5> 사교육 정도에 대한 인식(5세 부모)

단위: %(명), 점(표준편차)

구분	매우 부족함	조금 부족함	적당함	조금 과함	매우 과함	계	점수	
							평균	F/t
전체	5.6	34.5	54.3	5.2	0.4	100.0(574)	2.6(0.7)	
재원기관								
어린이집	5.5	33.6	56.5	4.1	0.3	100.0(245)	2.6(0.7)	na
유치원	6.2	38.6	49.6	5.1	0.5	100.0(240)	2.6(0.7)	
학원	1.7	23.3	63.3	11.7	0.0	100.0(60)	2.9(0.6)	
가정양육	10.3	31.0	55.2	3.4	0.0	100.0(29)	2.5(0.7)	
맞벌이여부								
맞벌이	6.6	38.2	49.9	5.0	0.4	100.0(323)	2.5(0.7)	-2.40*
외벌이	4.4	29.4	60.3	5.6	0.3	100.0(251)	2.7(0.7)	

구분	매우 부족함	조금 부족함	적당함	조금 과함	매우 과함	계	점수	
							평균	F/t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4.1	25.1	68.9	1.0	1.0	100.0(64)	2.7(0.6)	na
265~370만원	6.6	38.6	50.2	4.6	0.0	100.0(126)	2.5(0.7)	
370~480만원	7.7	31.3	57.2	3.8	0.0	100.0(154)	2.6(0.7)	
480만원 이상	4.2	38.3	48.7	8.2	0.6	100.0(230)	2.6(0.7)	
부모학력								
고졸 이하	3.3	38.6	45.6	11.4	1.1	100.0(86)	2.7(0.8)	3.41*
전문대졸	11.1	34.2	53.4	1.3	0.0	100.0(146)	2.4(0.7)	
대졸	3.7	32.9	58.2	4.9	0.4	100.0(273)	2.7(0.7)	
대학원졸 이상	5.1	38.0	48.2	8.7	0.0	100.0(69)	2.6(0.7)	

* $p < .05$

주: 1)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한해 질문함.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5세아 부모는 자녀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자녀의 흥미(46.0%)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그 다음으로 내용 26.9%을 꼽았다. 이 외에 초등학교 준비, 장소, 시간 순이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수치상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아는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기준 1순위로 초등학교 준비라는 응답이 14.1%로 다른 재원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치원에 재원 중인 5세아는 흥미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아는 시간, 가정양육아는 내용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부모들은 사교육 선택 기준 1순위가 장소와 내용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읍·면 거주 부모들은 자녀의 흥미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부모와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 사교육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장소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6〉 사교육 선택 기준(1순위)(5세 부모)

구분	단위: %(명)									
	장소	시간	강사	내용	비용	자녀의 흥미	인지 도	초등 준비	기타	계
전체	8.3	3.9	1.7	26.9	3.2	46.0	0.6	8.9	0.4	100.0(574)
재원기관										
어린이집	9.3	1.8	1.8	25.4	3.2	43.6	0.4	14.1	0.4	100.0(245)
유치원	6.2	4.0	1.4	29.0	2.6	49.7	1.1	5.5	0.5	100.0(240)
학원	10.0	11.7	1.7	21.7	6.7	45.0	0.0	3.3	0.0	100.0(60)
가정양육	13.8	6.9	3.4	34.5	0.0	37.9	0.0	3.4	0.0	100.0(29)
$\chi^2(df)$						na				

구분	장소	시간	강사	내용	비용	자녀의 흥미	인지 도	초등 준비	기타	계
지역										
대도시	8.3	3.3	1.2	30.3	2.8	44.0	1.3	8.1	0.8	100.0(223)
중소도시	9.5	3.9	0.9	26.6	3.3	46.1	0.2	9.4	0.0	100.0(264)
읍·면	2.3	6.7	8.1	16.1	3.7	52.8	0.0	9.1	1.2	100.0(87)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10.9	3.8	1.6	25.5	3.4	44.1	0.4	9.9	0.4	100.0(323)
외벌이	4.9	4.1	1.8	28.9	2.8	48.6	0.9	7.6	0.4	100.0(251)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0.8	0.7	1.3	26.8	2.3	52.0	0.9	14.6	0.8	100.0(64)
265~370만원	7.2	6.7	1.8	28.1	9.6	40.7	0.0	6.0	0.0	100.0(126)
370~480만원	12.6	2.0	1.7	23.2	3.2	45.9	0.8	10.4	0.1	100.0(154)
480만원 이상	8.8	5.1	1.8	29.1	0.0	46.6	0.7	7.2	0.7	100.0(230)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6	5.2	3.4	25.7	4.8	42.0	0.0	16.3	1.1	100.0(86)
전문대졸	14.6	2.6	0.8	26.7	3.1	44.7	0.5	6.4	0.5	100.0(146)
대졸	7.0	4.1	1.4	26.0	3.4	47.9	0.9	9.1	0.1	100.0(273)
대학원졸 이상	8.1	5.0	3.3	33.5	0.0	44.5	0.0	4.6	1.1	100.0(69)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1.8	5.0	1.1	26.0	1.6	44.5	0.9	9.2	0.0	100.0(151)
없음	7.0	3.6	1.9	27.3	3.8	46.6	0.5	8.8	0.6	100.0(423)
$\chi^2(df)$						na				

주: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한해 질문함.

5세아 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 1순위 이유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43.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가 원해서, 재능 탐색 순이었다. 2세아와 비교하여 절대적인 비중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수치상으로 학원 재원 5세아 부모는 재능탐색을 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정양육아 부모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외벌이 가구와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고졸 이하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사교육을 시킨다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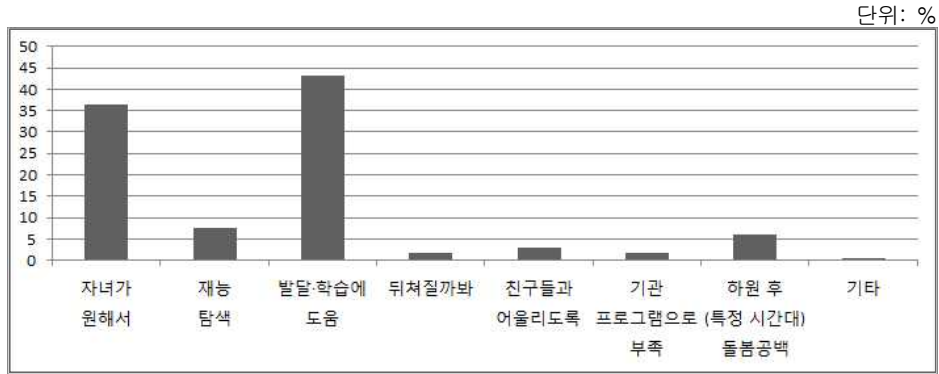
〈표 IV-2-7〉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5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자녀 가원 해서	재능 탐색	발달· 학습 에 도움	뒤쳐질 까봐	친구들 과 어울리 도록	기관 프로그램으로 부족*	하원 후 (특정 시간대) 돌봄공백	기타	계
전체	36.3	7.6	43.2	1.7	2.9	1.9	5.9	0.5	100.0(574)
재원기관									
어린이집	38.4	7.8	38.6	0.2	3.5	2.2	8.9	0.5	100.0(245)
유치원	34.5	6.1	47.9	3.6	2.6	1.4	3.5	0.4	100.0(240)
학원	33.3	15.0	40.0	0.0	3.3	1.7	5.0	1.7	100.0(60)
가정양육	37.9	3.4	51.7	3.4	0.0	3.4	0.0	0.0	100.0(29)
$\chi^2(df)$					na				
지역									
대도시	37.5	3.5	47.2	1.2	1.5	1.9	6.7	0.4	100.0(223)
중소도시	34.3	10.2	41.3	2.2	4.4	1.1	5.8	0.7	100.0(264)
읍·면	42.4	8.0	39.1	1.2	0.0	6.3	2.9	0.0	100.0(87)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38.9	5.9	42.1	1.4	0.9	0.8	9.9	0.1	100.0(323)
외벌이	32.6	10.0	44.7	2.2	5.7	3.4	0.3	1.1	100.0(251)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32.9	6.5	45.7	1.2	10.8	0.0	0.2	2.6	100.0(64)
265~370만원	23.0	7.0	57.4	3.9	3.4	2.7	2.7	0.0	100.0(126)
370~480만원	50.9	8.5	31.4	0.4	1.3	2.1	5.5	0.0	100.0(154)
480만원 이상	33.9	7.7	43.4	1.7	0.9	2.0	10.0	0.5	100.0(230)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27.7	3.7	40.1	3.0	11.1	1.5	13.0	0.0	100.0(86)
전문대졸	41.1	12.9	34.6	1.6	2.3	1.2	4.8	1.5	100.0(146)
대졸	35.5	6.9	46.8	1.6	1.7	2.7	4.5	0.3	100.0(273)
대학원졸 이상	38.9	3.3	50.5	1.1	0.0	0.0	6.2	0.0	100.0(69)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31.1	10.9	44.1	3.9	2.7	1.5	5.9	0.0	100.0(151)
없음	38.2	6.3	42.9	0.9	3.0	2.1	5.9	0.7	100.0(423)
$\chi^2(df)$					na				

주: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한해 질문함.

* 가정양육 대상자의 응답지는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서”임.



[그림 IV-2-4]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 5세)

5세아가 과거에 사교육을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는 41.5%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여, 부모가 대졸이거나 대학원졸 이상일 경우 고졸과 전문대졸 이하보다 사교육을 중단한 경험이 많았다.

<표 IV-2-8> 사교육 중단 경험 여부(5세 부모)

구분	중단한 적 있음	중단한 적 없음	계	단위: %(명)
전체	41.5	58.5	100.0(704)	$\chi^2(df)$ 8.33(3)*
부모학력				
고졸 이하	39.5	60.5	100.0(104)	
전문대졸	32.9	67.1	100.0(178)	
대졸	45.7	54.3	100.0(332)	
대학원졸 이상	44.7	55.3	100.0(90)	

* $p < .05$.

주: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한하여 질문함.

사교육을 중단한 경우 그 이유로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3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인 부담', '기대한 효과가 없어서' 순이었다. 2세아의 경우에는 신체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재원기관 및 부모특성에 따라서는 맞벌이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벌이 부모의 경우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로 '기대한 효과가 없어서'와 비용 부담을 답한 비율이 맞벌이 보다 높았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어린이집 재원 5세아 부모는 사교육 중단 이유 중, 자녀의 신체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답하였다.

〈표 IV-2-9〉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5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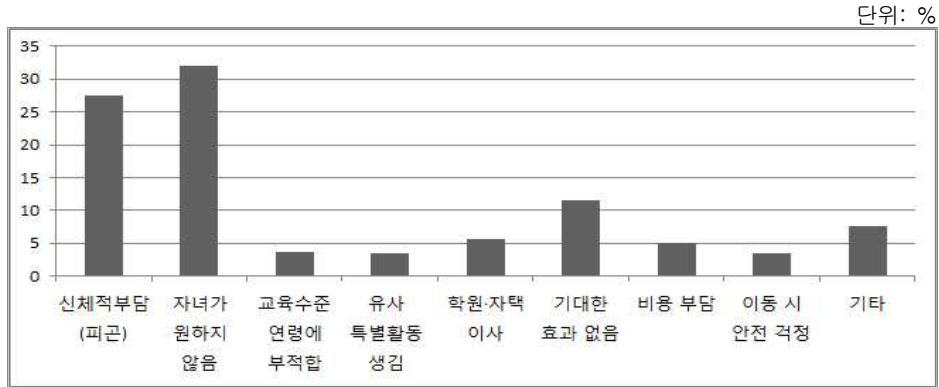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신체적 부담 (피곤)	자녀가 원하지 않음	교육 수준 연령에 부적합	유사 특별활동 생김	학원·자택 이사*	기대한 효과 없음	비용 부담	이동 시 안전 걱정	기타	계
전체	27.4	32.1	3.7	3.4	5.7	11.6	5.0	3.5	7.6	100.0(284)
재원기관										
어린이집	39.5	20.0	2.4	5.2	3.0	8.2	7.2	5.6	8.9	100.0(113)
유치원	15.9	38.0	6.4	2.8	9.1	12.9	3.9	2.5	8.3	100.0(125)
학원	25.0	43.8	0.0	0.0	6.3	18.8	3.1	0.0	3.1	100.0(32)
가정양육	21.4	64.3	0.0	0.0	0.0	14.3	0.0	0.0	0.0	100.0(14)
$\chi^2(df)$	na									
지역										
대도시	35.5	31.0	2.2	1.2	4.4	17.4	2.7	1.1	4.7	100.0(106)
중소도시	22.4	31.1	5.0	3.8	6.9	8.7	7.4	5.3	9.5	100.0(134)
읍·면	24.0	41.6	2.4	9.1	4.7	5.8	1.4	2.4	8.6	100.0(44)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28.4	34.3	4.3	5.0	5.7	9.9	1.7	5.3	5.3	100.0(157)
외벌이	26.1	29.6	3.0	1.5	5.8	13.6	9.0	1.2	10.3	100.0(127)
$\chi^2(df)$	16.87(8)*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35.6	3.6	4.5	3.0	0.0	15.2	21.8	0.0	16.2	100.0(29)
265~370만원	31.9	25.5	3.3	9.0	11.4	6.2	4.9	3.6	4.3	100.0(64)
370~480만원	30.0	41.3	2.3	1.8	7.8	6.6	0.9	0.0	9.3	100.0(69)
480만원 이상	20.6	41.7	4.3	1.0	3.5	15.8	1.1	6.3	5.6	100.0(122)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27.5	25.6	2.9	2.9	2.9	14.1	6.3	0.0	17.7	100.0(40)
전문대졸	18.4	35.8	6.4	1.7	3.5	8.5	15.6	2.6	7.4	100.0(66)
대졸	34.7	28.5	2.3	4.3	5.4	12.4	2.1	4.7	5.7	100.0(137)
대학원졸 이상	9.8	48.1	6.3	2.5	13.4	10.4	0.0	2.7	6.8	100.0(41)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5.3	36.6	3.7	0.0	5.8	14.5	9.2	8.9	6.1	100.0(76)
없음	31.8	30.5	3.7	4.6	5.7	10.6	3.5	1.5	8.2	100.0(208)
$\chi^2(df)$	na									

* $p < .05$

주: 사교육을 이용하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에 한하여 질문함.

* 폐원 포함



[그림 IV-2-5]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 5세)

5세아가 지금까지 사교육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특별 활동으로 충분해서'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아직 어려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순이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부모는 특별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나, 읍·면 거주 부모는 자녀가 아직 어렵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수입별로는 37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 가구수입이 가장 적고, 학력이 가장 낮은 부모는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다.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교육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가 아직 어렵다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표 IV-2-10> 사교육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5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신체적 부담 (피곤)	자녀가 원하지 않음	아직 어렵	특별활동으로 충분*	주변에 기관 없음	적합한 프로그램 램부재	비용 부담	이동 시 안전 걱정	기타	계
전체	8.8	6.1	26.4	36.4	5.6	1.6	8.1	0.5	6.4	100.0(79)
재원기관										
어린이집	10.1	5.4	24.3	46.8	3.5	0.0	8.3	1.6	0.0	100.0(35)
유치원	5.8	6.7	28.2	31.8	6.9	2.6	8.3	0.0	9.9	100.0(43)
가정양육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1)
$\chi^2(df)$	na									

구분	신체적 부담 (피곤)	자녀가 원하지 않음	아직 어렵	특별활동으로 충분*	주변에 기관 없음	적합한 프로그램 램부재	비용 부담	이동 시 안전 걱정	기타	계
지역										
대도시	12.6	2.5	29.1	43.2	0.0	0.0	5.0	0.0	7.6	100.0(25)
중소도시	4.0	9.8	14.4	42.3	3.6	4.8	14.6	1.6	4.8	100.0(27)
읍·면	9.0	7.0	38.3	17.3	17.6	0.0	4.4	0.0	6.4	100.0(27)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7.6	5.8	32.3	32.9	8.4	2.5	8.2	0.8	1.5	100.0(50)
외벌이	11.1	6.8	14.5	43.6	0.0	0.0	8.0	0.0	16.0	100.0(29)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4.2	6.7	19.0	34.6	7.1	0.0	18.1	0.0	10.4	100.0(17)
265~370만원	7.8	18.4	29.6	21.0	4.0	5.9	5.9	0.0	7.5	100.0(24)
370~480만원	12.6	0.0	21.3	44.2	9.0	0.0	8.4	4.5	0.0	100.0(13)
480만원 이상	9.9	0.0	28.4	44.5	5.2	0.0	6.0	0.0	6.0	100.0(25)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5.2	0.0	38.2	20.7	0.0	0.0	22.8	0.0	13.1	100.0(13)
전문대졸	11.3	20.8	15.1	40.0	10.3	0.0	2.6	0.0	0.0	100.0(18)
대졸	7.6	3.8	32.5	24.2	7.7	3.7	10.8	1.2	8.4	100.0(37)
대학원졸 이상	10.6	0.0	18.7	66.1	0.0	0.0	0.0	0.0	4.6	100.0(11)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7.8	0.0	37.3	24.2	11.5	0.0	15.5	0.0	3.6	100.0(22)
없음	9.1	8.6	22.0	41.4	3.2	2.3	5.2	0.8	7.5	100.0(57)
$\chi^2(df)$	na									

주: 사교육을 현재 이용하지 않고, 중단한 경험도 없는 영유아에 한하여 질문함.

* 가정양육 대상자의 응답지는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임.

5세아가 사교육을 처음 접한 시기는 만 5세 이상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만 4세가 28.5%로 다음을 차지했다. 사교육의 시작 시기는 평균 약 46.9개월이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 가운데 현재 반일제 학원에 다니고 있는 5세아가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가 41개월로 가장 빠르고, 가정양육 중인 유아가 가장 늦어 10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5세아의 사교육 시작 연령은 만 4세가 33.4%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가구수입이 265만원 미만인 경우 만 0세에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11.1%로 다소 높았다.

〈표 IV-2-11〉 사교육 시작 연령(5세 부모)

단위: %(명), 개월(표준편차)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계	개월	
								평균	FA
전체	3.1	6.2	10.2	19.8	28.5	32.3	100.0(625)	46.9(16.0)	
재원기관									
어린이집	3.6	3.4	8.5	20.4	31.8	32.4	100.0(266)	48.4(15.1)	
유치원	2.5	6.3	11.0	22.2	27.2	30.7	100.0(257)	46.3(16.1)	
학원	4.3	18.6	14.3	10.0	22.9	30.0	100.0(70)	41.1(19.1)	
가정양육	0.0	3.1	9.4	15.6	21.9	50.0	100.0(32)	51.6(13.5)	
지역									
대도시	4.8	9.5	8.8	17.9	33.4	25.6	100.0(239)	44.4(16.7)	
중소도시	1.7	2.7	11.2	21.6	26.5	36.3	100.0(289)	49.0(14.8)	
읍·면	4.4	12.9	9.8	16.4	21.2	35.3	100.0(97)	44.7(18.5)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1.1	4.9	13.7	6.6	26.2	37.5	100.0(69)	45.6(19.2)	
265~370만원	3.5	5.2	6.1	20.4	35.4	29.4	100.0(142)	47.4(15.3)	
370~480만원	1.0	5.5	7.1	23.5	21.3	41.6	100.0(164)	49.1(14.7)	
480만원 이상	1.3	7.7	13.3	21.6	30.3	25.7	100.0(250)	45.6(16.0)	

주: 사교육을 현재 이용하지 않고, 중단한 경험도 없는 영유아는 제외됨.

5세아가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국어가 46.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체육, 미술, 수학 순이었다. 2세가 처음 접한 사교육이 체육, 국어 순서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처음 접한 사교육이 체육과 영어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대도시와 월평균 가구수입 480만원 이상 가구 5세아는 처음 접한 사교육으로 영어인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한편, 학력이 높은 부모들은 음악과 미술, 과학·창의 등을 처음 시킨 비중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국어와 수학을 처음으로 시킨 경우가 많았다.

〈표 IV-2-12〉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5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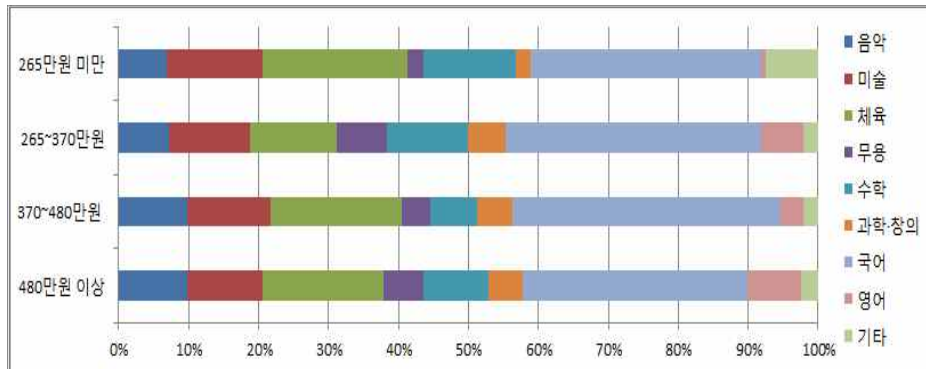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
전체	11.7	15.5	22.6	6.9	12.8	6.3	46.2	7.1	3.9
재원기관									
어린이집	9.8	14.0	22.5	7.4	13.4	2.5	52.9	5.8	3.6
유치원	13.0	13.1	18.9	6.7	13.0	7.7	43.6	5.8	4.9
학원	11.4	24.3	40.0	4.3	7.1	12.9	30.0	15.7	1.4
가정양육	18.8	28.1	15.6	9.4	18.8	12.5	43.8	9.4	3.1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
지역									
대도시	8.1	11.9	25.9	8.2	7.2	5.7	49.2	12.0	4.1
중소도시	13.7	18.4	22.4	6.7	14.5	6.2	43.1	4.6	3.5
읍·면	14.4	12.9	11.5	2.7	24.5	8.7	51.7	2.3	5.0
맞벌이여부									
맞벌이	11.6	16.3	21.5	5.5	12.2	5.0	48.1	6.6	2.0
외벌이	11.9	14.4	24.0	8.7	13.7	8.0	43.6	7.7	6.4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8.6	17.2	26.1	2.8	16.6	2.6	41.4	0.9	9.3
265~370만원	9.9	16.1	17.0	9.9	16.0	7.6	50.3	8.5	2.8
370~480만원	12.7	15.6	24.6	5.3	8.6	6.7	49.9	4.3	2.8
480만원 이상	13.2	14.4	23.1	7.7	12.6	6.5	43.0	10.4	3.2
부모학력									
고졸 이하	10.1	10.3	20.5	3.1	34.1	1.4	60.1	2.3	4.0
전문대졸	9.0	16.2	17.5	2.3	14.2	6.1	54.1	2.7	7.2
대졸	13.0	16.0	27.0	10.5	8.0	6.2	43.0	10.3	2.2
대학원졸 이상	14.3	17.5	16.4	5.2	7.4	12.5	26.2	7.6	3.6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0.5	15.3	20.3	7.7	15.9	5.4	46.2	7.1	5.0
없음	12.2	15.6	23.5	6.5	11.6	6.6	46.2	7.0	3.4

주: 복수응답임.

* 한글, 독서, 논술 포함



[그림 IV-2-6] 가구소득에 따른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5세)

5세아 교사와 부모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는데, 교사(43.3%)보다 부모(67.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유치원 교사보다 어

린이집 교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부모의 경우 자녀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부모(84.3%)가 가장 많이 취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기관 부모들은 65% 수준으로 비슷하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보다 외벌이 부모가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2-13〉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의 필요성(5세 교사, 부모)

				단위: %(명)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chi^2(df)$	
교사	전체	43.3	56.7	100.0 (601)	7.64(1)**
	어린이집 교사	48.9	51.1	100.0 (301)	
	유치원 교사	37.9	62.3	100.0 (300)	
부모	전체	67.8	32.2	100.0 (704)	9.91(3)*
	재원기관				
	어린이집	65.5	34.5	100.0 (301)	
	유치원	66.8	33.2	100.0 (300)	
	학원	84.3	15.7	100.0 (70)	
	가정양육	63.6	36.4	100.0 (33)	
	맞벌이여부				
맞벌이	64.8	35.2	100.0 (404)	4.17(1)*	
외벌이	72.1	27.9	100.0 (300)		

* $p < .05$, ** $p < .01$

5세아 교사와 부모에게 예체능과 학습 사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를 질문하였다. 부모와 교사 모두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는 5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3.1%, 50.1%), 그 다음으로 4세, 3세, 2세 순이었다. 평균 나이는 교사가 4.2세로 부모 4.7세보다 어렸다.

교사 중에서는 유치원 교사(4.6세)보다 어린이집 교사(3.9세)가 더 어린 나이에 예체능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부모학력과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 5.1세로 다른 부모보다 더 늦은 나이를 답하였다.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4.68세)에 없는 경우(4.69)보다 사교육을 약간 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16) 표에는 반올림하여 모두 4.7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분석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차이가 있었음.

〈표 IV-2-14〉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5세 교사, 부모)

단위: %(명), 세(표준편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세		
								평균	Ft	
교사	전체	0.0	0.2	7.7	21.2	27.8	43.1	100.0(260)	4.2(1.1)	-4.86**
	어린이집 교사	0.0	0.3	13.1	23.5	29.7	33.4	100.0(162)	3.9(1.1)	
	유치원 교사	0.0	0.0	0.0	18.0	25.1	56.9	100.0(98)	4.6(1.0)	
부모	전체	0.0	0.4	5.6	14.9	28.9	50.1	100.0(386)	4.7(1.2)	3.22*
	부모학력									
	고졸 이하	0.0	0.0	5.4	6.1	29.2	59.3	100.0(49)	5.1(1.1)	
	전문대졸	0.0	0.3	3.2	13.8	23.5	59.2	100.0(114)	4.7(1.1)	
	대졸	0.0	0.5	7.6	18.1	30.3	43.4	100.0(179)	4.5(1.3)	
	대학원졸 이상	0.0	0.0	2.6	12.1	36.9	48.4	100.0(44)	4.8(1.2)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0.0	0.0	6.9	26.9	25.1	41.1	100.0(106)	4.7(1.4)	-2.91**	
없음	0.0	0.5	5.1	10.4	30.4	53.6	100.0(280)	4.7(1.1)		

* $p < .05$, ** $p < .01$

주: 1)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학습 사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는 교사와 부모 모두 5세가 가장 많았고, 평균나이는 4.8세, 4.9세로 유사했다. 예체능 사교육과 응답 경향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학습 관련 사교육의 시작 시기를 예체능 사교육 시작시기에 비해 약간 느리게 인식하였다.

예체능 사교육과 같이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더 빠른 나이에 학습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의 경우 재원기관이나 지역, 부모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15〉 바람직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5세 교사, 부모)

단위: %(명), 세(표준편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세		
								평균	Ft	
교사	전체	0.0	0.0	0.1	10.6	27.2	62.0	100.0 (251)	4.8 (1.2)	-3.05**
	어린이집 교사	0.0	0.0	0.2	12.3	34.4	53.2	100.0 (160)	4.5 (0.8)	
	유치원 교사	0.0	0.0	0.0	8.2	16.8	75.1	100.0 (91)	5.1 (1.4)	
부모	0.0	0.0	1.4	12.4	29.1	57.1	100.0 (375)	4.9 (1.0)		

** $p < .01$

주: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5세아 부모는 가구소득 대비 10%미만을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에 투자를 할 의향이 5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20%라는 응답이 38.4%였다. 지역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 5세 부모는 사교육비로 가구소득 대비 40%~60%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5.2% 나왔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보다 외벌이 부모가 가구소득 대비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로 10%이상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원아와 유치원 재원아의 경우 10%미만 투자 의향이 가장 많은 반면, 학원 재원아와 가정양육아는 10~20% 투자 의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6〉 가구소득 대비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5세 부모)

구분	10%미만	10~20%	20~40%	40~60%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54.9	38.4	4.4	2.3	100.0(704)	
재원기관						
어린이집	57.8	37.9	1.9	2.5	100.0(301)	na
유치원	60.8	34.4	3.5	1.2	100.0(300)	
학원	21.4	51.4	20.0	7.1	100.0(70)	
가정양육	45.5	51.5	3.0	0.0	100.0(33)	
지역						
대도시	55.5	33.9	5.4	5.2	100.0(264)	21.80(6)**
중소도시	53.6	42.3	3.4	0.6	100.0(316)	
읍·면	59.0	34.8	5.8	0.4	100.0(124)	
맞벌이여부						
맞벌이	59.6	35.7	3.6	1.0	100.0(404)	15.10(3)**
외벌이	48.2	42.1	5.6	4.0	100.0(300)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49.6	41.8	1.0	7.5	100.0(86)	na
265~370만원	50.2	42.1	6.2	1.5	100.0(166)	
370~480만원	62.0	33.2	3.7	1.1	100.0(177)	
480만원 이상	54.9	38.4	5.1	1.6	100.0(275)	
부모학력						
고졸 이하	49.1	45.3	2.3	3.3	100.0(104)	na
전문대졸	57.6	39.6	2.8	0.0	100.0(178)	
대졸	53.6	37.2	5.8	3.4	100.0(332)	
대학원졸 이상	60.7	33.8	4.3	1.2	100.0(90)	

** $p < .01$

주: '60~80%', '80%이상'에 응답한 사례는 없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로는 가구소득 대비 10%~20%까지 투자를 할 의향이 4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미만, 20%~40% 순이었다. 재원기관 별로 살펴보면, 학원 재원이 부모의 43.3%가 모든 자녀의 사교육비로 가구소득 대비 20% 이상을 투자할 의향을 답해 다른 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외벌이 부모가 맞벌이보다, 부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없을 때보다 가구소득 대비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17〉 가구소득 대비 모든 자녀의 사교육비 투자 의향(5세 부모)

						단위: %(명)
구분	10%미만	10~20%	20~40%	40~60%	계	$\chi^2(df)$
전체	34.7	49.9	12.1	3.3	100.0(596)	
재원기관						
어린이집	33.6	51.0	11.6	3.8	100.0(255)	46.41(9)**
유치원	41.2	48.7	7.9	2.3	100.0(262)	
학원	9.4	47.2	35.8	7.5	100.0(53)	
가정양육	30.8	57.7	11.5	0.0	100.0(26)	
지역						
대도시	35.8	44.0	12.7	7.4	100.0(210)	19.48(6)**
중소도시	33.1	52.7	13.3	0.9	100.0(276)	
읍·면	38.6	53.5	5.4	2.5	100.0(110)	
맞벌이여부						
맞벌이	38.0	49.8	10.6	1.5	100.0(333)	11.36(3)**
외벌이	30.2	50.0	14.2	5.6	100.0(263)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39.7	40.8	9.7	9.8	100.0(71)	20.20(9)*
265~370만원	36.4	46.8	13.9	2.8	100.0(139)	
370~480만원	30.5	59.8	8.5	1.2	100.0(161)	
480만원 이상	35.0	47.6	14.6	2.8	100.0(225)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23.0	56.7	17.6	2.7	100.0(149)	14.24(3)**
없음	38.6	47.6	10.3	3.5	100.0(44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 '60~80%', '80%이상'에 응답한 사례는 없음.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5세 담당 교사들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4점 만점에 2.9점으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이중언어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더 강하게 동의했다. 특징적인 점은 교사보다 부모들이 조기 사교육을 통해 이중언어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아 부모는 조기 사교육이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 2.9점으로 가장 동의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중언어가 가능해진다는 의견이 2.7점이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의 동의정도가 높았다.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조기 사교육이 아이를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의견에 대해서 가정양육아 부모가 가장 높은 점수 2.7점을 보였고, 학원재원아 부모가 2.1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조기 사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학습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의견도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부모보다 가정양육아 부모의 동의가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부모가 맞벌이 부모보다 조기 사교육으로 이중언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높았다. 한편,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다는 의견에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조기 사교육으로 인하여 창의성이 낮아진다는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8〉 조기 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5세 교사, 부모)

단위: 점

구분	창의성 낮음	효과 없음	이중언어 가능	문제행동 유발	이기적 입	지적능력 뛰어나지 않음	학습태도 진지하지 않음	집중력 없고 쉽게 싫증
전체	2.4	2.2	2.4	2.9	2.3	2.5	2.2	2.3
교사								
어린이집 교사	2.3	2.1	2.4	2.8	2.1	2.3	2.0	2.0
유치원 교사	2.6	2.4	2.4	3.1	2.5	2.7	2.5	2.6
<i>t</i>	-3.89**	-5.17**	-0.08	-4.66**	-6.26**	-5.84**	-8.66**	-9.14**
부모								
전체	2.4	2.3	2.7	2.9	2.3	2.4	2.2	2.2
재원기관								
어린이집	2.4	2.4 ^{ab}	2.7	2.9	2.4 ^{ab}	2.4	2.3 ^{ab}	2.3
유치원	2.4	2.2 ^{ab}	2.8	2.9	2.2 ^a	2.4	2.2 ^a	2.2
학원	2.3	2.1 ^a	2.9	2.9	2.1 ^a	2.4	2.1 ^a	2.1
가정양육	2.4	2.5 ^b	2.7	3.1	2.7 ^b	2.7	2.5 ^b	2.3
<i>F</i>	1.43	3.70*	na	1.08	7.06**	na	3.26*	2.13
지역								
대도시	2.4	2.3	2.8	3.0	2.3	2.4	2.3	2.2
중소도시	2.3	2.3	2.7	2.8	2.3	2.4	2.2	2.2
읍·면	2.4	2.3	2.7	3.0	2.4	2.5	2.3	2.3
<i>F</i>	1.65	0.16	na	2.40	na	na	na	1.16

구분	창의성 낮음	효과 없음	이중언어 가능	문제행동 유발	이기적 입	지적능력 뛰어나지 않음	학습태도 진지하지 않음	집중력 없고 쉽게 싫증
맞벌이여부								
맞벌이	2.3	2.3	2.7	2.9	2.3	2.5	2.2	2.2
외벌이	2.4	2.3	2.8	2.9	2.3	2.4	2.3	2.2
<i>t</i>	-1.42	0.70	-2.136*	-1.02	0.00	0.74	-0.16	-0.32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2.4	2.4	2.7	2.9	2.4	2.5	2.3	2.3
265~370만원	2.4	2.2	2.7	2.8	2.3	2.3	2.3	2.2
370~480만원	2.3	2.3	2.7	3.1	2.4	2.4	2.3	2.3
480만원 이상	2.4	2.3	2.7	2.8	2.2	2.5	2.2	2.2
<i>F</i>	na	0.96	0.42	na	na	na	na	1.23
부모학력								
고졸 이하	2.4	2.3	2.6	2.9	2.3	2.4 ^a	2.1	2.1
전문대졸	2.3	2.3	2.6	2.9	2.4	2.4 ^{ab}	2.3	2.3
대졸	2.4	2.3	2.8	2.9	2.3	2.4 ^{ab}	2.2	2.2
대학원졸 이상	2.5	2.3	2.8	3.0	2.2	2.7 ^b	2.3	2.2
<i>F</i>	na	na	na	0.73	1.06	2.81*	na	2.27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2.3	2.3	2.7	2.9	2.3	2.4	2.2	2.2
없음	2.4	2.3	2.7	2.9	2.3	2.5	2.3	2.2
<i>t</i>	-2.47*	0.55	-1.27	0.07	0.93	-0.83	-0.96	-1.04

* $p < .05$, ** $p < .001$

주: 1)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어느 정도 동의함, 4=매우 동의함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정부의 사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 모두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사는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광고해서 사교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두 번째로 많은 24.3%가 응답했으나, 부모는 8.9%에 불과했다.

지역과 월평균 가구수입,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소도시 5세아 부모는 다른 지역 부모보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수입별로는 265만원 미만 가구 부모는 70%이상이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480만원 이상 부모는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광고로 사교육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부모들에 비하여 높았다. 한편,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보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더 많이 답하였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5세아 부모는 특성화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학원 재원아 부모의 경우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을 42.9%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표 IV-2-19〉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 방향(5세 교사, 부모)

단위: %(명)

구분	특성화 프로그램. 특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조기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광고로 사교육 축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	² (df)
교사							
전체	44.0	23.3	24.3	6.2	2.2	100.0(601)	
어린이집 교사	44.9	23.7	21.4	7.5	2.6	100.0(301)	3.99(4)
유치원 교사	43.0	23.0	27.2	4.9	1.9	100.0(300)	
전체	56.8	27.7	8.9	5.3	1.4	100.0(704)	
재원기관							
어린이집	56.9	27.0	11.6	2.4	2.0	100.0(301)	na
유치원	62.0	24.2	6.8	6.1	0.9	100.0(300)	
학원	37.1	42.9	4.3	15.7	0.0	100.0(70)	
가정양육	48.5	33.3	12.1	3.0	3.0	100.0(33)	
지역							
대도시	60.6	21.9	10.9	5.9	0.7	100.0(264)	16.93(8)*
중소도시	53.0	33.6	7.0	4.9	1.5	100.0(316)	
읍·면	61.6	18.9	11.1	5.4	3.0	100.0(124)	
월평균 가구수입							
부							37.04(12)***
265만원 미만	71.2	18.1	6.0	4.0	0.7	100.0(86)	
265~370만원	48.7	29.1	9.1	7.8	5.4	100.0(166)	
370~480만원	61.8	27.4	8.1	2.7	0.0	100.0(177)	
480만원 이상	52.8	30.5	10.3	6.1	0.2	100.0(275)	
부모학력							
고졸 이하	71.5	17.6	6.2	4.6	0.0	100.0(104)	na
전문대졸	48.2	31.8	11.3	4.4	4.3	100.0(178)	
대졸	60.1	26.9	6.4	6.1	0.4	100.0(332)	
대학원졸 이상	45.0	32.7	16.7	4.8	0.8	100.0(90)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57.2	23.3	11.7	4.3	3.5	100.0(190)	13.94(4)**
없음	56.6	29.4	7.8	5.7	0.6	100.0(514)	

* $p < .05$, ** $p < .01$, *** $p < .001$

나. 사교육 프로그램별 특성¹⁷⁾

조사 대상 5세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유형은 국어가 2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 19.0%, 수학 17.3%, 미술 1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음악이 9.4%, 영어 5.5%, 과학·창의 5.1%, 기타 프로그램 4.8%였다.

〈표 IV-2-20〉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5세 부모)

N = 1,304			
유형	비율(사례수)	유형	비율(사례수)
음악	9.4(123)	과학·창의	5.1(66)
미술	11.0(144)	국어	24.5(320)
체육	19.0(248)	영어	5.5(72)
무용	3.1(40)	기타외국어	0.2(3)
수학	17.3(225)	기타	4.8(63)
계		100.0(1,304)	



[그림 IV-2-7]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5세)

5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장소는 집이 4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원, 체육관 순이었다. 사교육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

17) 조사 대상 모든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들을 종합한 결과임.

체능은 학원이 5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체육관 9.6%이었으나, 학습 사교육은 집이 76.5%로 가장 많고 학원 13.6%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체능 중에서 무용은 문화센터가 55.0%로 학원보다 많았고, 영어는 다른 학습 프로그램과 달리 학원이 27.8%로 높은 편이었다.

〈표 IV-2-21〉 사교육 실시 장소(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학원	문화센터	집	체육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기타	계
전체	29.4	7.3	47.2	9.6	0.9	5.5	100.0(1,304)
대분류 ¹⁾							
예체능	51.2	11.0	9.4	22.3	1.3	4.9	100.0(555)
학습	13.6	4.5	76.5	0.1	0.6	4.7	100.0(686)
$\chi^2(df)$							609.53(5) ^{***}
소분류							
음악	78.0	3.3	12.2	0.0	0.8	5.7	100.0(123)
미술	58.3	12.5	21.5	0.0	2.1	5.6	100.0(144)
체육	37.9	6.9	2.0	48.8	0.8	3.6	100.0(248)
무용	25.0	55.0	2.5	7.5	2.5	7.5	100.0(40)
수학	12.0	1.8	83.1	0.0	0.4	2.7	100.0(225)
과학·창의	21.2	21.2	43.9	0.0	1.5	12.1	100.0(66)
국어	10.0	2.8	83.1	0.3	0.6	3.1	100.0(320)
영어	27.8	5.6	55.6	0.0	0.0	11.1	100.0(72)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0.0	0.0	100.0(3)
기타	11.1	4.8	61.9	0.0	1.6	20.6	100.0(63)

^{***} $p < .001$

주 1) 음악, 미술, 체육, 무용 프로그램을 예체능으로 분류하고,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외국어 프로그램을 학습으로 분류함.

5세아가 사교육에 참여할 때의 이동 수단은 이동하지 않는 경우(37.3%)를 제외하였을 때, 도보 이용이 2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차량, 자가용 순이었다. 예체능과 학습 간에 차이를 보여, 예체능은 학원차량이 36.9%로 가장 높고, 학습은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61.7%로 가장 높았다. 앞서 살펴본, 사교육 실시 장소에서 학습은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무용의 경우 자가용 이용이 45.0%로 다른 프로그램보다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2〉 사교육 이동 수단(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도보	학원차량	유치원·어린이집 차량	자가용	해당 없음 (이동 안 함)	계
전체	24.2	18.6	4.0	16.0	37.3	100.0(1,304)
대분류						
예체능	31.2	36.9	5.8	20.7	5.4	100.0(555)
학습	19.1	5.1	2.6	11.5	61.7	100.0(686)
$\chi^2(df)$			469.17(4)**			
소분류						
음악	40.7	26.8	9.8	12.2	10.6	100.0(123)
미술	38.9	18.8	6.9	25.0	10.4	100.0(144)
체육	22.2	55.6	3.2	18.5	0.4	100.0(248)
무용	30.0	17.5	5.0	45.0	2.5	100.0(40)
수학	18.7	1.8	2.7	9.3	67.6	100.0(225)
과학·창의	33.3	6.1	4.5	25.8	30.3	100.0(66)
국어	16.6	4.1	1.6	10.6	67.2	100.0(320)
영어	19.4	19.4	4.2	8.3	48.6	100.0(72)
기타외국어	0.0	0.0	33.3	33.3	33.3	100.0(3)
기타	17.5	4.8	3.2	22.2	52.4	100.0(63)

*** $p < .001$

5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강사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3.1%로 가장 많았고, 모른다는 응답은 33.6%였으며, 대학원 졸업, 전문대 졸업 순이었다. 학습 사교육보다 예체능 강사의 대학원 졸업 비율이 높았다. 음악 강사는 대학원 졸업이 18.7%로 다른 프로그램 강사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3〉 사교육 강사 학력(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모름	계
전체	0.4	5.7	53.1	7.3	33.6	100.0(1,304)
대분류						
예체능	0.5	3.2	53.2	10.5	32.6	100.0(555)
학습	0.3	7.3	54.8	4.8	32.8	100.0(686)
$\chi^2(df)$			23.10(4)**			
소분류						
음악	0.8	3.3	52.0	18.7	25.2	100.0(123)
미술	0.0	1.4	54.9	8.3	35.4	100.0(144)
체육	0.8	4.4	53.2	8.5	33.1	100.0(248)
무용	0.0	2.5	50.0	5.0	42.5	100.0(40)
수학	0.4	6.7	56.0	4.0	32.9	100.0(225)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모름	계
과학·창의	0.0	4.5	54.5	3.0	37.9	100.0(66)
국어	0.3	9.1	53.1	4.7	32.8	100.0(320)
영어	0.0	4.2	58.3	9.7	27.8	100.0(72)
기타외국어	0.0	0.0	66.7	0.0	33.3	100.0(3)
기타	0.0	9.5	33.3	6.3	50.8	100.0(6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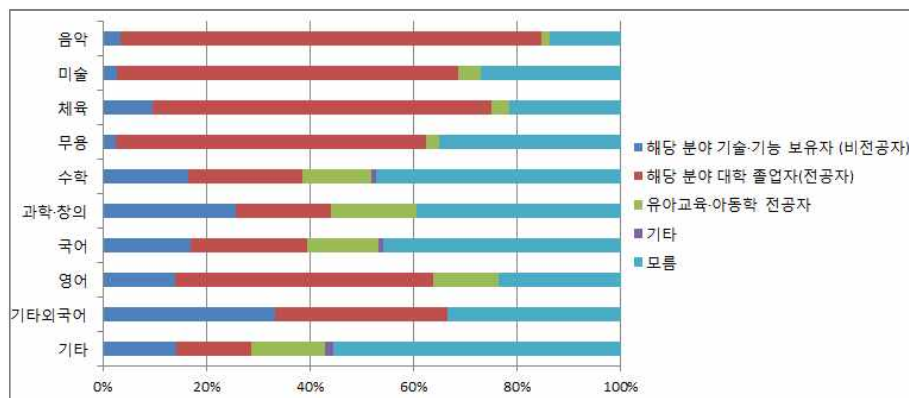
5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가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름(34.9%),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12.3%) 순이었다. 예체능 강사의 경우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 비율이 68.6%로 높았으나, 학습 강사는 모른다는 응답이 43.3%로 높았다. 학습 사교육 중에서도 수학과 국어는 절반 수준이 강사의 전문성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24> 사교육 강사의 전문성(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	유아교육·아동학 전공자	기타	모름	계
전체	12.3	43.0	9.3	0.5	34.9	100.0(1,304)
대분류						
예체능	5.9	68.6	3.2	0.0	22.2	100.0(555)
학습	17.3	24.9	13.7	0.7	43.3	100.0(686)
$\chi^2(df)$						246.12(4)***

*** $p < .001$



[그림 IV-2-8] 사교육 강사 전문성(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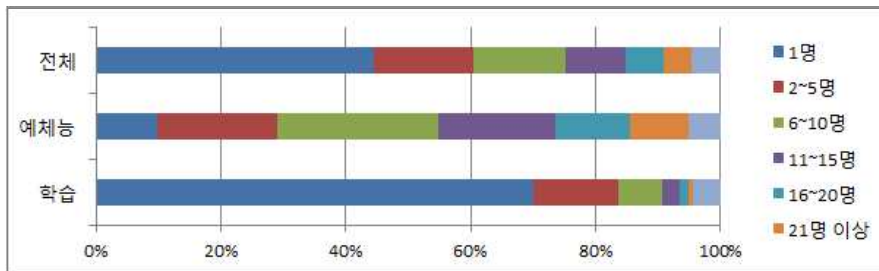
5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의 반 규모는 1명이 4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5명, 6~10명 순이었다. 예체능과 학습은 큰 차이를 보였다. 예체능은 반 규모가 6~10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5명인 반면, 학습은 1명이 70.1%로 가장 많았다. 2세와 마찬가지로 5세도 학습 사교육의 경우 1:1 수업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예체능 중 음악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1:1 수업 비율이 높았다.

〈표 IV-2-25〉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1명	2~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모름	계
전체	44.5	16.0	14.7	9.7	6.1	4.4	4.6	100.0(1,304)
대분류								
예체능	9.9	19.1	25.8	18.9	11.9	9.2	5.2	100.0(555)
학습	70.1	13.6	7.0	2.9	1.5	0.6	4.4	100.0(686)
$\chi^2(df)$	517.86(6) ^{***}							
소분류								
음악	27.6	18.7	17.1	6.5	3.3	15.4	11.4	100.0(123)
미술	9.0	42.4	31.9	9.0	3.5	0.7	3.5	100.0(144)
체육	2.8	8.9	24.2	27.8	20.2	12.1	4.0	100.0(248)
무용	2.5	0.0	40.0	37.5	17.5	2.5	0.0	100.0(40)
수학	77.8	11.1	3.6	2.2	0.4	0.9	4.0	100.0(225)
과학·창의	37.9	24.2	21.2	6.1	4.5	1.5	4.5	100.0(66)
국어	75.9	10.6	4.7	2.2	1.3	0.0	5.3	100.0(320)
영어	50.0	23.6	15.3	5.6	2.8	1.4	1.4	100.0(72)
기타외국어	66.7	33.3	0.0	0.0	0.0	0.0	0.0	100.0(3)
기타	69.8	15.9	1.6	3.2	4.8	3.2	1.6	100.0(63)

^{***} $p < .001$



[그림 IV-2-9]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5세)

5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의 연령 구성은 단일연령이 53.8%, 혼합연령이 39.8%로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예체능은 혼합연령이 많고, 학습은 단일연령이 많아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2-26〉 사교육 프로그램 연령 구성(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단일연령	혼합연령	모름	계
전체	53.8	39.8	6.4	100.0(1,304)
대분류				
예체능	25.2	71.4	3.4	100.0(555)
학습	75.5	16.0	8.5	100.0(686)
$\chi^2(df)$	389.06(2) ^{***}			
소분류				
음악	28.5	65.0	6.5	100.0(123)
미술	40.3	56.3	3.5	100.0(144)
체육	17.3	80.6	2.0	100.0(248)
무용	10.0	87.5	2.5	100.0(40)
수학	78.7	10.7	10.7	100.0(225)
과학·창의	59.1	34.8	6.1	100.0(66)
국어	78.1	13.8	8.1	100.0(320)
영어	69.4	25.0	5.6	100.0(72)
기타외국어	66.7	33.3	0.0	100.0(3)
기타	69.8	20.6	9.5	100.0(63)

^{***} $p < .001$

5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지나 워크북을 활용하는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구, 책 순이었다. 예체능은 교구가 50.5%로 가장 많고, 학습은 학습지나 워크북이 82.4%로 가장 많아 차이가 있었다.

〈표 IV-2-27〉 사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전체	50.8	25.2	36.1	0.6	11.1	4.3
대분류						
예체능	10.1	20.2	50.5	0.5	24.5	9.9
학습	82.4	28.6	24.9	0.3	1.0	0.0
소분류	29.3	69.1	45.5	0.0	0.8	2.4
음악	11.1	11.1	72.9	0.0	6.3	12.5
미술	0.8	1.6	44.4	1.2	42.3	11.7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체육	5.0	17.5	22.5	0.0	52.5	12.5
무용	87.1	23.1	22.7	0.4	0.0	0.0
수학	56.1	22.7	65.2	0.0	6.1	0.0
과학·창의	85.3	31.9	15.6	0.0	0.6	0.0
국어	79.2	36.1	37.5	1.4	1.4	0.0
영어	66.7	33.3	0.0	0.0	0.0	0.0
기타외국어	65.1	33.3	31.7	4.8	3.2	1.6

주: 복수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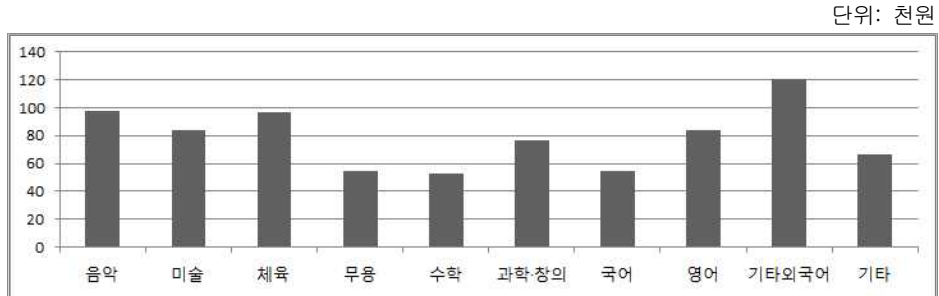
5세아 부모가 지불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수강료는 약 6만7천원, 교재교구비용은 6천원으로, 총 비용은 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과 학습 사교육간 월 납입 비용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예체능은 수강료 8만6천원, 교재교구비용 4천원으로 총 9만1천원이고, 학습은 수강료 5만1천원, 교재교구비용 8천원, 총 비용 6만원이었다. 수강료와 총 비용은 예체능이 비싸고, 교재교구비용은 학습이 비쌌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총 비용은 기타외국어가 12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음악과 체육이 9만7천원이었다. 교재교구비용은 과학·창의와 영어가 1만원이 넘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8〉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5세 부모)

단위: 천원(표준편차)			
구분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 비용
전체	66.6(44.9)	6.4(16.5)	73.0(47.7)
대분류			
예체능	86.4(39.1)	4.1(11.5)	90.5(41.3)
학습	51.4(40.7)	8.1(19.6)	59.5(46.3)
<i>t</i>	15.42 ^{***}	-4.45 ^{***}	12.32 ^{***}
소분류			
음악	93.0(35.8)	4.5(4.9)	97.4(37.4)
미술	78.2(39.0)	6.2(13.7)	84.4(40.8)
체육	93.5(37.2)	3.0(12.8)	96.5(40.5)
무용	52.1(38.4)	2.6(6.6)	54.7(38.9)
수학	46.8(35.4)	6.0(15.8)	52.8(38.2)
과학·창의	59.8(45.9)	16.7(29.2)	76.5(65.1)
국어	47.9(37.7)	6.8(18.8)	54.7(41.5)
영어	70.7(54.0)	12.9(21.1)	83.6(56.8)
기타외국어	116.7(28.9)	4.0(6.9)	120.7(26.1)
기타	58.4(64.9)	8.1(14.5)	66.5(63.1)

^{***} $p < .001$



[그림 IV-2-10]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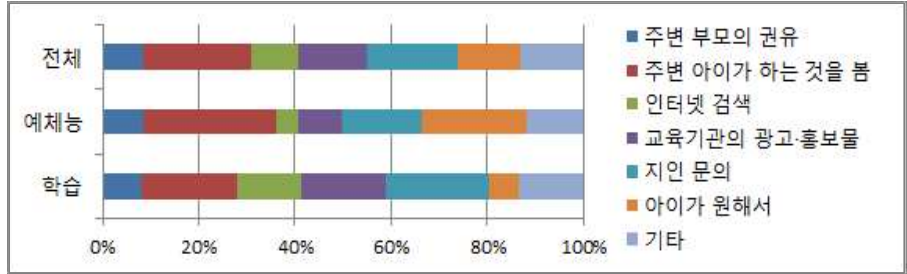
5세아 부모가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는 '주변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22.5%)'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인에게 문의(18.9%)'가 다음을 차지했다. 예체능은 아이가 원해서 한다는 응답이 22.0%로 학습에 비하여 높았다. 학습은 전체 응답 중 지인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이 21.3%로 가장 높아, 학습 사교육은 주변 부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29>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주변 부모의 권유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봄	인터넷 검색	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	지인 문의	아이가 원해서	기타	계
전체	8.4	22.5	9.8	14.4	18.9	13.0	13.0	100.0(1,304)
대분류								
예체능	8.6	27.4	4.7	9.2	16.4	22.0	11.7	100.0(555)
학습	8.2	19.7	13.6	17.6	21.3	6.1	13.6	100.0(686)
$\chi^2(df)$				112.00(6)				
소분류								
음악	2.4	19.5	3.3	11.4	19.5	30.9	13.0	100.0(123)
미술	8.3	22.2	6.9	13.2	18.8	25.0	5.6	100.0(144)
체육	11.7	33.9	4.0	6.5	13.7	15.3	14.9	100.0(248)
무용	10.0	30.0	5.0	5.0	15.0	25.0	10.0	100.0(40)
수학	7.6	19.6	13.8	18.2	20.0	7.1	13.8	100.0(225)
과학·창의	13.6	18.2	13.6	18.2	15.2	12.1	9.1	100.0(66)
국어	6.9	21.3	14.4	14.7	22.8	4.7	15.3	100.0(320)
영어	11.1	13.9	9.7	26.4	25.0	4.2	9.7	100.0(72)
기타외국어	0.0	33.3	0.0	66.7	0.0	0.0	0.0	100.0(3)
기타	7.9	9.5	14.3	25.4	15.9	7.9	19.0	100.0(63)

*** $p < .001$



[그림 IV-2-11]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5세)

5세아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흥미 정도에 대해 부모들은 대체로 흥미 있어 한다고 응답하였다. 예체능은 매우 흥미 있어 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고, 학습은 어느 정도 흥미 있어 한다는 응답이 58.9%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IV-2-30>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흥미(5세 부모)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전혀 흥미 없음	별로 흥미 없음	어느 정도 흥미 가지고 몰입	매우 흥미 있어 하며 몰입	계	점수	
						평균	Ft
전체	0.2	2.5	50.1	47.2	100.0(1,304)	3.5(0.6)	
대분류							
예체능	0.2	1.4	38.9	59.5	100.0(555)	3.6(0.5)	7.74***
학습	0.1	3.5	58.9	37.5	100.0(686)	3.3(0.6)	
소분류							
음악	0.8	0.8	48.8	49.6	100.0(123)	3.5(0.6)	na
미술	0.0	0.7	29.2	70.1	100.0(144)	3.7(0.5)	
체육	0.0	2.4	41.9	55.6	100.0(248)	3.5(0.5)	
무용	0.0	0.0	25.0	75.0	100.0(40)	3.8(0.4)	
수학	0.0	3.6	62.7	33.8	100.0(225)	3.3(0.5)	
과학·창의	0.0	1.5	30.3	68.2	100.0(66)	3.7(0.5)	
국어	0.3	3.8	64.4	31.6	100.0(320)	3.3(0.5)	
영어	0.0	4.2	50.0	45.8	100.0(72)	3.4(0.6)	
기타외국어	0.0	0.0	33.3	66.7	100.0(3)	3.7(0.6)	
기타	1.6	1.6	52.4	44.4	100.0(63)	3.4(0.6)	

*** p < .001

5세아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학습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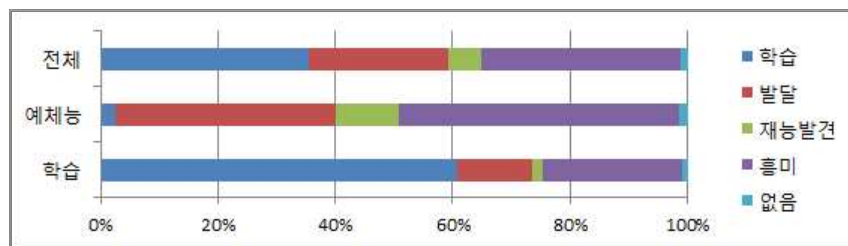
음으로 흥미 33.9%, 발달 23.8%였다. 2세아에 비해 5세아 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학습이라는 응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체능은 흥미가 47.7%로 가장 높고, 학습은 학습이 60.8%로 가장 높아 차이가 나타났다. 예체능 중 체육은 흥미보다 발달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학습 중 과학·창의와 영어는 다른 학습 프로그램과 달리 학습보다 흥미 비율이 높았다.

〈표 IV-2-31〉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5세 부모)

단위: %(사례수)

구분	학습	발달	재능발견	흥미	없음	계
전체	35.4	23.8	5.7	33.9	1.2	100.0(1,304)
대분류						
예체능	2.5	37.5	10.8	47.7	1.4	100.0(555)
학습	60.8	12.8	1.7	23.6	1.0	100.0(686)
$\chi^2(df)$						473.83(4) ^{***}
소분류						
음악	5.7	13.0	25.2	56.1	0.0	100.0(123)
미술	3.5	20.8	12.5	62.5	0.7	100.0(144)
체육	0.4	59.3	3.2	34.7	2.4	100.0(248)
무용	2.5	37.5	7.5	50.0	2.5	100.0(40)
수학	68.9	9.8	1.3	19.6	0.4	100.0(225)
과학·창의	21.2	24.2	6.1	47.0	1.5	100.0(66)
국어	67.8	14.4	0.6	15.9	1.3	100.0(320)
영어	40.3	4.2	4.2	50.0	1.4	100.0(72)
기타외국어	66.7	33.3	0.0	0.0	0.0	100.0(3)
기타	47.6	23.8	3.2	23.8	1.6	100.0(63)

*** $p < .001$



[그림 IV-2-12]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5세)

5세 자녀의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약 98%의 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학습보다 예체능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였다.

〈표 IV-2-32〉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5세 부모)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 는 편	매우 만족	계	점수	
						평균	F _t
전체	0.8	1.5	61.4	36.3	100.0 (1,304)	3.3 (0.5)	
대분류							
예체능	1.6	1.3	51.7	45.4	100.0 (555)	3.4 (0.6)	4.10 ^{***}
학습	0.1	1.7	68.2	29.9	100.0 (686)	3.3 (0.5)	
소분류							
음악	1.6	1.6	53.7	43.1	100.0 (123)	3.4 (0.6)	na
미술	0.0	0.0	46.5	53.5	100.0 (144)	3.5 (0.5)	
체육	2.8	2.0	52.0	43.1	100.0 (248)	3.4 (0.7)	
무용	0.0	0.0	62.5	37.5	100.0 (40)	3.4 (0.5)	
수학	0.4	1.3	68.9	29.3	100.0 (225)	3.3 (0.5)	
과학·창의	0.0	1.5	45.5	53.0	100.0 (66)	3.5 (0.5)	
국어	0.0	1.9	72.5	25.6	100.0 (320)	3.2 (0.5)	
영어	0.0	2.8	66.7	30.6	100.0 (72)	3.3 (0.5)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100.0 (3)	3.0 (0.0)	
기타	1.6	0.0	73.0	25.4	100.0 (63)	3.2 (0.5)	

*** p < .001

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현황 및 인식

다음으로 5세아의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월 수강료는 평균 54만4천원, 교재비 5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총 비용은 60만2천원이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수치상으로 영어학원이 수강료 79만6천원, 총 비용 86만7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유아체능단은 총 비용 43만5천원, 놀이학원은 43만2천원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는 80.0%였고, 운영하는 경우의 참여율은 82.1%로 나타났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학원 유형별로는 기타 학원의 특별활동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모든 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영어학원은 77.4%가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운영하는 경우 75%가 참여하였으며, 놀이학원은 81.0%가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운영하는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 88.2%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3〉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5세 부모)

단위: 천원(표준편차), %(명)

구분	월 평균 비용			특별활동					
	수강료	교재비	총 비용	운영여부			(운영할 경우) 참여율		
				운영함	안 함	계	참여함	안 함	계
전체	544.4 (368.3)	57.6 (64.7)	602.1 (394.3)	80.0	20.0	100.0(70)	82.1	17.9	100.0(56)
영어학원	795.8 (375.7)	71.4 (72.8)	867.2 (399.2)	77.4	22.6	100.0(31)	75.0	25.0	100.0(24)
놀이학원	377.6 (228.6)	54.6 (52.6)	432.2 (255.1)	81.0	19.0	100.0(21)	88.2	11.8	100.0(17)
유아체능단	387.3 (154.7)	47.3 (68.4)	434.5 (164.8)	81.8	18.2	100.0(11)	77.8	22.2	100.0(9)
기타	178.6 (120.1)	22.1 (44.0)	200.7 (158.4)	85.7	14.3	100.0(7)	100.0	0.0	100.0(6)
$F/\chi^2(df)$	na	1.30	na	na			na		

5세아 부모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소질·재능개발’이라는 이유가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보다 프로그램 수준이 높아서(22.9%)’,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닌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18.6%)’ 순이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학원 유형별로는 유아체능단의 경우 소질·재능 개발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이 36.4%로 많았다.

〈표 IV-2-34〉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 이유(5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초등 준비 학습	강사 대 아동 비율 낮음	어린이집·유치원 다닌 후 새로운 경험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소질·재능 개발	기타	계
전체	12.9	17.1	18.6	22.9	25.7	2.9	100.0(70)
영어학원	9.7	22.6	16.1	22.6	29.0	0.0	100.0(31)
놀이학원	23.8	19.0	23.8	23.8	9.5	0.0	100.0(21)
유아체능단	0.0	9.1	18.2	27.3	36.4	9.1	100.0(11)
기타	14.3	0.0	14.3	14.3	42.9	14.3	100.0(7)
$\chi^2(df)$	na						

5세아가 반일제 학원 이전에 다닌 기관은 어린이집이 7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51.4%이었다. 재원기관별로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아이들의 81.8%는 이전에 다닌 기관 또한 유아체능단이라고 응답했다.

〈표 IV-2-35〉 반일제 이상 학원 이전에 다닌 기관(5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없음
전체	51.4	75.7	24.3	24.3	20.0	5.7	1.4
영어학원	54.8	77.4	48.4	16.1	3.2	0.0	3.2
놀이학원	57.1	81.0	4.8	47.6	19.0	4.8	0.0
유아체능단	36.4	63.6	0.0	9.1	81.8	9.1	0.0
기타	42.9	71.4	14.3	14.3	0.0	28.6	0.0

주: 중복응답임.

반일제 이상 학원의 정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프로그램 내용(3.3점)과 집단구성(3.3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재와 강사도 각각 3.1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학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내용은 놀이학원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기타 학원이 집단구성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기타 학원, 영어학원, 유아체능단, 놀이학원 순으로 높았다.

〈표 IV-2-36〉 반일제 이상 학원 정규프로그램 만족도(5세 부모)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비용	프로그램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전체 평균
전체	2.8(0.7)	3.3(0.6)	3.2(0.6)	3.2(0.7)	3.3(0.6)	3.1(0.6)	3.2(0.5)
영어학원	2.7(0.7)	3.3(0.6)	3.3(0.5)	3.2(0.8)	3.3(0.5)	3.2(0.8)	3.2(0.5)
놀이학원	2.7(0.6)	3.0(0.4)	3.0(0.5)	3.1(0.6)	3.1(0.4)	3.0(0.4)	3.0(0.4)
유아체능단	2.7(0.9)	3.4(0.7)	3.1(0.5)	3.1(0.5)	3.2(0.8)	3.1(0.7)	3.1(0.5)
기타	3.4(0.5)	3.7(0.5)	3.6(0.5)	3.9(0.4)	3.9(0.4)	3.4(0.5)	3.6(0.4)
<i>F</i>	2.132	na	2.709	2.51	na	na	na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약간 만족, 4=매우 만족

라. 부모 양육태도, 사교육, 유아 행동 특성 관계

이 항에서는 5세아의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사교육 시간이 5세아들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2세아와 동일하나, 5세아의 경우 2세와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용 행동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양희와 민수현(2001)이 개발하고 이양희와 최서운(2001)이 표준화한 반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는 2세용 척도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적대적 공격성, 비사회적 이기성, 부주의성 3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된다. 남아와 여아의 하위항목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아, 여아를 각각 분석하였다.

〈표 IV-2-37〉 사교육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남아 : tobit)

	모형1	모형2	모형3
전체 자녀 수	-12.122	-11.675	-17.222
부모 학력 전문대졸	-68.409	-64.120	-70.071
(기준=고졸이하) 대졸	-10.516	-0.461	-6.176
대학원졸 이상	-45.135	-27.587	-24.344
맞벌이 여부(맞벌이 =1)	10.530	13.607	11.764
가구소득 265~370만원	76.970	78.175	85.067 ⁺
(기준 370~480만원	39.545	37.587	48.393
=265만원 이하) 480만원 이상	53.881	52.062	60.855
지역규모 대도시	58.449	58.504	53.376
(기준=읍/면) 중소도시	84.499 ⁺	84.246 ⁺	82.356 ⁺
보조양육자 유무(있음=1)	33.204	33.059	32.662
영유아 기질 적응성		-0.077	-0.163
활동성		2.341	1.657
생리적 규칙성		-2.295	-1.946
반응성		6.162	6.682
정서성		11.398	11.950
양육태도 애정-자율			-52.952
(기준=거부-통제) 애정-통제			-42.961
거부-자율			-233.771 ⁺
상수	275.859 ^{***}	-1.984	50.072
N	358	358	35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5세 남아의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표 IV-2-37), 전반적으로 가구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구소득이 265~370만원인 경우에 가구소득이 265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10% 유의수준에서 사교육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도시 거주자가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5세 남아의 경우 부모가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가 거부적이면서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표 IV-2-38〉 사교육 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여아 : tobit)

	모형1	모형2	모형3
전체 자녀 수	-56.445**	-59.616**	-60.838**
부모 학력			
전문대졸	-50.427	-32.831	-33.429
(기준=고졸이하)			
대졸	-79.982*	-51.912	-51.429+
대학원졸 이상	-79.882	-65.216	-66.355*
맞벌이 여부(맞벌이 =1)	-6.276	-3.646	-4.491
가구소득			
(기준 = 265만원 이하)			
265~370만원미만	-14.862	-10.342	-12.603
370~480만원미만	43.078	48.397	46.518
480만원 이상	75.490	76.406	78.510+
지역규모			
(기준=읍/면)			
대도시	-5.038	-3.565	3.834
중소도시	-37.433	-41.805	-35.566
보조양육자 유무(있음=1)	-15.020	-15.924	-15.979
영유아 기질			
적응성		-1.126	-1.251
활동성		8.040*	8.051*
생리적 규칙성		6.252	7.119
반응성		-2.502	-1.622
정서성		28.966**	29.577**
양육태도			
(기준=거부-통제)			
애정-자율			-28.501
애정-통제			0.393
거부-자율			95.215
상수	495.379***	-27.885	-44.803
N	346	346	346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5세 여아들의 사교육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표 IV-2-38), 전체 자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가구 내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5세 여아들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유의미

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5세 여아 부모 학력이 대졸이거나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부모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구소득이 4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265만원 이하인 경우에 비해 10% 유의수준에서 사교육 시간이 길었다. 마지막으로 5세 여아의 경우 5세 남아와 달리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영유아의 기질이 사교육 시간에 유의미하게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5세 여아가 활동성이 높거나, 정서성이 높은 경우 사교육 총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V-2-39〉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남아 : OLS)

	모형1	모형2	모형3
전체 자녀 수	1.187	1.183	1.222
부모 학력 전문대졸 (기준=고졸이하) 대졸	-3.232 ⁺	-3.180	-3.211
대학원졸 이상	0.144	0.206	0.248
맞벌이 여부(맞벌이 =1)	-4.642 ⁺	-4.467 ⁺	-4.622 ⁺
가구소득 265~370만원미만 (기준 = 265만원 이하) 370~480만원미만	1.552	1.591	1.629
480만원 이상	-2.271	-2.280	-2.016
지역규모 대도시 (기준=읍/면) 중소도시	-4.407 [*]	-4.373 [*]	-4.181 ⁺
보조양육자 유무(있음=1)	-3.773 ⁺	-3.876 ⁺	-3.638 ⁺
영유아 기질 적응성	-1.864	-1.874	-1.562
활동성	-1.962	-1.937	-1.702
생리적 규칙성	0.510	0.464	0.568
반응성	0.398 ^{**}	0.396 ^{**}	0.408 ^{**}
정서성	0.642 ^{**}	0.649 ^{**}	0.650 ^{**}
양육태도 애정-자율 (기준=거부-통제) 애정-통제	0.124	0.138	0.128
거부-자율	-0.503 [*]	-0.502 [*]	-0.497 [*]
사교육 + 특별활동 총 시간	-0.369	-0.368	-0.346
사교육 총시간	2.026	2.047	2.007
학습관련 사교육 총시간	4.274 [*]	4.235 [*]	4.182 [*]
상수	-2.360	-2.290	-2.778
N	0.003	0.004	0.006
	14.251	14.043	13.252
	306	306	306

⁺ $p < .1$, ^{**} $p < .05$, ^{**} $p < .01$, ^{***} $p < .001$.

5세 남아와 여아 각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남아의 경우(표 IV-2-39), 부모 학력이 대학원졸업 이상인 경우에는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10% 유의수준에서 문제행동 점수가 낮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점수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영유아 기질 중 적응성과 활동성, 반응성 등이 문제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남아가 적응성과 활동성이 높은 경우 문제행동 점수가 1% 유의수준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응성이 높은 경우에는 5% 유의수준에서 문제행동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5세 남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이면서 통제적인 경우에는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인 특징을 보이는 부모에 비해 문제행동 점수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시간은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학습관련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5세 남아들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V-2-40〉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여아 : OLS)

	모형1	모형2	모형3
전체 자녀 수	-0.296	-0.313	-0.380
부모 학력	-1.391	-1.359	-1.423
전문대졸 (기준=고졸이하)	-0.445	-0.450	-0.520
대학원졸 이상	0.860	0.870	0.796
맞벌이 여부(맞벌이 =1)	0.165	0.169	0.133
가구소득	0.709	0.690	0.646
25~370만원미만 (기준=370~480만원미만 = 265만원 이하)	-1.699	-1.701	-1.640
480만원 이상	-1.447	-1.455	-1.388
지역규모	-0.795	-0.813	-0.809
대도시 (기준=읍/면)	-0.797	-0.828	-0.848
중소도시			
보조양육자 유무(있음=1)	-2.200**	-2.199**	-2.217**
영유아 기질			
적응성	0.157	0.156	0.156
활동성	0.274**	0.274**	0.283**
생리적 규칙성	-0.084	-0.081	-0.074
반응성	-0.149	-0.149	-0.152
정서성	-0.697**	-0.684*	-0.661 ⁺
양육태도			
애정-자율 (기준=거부-통제)	-1.694	-1.664	-1.703
애정-통제	-0.340	-0.316	-0.362
거부-자율	-5.242	-5.237	-5.176
사교육 + 특별활동 총 시간	0.001		
사교육 총시간		0.001	
학습관련 사교육 총시간			-0.000
상수	30.069***	30.185***	30.145***
N	295	295	295

⁺ $p < .1$, * $p < .05$, ** $p < .01$, *** $p < .001$

5세 여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표 IV-2-40),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없을 때보다 5세 여아의 문제행동 점수가 낮은 경향성이 포착되었다. 그 외에 가구특성은 5세 여아의 문제행동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5세 여아의 경우에도 5세 남아와 마찬가지로 기질 가운데 활동성이 높은 경우 문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5세 남아의 경우 적응성과 반응성이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5세 여아의 경우에는 정서성이 10%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양육태도와 사교육 시간은 5세 여아의 문제행동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실태조사는 문제행동 점수를 측정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의 사교육 이용 행태를 질문하고 있으므로, 사교육의 지속 정도에 따른 영향을 관측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소결

가. 2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1)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인식

조사 대상 2세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35.5%였으며, 이용하는 경우 학습관련 사교육만 참여하는 경우 42.5%, 예체능 관련은 25.8%, 학습과 예체능 모두 하는 경우 31.7%로 학습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재원아보다 반일제 학원이나 가정양육아의 사교육 이용률이 높았고, 맞벌이보다 외벌이 자녀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했다. 가구수입이 적을수록 학습 관련 사교육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2세아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평균 1.7가지를 주당 2.6회 참여하고, 회당 시간은 48분이었다. 사교육비용은 월 평균 13만4천원이고 월 가구소득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아 부모들은 현재 사교육 정도에 대해 적당하다는 응답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조금 부족하다는 응답도 25%였다. 부모가 사교육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녀의 흥미 50%, 내용 30%였으며, 다른 기준들은 10% 미만이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50% 이상이 발달,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라고 응답했고,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도 23%였다.

과거에 사교육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였으며, 그 이유는 자녀의

신체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응답이 19%였다. 한편 지금까지 사교육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약 50%였는데, 그 이유는 자녀가 아직 어려서라는 응답이 76%로 대부분이었다. 사교육을 처음 접한 시기는 2세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2개월이었다.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체육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어 25%, 미술 18%, 음악 16%였다.

취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어린이집 교사의 55.2%, 부모의 6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사보다 학부모의 필요도 인식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체능과 사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는 교사가 3.6세로 부모 4.1세보다 일렀다.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예체능 사교육을 이룬 연령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바람직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는 교사 4.6세, 부모 4.5세로 유사했으며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이른 시기에 학습 사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세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로 가구 소득의 10% 미만 지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교육 관련 연구결과 가운데, 지나친 사교육이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가 2세 교사와 부모 모두 가장 높았고, 학습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결과에 대한 동의 정도가 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을 통해 이중언어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부모(2.7점)가 교사(2.5점)보다 높았다. 사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 모두 '특성화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활성화'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2세아 부모 3명중 1명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은 반면, 사교육을 경험한 부모들 중 일부는 자녀가 힘들어 해서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대부분이 사교육 정도가 적당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2세 부모들의 교육관의 편차가 심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경험도 크게 달라질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세 대상 사교육 프로그램의 회당 시간이 초등학교 1교시 시간 40분보다 긴 48분이라는 점에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 프로그램의 발달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사교육 프로그램별 특성

조사 대상 2세아가 이용하는 총 392개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국어가 28.6%로 가장 많았고, 체육과 미술이 각각 15%, 과학·창의 10% 순이었다. 절반 이상이 강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학습지나 교구 프로그램이었는데, 특히 학

습 프로그램의 80%가 집에서 진행되었고, 예체능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는 문화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수단은 자가용과 도보가 많았다.

사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학력이나 전문성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37~42%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예체능 사교육 강사는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가 46%로 많았으나, 학습 사교육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반 규모는 1명이 45%로 가장 많았는데, 절반 정도가 집으로 강사가 방문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인 것과 관련이 있다. 학습 프로그램은 단일연령으로 학습지나 워크북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예체능 프로그램은 교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그램당 비용은 월평균 7만 2천원이었고, 과학·창의프로그램이 10만원 이상으로 가장 비쌌다. 선택 경로로 주변 아이들과 교육기관의 광고물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많았고, 주변 부모의 권유와 지인 문의를 통한 선택도 많았다. 즉, 2세 부모들은 외적인 영향을 통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2세 자녀가 대체로 사교육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부모 스스로도 만족하는 편이었다. 다만, 수학과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자녀의 흥미와 부모 만족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았다. 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흥미, 발달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세가 이용하는 사교육의 약 절반 정도가 집으로 강사가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습지나 워크북, 책을 이용하는 학습 중심의 프로그램일 확률이 높다. 또한, 2세아의 부모가 강사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강사의 자질이나 부모 만족도 측면에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88%가 집에서 진행되는 국어 사교육 강사의 학력이나 전공을 모르는 경우가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어 학습지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현황 및 인식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31만4천원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소질이나 재능개발을 위해서가 26.7%,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26.7%,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낸 후 새로운 경험을 위해 20.0% 순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부모의 대부분은 이전에 또 다른 반일제 이상 기관을 경험했는데, 어린이집이 53.3%로 가장 많았고, 놀이학원이 50%였다. 반일제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4점 척도에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2.5점으로 가장 낮았다.

4) 부모 양육태도, 사교육, 영아 행동 특성 관계

2세아의 사교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토빗(tobit)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가구특성 변인은 사교육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사교육을 덜 이용했고, 자녀에 대해 거부적 태도보다 애정적 태도를 가진 부모가 사교육을 덜 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교육 시간이나 개수, 이용횟수 등은 2세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교육이 진행되는 시점과 문제행동 점수를 측정한 시점이 동시점이라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나. 5세의 사교육 실태 및 인식

1) 사교육 이용 현황 및 인식

조사대상 5세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84%였으며, 2세의 2배 이상인 비율이다. 학습과 예체능 사교육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53%로 하나의 유형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가구수입이 적을 때 학습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가구수입이 많을 때 학습과 예체능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모 학력이 높을 때 예체능 사교육만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5세아는 평균 2.2개의 사교육을 이용했고, 외벌이(2.4개)가 맞벌이(2.1개)보다 더 많은 사교육을 시켰다. 5세아는 주당 평균 5.2회, 회당 50분 동안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입이 많을수록 주당 많은 횟수의 사교육에 참여했고,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와 가정양육 5세아가 참여하는 시간제 사교육의 회당 시간이 특히 길었다.

총 사교육비용은 월 평균 16만원이 조금 넘었고, 월 소득의 4.4%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재원아보다 반일제 학원, 가정양육 5세아가 지출하는 사교육비용이 더 많았고, 읍·면보다 대도시에서,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더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현재 사교육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4%, 부족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고 과하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하였다.

부모들의 사교육 선택 기준은 자녀의 흥미가 46%로 가장 많았고, 내용이 27%였다. 재원기관 별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반일제 학원이나 가정양육의 경우 장소나 시간을 1순위로 두고 선택한다는 응답이 약 10% 많았고,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는 초등학교 준비가 1순위 선택 기준이라는 응답이 다른 재원기관에 비해 많았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발달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라는 응답과 자녀가 원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세아의 약 40%가 과거에 사교육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자녀가 원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신체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중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세아 부모의 약 10%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특별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36.4%, 아직 어리다는 응답이 26%로 많았다.

5세아가 사교육을 처음 접한 시기는 평균 47개월이었는데,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가장 일렀다.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국어가 46%로 가장 많았다. 2세의 경우 체육을 먼저 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취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어린이집 교사의 49%, 유치원 교사의 38%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그보다 더 많은 68%가 필요하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경우 취학 전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맞벌이보다 외벌이 부모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바람직한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는 교사가 4.2세로 부모 4.7세보다 일렀고, 학습 사교육은 교사 4.8세, 부모 4.9세로 유사하였다. 유치원 교사보다 어린이집 교사가 더 이른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5세 부모들은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로 가구 소득의 10% 미만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고, 10~20%도 38%였다. 모든 자녀의 사교육비는 50% 정도가 가구소득의 10~20%를 투자할 의향을 보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20~40%라는 응답이 36%로 다른 재원기관에 비해 훨씬 많았다.

사교육 관련 연구결과에 대해 5세 교사와 부모들은 사교육이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고, 어린이집 교사보다 유치원 교사들이 사교육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보다 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5세 교사와 부모 모두 특성화프로그램, 특별활동 활성화를 원하였는데,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광고함으로써 사교육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부모의 9%만이 선택한 반면, 교사는 24%가 선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5세아의 84%가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10%에 불과해 대부분의 5세아가 사교육에 노출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회당 시간은 2세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교시 시간보다 길었고,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의 사교육 노출 정도가 심하

였다. 또한, 외벌이 부모가 맞벌이에 비해 사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고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며, 저학력 부모가 고학력 부모에 비해 학습 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동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은 부모들과 교육 종사자인 교사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사교육 프로그램별 특성

조사 대상 5세아가 이용하는 모든 사교육 프로그램 1,304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은 2세와 마찬가지로 국어가 가장 많고, 체육, 수학 프로그램도 많았다. 장소 역시 2세와 마찬가지로 집이 47%로 가장 많았고, 30%는 학원이었다. 2세 때의 문화센터가 학원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2세와 유사하게 수학과 국어 프로그램의 80% 이상이 집에서 이루어졌다. 집 밖에서 사교육을 할 경우 도보가 24%, 학원 차량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15% 이상이었다.

사교육 강사 학력은 대졸이 53%, 모르는 경우 34%였고 전문성은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가 43%, 모르는 경우가 35% 순이었다. 특히 수학, 국어, 기타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에 대해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 규모는 국어, 수학 프로그램의 75%가 1명으로 나타나 2세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강사가 방문하는 학습지나 교구 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 있다. 2세에 비해 5세아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교구를 사용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학습지나 워크북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다. 즉, 5세도 2세와 유사하게 집으로 강사가 방문하는 국어, 수학 등의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경우 강사에 대한 정보를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방문학습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은 평균 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학습보다 예체능 프로그램이 비쌌고, 세부 유형 중에서는 기타 외국어 프로그램이 1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프로그램별 선택 경로는 2세와 마찬가지로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지인 문의를 통해, 교육기관의 광고물을 통해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예체능 프로그램은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거나 아이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학습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의 광고를 통해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모들은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 흥미, 발달을 고루 기대하였고 부모들은 5세 자녀가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흥미 있어 한다고 응답하면서 부모 자신도 만족하는 편이었다.

3)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현황 및 인식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5세아는 월평균 학원비용은 2세보다 약 2배 비싼 60만2천원이었다. 학원 유형별로는 영어학원이 86만7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학원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는 80%, 운영할 경우 자녀가 참여하는 경우는 82.1%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소질·재능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보다 프로그램 수준이 높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닌 후에 새로운 경험을 위해 반일제 이상 학원을 보냈다는 응답도 19%였다. 2세 부모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지만, 5세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 때문에 보낸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경우 대부분 이전에 다른 반일제 기관을 이용했었는데, 어린이집 76%, 유치원 51%, 반일제 학원과 놀이학원 각각 24% 등이었다. 학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나, 비용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4) 부모 양육태도, 사교육, 유아 행동 특성 관계

마지막으로, 토빗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세 남아의 사교육 시간에는 가구소득, 지역규모, 양육태도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구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보다 중하위 수준의 집단이 사교육을 유의하게 많이 시켰고, 중소도시 거주자가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길었고, 거부적이면서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가 거부적이면서 자율적인 부모보다 사교육을 더 많이 시켰다. 5세 여아의 경우 전체 자녀 수, 부모 학력, 가구소득, 아동 기질이 사교육 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전체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모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고졸 이하일 때, 가구소득이 최저 집단보다 최고 집단인 경우, 영유아 기질이 활동성과 정서성이 높은 경우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남아의 문제행동에는 부모 학력, 가구소득, 유아 기질,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사교육 시간이나 학습 관련 사교육 시간, 사교육과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총 시간은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5세 여아는 보조양육자 유무와 유아 기질이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2세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이 진행되는 시점과 문제행동 점수를 측정할 시점이 동시점이라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V. 영유아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본 장에서는 2세와 5세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반일제 이상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 외의 특별활동 운영 실태와 이용 실태, 이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와 부모에게 질문하였고, 기관의 설립유형과 지역, 영유아 가구의 특성에 따른 특징을 탐색하였다.

1. 2세의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가. 기관의 특별활동 운영 현황

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85.1%는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특별활동 운영 비율이 91.0%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81.1%, 읍·면 80.1%였다.

〈표 V-1-1〉 기관의 특별활동 운영 여부(2세 교사)

구분	운영함	안함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85.1	14.9	100.0(434)	
지역				
대도시	91.0	9.0	100.0(191)	8.51(2)*
중소도시	81.1	18.9	100.0(156)	
읍·면	80.1	19.9	100.0(87)	

* $p < .05$

2세아가 다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총 4.2가지이고, 무용이 2.7가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술 1.6가지였다. 음악과 체육, 수학, 영어 모두 1.5가지씩 운영하고 있었다. 통계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직장어린이집이 평균 5가지로 가장 많았고 가정어린이집은 2.7가지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5.1가지, 읍·면 4.3가지, 중소도시 3.3가지로 운영하였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들 가짓수는 큰 차이가 없

었으나, 과학·창의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읍·면이 1.7가지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1.2가지, 중소도시 1.1가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표 V-1-2〉 기관 전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2세 교사)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총합
전체	1.5 (1.1)	1.6 (1.2)	1.5 (1.1)	2.7 (2.0)	1.5 (0.9)	1.3 (0.5)	1.2 (0.6)	1.5 (1.1)	0.0 (0.0)	1.2 (1.2)	4.2 (3.8)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1.3 (0.8)	1.0 (0.0)	1.6 (1.4)	1.0 (0.0)	1.4 (1.0)	1.4 (0.7)	1.4 (1.2)	1.6 (1.4)	0.0 (0.0)	0.0 (0.0)	4.2 (3.4)
민간	1.2 (0.7)	1.2 (0.6)	1.2 (0.6)	1.0 (0.0)	1.0 (0.0)	1.3 (0.5)	1.4 (1.0)	1.3 (0.8)	0.0 (0.0)	4.0 (4.0)	3.9 (2.5)
가정	1.3 (0.9)	1.2 (0.4)	1.2 (0.7)	0.0 (0.0)	1.0 (0.0)	1.1 (0.3)	1.2 (0.4)	1.1 (0.4)	0.0 (0.0)	1.0 (1.0)	2.7 (1.4)
법인·직장	1.6 (1.2)	2.0 (1.5)	1.6 (1.2)	2.9 (2.1)	1.9 (1.1)	1.3 (0.5)	1.1 (0.4)	1.6 (1.2)	0.0 (0.0)	1.0 (1.0)	5.0 (4.6)
<i>F</i>	na	na	na	na	0.41	na	na	na	na	na	na
지역											
대도시	1.7 (1.3)	2.0 (1.5)	1.6 (1.2)	2.8 (2.0)	1.0 (0.0)	1.2 ^a (0.4)	1.1 (0.4)	1.5 (1.2)	0.0 (0.0)	1.0 (1.0)	5.1 (5.2)
중소도시	1.4 (0.9)	1.2 (0.4)	1.4 (1.0)	1.0 (0.0)	1.5 (0.9)	1.1 ^a (0.4)	1.3 (0.8)	1.5 (1.0)	0.0 (0.0)	1.2 (1.2)	3.3 (2.0)
읍·면	1.1 (0.5)	1.0 (0.1)	1.3 (0.8)	1.0 (0.0)	2.0 (1.2)	1.7 ^b (0.5)	1.1 (0.5)	1.3 (0.7)	0.0 (0.0)	0.0 (0.0)	4.3 (2.3)
<i>F</i>	na	na	na	0.378	na	15.00 ^{***}	0.56	na	na	0.88	na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기관에서 2세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평균 2.6가지이고 유형별로는 음악과 미술, 체육이 각각 1가지씩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어 0.9가지, 과학·창의와 영어 0.8가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2.9개, 가정어린이집과 법인·직장어린이집 각각 2.6가지, 국공립어린이집 2.4가지였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3.6가지로 가장 많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균 2.5가지였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육과 국어가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영어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어 프로그램을 0.4가지 운영한 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1가지 이상 운영하였다. 영어 프로그램은 대도시가 가장 적게 운영하여 0.7가지였다.

〈표 V-1-3〉 기관의 2세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2세 교사)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 ·창의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총합
전체	1.0 (0.5)	1.0 (0.4)	1.0 (0.5)	0.5 (0.5)	0.7 (0.8)	0.8 (0.8)	0.9 (0.5)	0.8 (0.7)	0.0 (0.0)	1.1 (0.8)	2.6 (1.6)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0.9 (0.6)	0.6 (0.5)	1.0 (0.7)	0.2 (0.8)	0.0 (0.0)	0.6 (0.8)	0.4 ^a (0.5)	0.8 (0.9)	0.0 (0.0)	0.0 (0.0)	2.4 (2.0)
민간	0.9 (0.2)	0.9 (0.4)	0.9 (0.5)	0.7 (0.0)	0.5 (1.3)	1.0 (0.6)	1.0 ^{ab} (0.5)	1.0 (0.6)	0.0 (0.0)	4.0 (0.0)	2.9 (1.8)
가정	1.3 (0.9)	1.1 (0.3)	1.1 (0.4)	0.0 (0.0)	1.0 (0.0)	1.0 (0.4)	1.2 ^b (0.4)	1.0 (0.3)	0.0 (0.0)	1.0 (0.0)	2.6 (1.1)
법인·직장	1.0 (0.3)	1.0 (0.3)	0.9 (0.4)	0.5 (0.5)	1.2 (0.8)	0.7 (0.9)	0.9 ^{ab} (0.4)	0.8 (0.7)	0.0 (0.0)	0.0 (0.0)	2.6 (1.7)
<i>F</i>	na	na	5.13**	na	1.831	na	3.87*	na	na	na	0.61
지역											
대도시	1.0 (0.4)	1.0 (0.4)	0.8 (0.5)	0.5 (0.5)	0.1 (0.4)	0.5 (0.8)	0.9 (0.5)	0.7 (0.6)	0.0 (0.0)	1.0 (0.0)	2.5 (1.6)
중소도시	1.1 (0.7)	1.1 (0.5)	1.1 (0.4)	0.4 (0.0)	0.5 (0.6)	1.0 (0.3)	1.1 (0.5)	1.0 (0.7)	0.0 (0.0)	1.1 (1.0)	2.5 (1.2)
읍·면	1.0 (0.2)	1.0 (0.2)	1.0 (0.5)	0.4 (0.0)	1.5 (0.6)	1.6 (0.5)	0.9 (0.3)	0.9 (0.6)	0.0 (0.0)	0.0 (0.0)	3.6 (2.2)
<i>F</i>	1.05	0.62	na	0.01	4.59	na	0.58	5.72**	na	0.01	na

* $p < .05$, ** $p < .01$

주: 1)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의 참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소속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1.9%에 불과했고, 희망 유아만 참여하는 경우(88.1%)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한 반의 영유아가 모두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97.2%로 대부분이었고, 각 영유아가 희망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특별활동 필수 참여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44.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운영 방식은 어린이집 설립유형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4〉 기관의 특별활동 참여 방식(2세 교사)

단위: %(명)

구분	필수 참여 여부			운영 방식		
	필수 참여	희망 유아만	계	동일 활동 참여	희망 활동 선택 참여	계
전체	11.9	88.1	100.0(382)	97.2	2.8	100.0(382)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4.1	95.9	100.0(72)	96.2	3.8	100.0(72)
민간	13.1	86.9	100.0(117)	94.4	5.6	100.0(117)
가정	11.3	88.7	100.0(98)	94.0	6.0	100.0(98)
법인·직장	13.4	86.6	100.0(95)	99.2	0.8	100.0(95)
$\chi^2(df)$	na			na		
지역						
대도시	8.8	91.2	100.0(166)	98.8	1.2	100.0(166)
중소도시	6.9	93.1	100.0(141)	95.4	4.6	100.0(141)
읍·면	44.1	55.9	100.0(75)	97.6	2.4	100.0(75)
$\chi^2(df)$	46.86(2)**			na		

*** $p < .001$

나.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인식

어린이집 교사에게 설문 대상 2세아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을 질문하였다. 해당 2세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75.0%였으며, 참여하는 경우 평균 2.6가지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다. 차이검증이 적절치 않으나 수치상으로 민간어린이집과 읍면 지역의 사교육 가짓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5〉 특별활동 참여 여부 및 가짓수(2세 교사)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chi^2(df)$	가짓수*	
	참여함	안함	계		평균	F
전체	75.0	25.0	100.0 (434)		2.6 (1.2)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73.3	26.7	100.0 (85)	5.069(3)	2.3 (0.8)	na
민간	86.8	13.2	100.0 (122)		2.9 (1.2)	
가정	79.6	20.4	100.0 (122)		2.3 (0.8)	
법인·직장	71.7	28.3	100.0 (105)		2.7 (1.3)	
지역						
대도시	77.9	22.1	100.0 (191)	1.464(2)	2.7 (1.0)	na
중소도시	72.6	27.4	100.0 (156)		2.2 (0.9)	
읍·면	74.2	25.8	100.0 (87)		3.5 (1.9)	

주: * 한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가짓수를 의미함.

2세아는 일주일에 약 3.0회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당 시간은 평균 26.9분이었다. 회당 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가 27.7분으로 가장 길고, 대도시 26.6분, 읍·면 25.0분 순이었다.

〈표 V-1-6〉 특별활동 주당 횟수 및 회당 시간(2세 교사)

단위: 가지, 분(표준편차)

구분	주당 횟수 ¹⁾		회당 시간 ²⁾	
	평균	F/t	평균	F/t
전체	3.0 (1.6)		26.9 (6.2)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2.7 (1.1)		27.5 (10.1)	
민간	3.5 (1.7)	na	28.3 (8.6)	na
가정	2.5 (1.2)		29.4 (5.5)	
법인·직장	3.3 (1.7)		25.2 (4.6)	
지역				
대도시	3.1 (1.4)		26.6 ^{ab} (7.6)	
중소도시	2.7 (1.3)	na	27.7 ^b (4.9)	3.36*
읍·면	4.1 (2.3)		25.0 ^a (4.6)	

* $p < .05$

주: 1) 해당 영유아가 일주일간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의 주당 평균 횟수를 의미함.

2) 해당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의 회당 평균 시간을 의미함.

3)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자녀를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2세아 부모에게 자녀의 특별활동 참여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자녀가 특별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75.3%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자녀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유형을 학습과 예체능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는데, 예체능만 하는 경우가 57.0%로 가장 많고, 학습과 예체능 모두 하는 경우 40.3%, 학습만 하는 경우 2.6%로 학습만 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참여 여부를 재원기관과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별활동 참여 여부는 지역과 월수입,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중소도시의 특별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월수입 370~480만원 가구 2세아의 특별활동 참여율은 90% 이상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학원 졸업 이상 2세 자녀의 특별활동 참여율이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 유형은 맞벌이 여부와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의 2세아는 예체능만 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고,

외별이 가구의 2세아는 학습과 예체능 모두 하는 경우가 54.6%로 가장 많았다.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예체능 특별활동만 하는 경우는 61.5%로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

〈표 V-1-7〉 특별활동 참여 여부(2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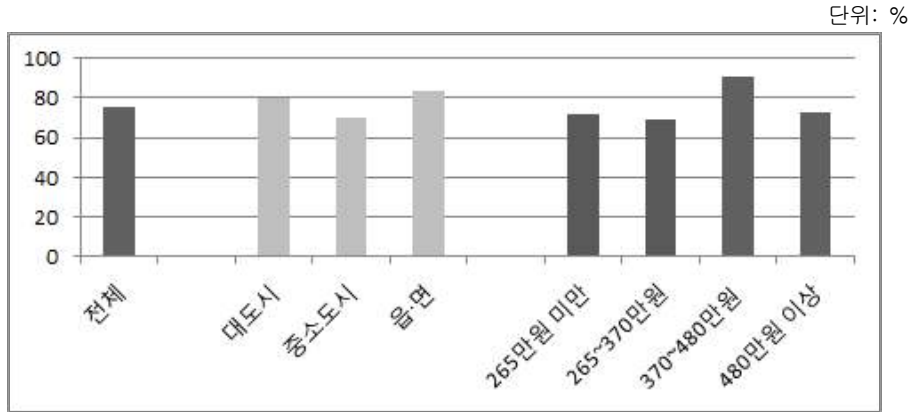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모두
전체	75.3	24.7	100.0(456)	2.6	57.0	40.3
재원기관						
어린이집	75.0	25.0	100.0(434)	2.5	56.2	41.3
학원	81.8	18.2	100.0(22)	5.6	72.2	22.2
$\chi^2(df)$		0.54(1)			2.91(2)	
지역						
대도시	80.3	19.7	100.0(202)	2.3	60.6	37.2
중소도시	70.4	29.6	100.0(171)	3.1	54.6	42.3
읍·면	83.8	16.2	100.0(83)	2.0	52.5	45.5
$\chi^2(df)$		6.74(2)*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75.8	24.2	100.0(274)	3.0	64.8	32.2
외벌이	74.5	25.5	100.0(182)	2.1	43.3	54.6
$\chi^2(df)$		0.13(1)			16.09(2)***	
월수입						
265만원 미만	72.0	28.0	100.0(56)	2.4	32.7	64.9
265~370만원	68.8	31.2	100.0(123)	5.3	62.1	32.6
370~480만원	90.7	9.3	100.0(107)	2.0	55.8	42.1
480만원 이상	72.6	27.4	100.0(170)	1.9	63.9	34.3
$\chi^2(df)$		15.49(3)**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55.4	44.6	100.0(56)	0.9	38.3	60.8
전문대졸	83.6	16.4	100.0(141)	3.6	69.3	27.1
대졸	80.6	19.4	100.0(216)	2.4	55.6	42.0
대학원졸 이상	50.6	49.4	100.0(43)	1.8	32.4	65.8
$\chi^2(df)$		37.04(3)***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74.8	25.2	100.0(149)	4.0	48.7	47.4
없음	75.6	24.4	100.0(307)	1.9	61.5	36.6
$\chi^2(df)$		0.04(1)			6.40(2)*	

* $p < .05$, ** $p < .01$, *** $p < .001$

주: * 수, 과학, 창의, 언어 등 관련 활동

** 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활동



[그림 V-1-1] 특별활동 참여율(2세)

2세아가 어린이집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특별활동 가짓수를 살펴보았다. 예체능 관련 활동은 평균 2.1가지, 학습 관련 활동은 평균 1.5가지로, 총 2.6가지의 특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아의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활동 총 가짓수의 경우 월평균 가구수입별로 차이가 나타나, 월평균 가구수입이 265만원 미만 가구의 2세아가 기관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 가짓수가 3.3개로 다른 수입수준보다 많았다.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가짓수는 맞벌이 여부와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의 2세아가 외벌이보다 여러 개의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에 참여하였고, 월평균 수입 265만원 미만과 370~480만원 가구 2세아가 다른 가구에 비해 다양한 예체능 특별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V-1-8〉 특별활동 가짓수(2세 부모)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총계	
	평균	F _t	평균	F _t	평균	F _t
전체	1.5 (0.8)		2.1 (0.8)		2.6 (1.3)	
재원기관						
어린이집	1.5 (0.7)	na	2.1 (0.8)	0.06	2.6 (1.2)	na
학원	3.2 (1.3)		2.0 (1.2)		2.8 (2.3)	
지역						
대도시	1.5 (0.8)		2.3 (0.9)		2.8 (1.2)	
중소도시	1.5 (0.8)	0.02	1.9 (0.7)	na	2.5 (1.3)	2.25
읍·면	1.5 (0.6)		1.9 (0.9)		2.5 (1.2)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총계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맞벌이여부						
맞벌이	1.5 (0.9)	-0.56	2.1 (0.9)	1.99*	2.6 (1.4)	-1.34
외벌이	1.6 (0.6)		1.9 (0.8)		2.8 (1.1)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6 (0.7)	na	2.2 ^{bc} (0.8)	6.86***	3.3 ^b (1.0)	7.19***
265~370만원	1.6 (0.7)		1.9 ^a (0.8)		2.3 ^a (1.1)	
370~480만원	1.2 (0.4)		2.3 ^c (0.9)		2.8 ^{ab} (1.0)	
480만원 이상	1.7 (0.9)		1.9 ^{ab} (0.8)		2.5 ^a (1.5)	
부모학력						
고졸 이하	1.8 (0.8)	na	1.9 (0.6)	na	3.0 (1.2)	1.19
전문대졸	1.6 (0.9)		2.3 (1.0)		2.7 (1.4)	
대졸	1.5 (0.7)		1.9 (0.7)		2.5 (1.2)	
대학원졸 이상	1.1 (0.3)		1.9 (0.6)		2.6 (0.8)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1.7 (0.8)	1.84	2.1 (0.8)	0.662	2.9 (1.4)	2.13*
없음	1.4 (0.7)		2.0 (0.9)		2.5 (1.2)	

* $p < .05$, *** $p < .001$

주: 1)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사례의 평균임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부모가 특별활동에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은 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4~6만원이 33.4%로 가장 많았고, 20.8%가 2만원 미만을 납부하였다. 8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가 9.5%인 반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만 별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5.8%였다.

사례수가 적어 차이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수치상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특별활동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33.3%가 가장 높은 반면, 8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도 22.2%로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벌이가 5만3천원으로 맞벌이 3만7천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표 V-1-9〉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2세 부모)

단위: %(명), 천원(표준편차)

구분	0원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이상	계	평균	
								천원	t/F
전체	5.8	20.8	15.5	33.4	15.0	9.5	100.0(358)	42.6 (31.1)	
재원기관									
어린이집	4.3	21.7	15.4	34.0	15.8	8.8	100.0(340)	42.4 (29.2)	na
학원	33.3	5.6	16.7	22.2	0.0	22.2	100.0(18)	45.6 (56.3)	

구분	0원	2만원 미만	2~ 4만원	4~ 6만원	6~ 8만원	8만원 이상	계	평균	
								천원	t/F
지역									
대도시	4.7	15.0	10.5	47.6	11.5	10.8	100.0(154)	47.6 (33.1)	
중소도시	5.1	26.5	17.8	22.5	19.4	8.7	100.0(139)	39.7 (28.9)	
읍·면	17.1	17.5	28.7	22.5	6.4	7.8	100.0(65)	31.9 (28.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	25.7	14.6	34.0	12.7	6.2	100.0(210)	36.8 (24.8)	
외벌이	3.9	12.2	17.0	32.3	19.1	15.5	100.0(148)	52.6 (37.9)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8	8.1	6.0	60.7	1.3	21.1	100.0(45)	60 (39.5)	
265~370만원	3.3	22.0	30.5	22.2	15.4	6.6	100.0(90)	37.6 (24.1)	
370~480만원	8.5	7.4	14.5	30.5	29.1	9.9	100.0(92)	48.4 (28.4)	
480만원 이상	6.5	32.3	12.4	30.7	11.5	6.7	100.0(131)	35.5 (29.4)	
부모학력									
고졸 이하	1.6	12.5	28.0	19.1	5.8	33.0	100.0(44)	52.6 (32.8)	
전문대졸	5.6	17.0	16.2	48.0	9.7	3.6	100.0(114)	39.7 (23.4)	
대졸	7.0	27.5	14.7	27.6	14.3	8.9	100.0(165)	39.8 (33.0)	
대학원졸 이상	2.6	2.5	7.4	22.1	47.0	18.3	100.0(35)	62.3 (36.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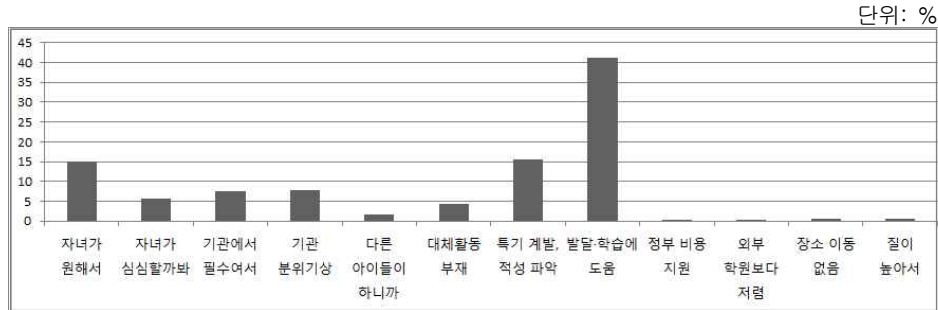
부모들이 2세아를 특별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41.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특기 계발과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15.5%, 자녀가 원해서 14.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의 방침이나 상황 때문에 특별활동에 시킨다는 응답(기관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기관 분위기상, 대체 활동 부재,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을 모두 합하면 21.4%로 나타났다. 정부 비용 지원 때문에, 외부 학원보다 저렴해서, 장소 이동이 없기 때문에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특별활동을 시킨다는 응답은 1% 미만으로 거의 없었다. 또한, 질이 높아서 시킨다는 응답도 0.5%에 불과하였다.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특별활동 참여 이유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학원 졸업 이상인 부모는 자녀가 원해서 참여시킨다는 응답이 50.0%로 다른 부모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특기 계발이나 적성 파악을 위해서, 혹은 기관의 방침이나 상황 때문에 시킨다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다른 학력수준의 부모들이 20%대인 것에 비해 적었다.

〈표 V-1-10〉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가 심심할까 봐	기관에서 필수여서	기관 분위 기상	다른 아이들이 하나 까	대체 활동 부재	특기 계발, 적성 파악	발달 학습 습에 도움	정부 비용 지원	외부 학원 보더 저렴	장소 이동 없음	질이 높아 서	계
전체	14.9	5.6	7.5	7.8	1.7	4.4	15.5	41.1	0.2	0.2	0.6	0.5	100.0(358)
재원기관													
어린이집	15.5	5.0	7.3	7.6	1.5	4.6	14.8	42.2	0.2	0.2	0.6	0.5	100.0(340)
학원	5.6	16.7	11.1	11.1	5.6	0.0	27.8	22.2	0.0	0.0	0.0	0.0	100.0(18)
$\chi^2(df)$	na												
지역													
대도시	13.9	4.5	2.4	14.1	0.8	8.4	22.3	32.4	0.0	0.1	0.5	0.6	100.0(154)
중소도시	16.6	6.1	12.3	1.6	2.7	0.0	10.9	48.1	0.2	0.3	0.7	0.4	100.0(139)
읍·면	9.6	8.7	6.3	11.6	0.8	9.5	6.0	46.2	1.4	0.0	0.0	0.0	100.0(65)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16.3	5.0	8.6	9.4	1.8	6.2	16.0	34.8	0.3	0.2	0.9	0.5	100.0(210)
외벌이	12.5	6.6	5.7	5.1	1.6	1.2	14.6	52.3	0.0	0.2	0.0	0.3	100.0(148)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5.2	6.4	2.0	18.2	2.9	0.0	23.7	41.2	0.4	0.0	0.0	0.0	100.0(45)
265~370만원	12.5	6.5	9.7	2.0	0.7	6.0	10.7	51.9	0.0	0.0	0.0	0.0	100.0(90)
370~480만원	25.4	3.7	2.6	5.2	3.7	1.2	27.9	28.3	0.2	0.4	0.6	0.7	100.0(92)
480만원 이상	13.5	5.9	11.3	8.4	0.6	6.9	7.8	43.5	0.3	0.3	1.0	0.7	100.0(131)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6.6	5.2	7.2	10.7	1.9	1.9	13.2	48.4	0.9	0.0	0.0	4.1	100.0(44)
전문대졸	10.1	4.6	4.9	10.9	0.4	8.5	19.2	39.9	0.1	0.6	0.5	0.3	100.0(114)
대졸	13.4	6.7	10.3	6.1	2.7	2.4	14.9	43.0	0.2	0.0	0.3	0.1	100.0(165)
대학원졸 이상	50.0	3.2	1.8	4.0	0.8	1.8	6.4	29.2	0.0	0.0	2.8	0.0	100.0(35)
$\chi^2(df)$	na												
보조양육자유무													
있음	10.0	5.0	5.0	17.2	1.0	8.1	14.0	37.6	0.1	0.3	0.8	1.0	100.0(112)
없음	17.6	5.9	8.9	2.8	2.1	2.3	16.3	43.0	0.3	0.2	0.5	0.2	100.0(246)
$\chi^2(df)$	na												



[그림 V-1-2]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2세)

2세아 부모에게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학습과 예체능 각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학습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4점 만점에 3.6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재원기관에 따라 학습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이 반일제 이상 학원보다 비용과 교재, 시설 만족도가 높았고 특별활동 만족도 총점도 유의하게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부모가 맞벌이 부모에 비하여 교재와 집단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V-1-11> 학습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2세 부모)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비용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총점
전체	3.7(0.6)	3.7(0.6)	3.6(0.6)	3.7(0.6)	3.7(0.6)	3.6(0.6)	21.8(2.9)
재원기관							
어린이집	3.7(0.6)	3.7(0.5)	3.6(0.6)	3.7(0.6)	3.7(0.6)	3.6(0.6)	21.9(2.8)
학원	2.0(0.7)	3.0(1.0)	3.0(0.7)	3.4(0.9)	3.4(0.5)	3.0(0.7)	17.8(3.2)
<i>F</i>	43.78***	na	4.48*	1.14	1.06	5.92*	10.37**
지역							
대도시	3.7(0.7)	3.7(0.6)	3.5(0.6)	3.7(0.6)	3.6(0.6)	3.5(0.6)	21.7(2.8)
중소도시	3.6(0.6)	3.7(0.5)	3.6(0.6)	3.7(0.5)	3.7(0.5)	3.7(0.5)	22.2(2.7)
읍·면	3.4(0.7)	3.3(0.7)	3.3(0.7)	3.4(0.7)	3.3(0.8)	3.5(0.6)	20.2(3.9)
<i>F</i>	1.40	2.29	2.14	2.00	na	na	2.57
맞벌이여부							
맞벌이	3.6(0.6)	3.6(0.6)	3.4(0.6)	3.6(0.6)	3.6(0.6)	3.6(0.6)	21.4(3.1)
외벌이	3.7(0.7)	3.7(0.5)	3.7(0.5)	3.8(0.5)	3.8(0.5)	3.6(0.5)	22.2(2.7)
<i>t</i>	-0.10	-1.20	-2.59*	-1.80	-2.25*	-0.27	-1.62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3.8(0.6)	3.8(0.5)	3.9(0.4)	3.9(0.4)	3.9(0.4)	3.8(0.4)	23.1(2.2)
265~370만원	3.4(0.8)	3.6(0.6)	3.3(0.6)	3.5(0.6)	3.4(0.7)	3.5(0.7)	20.8(3.2)
370~480만원	3.6(0.6)	3.6(0.6)	3.5(0.6)	3.6(0.6)	3.6(0.5)	3.6(0.5)	21.4(3.3)
480만원 이상	3.8(0.6)	3.7(0.6)	3.5(0.6)	3.7(0.6)	3.6(0.6)	3.5(0.6)	21.7(2.6)
<i>F</i>	na	na	na	na	na	na	na

구분	비용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총점
부모학력							
고졸 이하	3.6(0.9)	3.6(0.9)	3.5(0.9)	3.5(0.9)	3.5(0.9)	3.5(0.9)	21.0(5.3)
전문대졸	3.7(0.5)	3.7(0.6)	3.5(0.5)	3.7(0.6)	3.5(0.6)	3.5(0.6)	21.5(2.6)
대졸	3.6(0.7)	3.6(0.5)	3.5(0.6)	3.7(0.5)	3.7(0.5)	3.6(0.5)	21.8(2.5)
대학원졸 이상	3.8(0.5)	3.8(0.4)	3.8(0.4)	3.8(0.4)	3.8(0.4)	3.8(0.5)	22.9(2.4)
<i>F</i>	na	na	na	na	na	na	na

* $p < .05$, ** $p < .01$, *** $p < .001$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불만족, 3=약간 만족, 4=매우 만족

2세아 부모의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 역시 4점 만점에 모든 항목에서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재원기관별로 다양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비용과 내용, 교재,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반일제 이상 학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만족도 총점 역시 높았다. 외별이 부모가 맞벌이 부모보다 강사, 집단구성,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보조양육자가 없는 부모보다 높았다.

〈표 V-1-12〉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2세 부모)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비용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총점
전체	3.6(0.7)	3.7(0.7)	3.5(0.7)	3.6(0.8)	3.6(0.8)	3.5(0.7)	21.5(4.0)
재원기관							
어린이집	3.7(0.7)	3.7(0.7)	3.6(0.7)	3.6(0.8)	3.6(0.8)	3.5(0.7)	21.7(4.0)
학원	2.8(0.7)	2.9(0.7)	2.8(0.6)	3.2(0.6)	3.3(0.6)	3.2(0.6)	18.2(3.0)
<i>F</i>	26.23***	20.83***	17.66***	4.68*	1.81	3.81	12.43***
지역							
대도시	3.5(0.8)	3.6(0.8)	3.4(0.8)	3.5(0.8)	3.4(1.0)	3.3(0.8)	20.8(4.6)
중소도시	3.7(0.6)	3.8(0.6)	3.7(0.6)	3.6(0.7)	3.7(0.7)	3.7(0.6)	22.2(3.4)
읍·면	3.4(0.7)	3.6(0.6)	3.4(0.8)	3.6(0.6)	3.5(0.7)	3.5(0.7)	21.0(3.5)
<i>F</i>	na	na	na	0.243	na	na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3.6(0.8)	3.6(0.8)	3.5(0.8)	3.5(0.9)	3.5(1.0)	3.5(0.8)	21.1(4.6)
외벌이	3.7(0.6)	3.8(0.5)	3.6(0.6)	3.7(0.5)	3.7(0.6)	3.6(0.6)	22.1(2.8)
<i>t</i>	-1.65	-2.00	-1.44	-2.91*	-3.09**	-1.07	-2.32*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3.7(0.6)	3.8(0.5)	3.7(0.6)	3.8(0.4)	3.4(1.1)	3.6(0.6)	21.9(3.3)
265~370만원	3.6(0.6)	3.7(0.5)	3.6(0.6)	3.7(0.5)	3.7(0.6)	3.6(0.6)	21.9(2.9)
370~480만원	3.3(1.1)	3.4(1.0)	3.3(1.0)	3.4(1.0)	3.3(1.1)	3.3(1.0)	20.0(6.1)
480만원 이상	3.8(0.6)	3.8(0.5)	3.6(0.6)	3.6(0.7)	3.7(0.6)	3.5(0.6)	22.0(2.9)
<i>F</i>	na	na	na	na	na	na	na

구분	비용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총점
부모학력							
고졸 이하	3.6(0.7)	3.7(0.7)	3.5(0.8)	3.6(0.7)	3.6(0.7)	3.5(0.7)	21.6(4.0)
전문대졸	3.4(0.9)	3.5(0.9)	3.4(0.9)	3.5(0.9)	3.3(1.1)	3.4(0.9)	20.5(5.4)
대졸	3.7(0.6)	3.8(0.5)	3.6(0.6)	3.6(0.7)	3.7(0.6)	3.6(0.6)	22.0(2.9)
대학원졸 이상	3.6(0.7)	3.8(0.5)	3.6(0.6)	3.7(0.6)	3.7(0.5)	3.6(0.6)	22.1(3.1)
<i>F</i>	na	na	na	na	na	na	na
보조양육자유무							
있음	3.6(0.7)	3.7(0.6)	3.6(0.6)	3.7(0.6)	3.5(0.9)	3.5(0.6)	21.5(3.5)
없음	3.6(0.8)	3.7(0.7)	3.5(0.8)	3.5(0.8)	3.6(0.8)	3.5(0.8)	21.5(4.3)
<i>t</i>	0.17	0.07	0.17	0.29*	-1.52	-0.58	0.0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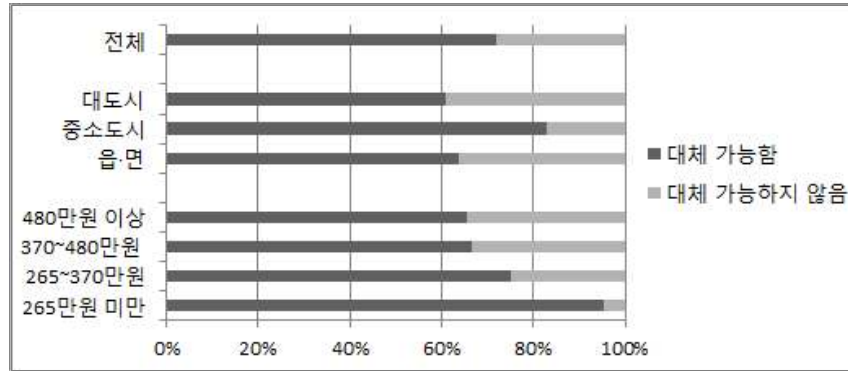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불만족, 3=약간 만족, 4=매우 만족

어린이집에 다니는 2세아 부모에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2세아 부모 중 71.9%는 사교육을 특별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8.1%는 사교육을 특별활동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월평균 가구수입이 적을수록 대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가구 2세아의 부모는 95.3%가 대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표 V-1-13〉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2세 부모)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	$\chi^2(df)$
전체	71.9	28.1	100.0(340)	
지역				
대도시	61.0	39.0	100.0(146)	
중소도시	82.7	17.3	100.0(132)	17.99(2)***
읍·면	63.7	36.3	100.0(62)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95.3	4.7	100.0(43)	
265~370만원	75.1	24.9	100.0(87)	
370~480만원	66.4	33.6	100.0(88)	
480만원 이상	65.3	34.7	100.0(122)	17.74(3)***

*** $p < .001$



[그림 V-1-3]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2세)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특별활동이 발달수준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72.4%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기 때문에(13.2%),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이므로(8.1%), 재능·소질을 계발 할 수 있기 때문에(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14>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계
전체	72.4	13.2	8.1	3.0	3.3	100.0(237)
지역						
대도시	77.0	6.1	13.3	1.6	2.0	100.0(93)
중소도시	71.9	16.7	3.5	4.0	3.9	100.0(95)
읍·면	49.9	22.3	19.7	2.7	5.4	100.0(49)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6	9.2	10.1	4.1	3.0	100.0(146)
외벌이	69.9	21.0	4.2	1.0	3.9	100.0(91)
$\chi^2(df)$			na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82.6	12.5	4.1	0.5	0.3	100.0(34)
265~370만원	68.9	19.8	1.8	8.0	1.4	100.0(62)
370~480만원	71.2	8.6	6.5	2.9	10.7	100.0(62)
480만원 이상	69.6	12.7	14.5	1.8	1.4	100.0(79)
$\chi^2(df)$			na			

구분	발달수준에 맞춘 진행	사교육보다 질 낮지 않음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계
부모학력						
고졸 이하	53.8	25.2	8.1	2.1	10.7	100.0(40)
전문대졸	72.2	9.6	15.6	2.2	0.4	100.0(76)
대졸	74.7	15.1	2.9	4.4	2.8	100.0(102)
대학원졸 이상	79.8	4.7	4.8	0.0	10.7	100.0(19)
$\chi^2(df)$				na		
보조양육자유무						
있음	73.7	8.7	14.7	2.5	0.6	100.0(67)
없음	71.8	15.3	5.1	3.3	4.6	100.0(170)
$\chi^2(df)$				na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부모에게도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부모 선택권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강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서(22.2%), 부모상담이 어렵기 때문에(21.6%)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교구가 불충분하고 사교육보다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0.6%, 2.9%에 불과했다.

〈표 V-1-15〉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 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상담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계
전체	22.2	2.9	38.9	21.6	0.6	13.7	100.0(103)
지역							
대도시	19.0	1.9	34.5	25.1	0.6	18.9	100.0(53)
중소도시	27.2	0.0	43.1	21.2	0.9	7.6	100.0(37)
읍·면	27.0	19.5	53.5	0.0	0.0	0.0	100.0(13)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6	4.1	21.5	26.2	0.8	17.7	100.0(52)
외벌이	12.3	1.4	62.0	15.5	0.5	8.5	100.0(51)
$\chi^2(df)$				na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4.7	0.0	64.6	10.7	0.0	0.0	100.0(9)
265~370만원	17.8	0.0	47.4	23.6	0.0	11.2	100.0(25)
370~480만원	40.1	6.2	40.0	9.3	0.0	4.4	100.0(26)
480만원 이상	13.6	2.3	34.2	28.3	1.3	20.4	100.0(43)
$\chi^2(df)$				na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보 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상담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계
부모학력							
고졸 이하	6.9	0.0	93.1	0.0	0.0	0.0	100.0(4)
전문대졸	46.9	2.0	32.1	19.0	0.0	0.0	100.0(35)
대졸	9.8	3.8	39.7	23.7	0.7	22.2	100.0(53)
대학원졸 이상	36.7	0.0	37.4	22.6	3.3	0.0	100.0(11)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9.4	1.7	18.7	43.1	0.8	26.3	100.0(31)
없음	28.7	3.6	49.1	10.7	0.6	7.4	100.0(72)
$\chi^2(df)$	na						

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특성¹⁸⁾

설문 대상 2세아가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30.3%가 체육 프로그램이었고, 음악과 영어도 각각 24.2%, 영어 21.9%로 비교적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밖에 미술과 과학·창의프로그램이 8.9%, 국어 2.6%로 나타났다.

〈표 V-1-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2세 교사)

N = 851

유형	비율(사례수)	유형	비율(사례수)
음악	24.2(206)	과학·창의	8.9(76)
미술	8.9(76)	국어	2.6(22)
체육	30.3(258)	영어	21.9(186)
무용	0.6(5)	기타외국어	0.1(1)
수학	0.6(5)	기타	1.9(16)
계		100.0(851)	

18) 모든 조사 대상 영유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을 종합한 결과임.



[그림 V-1-4]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2세)

2세 교사가 응답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의 학력은 대졸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25.7%로 높은 편이었다.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예체능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대 졸업이 학습 프로그램보다 많은 편이었다.

<표 V-1-17>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학력(2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모름	계
전체	0.5	10.5	61.0	2.4	25.7	100.0(851)
대분류						
예체능	0.4	12.3	60.7	2.6	24.0	100.0(545)
학습	0.7	7.2	61.0	1.7	29.3	100.0(290)
$\chi^2(df)$			7.63(5)			
소분류						
음악	0.0	11.2	61.7	3.4	23.8	100.0(206)
미술	0.0	7.9	67.1	2.6	22.4	100.0 (76)
체육	0.8	14.7	57.4	1.9	25.2	100.0(258)
무용	0.0	0.0	100.0	0.0	0.0	100.0(5)
수학	0.0	0.0	40.0	0.0	60.0	100.0(5)
과학·창의	1.3	15.8	50.0	2.6	30.3	100.0(76)
국어	4.5	9.1	50.0	0.0	36.4	100.0(22)
영어	0.0	3.8	67.2	1.6	27.4	100.0(186)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0.0	100.0(1)
기타	0.0	6.3	68.8	6.3	18.8	10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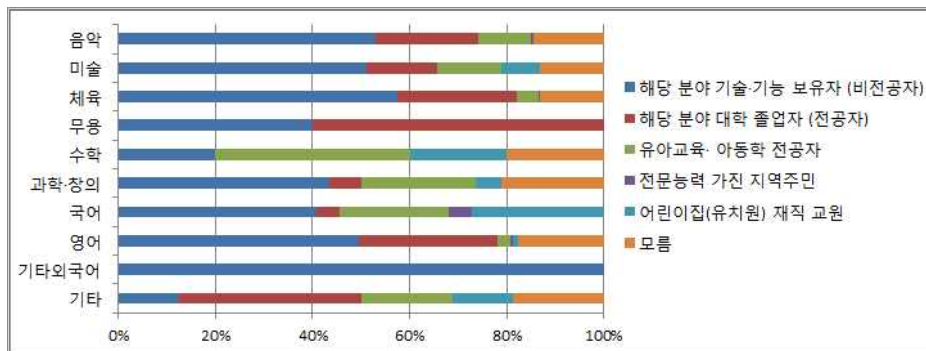
2세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의 강사는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인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인 경우가 22.0%였다. 강사가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교사가 모르는 경우가 14.9%였고 8.9%는 유아교육·아동학 전공자로 나타났다. 학습 프로그램보다 예체능 프로그램 강사의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 비율이 높았으며, 강사의 전문성을 모른다는 비율은 예체능보다 학습 프로그램이 높았다. 세부 프로그램별로는 수학의 경우 유아교육·아동학 전공자 비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V-1-18〉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2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 (비전공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전공자)	유아교육· 아동학 전공자	전문능력 가진 지역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재직 교원	모름	계
전체	51.2	22.0	8.9	0.5	2.5	14.9	100.0(851)
대분류							
예체능	54.7	22.4	7.9	0.4	1.1	13.6	100.0(545)
학습	46.9	20.3	10.3	0.7	4.5	17.2	100.0(290)
$\chi^2(df)$							15.51(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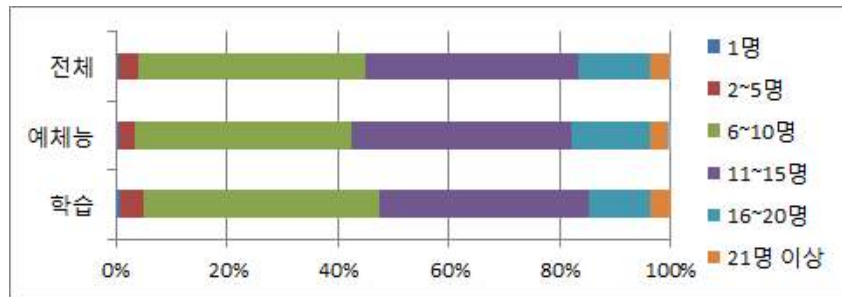
[그림 V-1-5]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2세)

2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반 규모는 6~10명인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11~15명 38.5%, 16~20명 12.9%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과 학습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V-1-19〉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2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1명	2~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모름	계
전체	0.7	3.5	40.7	38.5	12.9	3.4	0.2	100.0(851)
대분류								
예체능	0.6	2.9	38.9	39.8	14.3	3.1	0.4	100.0(545)
학습	1.0	4.1	42.4	37.6	11.0	3.8	0.0	100.0(290)
$\chi^2(df)$	na							
소분류								
음악	0.5	1.9	38.3	43.7	13.6	1.5	0.5	100.0(206)
미술	0.0	3.9	46.1	31.6	15.8	2.6	0.0	100.0(76)
체육	0.8	2.7	37.2	39.5	14.7	4.7	0.4	100.0(258)
무용	0.0	40.0	40.0	20.0	0.0	0.0	0.0	100.0(5)
수학	0.0	0.0	60.0	40.0	0.0	0.0	0.0	100.0(5)
과학·창의	1.3	3.9	48.7	31.6	11.8	2.6	0.0	100.0(76)
국어	0.0	22.7	36.4	27.3	9.1	4.5	0.0	100.0(22)
영어	1.1	2.2	39.8	41.4	11.3	4.3	0.0	100.0(186)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0.0	0.0	0.0	100.0(1)
기타	0.0	12.5	68.8	12.5	0.0	6.3	0.0	100.0(16)



[그림 V-1-6]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2세)

2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연령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일연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75.1%, 혼합연령이 24.9%였다. 예체능과 학습은 차이가 나타나, 학습 프로그램이 예체능보다 단일연령으로 구성되는 비율이 8%정도 높았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체육과 국어의 혼합연령 비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V-1-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연령 구성(2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단일연령	혼합연령	계
전체	75.1	24.9	100.0 (851)
대분류			
예체능	71.9	28.1	100.0 (545)
학습	80.0	20.0	100.0 (290)
$\chi^2(df)$		6.53(1) ^{***}	
소분류			
음악	77.2	22.8	100.0 (206)
미술	72.4	27.6	100.0 (76)
체육	67.4	32.6	100.0 (258)
무용	80.0	20.0	100.0 (5)
수학	80.0	20.0	100.0 (5)
과학·창의	76.3	23.7	100.0 (76)
국어	68.2	31.8	100.0 (22)
영어	83.3	16.7	100.0 (186)
기타외국어	0.0	100.0	100.0 (1)
기타	93.8	6.3	100.0 (16)

* $p < .05$

2세아의 특별활동은 교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88.5%로 가장 많았고, 학습지나 워크북, 책을 이용하는 경우도 각각 20% 이상이었다. 예체능은 교구 이용이 많고, 학습은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모두 고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1〉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재·교구(2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없음
전체	23.3	21.3	88.5	4.3
대분류				
예체능	6.8	7.2	92.7	5.9
학습	53.8	44.8	80.3	1.7
소분류				
음악	9.2	11.2	94.2	4.4
미술	19.7	18.4	89.5	5.3
체육	0.8	0.4	93.4	6.2
무용	20.0	20.0	40.0	60.0
수학	60.0	0.0	60.0	0.0
과학·창의	26.3	18.4	97.4	1.3
국어	54.5	40.9	54.5	0.0
영어	64.5	57.5	76.9	2.2
기타외국어	100.0	0.0	100.0	0.0
기타	31.3	75.0	93.8	0.0

주: 복수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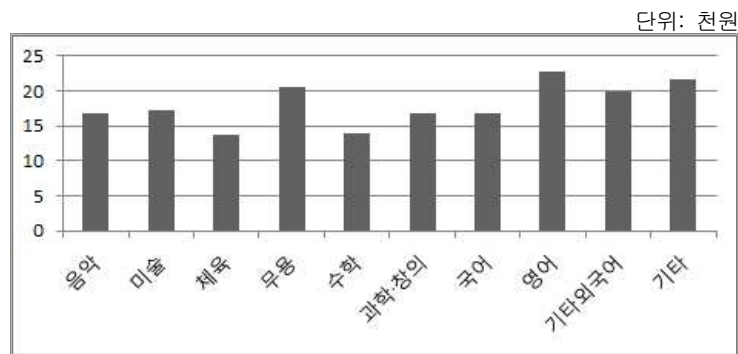
2세아 교사에게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1인당 월 소요비용을 질문한 결과, 2세아 1인당 월 소요비용은 평균 17,300원이었고, 이 가운데 학부모 부담비용은 수강료 14,600원, 교재교구비용 1,900원이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1인당 총 비용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학습이 약 20,600원, 예체능 15,500원으로 학습이 더 고가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비용도 예체능보다 학습이 더 많았다.

〈표 V-1-2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 소요 비용(2세 교사)

단위: 천원, %(표준편차)

구분	영유아 1인당 총 비용	학부모 부담 비용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합
전체	17.3(11.3)	14.6(9.5)	1.9(5.2)	16.6(10.7)
대분류				
예체능	15.5(10.1)	13.6(8.0)	1.1(3.9)	14.7(8.8)
학습	20.6(12.8)	16.4(11.5)	3.4(6.7)	19.8(12.8)
<i>t</i>	-5.93 ^{***}	-3.78 ^{***}	-5.49 ^{***}	-6.18 ^{***}
소분류				
음악	16.8(10.6)	14.6(8.8)	1.3(4.5)	15.8(9.9)
미술	17.3(11.6)	14.5(8.5)	2.2(4.9)	16.7(8.9)
체육	13.7(8.8)	12.5(7.1)	0.6(3)	13.1(7.6)
무용	20.6(12.5)	13.8(6.7)	0.0(0.0)	13.8(6.7)
수학	14.0(4.2)	11.0(7.4)	3.0(6.7)	14.0(4.2)
과학·창의	16.9(7.8)	14.0(7.6)	2.1(4.6)	16.1(8.3)
국어	16.8(11.8)	11.8(12.4)	5.2(10.2)	17.0(12.1)
영어	22.7(14.2)	18.1(12.4)	3.8(6.8)	21.9(14.1)
기타외국어	20.0(0.0)	20.0(0.0)	0.0(0.0)	20.0(0.0)
기타	21.6(9.0)	18.5(11.3)	3.8(7.9)	22.3(8.9)

*** $p < .001$



[그림 V-1-7] 특별활동 프로그램 1인당 총 비용(2세)

교사에게 2세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개설 이유를 질문하였다. 학부모 요구에 의해 개설했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원장의 철학에 의해(24.9%),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12.2%)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과 학습의 개설 이유는 유사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어와 기타 프로그램은 원장 철학에 의해 개설하였다는 응답은 10%대에 불과하였고, 학부모 요구에 의해 개설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66.7%, 75%로 나타났다.

〈표 V-1-23〉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설 이유(2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학부모 요구	원장 철학	기관 운영에 도움	타 기관의 추천	기타	아이들이 원해서	계
전체	57.3	24.9	12.2	1.3	3.5	0.7	100.0(851)
대분류							
예체능	56.7	25.7	12.3	0.9	3.9	0.6	100.0(545)
학습	57.6	23.8	12.4	2.1	3.1	1.0	100.0(290)
$\chi^2(df)$							na
소분류							
음악	53.9	26.7	14.1	1.0	3.4	1.0	100.0(206)
미술	64.5	25.0	6.6	0.0	3.9	0.0	100.0(76)
체육	57.4	24.8	12.8	1.2	3.5	0.4	100.0(258)
무용	20.0	40.0	0.0	0.0	40.0	0.0	100.0(5)
수학	20.0	40.0	20.0	0.0	20.0	0.0	100.0(5)
과학·창의	44.7	34.2	7.9	5.3	3.9	3.9	100.0(76)
국어	36.4	36.4	22.7	0.0	4.5	0.0	100.0(22)
영어	66.7	17.7	12.4	1.1	2.2	0.0	100.0(186)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0.0	0.0	100.0(1)
기타	75.0	18.8	6.3	0.0	0.0	0.0	100.0(16)

각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2세아의 흥미 정도를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대부분인 99.3%가 흥미 있어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4점 만점에 평균 3.9점으로 교사들은 2세아가 특별활동에 꽤 흥미 있어 한다고 인식하였다.

예체능과 학습을 비교하면, 학습보다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2세아의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사례 수는 적었으나 무용의 흥미 점수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았다.

〈표 V-1-24〉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영유아의 흥미(2세 교사)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전혀 흥미 없음	별로 흥미 없음	약간 있음	흥미 매우 있음	계	점수	
						평균	F
전체	0.2	0.5	12.1	87.2	100.0(851)	3.9(0.4)	
대분류							
예체능	0.0	0.6	9.2	90.3	100.0(545)	3.9(0.3)	3.32**
학습	0.7	0.3	17.6	81.4	100.0(290)	3.8(0.5)	
소분류							
음악	0.0	0.5	11.7	87.9	100.0(206)	3.9(0.3)	na
미술	0.0	0.0	11.8	88.2	100.0 (76)	3.9(0.3)	
체육	0.0	0.4	6.2	93.4	100.0(258)	3.9(0.3)	
무용	0.0	20.0	20.0	60.0	100.0(5)	3.4(0.9)	
수학	0.0	0.0	0.0	100.0	100.0(5)	4.0(0.0)	
과학·창의	0.0	0.0	10.5	89.5	100.0(76)	3.9(0.3)	
국어	0.0	0.0	22.7	77.3	100.0(22)	3.8(0.4)	
영어	1.1	0.5	19.9	78.5	100.0(186)	3.8(0.5)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100.0(1)	3.0(0.0)	
기타	0.0	0.0	12.5	87.5	100.0(16)	3.9(0.3)	

** $p < .01$

각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2세아 발달에 적절한지를 질문하였다. 매우 적절함 67.3%, 비교적 적절함 30.9%였고, 4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교사들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습보다 예체능 프로그램이 발달 적절성 점수가 더 높았다.

〈표 V-1-25〉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2세 교사)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매우 부적절함	다소 부적절함	비교적 적절함	매우 적절함	계	점수	
						평균	F
전체	0.6	1.2	30.9	67.3	100.0(851)	3.6(0.5)	
대분류							
예체능	0.2	0.9	23.1	75.8	100.0(545)	3.7(0.5)	6.75***
학습	1.4	1.7	45.5	51.4	100.0(290)	3.5(0.6)	
소분류							
음악	0.5	1.0	24.3	74.3	100.0(206)	3.7(0.5)	na
미술	0.0	1.3	31.6	67.1	100.0 (76)	3.7(0.5)	
체육	0.0	0.4	19.8	79.8	100.0(258)	3.8(0.4)	
무용	0.0	20.0	20.0	60.0	100.0(5)	3.4(0.9)	
수학	0.0	0.0	20.0	80.0	100.0(5)	3.8(0.4)	
과학·창의	0.0	2.6	28.9	68.4	100.0(76)	3.7(0.5)	
국어	0.0	0.0	54.5	45.5	100.0(22)	3.5(0.5)	

구분	매우 부적절함	다소 부적절함	비교적 적절함	매우 적절함	계	점수	
						평균	F
영어	2.2	1.6	51.6	44.6	100.0(186)	3.4(0.6)	
기타외국어	0.0	0.0	100.0	0.0	100.0(1)	3.0(0.0)	
기타	0.0	0.0	31.3	68.8	100.0(16)	3.7(0.5)	

*** $p < .001$

2. 5세의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실태 및 인식

가. 기관의 특별활동 운영 현황

5세아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인 96.9%의 기관이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3.1%만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차이검증이 적절치 않았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 기관의 특별활동 운영 여부(5세 교사)

구분	운영함	안함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96.9	3.1	100.0 (601)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97.6	2.4	100.0 (86)	na
민간어린이집	97.5	2.5	100.0 (100)	
가정어린이집	55.6	44.4	100.0 (5)	
법인·직장어린이집	98.9	1.1	100.0 (110)	
국공립유치원	97.1	2.9	100.0 (189)	
사립유치원	94.5	5.5	100.0 (111)	

기관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은 평균 5.3가지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과학·창의와 영어 프로그램이 각각 평균 1.5가지, 음악, 미술, 체육, 국어 프로그램 각각 1.4가지, 무용 프로그램 1.3가지, 수학 프로그램 1.2가지가 운영 중이었다.

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치원보다(4.7가지) 어린이집(5.9가지)이 특별활동 가짓수가 많았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유치원보다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차이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수치상 민간어린이집이 6.2가지로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2.6가지로 가장 적었다. 국공립유치원도 3.7가지로 특별활동 운영수가 적은 편이었다.

〈표 V-2-2〉 기관 전체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5세 교사)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총합
전체	1.4 (0.8)	1.4 (0.9)	1.4 (1.0)	1.3 (0.7)	1.2 (0.5)	1.5 (1.1)	1.4 (0.8)	1.5 (1.0)	1.0 (0.0)	1.0 (1.0)	5.3 (3.6)
기관											
어린이집	1.5 (1.0)	1.6 (1.3)	1.7 (1.2)	1.5 (0.9)	1.3 (0.6)	1.8 (1.5)	1.7 (1.1)	1.6 (1.2)	1.0 (0.0)	1.0 (1.0)	5.9 (4.2)
유치원	1.3 (0.6)	1.3 (0.6)	1.2 (0.6)	1.1 (0.5)	1.1 (0.4)	1.2 (0.6)	1.2 (0.6)	1.2 (0.7)	1.0 (0.0)	1.0 (1.0)	4.7 (2.7)
<i>t</i>	2.66**	2.26*	5.27***	1.99	1.56	3.53***	2.46**	5.11***	na	na	4.19**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1.7 (1.1)	1.4 (0.7)	1.7 (1.4)	0.0 (0.0)	1.4 (0.7)	1.3 (1.0)	1.2 (0.4)	1.6 (1.3)	1.0 (0.0)	0.0 (0.0)	5.5 (3.7)
민간어린이집	1.5 (1.2)	1.3 (0.7)	1.6 (1.2)	1.4 (0.9)	1.5 (1.1)	1.5 (1.5)	1.7 (1.4)	1.6 (1.2)	1.0 (0.0)	0.0 (0.0)	6.2 (4.9)
가정어린이집	1.0 (0.0)	1.0 (0.0)	1.0 (0.0)	0.0 (0.0)	1.0 (0.0)	1.0 (0.0)	1.0 (0.0)	1.0 (0.0)	0.0 (0.0)	0.0 (0.0)	2.6 (3.1)
법인·직장어린이집	1.4 (0.9)	1.6 (1.4)	1.7 (1.2)	1.6 (0.9)	1.2 (0.4)	2.0 (1.6)	1.8 (1.2)	1.7 (1.1)	0.0 (0.0)	1.0 (1.0)	6.0 (4.2)
국공립유치원	1.2 (0.5)	1.1 (0.5)	1.1 (0.4)	1.1 (0.5)	1.1 (0.3)	1.1 (0.3)	1.1 (0.3)	1.1 (0.3)	1.0 (0.0)	0.0 (0.0)	3.7 (1.8)
사립유치원	1.4 (0.7)	1.4 (0.7)	1.4 (0.8)	1.1 (0.4)	1.2 (0.4)	1.4 (0.7)	1.3 (0.7)	1.3 (0.8)	1.0 (0.0)	1.0 (1.0)	5.7 (3.1)
<i>F</i>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지역											
대도시	1.3 (0.7)	1.3 (0.7)	1.5 (0.8)	1.1 (0.4)	1.2 (0.4)	1.4 (0.9)	1.3 (0.7)	1.3 (0.9)	1.0 (0.0)	1.0 (1.0)	5.2 (3.0)
중소도시	1.5 (0.9)	1.5 (1.2)	1.5 (1.2)	1.6 (0.9)	1.3 (0.6)	1.6 (1.3)	1.5 (1.0)	1.7 (1.1)	1.0 (0.0)	1.0 (1.0)	5.5 (4.1)
읍면	1.2 (0.5)	1.2 (0.4)	1.2 (0.5)	1.1 (0.5)	1.1 (0.3)	1.3 (0.6)	1.2 (0.4)	1.1 (0.5)	1.0 (0.0)	0.0 (0.0)	4.5 (2.3)
<i>F</i>	na	na	na	na	na	0.99	na	na	na	na	na

*** $p < .05$, ** $p < .01$, *** $p < .001$

기관에서 운영하는 5세 대상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총 3.9가지이고 유형별로는 체육, 수학, 과학·창의, 영어가 각각 1.1가지로 많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 중이었고, 설립유형별로는 차이검증이 적절치 않으나 수
치상 사립유치원이 4.7가지로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이 2.6가지로 가장 적었다.

〈표 V-2-3〉 기관의 5세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가짓수(5세 교사)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 ·창의	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기타	총합
전체	1.0 (0.5)	0.9 (0.8)	1.1 (0.7)	1.0 (0.7)	1.1 (0.3)	1.1 (0.8)	1.0 (0.4)	1.1 (0.5)	1.0 (0.0)	1.0 (0.0)	3.9 (2.3)
기관											
어린이집	1.0 (0.6)	0.9 (1.1)	1.1 (0.9)	1.1 (1.1)	1.0 (0.3)	1.2 (1.1)	1.0 (0.4)	1.1 (0.6)	1.0 (0.0)	1.0 (0.0)	3.9 (2.5)
유치원	1.1 (0.4)	1.0 (0.4)	1.1 (0.4)	0.9 (0.4)	1.1 (0.3)	1.1 (0.4)	1.1 (0.4)	1.0 (0.3)	1.0 (0.0)	1.0 (0.0)	4.0 (2.0)
<i>t</i>	-0.68	-1.21	-0.10	1.11	-1.46	0.70	-1.23	2.11	na	na	-0.61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1.2 (0.9)	0.9 (0.5)	1.2 (1.0)	0.0 (0.0)	0.9 (0.3)	1.0 (0.2)	0.9 (0.4)	1.1 (0.6)	1.0 (0.0)	0.0 (0.0)	3.9 (2.1)
민간어린이집	1.1 (0.4)	1.1 (0.6)	1.2 (0.7)	0.8 (0.4)	1.2 (0.8)	1.0 (0.3)	1.1 (0.8)	1.1 (0.6)	1.0 (0.0)	0.0 (0.0)	4.4 (2.5)
가정어린이집	1.0 (0.0)	1.0 (0.0)	1.0 (0.0)	0.0 (0.0)	1.0 (0.0)	1.0 (0.0)	1.0 (0.0)	1.0 (0.0)	0.0 (0.0)	0.0 (0.0)	2.6 (3.1)
법인·직장어린이집	1.0 (0.5)	0.8 (1.2)	1.0 (0.9)	1.2 (1.2)	1.0 (0.1)	1.3 (1.4)	1.0 (0.0)	1.1 (0.5)	0.0 (0.0)	1.0 (0.0)	3.8 (2.6)
국공립유치원	1.0 (0.3)	1.0 (0.3)	1.0 (0.2)	1.0 (0.0)	1.1 (0.3)	1.0 (0.1)	1.0 (0.3)	1.0 (0.2)	1.0 (0.0)	0.0 (0.0)	3.4 (1.4)
사립유치원	1.1 (0.5)	1.0 (0.4)	1.2 (0.6)	0.9 (0.4)	1.1 (0.3)	1.2 (0.6)	1.2 (0.4)	1.1 (0.4)	1.0 (0.0)	1.0 (0.0)	4.7 (2.4)
<i>F</i>	na	0.63	na	na	na	na	na	na	na	na	na
지역											
대도시	1.0 (0.6)	0.8 (0.5)	1.1 (0.6)	0.8 (0.4)	1.0 (0.2)	1.1 (0.3)	1.1 (0.5)	1.0 (0.4)	1.0 (0.0)	1.0 (0.0)	3.9 (2.0)
중소도시	1.1 (0.5)	1.0 (1.0)	1.1 (0.8)	1.3 (1.0)	1.1 (0.4)	1.2 (1.1)	1.0 (0.3)	1.2 (0.5)	1.0 (0.0)	1.0 (0.0)	3.9 (2.5)
읍면	1.1 (0.4)	1.0 (0.2)	1.0 (0.3)	1.0 (0.2)	1.0 (0.2)	1.2 (0.5)	1.0 (0.3)	1.0 (0.1)	1.0 (0.0)	0.0 (0.0)	4.0 (2.1)
<i>F</i>	1.71	na	na	na	0.06	na	na	na	na	na	0.01

5세아가 다니는 기관의 특별활동 참여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23.2%, 희망 유아만 참여
하는 경우는 76.8%로, 2세 기관(11.9%)보다 필수인 경우가 많았다.

5세아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참여 방식을 비교하면, 유치원에서는 필

수로 참여해야하는 경우가 33.1%인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13.6%만이 필수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다. 즉,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필수참여 여부는 2세와 5세 모두 1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참여 방식은 설립유형과 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필수 참여가 30%를 넘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9.5%로 10% 미만이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33.5% 가장 높았다.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한 학급의 유아가 모두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88.8%)이었고, 희망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1.2%였다. 운영 방식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이를 보였는데, 동일 활동 참여 비율이 어린이집 93.6%로 유치원 83.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특별활동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집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각 유아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희망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한다는 비율이 16.4%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표 V-2-4〉 기관의 특별활동 참여 방식(5세 교사)

단위: %(명)

구분	필수 참여 여부			운영 방식		
	필수 참여	희망 유아만	계	동일 활동 참여	희망 활동 선택 참여	계
전체	23.2	76.8	100.0(577)	88.8	11.2	100.0(577)
기관						
어린이집	13.6	86.4	100.0(290)	93.6	6.4	100.0(290)
유치원	33.1	66.9	100.0(287)	83.9	16.1	100.0(287)
$\chi^2(df)$		30.91(1)**			13.48(1)**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9.5	90.5	100.0(84)	96.9	3.1	100.0(84)
민간어린이집	13.1	86.9	100.0(98)	91.6	8.4	100.0(98)
가정어린이집	20.0	80.0	100.0(3)	100.0	0.0	100.0(3)
법인·직장어린이집	14.8	85.2	100.0(105)	92.9	7.1	100.0(105)
국공립유치원	32.0	68.0	100.0(182)	98.0	2.0	100.0(182)
사립유치원	34.2	65.8	100.0(105)	68.0	32.0	100.0(105)
$\chi^2(df)$		31.88(5)**			na	
지역						
대도시	20.7	79.3	100.0(198)	83.6	16.4	100.0(198)
중소도시	21.8	78.2	100.0(261)	91.4	8.6	100.0(261)
읍면	33.5	66.5	100.0(118)	91.2	8.8	100.0(118)
$\chi^2(df)$		6.08(2)*			7.56(2)*	

* $p < .05$, ** $p < .001$

나.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인식

교사에게 설문 대상인 5세아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질문하였다. 해당 5세아의 특별활동 이용률은 91.4%로 나타났고, 참여하는 경우 평균 3.4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아의 특별활동 참여 여부와 가짓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별활동 참여여부는 어린이집이 96.7%로 유치원 86.0%보다 높았고, 참여하는 가짓수는 유치원이 3.5가지로 어린이집 3.3가지보다 많았다. 설립유형이나 지역별로는 차이검증이 적절치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5〉 특별활동 참여 여부 및 가짓수(5세 교사)

구분	참여 여부			$\chi^2(df)$	가짓수*	
	참여함	안함	계		평균	FA
전체	91.4	8.6	100.0 (601)		3.4(1.3)	
기관				21.67(1)***		-2.08*
어린이집	96.7	3.3	100.0 (301)		3.3(1.2)	
유치원	86.0	14.0	100.0 (300)		3.5(1.5)	
설립유형				na		na
국공립어린이집	93.8	6.2	100.0 (86)		3.4(1.1)	
민간어린이집	96.4	3.6	100.0 (100)		3.6(1.4)	
가정어린이집	55.6	44.4	100.0 (5)		2.6(3.1)	
법인·직장어린이집	98.2	1.8	100.0 (110)		3.2(1.1)	
국공립유치원	89.1	10.9	100.0 (189)		3.3(1.3)	
사립유치원	82.6	17.4	100.0 (111)		3.7(1.7)	
지역				3.01(2)		na
대도시	88.9	11.1	100.0 (209)		3.4(1.3)	
중소도시	93.3	6.7	100.0 (267)		3.2(1.1)	
읍면	90.1	9.9	100.0 (125)		3.8(1.8)	

* $p < .05$, *** $p < .001$

주: * 한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가짓수를 의미함.

5세아는 평균 3.4가지의 특별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4.4회 참여하고, 특별활동은 회당 32.2분씩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주당 횟수가 많았으며, 회당 시간은 짧았다. 회당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치원 34.8분, 어린이집 29.9분이었다.

차이검증이 적절치 않으나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이 주당 5회 이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고,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은 각각 3.8회, 3.5회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주당 횟수가 적은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이 회당 시간은 35분 이상으로 가장 길었다.

〈표 V-2-6〉 특별활동 주당 횟수 및 회당 시간(5세 교사)

단위: 회, 분(표준편차)

구분	주당 횟수*		회당 시간**	
	평균	F/t	평균	F/t
전체	4.4(2.2)		32.2(7.9)	
기관				
어린이집	4.5(1.8)	1.30	29.9(6.2)	-7.39***
유치원	4.3(2.6)		34.8(8.8)	
설립유형				
국공립어린이집	4.6(1.5)	na	29.4(6.4)	na
민간어린이집	5.2(2.9)		29.9(6.9)	
가정어린이집	3.8(6.2)		35.6(8.5)	
법인·직장어린이집	4.5(1.7)		30.0(6.1)	
국공립유치원	3.5(1.4)		35.9(7.0)	
사립유치원	5.2(3.2)		33.4(10.4)	
지역				
대도시	4.6(1.7)	na	32.0(8.9)	na
중소도시	4.2(2.1)		31.9(7.2)	
읍면	4.8(3.4)		33.5(7.9)	

*** $p < .001$

주: * 해당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주당 평균 횟수를 의미함.

** 해당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회당 평균 시간을 의미함.

부모가 응답한 5세 자녀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참여율은 90.6%였으며, 참여하는 특별활동 유형은 학습과 예체능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65.4%로 가장 높고, 예체능만 하는 경우 28.8%, 학습만 하는 경우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참여 여부는 재원기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재원 5세아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96.7%로 유치원이나 학원에 비하여 높았고, 외벌이 보다 맞벌이 가구 5세아가 특별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5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유형은 재원기관과 지역, 맞벌이 여부, 부모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원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아는 학습과 예체능 특별활동 모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는 학습 관련 프로그램만, 혹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읍·면지역의 5세아는 학습 관련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5세아는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비율이 외벌이보다 높았다. 부모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이상 부모의 5세아는 학습과 예체능 모두 참여하는 비율이 81.4%로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 부모의 5세아는 학습 관련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비율이 12.2%로 다른 5세아보다 높았다.

〈표 V-2-7〉 특별활동 참여 여부(5세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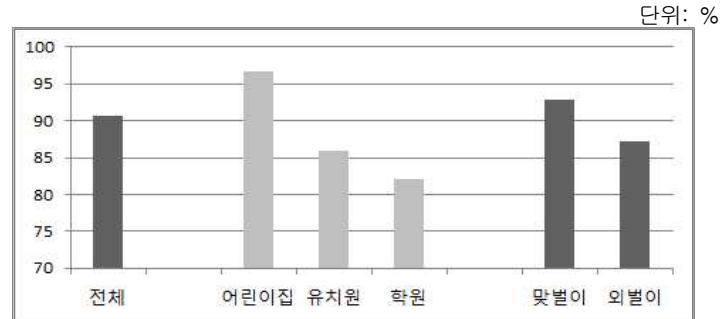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참여 여부			(참여하는 경우) 유형		
	참여함	안함	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모두
전체	90.6	9.4	100.0(657)	5.8	28.8	65.4
재원기관						
어린이집	96.7	3.3	100.0(301)	4.7	29.7	65.6
유치원	86.0	14.0	100.0(300)	5.3	26.3	68.3
학원	82.1	17.9	100.0(56)	15.2	37.0	47.8
$\chi^2(df)$	25.12(2)***			11.69(4)*		
지역						
대도시	88.3	11.7	100.0(246)	4.6	25.1	70.3
중소도시	92.0	8.0	100.0(292)	7.8	30.6	61.7
읍·면	91.3	8.7	100.0(119)	0.0	32.4	67.6
$\chi^2(df)$	2.56(2)			9.94(4)*		
맞벌이여부						
맞벌이	92.9	7.1	100.0(383)	4.6	32.5	63.0
외벌이	87.2	12.8	100.0(274)	7.6	23.1	69.2
$\chi^2(df)$	5.72(1)*			7.38(2)*		
부모학력						
고졸 이하	89.7	10.3	100.0(101)	12.2	26.1	61.7
전문대졸	91.9	8.1	100.0(170)	8.8	32.3	58.9
대졸	90.3	9.7	100.0(306)	3.4	30.3	66.3
대학원졸 이상	89.9	10.1	100.0(80)	1.5	17.1	81.4
$\chi^2(df)$	0.47(3)			20.92(6)**		

* $p < .05$, ** $p < .01$, *** $p < .001$

주: * 수, 과학, 창의, 언어 등 관련 활동

** 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활동



[그림 V-1-8] 특별활동 참여율(5세)

5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평균 3.6가지이다. 학습 관련 프로그램은 평균 2.0가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은 평균 2.3가지로 나타났다.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의 경우 재원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반일제 이상 학원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가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V-2-8〉 특별활동 가짓수(5세 부모)

단위: 가지(표준편차)

구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총계	
	평균	F/t	평균	F/t	평균	F/t
전체	2.0(1.0)		2.3(1.0)		3.6(1.7)	
재원기관						
어린이집	1.8(0.9)		2.3 ^b (0.9)		3.4(1.5)	
유치원	2.1(1.0)	na	2.5 ^b (1.0)	7.32 ^{***}	3.9(1.7)	na
학원	2.7(1.3)		1.9 ^a (1.1)		3.3(2.1)	
지역						
대도시	2.0(1.1)		2.3(1.0)		3.7(1.8)	
중소도시	1.9(0.9)	1.59	2.4(1.0)	0.71	3.5(1.5)	na
읍·면	2.2(1.1)		2.4(1.0)		3.9(1.9)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1.8(0.8)		2.5(1.1)		3.7(1.6)	
265~370만원	2.1(1.1)		2.4(0.8)		3.8(1.7)	
370~480만원	2.1(1.0)	na	2.3(1.0)	na	3.6(1.9)	na
480만원 이상	1.9(1.0)		2.2(1.0)		3.5(1.4)	

*** $p < .001$

주: 1)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례의 평균임.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부모가 응답한 5세아 특별활동 비용은 월 평균 3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당 비용이 아닌, 가정에서 한 달에 특별활동비로 납부하는 총 비용이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만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29.2%였고, 2~4만원 23.7%, 4~6만원 19.2%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검증이 적절치 않으나 수치상 어린이집과 학원은 특별활동 비용이 5만원 수준이나 유치원은 2만2천원으로 낮았다. 특히 어린이집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3.9%에 불과하였으나, 유치원과 만일제 이상 학원은 40~50%에 달했다.

특별활동 월 평균 비용은 지역규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가 월평균 4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소도시는 3만 5천원, 읍·면지역 2만 3천원 순이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3만 4천원, 맞벌이 4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5세아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월 평균 특별활동 비용(5세 부모)

단위: %(명), 천원(표준편차)

구분	0원	2만원 미만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이상	계	평균	
								천원	t/F
전체	29.2	4.1	23.7	19.2	12.5	11.3	100.0(588)	37.7(38.2)	
재원기관									
어린이집	3.9	2.3	32.8	28.3	21.1	11.7	100.0(283)	49.8(28.0)	
유치원	54.8	6.6	17.0	10.5	3.8	7.4	100.0(259)	22.1(37.7)	na
학원	45.7	2.2	4.3	10.9	6.5	30.4	100.0(46)	49.0(60.6)	
지역									
대도시	19.4	2.8	19.8	25.4	16.7	15.9	100.0(216)	47.3 ^c (39.5)	
중소도시	29.1	5.4	28.6	17.0	10.7	9.3	100.0(264)	34.5 ^b (35.1)	21.97 ^{***}
읍·면	60.9	2.5	13.0	10.0	7.4	6.2	100.0(108)	22.6 ^a (4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7	4.2	19.1	22.8	12.8	13.4	100.0(352)	40.1(39.3)	2.46 [*]
외벌이	31.5	4.0	30.9	13.7	12.0	7.9	100.0(236)	34.0(36.3)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19.8	3.3	39.5	15.9	16.4	5.0	100.0(76)	37.0(29.3)	na
265~370만원	40.2	2.4	21.6	16.4	8.1	11.3	100.0(133)	31.1(34.2)	
370~480만원	24.0	2.9	17.3	19.0	23.5	13.4	100.0(147)	46.5(41.7)	
480만원 이상	30.3	6.3	22.7	22.2	6.2	12.4	100.0(232)	35.9(40.2)	

* $p < .05$,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 c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부모가 5세아를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28.7%), 자녀가 원해서(27.7%), 특기 계발·적성을 파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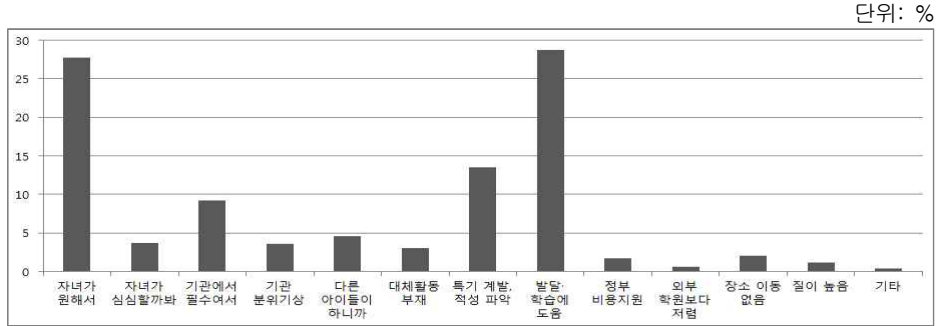
기 위해서(13.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필수이거나 기관 분위기상, 혹은 다른 아이들이 많이 하거나 대체활동이 없는 등 자발적이기보다는 기관 상황으로 인해 시킨다는 응답은 총 20.4%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에서 필수라는 응답은 수치상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19.6%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하여 많았다.

〈표 V-2-10〉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5세 부모)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
전체	27.7	3.7	9.2	3.6	4.6	3.0	13.5	28.7	1.7	0.6	2.0	1.2	0.4	100.0(588)
재원기관														
어린이집	30.3	1.4	8.5	5.5	7.6	4.2	12.2	26.9	0.2	0.5	2.2	0.6	0.0	100.0(283)
유치원	25.0	5.4	8.2	0.6	1.3	2.2	16.6	31.7	3.8	0.9	2.2	1.6	0.5	100.0(259)
학원	26.1	8.7	19.6	8.7	4.3	0.0	4.3	23.9	0.0	0.0	0.0	2.2	2.2	100.0(46)
$\chi^2(df)$	na													
지역														
대도시	35.2	5.0	9.2	2.3	4.9	4.6	11.4	23.9	0.5	1.1	0.9	0.3	0.5	100.0(216)
중소도시	24.3	2.9	9.4	5.1	5.1	2.1	13.5	30.6	1.6	0.4	2.7	2.0	0.4	100.0(264)
읍·면	19.7	3.6	8.6	1.0	1.2	2.6	20.1	35.0	6.2	0.0	2.1	0.0	0.0	100.0(108)
$\chi^2(df)$	na													
맞벌이여부														
맞벌이	24.2	4.1	10.7	3.3	6.3	3.5	12.3	28.5	1.7	0.4	3.0	1.5	0.4	100.0(352)
외벌이	33.0	3.1	7.0	4.2	1.9	2.3	15.3	29.0	1.7	1.0	0.4	0.6	0.4	100.0(236)
$\chi^2(df)$	na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39.0	0.0	1.9	7.6	0.7	3.1	19.5	27.0	0.0	0.9	0.0	0.2	0.0	100.0(76)
265~370만원	18.9	4.2	7.7	0.5	9.8	1.0	15.8	33.9	5.4	0.8	0.6	1.5	0.0	100.0(133)
370~480만원	34.0	4.5	9.0	2.9	4.4	1.7	10.6	29.2	0.9	1.2	0.0	1.4	0.0	100.0(147)
480만원 이상	23.8	4.3	13.1	4.3	3.5	5.0	11.7	26.3	0.9	0.0	4.9	1.2	1.0	100.0(232)
$\chi^2(df)$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14.5	1.1	17.2	7.5	1.5	3.6	22.3	28.3	0.6	1.1	1.0	1.4	0.0	100.0(90)
전문대졸	30.3	3.4	6.2	2.0	10.0	1.1	14.4	28.7	1.7	0.7	0.8	0.7	0.0	100.0(155)
대졸	30.4	4.0	9.4	3.7	3.6	3.5	10.0	29.0	2.1	0.6	2.7	1.3	0.0	100.0(271)
대학원졸 이상	24.5	6.3	6.6	3.1	0.0	5.1	16.4	28.2	1.5	0.3	2.9	1.5	3.5	100.0(72)
$\chi^2(df)$	na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24.8	2.6	17.4	4.7	5.0	1.3	8.0	33.7	1.2	0.0	0.8	0.5	0.0	100.0(160)
없음	28.8	4.1	6.0	3.2	4.5	3.7	15.6	26.8	1.9	0.9	2.5	1.4	0.5	100.0(428)
$\chi^2(df)$	na													

주: ①자녀가 위해서 ②자녀가 심심할까봐 ③기관에서 필수여서 ④기관 분위기상 ⑤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⑥대체활동 부재 ⑦특기계발, 적성 파악 위해 ⑧발달·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⑨정부에서 비용이 지원되어서 ⑩외부 학원보다 저렴해서 ⑪장소 이동이 없어서 ⑫질이 높아서 ⑬기타



[그림 V-1-9] 특별활동 참여 이유(1순위, 5세)

<표 V-2-11> 학습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5세 부모)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비용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총점
전체	3.6(0.7)	3.6(0.7)	3.5(0.7)	3.5(0.7)	3.5(0.8)	3.5(0.7)	21.2(4.0)
재원기관							
어린이집	3.6 ^b (0.7)	3.6(0.8)	3.4(0.8)	3.5 ^b (0.7)	3.5(0.8)	3.6 ^b (0.8)	21.3 ^b (4.3)
유치원	3.7 ^b (0.6)	3.6(0.6)	3.6(0.7)	3.6 ^b (0.6)	3.5(0.7)	3.6 ^b (0.7)	21.5 ^b (3.6)
학원	3.0 ^a (0.6)	3.0(0.6)	3.1(0.5)	2.8 ^a (0.6)	3.0(0.6)	3.1 ^a (0.7)	17.9 ^a (3.0)
<i>F</i>	13.62 ^{**}	na	na	19.33 ^{**}	na	5.78 [*]	11.04 ^{**}
지역							
대도시	3.6(0.6)	3.6(0.6)	3.5(0.6)	3.5(0.6)	3.5(0.7)	3.6(0.6)	21.4(3.3)
중소도시	3.5(0.8)	3.5(0.8)	3.4(0.8)	3.5(0.8)	3.4(0.8)	3.5(0.8)	20.9(4.5)
읍·면	3.7(0.6)	3.7(0.6)	3.5(0.7)	3.7(0.6)	3.4(0.8)	3.5(0.7)	21.6(3.6)
<i>F</i>	na	na	na	na	na	0.54	na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3.6(0.9)	3.5(0.9)	3.4(0.9)	3.5(0.9)	3.5(0.9)	3.5(0.9)	21.0(5.3)
265~370만원	3.6(0.6)	3.6(0.6)	3.6(0.6)	3.6(0.6)	3.5(0.7)	3.6(0.6)	21.5(3.1)
370~480만원	3.6(0.6)	3.6(0.6)	3.5(0.6)	3.6(0.6)	3.6(0.6)	3.6(0.6)	21.5(3.1)
480만원 이상	3.6(0.7)	3.5(0.7)	3.4(0.8)	3.5(0.8)	3.4(0.8)	3.5(0.8)	20.9(4.2)
<i>F</i>	na	na	na	na	1.13	na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3.7(0.7)	3.7(0.7)	3.6(0.7)	3.7(0.7)	3.6(0.8)	3.6(0.8)	21.9(4.1)
전문대졸	3.5(0.9)	3.5(0.8)	3.3(0.9)	3.3(0.8)	3.3(0.9)	3.4(0.9)	20.3(4.9)
대졸	3.7(0.6)	3.6(0.6)	3.6(0.6)	3.6(0.6)	3.6(0.6)	3.6(0.6)	21.6(3.1)
대학원졸 이상	3.5(0.8)	3.4(0.9)	3.5(0.8)	3.5(0.8)	3.4(0.9)	3.5(0.9)	20.8(4.7)
<i>F</i>	na	na	na	na	na	na	na
보조양육자유무							
있음	3.4(0.9)	3.4(0.9)	3.2(0.9)	3.3(0.9)	3.3(0.9)	3.4(0.9)	20.1(5.0)
없음	3.7(0.6)	3.6(0.6)	3.6(0.6)	3.6(0.6)	3.5(0.7)	3.6(0.7)	21.6(3.4)
<i>t</i>	-3.19 ^{***}	-2.01 [*]	-3.95 ^{***}	-3.06 ^{***}	-2.45 ^{**}	-2.53 ^{**}	-3.07 ^{***}

* $p < .05$, ** $p < .01$, *** $p < .001$

주: 1) 1=매우 불만족, 2=약간불만족, 3=약간 만족, 4=매우 만족
 2)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학습 관련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점 중반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표 V-2-11). 비용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3.6점,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에 대한 만족도 각각 3.5점으로 나타났다.

학습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는 재원기관과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하여 학원 이용 5세아 부모의 만족도가 낮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5세아 부모는 비용과 강사, 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5세아 부모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조양육자가 없는 경우 모든 항목에서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보다 학습 관련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높았다.

〈표 V-2-12〉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5세 부모)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비용	내용	교재	강사	집단구성	시설	총점
전체	3.6(0.7)	3.5(0.7)	3.5(0.7)	3.5(0.7)	3.4(0.8)	3.5(0.8)	21.1(4.2)
재원기관							
어린이집	3.5(0.8)	3.5(0.8)	3.4(0.8)	3.5(0.8)	3.4(0.9)	3.5(0.8)	20.9(4.6)
유치원	3.7(0.6)	3.6(0.6)	3.6(0.7)	3.6(0.6)	3.5(0.7)	3.5(0.7)	21.6(3.7)
학원	3.2(0.8)	3.3(0.5)	3.3(0.6)	3.3(0.7)	3.2(0.6)	3.2(0.7)	19.3(3.2)
<i>F</i>	na	na	na	na	na	na	na
지역							
대도시	3.5(0.7)	3.5(0.7)	3.4(0.7)	3.5(0.7)	3.4(0.8)	3.5(0.8)	20.9(4.2)
중소도시	3.6(0.7)	3.5(0.7)	3.5(0.7)	3.5(0.7)	3.5(0.8)	3.5(0.8)	21.1(4.3)
읍·면	3.8(0.6)	3.6(0.7)	3.6(0.7)	3.7(0.6)	3.4(0.8)	3.5(0.8)	21.5(3.8)
<i>F</i>	na	0.83	0.827	1.39	0.242	0.041	0.639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3.4(0.9)	3.3(0.9)	3.3(0.9)	3.4(0.9)	3.3(0.9)	3.3(0.9)	20.0(5.1)
265~370만원	3.6(0.6)	3.6(0.6)	3.5(0.7)	3.6(0.6)	3.6(0.7)	3.5(0.7)	21.5(3.5)
370~480만원	3.5(0.8)	3.5(0.8)	3.4(0.8)	3.5(0.8)	3.4(0.9)	3.4(0.8)	20.7(4.5)
480만원 이상	3.7(0.7)	3.6(0.7)	3.5(0.7)	3.6(0.7)	3.5(0.8)	3.6(0.7)	21.5(3.9)
<i>F</i>	na	na	2.37	na	1.91	2.35	na
부모학력							
고졸 이하	3.6(0.7)	3.6(0.7)	3.5(0.8)	3.5(0.7)	3.5(0.8)	3.5(0.8)	21.3(4.4)
전문대졸	3.4(0.9)	3.3(0.9)	3.3(0.9)	3.3(0.9)	3.3(1.0)	3.3(1.0)	20.0(5.4)
대졸	3.7(0.6)	3.6(0.6)	3.5(0.6)	3.6(0.6)	3.5(0.7)	3.5(0.6)	21.5(3.1)
대학원졸 이상	3.6(0.8)	3.5(0.8)	3.5(0.8)	3.6(0.8)	3.5(0.8)	3.5(0.8)	21.2(4.5)
<i>F</i>	na	na	na	na	na	na	na

주: 1=매우 불만족, 2=약간불만족, 3=약간 만족, 4=매우 만족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 역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표 V-2-12).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4점 만점에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3.5점이었다.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 만족도는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5세아 부모에게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한 결과, 2세(71.9%)보다는 다소 낮은 52.0%가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3〉 특별활동의 사교육 대체 가능성 인식(5세 부모)

구분	대체 가능함	대체 가능하지 않음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52.0	48.0	100.0(542)	
재원기관				
어린이집	48.4	51.6	100.0(283)	3.29(1)
유치원	56.1	43.9	100.0(259)	
지역				
대도시	52.5	47.5	100.0(189)	1.38(2)
중소도시	50.3	49.7	100.0(245)	
읍·면	58.3	41.7	100.0(1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3	46.7	100.0(331)	0.59(1)
외벌이	50.0	50.0	100.0(211)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61.5	38.5	100.0(71)	7.18(3)
265~370만원	53.5	46.5	100.0(124)	
370~480만원	54.7	45.3	100.0(134)	
480만원 이상	45.6	54.4	100.0(213)	
부모학력				
고졸 이하	46.6	53.4	100.0(88)	5.48(3)
전문대졸	58.5	41.5	100.0(150)	
대졸	48.5	51.5	100.0(243)	
대학원졸 이상	58.4	41.6	100.0(61)	
보조양육자유무				
있음	47.3	52.7	100.0(147)	1.90(1)
없음	53.9	46.1	100.0(395)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부모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특별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35.6%),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기 때문에(29.1%)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이라서' 라는 응답이 22.5%로 뒤를 이었다.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보조양육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부모는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외벌이 부모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과 보조양육자가 없는 가구의 5세아 부모는 기관에서의 특별활동이 재능이나 소질을 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다른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2-14〉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5세 부모)
단위: %(명)

구분	발달수준 사교육보다 에 맞춘 진행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	재능·소질 계발 가능	기타	계	$\chi^2(df)$
전체	35.6	29.1	22.5	10.3	2.6	100.0(295)
지역						
대도시	35.5	24.6	27.4	10.3	2.2	100.0(100)
중소도시	34.0	30.6	21.9	10.0	3.5	100.0(129) na
읍·면	42.0	34.3	12.5	11.3	0.0	100.0(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3	31.4	26.4	8.8	1.0	100.0(183)
외벌이	41.4	25.0	15.5	12.8	5.3	100.0(112) 12.02(4)*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51.6	16.1	11.3	19.5	1.5	100.0(49)
265~370만원	17.9	39.8	30.6	8.8	2.9	100.0(62)
370~480만원	32.6	37.4	22.4	6.3	1.4	100.0(74)
480만원 이상	40.5	22.9	23.5	9.2	4.0	100.0(110) 29.85(12)***
부모학력						
고졸 이하	45.7	27.2	17.8	8.3	1.0	100.0(50)
전문대졸	26.3	42.8	18.3	12.0	0.6	100.0(83)
대졸	40.4	19.5	25.0	10.9	4.3	100.0(129) na
대학원졸 이상	30.8	31.6	29.1	5.3	3.2	100.0(33)
보조양육자유무						
있음	46.9	35.9	11.1	5.8	0.3	100.0(77)
없음	31.7	26.7	26.4	11.8	3.4	100.0(218) 15.79(4)**

*** $p < .05$, ** $p < .01$, *** $p < .001$

반대로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경우, 그 이유는 부모의 선택권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고, 강사 대 아동비율이 높기 때문에 37.5%,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12.6%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검증이 적절하지 않으나 재원기관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맞벌이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480만원 이상 부모는 강사 대 아동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외벌이와 월평균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가구의 부모는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V-2-15〉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이유(5세 부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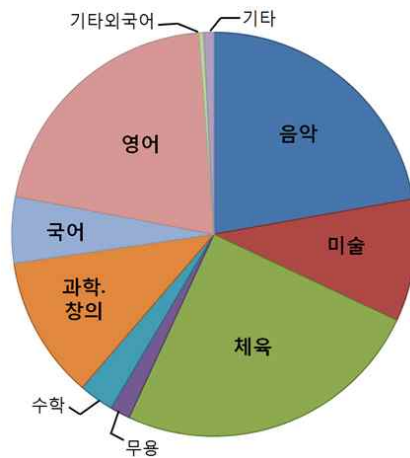
구분	강사 대 아동비율 높음	사교육 보다 질 낮음	부모 선택권 적음	상담 어려움	시설·교구 불충분	기타	계	$\chi^2(df)$
전체	37.5	2.7	41.8	12.6	1.9	3.5	100.0(247)	
재원기관								
어린이집	39.9	1.0	46.8	8.6	0.9	2.8	100.0(133)	na
유치원	34.2	5.0	35.1	18.0	3.2	4.5	100.0(114)	
지역								
대도시	40.9	2.4	37.0	15.3	2.4	1.9	100.0(89)	na
중소도시	37.3	2.7	44.4	10.6	0.7	4.3	100.0(116)	
읍·면	27.7	3.7	43.1	15.0	6.5	4.1	100.0(4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4	2.4	40.6	5.7	2.7	2.3	100.0(148)	na
외벌이	23.8	3.2	43.7	23.3	0.7	5.4	100.0(99)	
월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14.8	4.0	45.9	32.1	0.0	3.1	100.0(22)	na
265~370만원	36.6	1.3	40.8	15.5	1.3	4.6	100.0(62)	
370~480만원	28.7	0.6	53.9	10.4	1.4	5.1	100.0(60)	
480만원 이상	49.1	4.2	34.6	6.9	3.0	2.3	100.0(103)	
부모학력								
고졸 이하	39.8	3.2	43.0	7.2	0.5	6.2	100.0(38)	na
전문대졸	43.9	0.0	37.0	14.2	1.0	3.9	100.0(67)	
대졸	36.0	2.9	41.7	14.7	2.3	2.5	100.0(114)	
대학원졸 이상	24.8	8.1	53.4	5.6	4.5	3.6	100.0(28)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44.6	0.0	44.1	7.2	2.6	1.4	100.0(70)	na
없음	34.2	3.9	40.7	15.1	1.6	4.5	100.0(177)	

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특성¹⁹⁾

5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은 체육(24.9%), 음악(22.2%), 영어(20.8%)가 특히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창의 11.4%, 미술 9.8%, 국어 5.3% 순으로 나타났다. 5세와 2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유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2-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5세 교사)

N = 1,867			
유형	비율(사례수)	유형	비율(사례수)
음악	22.2(415)	과학·창의	11.4(213)
미술	9.8(183)	국어	5.3(99)
체육	24.9(464)	영어	20.8(389)
무용	1.6(30)	기타외국어	0.4(7)
수학	2.8(53)	기타	0.8(5)
계		100.0(1,867)	



[그림 V-1-10] 특별활동 프로그램 유형(5세)

교사가 응답한 5세아 대상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의 강사 학력은 대졸인 경우(60.6%)가 가장 많았으며, 교사가 강사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19.8%), 전문대졸(14.0%) 순이었다. 예체능 강사는 대졸이, 학습 강사는 전문대졸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세부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용 강사의 대학원졸 학력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영어 강사의 학력은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19) 모든 조사 대상 영유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을 종합한 결과임.

〈표 V-2-17〉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학력(5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모름	계
전체	0.6	14.0	60.6	5.0	19.8	100.0(1,867)
대분류						
예체능	1.0	12.3	62.2	5.4	19.1	100.0(1,092)
학습	0.1	16.6	58.7	4.5	20.1	100.0(761)
$\chi^2(df)$						13.05**
소분류						
음악	0.7	8.4	63.6	6.5	20.7	100.0(415)
미술	0.5	20.2	61.2	4.4	13.7	100.0(183)
체육	1.5	12.9	60.8	4.3	20.5	100.0(464)
무용	0.0	6.7	70.0	13.3	10.0	100.0(30)
수학	0.0	39.6	41.5	1.9	17.0	100.0(53)
과학·창의	0.0	24.4	55.9	4.7	15.0	100.0(213)
국어	0.0	34.3	54.5	3.0	8.1	100.0(99)
영어	0.3	4.6	63.5	5.1	26.5	100.0(389)
기타외국어	0.0	14.3	71.4	0.0	14.3	100.0(7)
기타	0.0	7.1	42.9	0.0	50.0	100.0(14)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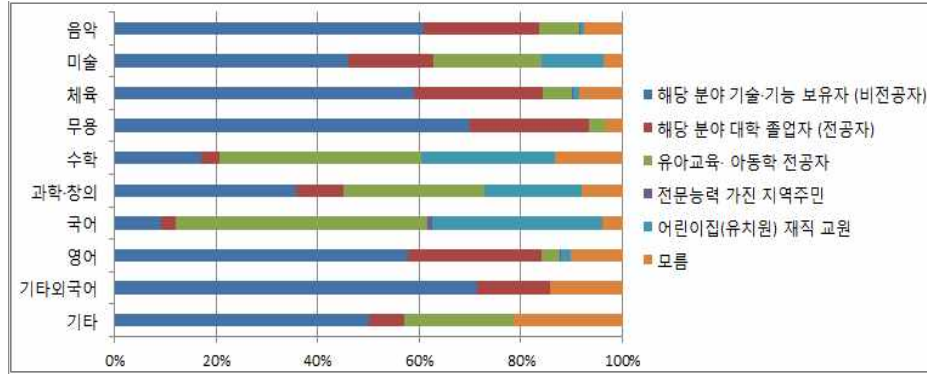
5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강사는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인 경우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인 경우가 20.3%, 유아교육·아동학 전공자가 13.2%, 강사 전문성을 모르는 경우가 8.1%, 어린이집(유치원) 재직 교원인 경우가 6.7%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학습 프로그램 강사가 유아교육·아동학 전공자이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재직 교원인 비율이 예체능 강사보다 높아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국어는 유아교육·아동학 전공자이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재직 교원인 비율이 82.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2-18〉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5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 (비전공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전공자)	유아교육· 아동학 전공자	전문능력 가진 지역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재직 교원	모름	계
전체	51.5	20.3	13.2	0.2	6.7	8.1	100.0(1,867)
대분류							
예체능	57.8	22.9	9.2	0.2	2.7	7.2	100.0(1,092)
학습	42.6	16.8	18.8	0.3	12.5	9.1	100.0(761)
$\chi^2(df)$							125.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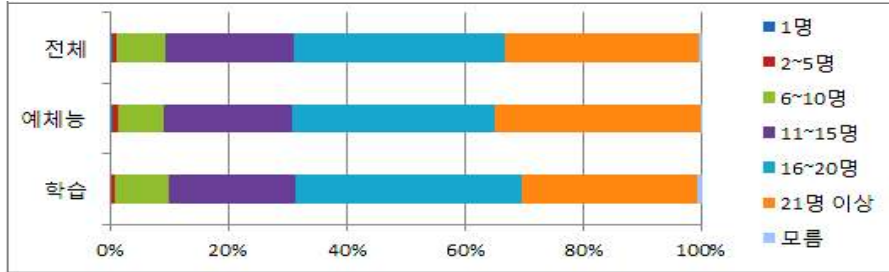
[그림 V-1-11]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5세)

5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반 규모는 16~20인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21명 이상 32.8%, 11~15명 21.6%, 6~10명 8.2% 순으로 나타났다. 차이검증이 적절치 않으나 수치상 예체능과 학습 프로그램별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19>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5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1명	2~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모름	계
전체	0.6	0.6	8.2	21.6	35.8	32.8	0.4	100.0(1,867)
대분류								
예체능	0.7	0.7	7.6	21.7	34.3	34.8	0.1	100.0(1,092)
학습	0.4	0.5	9.2	21.3	38.1	29.8	0.7	100.0(761)
$\chi^2(df)$	na							
소분류								
음악	1.0	1.2	8.9	20.7	34.9	33.3	0.0	100.0(415)
미술	0.0	0.5	6.6	25.1	32.2	35.5	0.0	100.0(183)
체육	0.6	0.4	6.7	20.7	35.1	36.2	0.2	100.0(464)
무용	3.3	0.0	10.0	30.0	26.7	30.0	0.0	100.0(30)
수학	0.0	1.9	11.3	32.1	28.3	26.4	0.0	100.0(53)
과학·창의	0.5	0.5	8.0	16.9	36.6	37.1	0.5	100.0(213)
국어	0.0	1.0	10.1	16.2	37.4	34.3	1.0	100.0(99)
영어	0.5	0.3	9.3	23.7	40.6	24.9	0.8	100.0(389)
기타외국어	0.0	0.0	14.3	14.3	28.6	42.9	0.0	100.0(7)
기타	0.0	0.0	0.0	35.7	21.4	35.7	7.1	100.0(14)



[그림 V-1-12] 특별활동 프로그램 반 규모(5세)

5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단일연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68.1%로 혼합연령 31.5%보다 많았다. 통계적 차이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영어는 단일연령 구성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았고, 무용은 혼합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V-2-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연령 구성(5세 교사)

구분	단일연령	혼합연령	모름	단위: %(사례수)	
				계	
전체	68.1	31.5	0.4	100.0	(1,867)
대분류					
예체능	66.2	33.4	0.4	100.0	(1,092)
학습	70.7	29.0	0.3	100.0	(761)
$\chi^2(df)$					na
소분류					
음악	69.4	30.4	0.2	100.0	(415)
미술	62.8	37.2	0.0	100.0	(183)
체육	65.3	34.1	0.6	100.0	(464)
무용	56.7	43.3	0.0	100.0	(30)
수학	66.0	34.0	0.0	100.0	(53)
과학·창의	70.0	30.0	0.0	100.0	(213)
국어	64.6	34.3	1.0	100.0	(99)
영어	73.5	26.2	0.3	100.0	(389)
기타외국어	57.1	42.9	0.0	100.0	(7)
기타	71.4	21.4	7.1	100.0	(14)

5세아가 참여하는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은 교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79.8%, 학습지나 워크북이 35.7%, 책이 21.3%로 나타났다. 예체능 프로그램은 교구 사용이 대부분인 반면,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를 고루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21〉 특별활동 프로그램 교재·교구(5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전체	35.7	21.3	79.8	0.1	4.9	0.9
대분류						
예체능	9.0	4.8	88.5	0.1	7.9	0.6
학습	74.1	45.3	67.9	0.0	0.4	0.9
소분류						
음악	8.2	6.5	90.1	0.0	6.7	0.5
미술	30.1	12.0	82.0	0.0	6.0	1.1
체육	1.9	0.6	91.2	0.2	7.8	0.6
무용	0.0	0.0	63.3	0.0	36.7	0.0
수학	77.4	32.1	64.2	0.0	0.0	0.0
과학·창의	57.7	20.7	88.3	0.0	0.5	0.5
국어	75.8	64.6	27.3	0.0	1.0	2.0
영어	82.8	56.6	67.4	0.0	0.3	1.0
기타외국어	42.9	0.0	85.7	0.0	0.0	0.0
기타	35.7	7.1	50.0	0.0	14.3	14.3

주: 복수응답임.

특별활동 프로그램별로 5세아 1인당 소요되는 총 비용은 월 평균 1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부모 부담비용은 약 1만원이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 소요비용은 예체능과 학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예체능 프로그램은 1인당 월 소요비용이 1만원인데 반해, 학습 프로그램은 1만5천원으로 더 높았다. 학부모 부담 비용도 예체능은 8천원, 학습 프로그램은 1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영어 프로그램의 1인당 총 비용이 2만원으로 가장 높고, 음악과 미술, 과학·창의가 1만원 대였다. 사례수가 작지만 기타 외국어의 1인당 총 비용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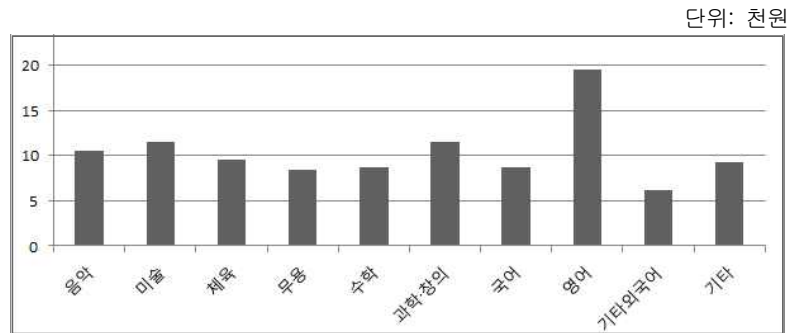
〈표 V-2-2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 소요 비용(5세 교사)

단위: 천원, %(표준편차)

구분	영유아 1인당 총 비용	학부모 부담 비용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합
전체	12.1(12.3)	8.5(11.5)	1.6(5.8)	10.2(12.9)
대분류				
예체능	10.2(11.1)	7.2(10.5)	0.7(3.3)	7.9(11.2)
학습	15.0(13.4)	10.5(12.7)	3.0(8.0)	13.5(14.4)
<i>t</i>	-8.11 ^{***}	-5.97 ^{**}	-7.51 ^{***}	-9.06 ^{***}

구분	영유아 1인당 총 비용	학부모 부담 비용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합
소분류				
음악	10.5(12.6)	7.7(13.0)	0.4(2.4)	8.1(13.3)
미술	11.5(10.2)	7(9.4)	1.9(4.8)	8.9(10.8)
체육	9.5(10.0)	6.9(8.3)	0.4(2.7)	7.3(8.9)
무용	8.4(10.1)	4.8(8.2)	2.2(7.7)	7.1(13.1)
수학	8.7(11.4)	4.5(7.3)	2.0(6.6)	6.5(8.8)
과학·창의	11.5(10.9)	7.2(10.9)	2.6(6.4)	9.8(12.5)
국어	8.7(12.6)	4.7(12.5)	1.8(5.8)	6.5(13.2)
영어	19.5(13.6)	14.7(12.9)	3.7(9.4)	18.4(14.7)
기타외국어	6.1(8.2)	6.1(8.2)	0.0(0.0)	6.1(8.2)
기타	9.3(12.0)	7.2(11.4)	1.4(3.6)	8.6(12.3)

*** $p < .001$



[그림 V-1-13] 특별활동 프로그램 1인당 총 비용(5세)

5세아 교사가 응답한 특별활동 개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세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원장의 철학에 의해 (15.3%),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14.5%)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과 학습 프로그램의 개설 이유는 거의 유사하였다.

<표 V-2-23>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설 이유(5세 교사)

단위: %(사례수)

구분	학부모 요구	원장 철학	기관운영 에 도움	타 기관의 추천	기타	아이들이 원해서	계
전체	64.4	15.3	14.5	1.9	3.4	0.5	100.0(1,867)
대분류							
예체능	64.7	15.2	13.8	2.0	3.7	0.6	100.0(1,092)
학습	64.7	15.4	15.4	1.4	2.9	0.3	100.0(761)
$\chi^2(df)$				3.69			

구분	학부모 요구	원장 철학	기관운영 에 도움	타 기관의 추천	기타	아이들이 원해서	계
소분류							
음악	63.6	17.6	12.3	1.9	4.1	0.5	100.0(415)
미술	65.0	12.0	18.0	1.6	2.7	0.5	100.0(183)
체육	65.9	13.8	13.6	2.2	3.7	0.9	100.0(464)
무용	56.7	23.3	13.3	3.3	3.3	0.0	100.0(30)
수학	52.8	30.2	15.1	0.0	1.9	0.0	100.0(53)
과학·창의	58.2	14.6	19.2	2.8	5.2	0.0	100.0(213)
국어	52.5	23.2	16.2	4.0	4.0	0.0	100.0(99)
영어	73.5	11.3	13.1	0.3	1.3	0.5	100.0(389)
기타외국어	28.6	42.9	14.3	0.0	14.3	0.0	100.0(7)
기타	35.7	21.4	21.4	14.3	7.1	0.0	100.0(14)

특별활동 프로그램별로 5세아의 흥미 정도를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유아가 매우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응답이 78.2%, 약간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응답이 20.4%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유아는 대체로 흥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점 만점에 평균 3.8점이었고 학습 프로그램보다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정도가 더 높았다.

〈표 V-2-24〉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영유아의 흥미(5세 교사)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전혀 흥미 없음	별로 흥미 없음	약간 흥미 있음	매우 흥미 있음	계	점수	
						평균	F
전체	0.2	1.2	20.4	78.2	100.0(1,867)	3.8(0.5)	
대분류							
예체능	0.2	0.8	16.8	82.1	100.0(1,092)	3.8(0.4)	4.68***
학습	0.3	1.7	25.4	72.7	100.0(761)	3.7(0.5)	
소분류							
음악	0.5	1.2	25.1	73.3	100.0(415)	3.7(0.5)	na
미술	0.0	0.5	15.8	83.6	100.0(183)	3.8(0.4)	
체육	0.0	0.2	9.3	90.5	100.0(464)	3.9(0.3)	
무용	0.0	6.7	26.7	66.7	100.0(30)	3.6(0.6)	
수학	1.9	3.8	34.0	60.4	100.0(53)	3.5(0.7)	
과학·창의	0.0	0.9	13.6	85.4	100.0(213)	3.8(0.4)	
국어	1.0	1.0	34.3	63.6	100.0(99)	3.6(0.6)	
영어	0.0	1.5	28.0	70.4	100.0(389)	3.7(0.5)	
기타외국어	0.0	28.6	42.9	28.6	100.0(7)	3.0(0.8)	
기타	0.0	0.0	28.6	71.4	100.0(14)	3.7(0.5)	

*** $p < .001$

교사들은 대체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발달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매우 적절하다 63.3%, 비교적 적절하다 35.0%로, 4점 만점에 평균 3.6점이었다. 발달 적절성은 예체능이 3.7점, 학습이 3.5점으로 5세 교사들은 학습 프로그램보다 예체능 프로그램이 유아의 발달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5〉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5세 교사)

단위: %(사례수), 점(표준편차)

구분	매우 부적절함	다소 부적절함	비교적 적절함	매우 적절함	계	점수	
						평균	F
전체	0.3	1.4	35.0	63.3	100.0(1,867)	3.6(0.5)	
대분류							
예체능	0.4	0.9	27.6	71.2	100.0(1,092)	3.7(0.5)	7.92***
학습	0.3	2.1	45.5	52.2	100.0(761)	3.5(0.6)	
소분류							
음악	0.7	1.4	34.2	63.6	100.0(415)	3.6(0.6)	na
미술	0.0	0.0	29.5	70.5	100.0(183)	3.7(0.5)	
체육	0.2	0.4	19.8	79.5	100.0(464)	3.8(0.4)	
무용	0.0	6.7	43.3	50.0	100.0(30)	3.4(0.6)	
수학	0.0	3.8	47.2	49.1	100.0(53)	3.5(0.6)	
과학·창의	0.0	0.0	33.3	66.7	100.0(213)	3.7(0.5)	
국어	0.0	2.0	34.3	63.6	100.0(99)	3.6(0.5)	
영어	0.5	2.6	54.5	42.4	100.0(389)	3.4(0.6)	
기타외국어	0.0	28.6	57.1	14.3	100.0(7)	2.9(0.7)	
기타	0.0	0.0	42.9	57.1	100.0(14)	3.6(0.5)	

*** $p < .001$.

3. 소결

가. 2세의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85%는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관 전체에서 평균 4.2개, 2세 대상으로는 2.6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참여방식은 희망유아만 참여하는 경우가 88%로 다수를 차지했다. 운영방식으로 동일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97%로 대부분이었다.

조사 대상 2세의 75%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1주일에 평균 2.6가지를

평균 3회, 27분씩 참여하였다. 부모 학력이 가장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참여율이 낮았다.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유형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경우가 57%, 학습과 예체능 모두 참여하는 경우가 40%였다. 외별이는 맞벌이보다 학습, 예체능 모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맞벌이는 외별이보다 예체능만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정에서 납부하는 특별활동 비용은 월 평균 4만3천원 이었고, 맞벌이 3만7천원보다 외별이가 5만3천원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2세 부모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기관의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모두 합하면 20% 이상이었다. 즉, 어린이집에서는 희망 유아만 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기관 분위기상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부모의 특별활동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이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일제 이상 학원은 특별활동을 필수로 참여하는 경우가 어린이집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더욱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세 부모의 72%가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높았다. 그 이유로 부모들은 발달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반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로는 부모 선택권이 적고, 상담이 어려우며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조사 대상 2세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프로그램 851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유형은 체육, 음악, 영어가 각각 2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별활동 강사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가 많았다. 한편, 2세 담당 교사가 특별활동 강사의 학력이나 전문성을 모르는 경우도 각각 26%, 15%였다. 어린이집 교사가 강사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특별활동이 진행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집단 규모는 6~15명이 80%였고 단일연령이 많았으며 89%의 프로그램이 교구를 이용하였다.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특별활동의 교구 이용률은 30% 높았고, 학습지나 워크북 이용률은 20% 낮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세 대상 사교육 프로그램이 회당 47분 진행되는 반면,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회당 시간이 27분이고, 교구 사용률이 높고 학습지 사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특별활동이 사교육에 비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소요 비용은 1만7천원이었고, 부모 부담 비용은 1만6천원이었다. 예체능보다 학습 관련 특별활동 비용이 더 비쌌다.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개설한 이유는 학부모 요구가 57%로 가장 많았고, 교사들은 2세아가 대체로 특별활동에 흥미 있어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특별활동이 2세의 발달에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다만, 학습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예체능보다 낮았다.

나. 5세의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실태 및 인식

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부분인 97%는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 전체에서 평균 5.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5세 대상으로는 3.9개 운영하고 있었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가짓수가 더 많았다. 특별활동에 희망하는 유아만 참여하는 경우가 77%,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는 23%였고, 한 학급의 유아가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89%, 희망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11%였다.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필수 참여인 경우가 많았으나 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더 많았다.

5세아의 91%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였고, 참여하는 경우 평균 3.4가지를 주당 4.4회, 회당 32분씩 참여하고 있었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참여율이 더 높았고, 가짓수는 유치원이 더 많았다. 부모가 외벌이인 경우보다 맞벌이일 때 특별활동 참여율이 더 높았고,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예체능 없이 학습 관련 사교육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들은 특별활동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30%였고, 납부하는 경우 월 평균 3만 8천원을 납부하였다. 읍·면보다 대도시가 약 2배 비쌌다.

부모들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발달·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자녀가 원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기관에서 필수여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20%로 어린이집, 학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5세 부모들은 특별활동에 대체로 만족하였는데, 반일제 이상 학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특별활동 비용, 강사, 시설 측면에서 만족도가 더 낮았다. 보조양육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에 모든 측면의 만족도가 높았다. 2세와 마찬가지로 반일제 이상 학원은 특별활동에 필수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만족도는 낮은 점이 특징적이다.

5세 부모들은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비슷했다. 2세 부모 70% 이상이 대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발달 수준에 맞추어 진행(37%)되고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으며(29%), 기관에서 선별한 프로그램(23%)이란 점 등이었고,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 선택권이 적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즉,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선택하여 질이 담보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는 부모들은 사교육과 특별활동 유사하게 생각하는 반면, 부모의 선택권을 증시하는 부모들은 특별활동보다는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할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5세아가 참여하는 모든 특별활동 프로그램 1,867가지를 분석한 결과, 체육, 음악, 영어 프로그램이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강사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 강사 전문성은 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인 경우가 52%로 가장 많았다. 교사가 특별활동 강사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도 20%였다. 반 규모는 16명 이상이 약 70%였고, 단일연령이 혼합연령보다 많았다. 교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80%, 학습지나 워크북은 36% 프로그램이 이용하였다. 이는 5세가 이용하는 사교육 프로그램보다 교구 사용률은 2배 이상 높고, 학습지나 워크북 사용률은 약 15% 낮은 수치이다. 2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세 대상 사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회당 시간이 짧고, 학습 지향적이기보다는 활동 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영유아 1인당 소요 비용은 1만2천원으로, 학부모 부담 비용은 1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체능보다 학습 특별활동 비용이 약 5천원 비쌌다. 프로그램 세부 유형 가운데에는 영어 프로그램이 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기관에서 각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는 학부모 요구가 64%로 가장 많았는데, 기타 외국어 프로그램은 학부모 요구보다는 원장 철학에 의해 개설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교사는 5세아 대부분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흥미 있어 한다고 인식하였지만 기타 외국어 프로그램에는 흥미 없어 한다는 응답도 29%로 많았다. 특별활동이 발달에 적절한지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4점 만점에 3.6점 정도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학습보다는 예체능 관련 특별활동이 더욱 적절하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기타 외국어 프로그램의 발달 적절성 수준이 가장 낮다고 판단하였다.

VI.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

본 장에서는 반일제 이상 학원인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에 2세아와 5세아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사례조사 대상 특성

사례조사 대상자의 자녀 및 가구 특성과 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VI-1-1>과 같다. 면담 대상자의 가구는 맞벌이보다는 외벌이인 경우가 많았고, 월수입은 300만원~1,000만원까지 편차가 있었다. 반일제 학원비는 영어학원이 가장 높은 편으로 조사 대상 모두 월 100만원 이상이었으며, 놀이학원 2세반의 경우도 모두 월 100만원 이상이였다. 놀이학원 5세반과 유아체능단의 학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40~87만원까지 다양했다. 각 학원의 강사 대 아동비율은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의 경우 1:4에서 1:8까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유아체능단의 경우 모두 1: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반일제 이상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은 하루 2교시부터 7교시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5세가 다니는 놀이학원의 경우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었다. 교수방법으로 영어학원의 대부분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놀이학원은 대부분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유아체능단은 놀이중심과 함께 강의, 토론, 문제 풀이 등 형식적인 교육이 일부 들어가 있었다.

<표 VI-1-1> 사례조사 대상 특성 개요

학원 유형	구분	자녀 성별	가구 특성		반일제 학원비	반일제 이상 학원 특성		
			맞벌이 여부	월수입 (만원)		강사 대 아동 비율	프로그램	
							시간	교수방법
영어 학원	A1	남	외벌이 (부)	1,000	110	1.5 : 8	• 하루7교시 • 강의식 & 문제 풀이	

학원 유형	구분	자녀 성별	가구 특성		반일제 학원비	반일제 이상 학원 특성		
			맞벌이 여부	월수입 (만원)		강사 대 아동 비율	프로그램	
							시간	교수방법
5세반	A2	여 (첫째)	맞벌이 (육아휴직)	1,000	150	2 : -	• 하루6~7교시	• 강의식 &놀이중심
	A3	여 (쌍둥이)	외벌이 (부)	480	115	2 : 12	• 하루6교시	• 강의식 &토론식
	A4	여 (둘째)	외벌이 (부)	1,000	100		• 하루6교시,	• 강의식 &놀이중심 (미국 교과서)
놀이 학원 2세반	B1	여	외벌이 (부)	450	100	담임2, 강사1 : 8	• 하루5교시, 매주 금 이벤트	• 놀이중심 &강의식
	B2	남	맞벌이	700	100	- : 8	• 하루2~3교시	• 놀이중심 &토론식
	B3	여 (둘째)	외벌이 (부)	900	105	2 : 10	• 하루6교시	• 놀이중심 &IT활용 개별학습
놀이 학원 5세반	C1	남 (둘째)	외벌이 (부)	350	60	1 : 8	• 교과목 형태 X	• 놀이중심 &현장학습
	C2	여	외벌이 (부)	1,000	87	2-3 : 10	• 교과목 형태 X, 매주 주제 중심	• 토론식 &기타 (창의력 개발)
	C3	남	외벌이 (부)	300-400	60	2 : 10	• 하루7교시, 매주 금 이벤트	• 놀이중심 &현장학습
	C4	남 (첫째)	외벌이 (부)	400	47	2 : 12	• 교과목 형태 X,	• (자유)놀이 중심
유아 체능단 5세반	D1	여 (첫째)	맞벌이	370-400	60	1 : 20	• 하루6교시	• 놀이중심 &토론식
	D2	남 (둘째)	맞벌이	400	40	1 : 26	• 하루4교시	• 토론식 &놀이중심
	D3	남 (첫째)	외벌이 (부)	500	56	1 : 25	• 하루5교시	• 놀이중심 &강의식
	D4	여 (첫째)	외벌이 (부)	300	60	1 : 20	• 하루6교시	• 문제풀이 &놀이중심
	D5	남 (둘째)	외벌이 (부)	400	57	1 : 26 (비상시 보조1)	• 하루4교시	• 강의식&기타 (체육 레슨)

2. 학원 프로그램 사례

학원 프로그램은 학원 유형별로 특성이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이라도 학원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조사대상 학원 프로그램 중 각 유형별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하면 <표 VI-2-1>~<표 VI-2-5>와 같다.

영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경우 학원에 있는 동안 오로지 영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오전에는 영어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과목별 수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영어학원 프로그램의 예 1(표 VI-2-1)은 영어 중심 프로그램으로 9시 40분부터 영어의 요소나 방법을 중심으로 40분 단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업방법은 주로 강의식과 토론식이라고 보고되었다.

영어학원 프로그램의 예 2(표 VI-2-2)의 경우는 10시에 시작하여 30분 단위로 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점심시간 이후는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활동과 수학, 과학 등의 학습활동, 오르다나 몰편 등의 교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방법은 주로 강의식과 문제풀이식이라고 보고되었다.

<표 VI-2-1> 영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1 (A3)

구분	월	화	수	목	금
9:40	파닉스	파닉스	Immersion	Immersion	Immersion
10:30	NF Reading	NF Reading	Hands on play	Interactive play	파닉스
11:20	Immersion	Immersion		Sensory Development	NF Reading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00	Language Arts	CCS	Language Arts	파닉스	Language Arts
		Creative Expression		NF Reading	
2:00 3:00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Making Connections

〈표 VI-2-2〉 영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2 (A1)

구분	월	화	수	목	금
10:00	Theme class	Theme class	Theme class	Theme class	Theme class
	TSP	TSP	TSP	TSP	TSP
11:00	Write Paths	Write Paths	Write Paths	도서관	도서관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Reading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00	Gym/ Music	Gym/ Music	Gym/ Music	Gym/ Music	Gym/ Music
	수학	과학	수학	도서관	과학
2:00 2:30	미술	Morphun	실험	오르다	음악

놀이학원 2세반 프로그램 또한 영어학원과 유사하게 과목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간단위는 대개 30분이다. 놀이학원 2세반 프로그램의 예를 보면(표 VI-2-3) 9시 30분에 함께 모이는 시간을 시작으로 간식을 먹은 후 점심시간 전까지 30분이나 1시간 단위의 과목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종류가 무려 12가지에 이른다. 점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과목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주당 2타임 정도는 생활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 2시경 낮잠을 자고 귀가 전에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한다.

〈표 VI-2-3〉 놀이학원 2세반 프로그램의 예 (B3)

구분	월	화	수	목	금
9:30	Morning Circle Time				
10:00	간식				
	알파벳	창의사고	리더십	수학	알파벳
11:00	마스터피스	가베	요가	미술	체육
	리더십	노래	Theme		과학
12:00	점심				
1:00	생활주제	리더십	말하기	리더십	생활주제
	요리	Fun station	이야기말하기	미디어	이야기말하기
2:00 3:00	낮잠				
	Closing Circle Time				

놀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은 과목별 시간표로 구성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를 보면(표 VI-2-4), 9시 30분부터 30분 단위로 과목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심시간 이후 한 타임을 더 하고 자유놀이로 마무리한다. 한 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활동 종류는 무려 18가지에 이른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한 날로 정하여 파티나 체험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표 VI-2-4〉 놀이학원 5세반 프로그램의 예 (C3)

구분	월	화	수	목	금
9:30	인성교육	사이언스	아트	놀이수학	special day (생일파티, 체험놀이, 퍼포먼스, 생태체험)
10:00	오르다	가베	paper play	사이언스	
	놀이수학	델타샌드	케이넥스	영어	
11:00	영어	영어	영어	감성놀이, 음악	
	play gym	발레	레고	체육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00	그림일기	언어	동화놀이	언어	
2:00	자유놀이	자유놀이	자유놀이	자유놀이	

유아체능단 5세반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에 비해 수영 등의 신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나, 과목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유아체능단 5세반 프로그램의 예를 보면(표 VI-2-5) 9시부터 1시간 단위로 과목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활동의 종류는 수영, 태권도, 인라인, 클라이밍 등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18가지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은 요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표 VI-2-5〉 유아체능단 5세반 프로그램의 예 (D3)

구분	월	화	수	목	금
9:00	태권도	수영	국악	수영	체육
10:00	인라인		인라인	이야기 나누기	웅변
11:00	영어	멀티영어	영어	멀티영어	로봇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00	미술	한자	독서글쓰기	과학	1주: 요리 2, 4주: 숲체험 3주: 체험
2:00	한글	바둑	클라이밍	수	
3:00					

3. 면담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학부모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일반적인 사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사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표 VI-3-1>과 같다.

<표 VI-3-1> 학원 사례조사 면담 주요내용

주제	주요 내용
반일제 이상 학원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꼼꼼한 관리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 -아이의 흥미를 끄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기대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 유형에 따라 다른 기대 -눈에 보이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에 대한 정보 부족 -기준에 대한 규정 부재 -비용 부담
사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 이전에 문화센터부터 시작 사교육을 시키는 다양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의 특성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 제공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기를 원함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교육에 끌려 다니지만 안 할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
사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입시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요구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

가. 반일제 이상 학원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1) 반일제 이상 학원 선택의 이유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꼼꼼한 관리,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 아이의 흥미를 끄는 환경 때문이었다.

가)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일반유치원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어하였고(A1), 반일제 이상 학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 아이가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 주고(A3)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B2)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선택하였다.

저희 아들은 기질 자체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적응하기가 힘든 아이인데요. (중략) 일반 사립유치원을 보냈더니, 한 반에 20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버거웠어요. (중략) 2년을 강제로 보냈는데, 결국은 안 돼서 더 소수인 곳을 찾다보니 놀이학교 아니면 영어유치원이더라고요. (A1)

인원이 12명인데,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중략) 아이가 어디에 가든지 한국인 선생님이 따라붙어요. (A3)

기관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선생님 한 명 당 보육인원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한 번 볼 거 2번, 3번 볼 수 있고 시야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보내게 된 것 같아요. (B2)

나) 꼼꼼한 관리

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학원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겨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를 보내는 기관에서 작은 일에도 전화해서 알려 주고(A3, B3), 궁금한 질문에도 금방 피드백이 오며(A1), 학부모의 요구수용이 용이하고(B1),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배려가 있다(C2)고 생각하였다.

하다못해 작은 상처라도 하나 나면 바로 연락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A3)

작은 일들도 일주일에 2~3번 전화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면밀히 이야기해 주거든요. (B3)

거기(키즈노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리플을 바로 달아주시죠. 그리고 리플로 해결이 안 되면 전화를 해주세요. (A1)

선생님이 많으시고, 아이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어머니 한정된 사람들과 놀이하는 것보다 가서 사랑도 많이 받는다는 기분이 들고요. 또 좋은 것은 어머니 빨리 데려간다거나 원장님과 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좀 더 개방적이고요. (B1)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3번했어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 같은 반 친구들을 성향을 섞어서 배정을 해주려고요. 아이 성향에 맞는 선생님도 배정해 주시더라고요. (중략)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랑 놀고 어떤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과 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주시려고요. (C2)

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

반일제 이상 학원의 비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원비용이 부담은 되지만 유치원 비용에 조금만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었다(A2, A3).

저 같은 경우는 일반유치원, 사립유치원이었는데 싸지가 않았어요. 경비 자체가 거기서 10~20만원만 보태면 다닐 수 있는 정도였어요. (A2)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녔던 유치원이랑 20~3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A3)

라) 아이의 흥미를 끄는 환경

반일제 이상 학원이 공간이 넓고 시설이 좋아서 아이가 흥미를 보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B1).

거기가 좀 더 넓고, 또 아이가 키즈카페 같다고 훨씬 좋아하고 거부감이 없고,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도 어린이집은 아이 반응이, 애들이 바글바글하니까 나가려하고 싫어했는데, 확 트여있고 놀이시설이 많은 놀이학교는 신기하다는 반응을 하니까 엄마가 떨어뜨려 놓기 편했어요. (B1)

2)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기대와 효과

학부모는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원 유형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대에 따라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학원 유형에 따라 다른 기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기관에 따라 특성이 있었다. 영어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는 영어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상위학교 적응이나 선행학습에 목적이 있었다(A2). 놀이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인성이나 사회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B1). 유아체능단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발달에 관심이 많고(D1) 아이의 특성 상 에너지 발산을 위해 보내기도 하였다(D2).

나중에 3학년에 가면 (영어를)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A, B, C, D를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런 것 때문에 가기 전에 기초를 잡아 놓는 셈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A2)

저희 아이는 사회성도 좋고 친근한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활발하고 인성자체가 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밝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B1)

저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중략)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로 키우려면 지금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을 많이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C3)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신체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D1)

에너지 발산을 하다보면 좀 덜 과격해지지 않을까 해서 체능단을 보냈고요. (D2)

나) 눈에 보이는 효과

영어학원과 유아체능단을 보내는 학부모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언급하였다. 영어학원을 다니는 아이는 금세 영어에 대한 성취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A3, A4), 유아체능단의 경우는 성격 개선과 자신감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D3, D1)

처음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 듣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고 어려워 했는데 최근에 물어보면 “당연히 다 듣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영어를 하더라고요. (A3)

저희 세대에서는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아도 스피킹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유치원에 나온 아이들은 유학 갔다가 오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발음을 가질 수 있고요. 스피킹에 거리낌이 없어요. 원어민과 항상 지내다보니까요. (A4)

4살 때까지는 조금 수줍음도 많고 그랬는데요. 한 6개월~1년 다니다 보니까 성격도 조금 바뀌더라고요. (D3)

저희 아이가 4살 때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고 사

람이 많은, 다른 친구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부끄럼도 많고 낮을 많이 가렸어요. (중략) 막상 보내고 나니까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요. (중략) 체능단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D1)

3) 반일제 이상 학원에 대한 불안

반일제 이상 학원은 기대에 따라 선택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보내는 기관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혹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큰 불만은 학원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질 관리가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는 점이었다.

가) 학원에 대한 정보 부족

학부모들은 입소문을 통해 학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편해 했다. 자녀를 보내는 학원 강사의 학력이나 이력(B2, D1), 운영상의 문제(D1) 등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저희는 선생님의 이력이 명확하지 않아요. 외부 강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중략) 몇 년을 (공부)하셨는지 그런 것을 몰라요. (B2)

운영상의 문제를 부모입장에서 알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조건도 알기 어렵고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운영상, 체계상의 문제가요. 교육청 소속 유치원처럼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불투명한 점이 있긴 해요. (D1)

나) 기준에 대한 규정 부재

학원은 일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학부모들은 질적인 부분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교사자격에 대해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D5).

일단 유치원은 전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유아스포츠팀은 전공과 상관이 없는, 교사자격요건이 너무 걱정이예요. (중략) 체육센터에 있는 직원이 5세반 담임을 맡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선생님을 모셔 와야 하는데 센터직원이 해서요. 이걸 정말 문제가 있지요. (D5)

다) 비용 부담

반일제 이상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은 학원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조사 대상 가구의 수입은 편차가 있었는데, 월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수입의 반 이상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A4), 향후 추가 부담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B2).

저희 아이가 2명인데 수입의 반 이상을 아이들 교육에 쏟아 붓고 있으니까요.
(A4)

비용도 부담스러워요. 애기한테 계속 추가로 들어가고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고요. (B2)

나. 사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1) 돌 이전에 문화센터부터 시작

사례조사 대상 학부모의 대부분은 자녀가 돌 되기 이전부터 문화센터에서 사교육 경험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오감발달, 음악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고(B1, B2, D1), 점차 프로그램의 종류나 방법, 기관을 확장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4개월 정도요. 마사지부터 쪽 다녔었어요. 마사지로 시작했고, 오감발달, 속명유 리드믹스 음악, 트니트니 다 하는 것어요. (B1)

(문화센터를) 굉장히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부터요. (B2)

문화센터 오감발달, 미술놀이, 아기들이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6개월 안 되었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책 읽어주고 놀아주는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해주시는 것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18개월쯤에 징보리 놀이수업을 몇 달 다녔고요. (D1)

2) 사교육을 시키는 다양한 이유

사례조사 대상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아이의 특성,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남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가) 아이의 특성

아이의 특성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보내거나(A1), 아이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요구할 때 원하는 것을 시켜주기도 하였다(A3).

너무 일찍 와요. 2시 반에 와요. 그리고 심심하다고 입에 달고 살아요. 심심하다고 하니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된다면 다 보내지 않을까요. (A1)

저희는 아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요. 지금도 수영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시키고 있어요. (A3)

나)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 제공

어린 시기에는 선호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나(A2), 집에서 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B1) 사교육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7세까지는 선호도가 완벽하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열려 있을 때 이것저것 경험해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A2)

집에서는 아주 소근육 활동만 해줄 수 있지만, 센터에 가면 아주 큰 슝 침대도 만들어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미술을 했었어요. (B1)

다)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기를 원함

학부모들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최소한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A3, A4). 사교육을 한 아이와 안 한 아이의 차이를 체험하고(A2), 상대적인 비교에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하다가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 하는 우려에서(A2, C1) 사교육을 시켰다. 다른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해 다 할 줄 아는 것을 자신의 자녀만 못할 경우 자신감 상실을 우려하기도 하였다(D5).

우리아이가 뛰어난 정도는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 게 엄마의 바람인 것 같아요. (A3)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그 갭이 너무 커지고요. 다른 애들 다 하니깐,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다보니 뒤쳐지는 것 같고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A4)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 안 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어린이집만 보냈는데, 지금도 느끼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한글 선생님을 붙여서 독서처럼 매일 와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위인전을 읽어준다든지, 그것이 10~20분정도가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략)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면 이미 했던 아이와 안한 아이는, 지금은 1, 2학년 때 시험을 안 하는 대신 수행평가를 보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A2)

엄마들이 다 같이 안하면 모를까 이미 과열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 안한다는 것은 무리수인 것 같아요. (A2)

일단은 어느 정도 남들 하는 만큼은 맞춰줘야 한다고 봐요. 너무 혼자 독야청청하면 나중에 발 동동 굴러요. (C1)

요즘은 아이들이 거의 못하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커서도 그런 면에서 일단 내가 이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주눅이 들게 되더라고요. 꼭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커서도 남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D5)

라) 공극적인 목표는 대학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공극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함으로 드러났다(A1, C1). 가깝게는 초등학교 적응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지만, 결국 이후에 특성화고등학교를 거쳐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함이다.

어차피 교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야하니까 거기에 맞춰 구멍이 생기지 않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봐야하죠. (중략) 초등학교만을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대학 입시 때문인 건데요. (A1)

욕심 있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서울대 보내겠다는 엄마들은 정말 5세 때부터 영어유치원에서 달려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 마치고 중학교 전에 수학 선형을 3번 돌려요. 영재고나 과학고가 목표라서 레벨 자체가 달라요. (C1)

3) 사교육에 끌려 다니지만 안 할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걱정하고(B2),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C2).

아이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도 휩쓸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져야하는 것 같아요. (B2)

다들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사교육금지령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C2)

다. 사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

학부모들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책들을 신뢰하지 못하며(C4),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성행한다고 생각하였다(C2). 한 학부모는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많은 고민이 되므로 연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상급 기관으로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B2).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한글교육 제대로 시킬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이다. 우리 아이 한글 모르는데 너무 잘 되었다.”해야 하는데 모든 엄마들이 “다 거짓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C4)

지금 대입이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수시로 제도가 바뀌면서 사교육이 극성을 부려서 계속 연령대가 내려와서 유치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C2)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정책이 없잖아요. 항상 바뀌잖아요. 보육료를 지원했다가 안했다. 어린이집을 못 믿어서 놀이학교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중략) 어린이집이나 놀이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유치원을 가야하는데 거기서 엄마들은 고민하잖아요. 영어유치원을 보낼지, 어디를 보낼지 고민이 되니까 안심이 되도록 방향을 정해주면 좋겠어요. (B2)

2) 대학입시 개선 요구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사교육 자체보다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학입시 문제를 쉽게 내거나(A2), 사교육 억제보다는 대학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우선(B1)이라는 생각이었다.

도와주지 않을 거면 망치치 말아 달라. 차라리 문제 자체를 대학에 갈 인구도 줄어든다던데 문제 자체를 쉽게 내서 엄마들이 학원에 돈을 안 쏟아 붓게 해야 되지 않나 해요. (중략) 저희도 논술세대이긴 하지만, 이게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없으면 대학에 못 가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A2)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억제해요. (중략) 초등학교 이후에 가면 영어학원이라든지 입시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수능이나 대학 쪽부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억제라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B1)

3)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요구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서도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쉽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고 사전교육을 전제하고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다(B3, D2)는 입장이었다. 또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였다(D1).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벌써 사교육을 안 하고는 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애는 이 정도는 떴고 왔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교과서를 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B3)

학교 교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풀기에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7살 때는 이미 한글을 배우고 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이 지나면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면 수학 시험을 보고요. 수학교 한글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도 문제니까 안 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D2)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한글을 배워도 된다고 하잖아요. 뉴스에서 한글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1학년 수학 요만큼만 넘기면 수학이 아니라 국어문제더라고요. 그것을 아이가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D1)

4)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

사교육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정책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선 학교에서 아이의 삶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예체능 분야의 프로그램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C4). 또한 사교육을 저렴하게 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C3, C1), 공교육 시간을 늘림으로써 오후 시간대의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D1).

음악, 미술, 예체능 이렇게 뭐 하나는 해서 아이가 좀 삶을 풍요롭게 보내도록 해주고 싶은데요. 학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학교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학원을 왜 보내겠어요. (C4)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절대 사교육이 없을 수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저렴하게 사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C3)

차가 없는 엄마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 피아노 같은 것은 아파트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라에서 반이나 30%정도 지원을 해줘서 엄마들이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용하기 좋은 것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C1)

외국 같은 경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5시까지 학교에서 책임을 져요. 그럼 5시 이후에 사교육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니까 1시에 집에 와요. 그럼 1시부터 오후까지 집에서 뭐해요. (중략) 학교가 5시에 끝난다면 사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D1)

4. 소결

반일제 이상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사례조사 대상자는 맞벌이보다는 외벌이인 경우가 많았고, 가구소득은 300~1,00만원까지 편차가 있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비는 40~150만원까지 편차가 다양했는데,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이 유아체육단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쌌다. 프로그램은 대체로 다양한 과목별 시간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식, 토론식, 문제풀이식, 놀이중심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컸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학원이 상대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였다.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드는 비용에서 일부만 추가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어머니들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어학원을 보내는 경우에 학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 놀이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인성이나 사회성에 비중을 두었으며, 유아체능단 학부모들은 유아의 신체발달에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기대로 학원을 보내면서 영어능력의 발달, 성격 변화, 자신감 향상 등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반일제 이상 학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고 교사 자격 등 기준이 부재하여 질적인 부분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과중한 비용 부담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사례조사 대상 학부모의 자녀들은 돌이 되기 이전에 문화센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차차 프로그램의 유형과 개수, 기관을 확장하며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아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시키고 싶은 부모의 요구,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기대 때문이었다.

자주 바뀌는 교육·보육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는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없이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공교육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향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우선 반일제 이상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 이유와 기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어 교사가 영유아를 제대로 교육·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과후과정이나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서 줄을 세우기보다는 영유아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여 그에 맞게 성장하여 갈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주고 사회적으로 경쟁이나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협동과 화합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VII. 상담치료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상담센터의 상담치료 사례분석 내용을 담고자 한다. 우선 취학 전 유아와 초등학생 상담사례를 수집하여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 중 조기 사교육과 관련된 치료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1. 상담치료 사례의 특성

서울, 경기, 충남 소재의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 42명이 취학 전 유아와 초등학생 124명의 사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상담을 받게 된 주 호소 문제

주 호소 문제는 아동이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써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다. 주 호소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관계의 어려움 65명(13.5%), 사회적 미성숙 53명(11.0%), 불안 47명(9.8%), 감정조절의 어려움 45명(9.3%), 주의산만 44명(9.1%) 순이었다. 이 가운데 7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관계의 어려움이 16명(1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12명(10.7%), 사회적 미성숙 11명(9.8%)순이었다.

〈표 VII-1-1〉 아동의 주 호소 문제 (중복응답)

단위: 명, %

주 호소 문제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내재화 문제	관계의 어려움	65	13.5	16	14.3
	사회적 미성숙	53	11.0	11	9.8
	불안	47	9.8	16	3.3
	감정조절의 어려움	45	9.3	12	10.7
	주의산만	44	9.1	10	8.9
	우울	23	4.8	2	1.8
	위축	31	6.4	9	1.9

주 호소 문제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무기력	29	6.0	5	4.5
신체화	11	2.3	7	6.3
외현화문제	33	6.8	10	8.9
공격성	18	3.7	4	3.6
학교부적응	24	5.0	5	4.5
분노	18	3.7	3	2.7
학습문제	10	2.1	2	1.8
기타				

나. 부모의 성격유형

아동을 상담한 상담자들이 보고한 아동 부모의 성격유형은 사고 중심적 성격이 72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향적 성격 38명(19.4%), 감성적 성격 37명(18.9%), 내향적 성격 32명(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7세 이하 아동 부모의 성격유형도 사고 중심적 성격이 19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나 외향적 성격보다는 감성적 성격, 내향적 성격이 더 많았다. 감성적 성격 16명(29.6%), 내향적 성격 11명(20.4%), 외향적 성격 9명(16.7%) 순이었다.

〈표 VII-1-2〉 아동 부모의 성격유형 (중복응답)

단위: 명, %

부모 성격유형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고중심적	72	36.7	19	33.3
외향적	38	19.4	9	16.7
감성적	37	18.9	16	29.6
내향적	32	16.3	11	20.4
수용공감적	10	5.1	-	-
기타	7	3.6	-	-

다.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아동 상담자들이 보고한 아동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은 비난형이 51명(3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이성형 37명(25.3%), 회유형 28명(19.2%), 산만형 17명(7.50%), 일치형 11명(7.50%) 순이었다. 7세 이하 아동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도 전체 아동 부모와 마찬가지로 비난형이 12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일치형 8

명(22.2%), 초이성형 7명(19.4%), 회유형 5명(13.9%), 산만형 3명(8.3%)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VII-1-3〉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중복응답)

부모 의사소통 유형	단위: 명, %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비난형	51	34.9	12	33.3
초이성형	37	25.3	7	19.4
회유형	28	19.2	5	13.9
산만형	17	11.6	3	8.3
일치형	11	7.5	8	22.2
기타	2	1.4	1	2.8

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통제 유형이 60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부-통제 34명(27.4%), 애정-자율 15명(12.1%), 거부-자율 15명(12.1%)의 순이었다. 7세 이하 아동 부모도 역시 애정-통제 유형이 15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애정-자율 7명(21.9%), 거부-통제 7명(21.9%), 거부-자율 3명(9.4%)의 순이었다.

〈표 VII-1-4〉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	단위: 명, %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애정 - 자율	15	12.1	7	21.9
애정 - 통제	60	48.4	15	46.9
거부 - 자율	15	12.1	3	9.4
거부 - 통제	34	27.4	7	21.9
계	124	100.0	32	100.0

마. 부모-자녀 친밀도 및 부부 친밀도

부모-자녀 친밀도 및 부부 친밀도에서 전체 아동과 아버지의 친밀도는 친밀하지 않은 경우가 46명(37.1%)으로 가장 많았으나, 7세 이하 아동과 아버지는 보통

이 15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와 아동 간 친밀도는 전체 아동과 7세 이하 아동 모두 친밀한 경우와 친밀하지 않은 경우가 유사하게 가장 많았다.

부부간 친밀도의 경우 전체 아동은 친밀하지 않음이 44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33명(26.6%), 매우 친밀 하지 않음 21명(16.9%)순으로 응답하였다. 7세 이하 아동의 부부간 친밀도는 보통이 12명(37.5%), 친밀함(25.0%), 친밀하지 않음(18.8%) 순이었다.

〈표 VII-1-5〉 부모-자녀 친밀도 및 부부 친밀도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아버지-아동 친밀도	매우 친밀함	11	8.9	4	12.5
	친밀함	17	13.7	4	12.5
	보통	39	31.5	15	46.9
	친밀하지 않음	46	37.1	6	18.8
	매우 친밀하지 않음	11	8.9	3	9.4
어머니-아동 친밀도	매우 친밀함	12	9.7	6	18.8
	친밀함	35	28.2	9	28.1
	보통	32	25.8	6	18.8
	친밀하지 않음	37	29.8	9	28.1
	매우 친밀하지 않음	8	6.5	2	6.3
부부 친밀도	매우 친밀함	8	6.5	1	3.1
	친밀함	18	14.5	8	25.0
	보통	33	26.6	12	37.5
	친밀하지 않음	44	35.5	6	18.8
	매우 친밀하지 않음	21	16.9	5	15.6
계	124	100.0	32	100.0	

바. 사교육 시작 시기

내담아동의 사교육 시작 시기는 5~6세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4세 25.8%, 7~8세 15.3% 순이었다. 취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는 비율은 75.7%로 4명 중 3명은 취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아동의 사교육 시작 시기도 5~6세가 가장 많아 22명(68.8%)이었으며 3~4세 5명(15.6%), 7세 3명(9.3%) 순이었다. 0~2세에 시작하는 경우도 2명(6.3%)이었다.

〈표 VII-1-6〉 사교육 시작 시기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0~2세	5	4.0	2	6.3
3~4세	32	25.8	5	15.6
5~6세	57	45.9	22	68.8
7~8세	19	15.3	3	9.3
9~10세	11	8.8	-	-
계	124	100.0	32	100.0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사교육 시작 시기를 보면 기타를 제외한 모든 학력범위에서 대부분 7세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학력이 고졸일 경우는 5세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한 경우가 없으며, 대졸일 경우 3~4세에 사교육을 시작한 경우가 3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II-1-7〉 아버지 학력에 따른 사교육 시작 시기

단위: 명(%)

아버지 학력	0~2세	3~4세	5~6세	7~8세	9~10세	계
고졸	0(0.0)	0(0.0)	8(88.9)	1(12.1)	0(0.0)	9(100.0)
대졸	3(4.0)	24(32.0)	35(46.7)	12(16.0)	1(1.3)	75(100.0)
석사	2(8.0)	5(20.0)	13(52.0)	3(12.0)	2(8.0)	25(100.0)
박사	0(0.0)	1(20.0)	0(0.0)	3(60.0)	1(20.0)	5(100.0)
기타	0(0.0)	0(0.0)	1(50.0)	1(50.0)	0(0.0)	2(100.0)

주: 결측값(무응답) 5명으로 인해 N=116명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사교육의 시작 시기에서도 전체 학력 범위에서 7세 이전에 이미 대부분 사교육을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 3세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한 경우는 없었고, 대졸일 경우는 3~4세에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석사일 경우 0~2세에 일찍 시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II-1-8〉 어머니 학력에 따른 사교육 시작시기

단위: 명(%)

어머니 학력	0~2세	3~4세	5~6세	7~8세	9~10세	계
고졸	0(0.0)	4(26.7)	9(60.0)	2(13.3)	0(0.0)	15(100.0)
대졸	9(11.4)	31(39.2)	30(38.0)	7(8.9)	2(2.5)	79(100.0)
석사	7(28.0)	3(12.0)	12(48.0)	1(4.0)	2(8.0)	25(100.0)

주: 결측값(무응답) 5명으로 인해 N=119명

사.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로는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이 27명(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열등감·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 24명(19.3%), 부모의 강한 성취 욕구 18명(14.5%), 타인과의 비교 14명(11.3%),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감 13명(10.5%)순이었다. 7세 이하 아동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로는 부모의 열등감·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 9명(28.1%)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강한 성취 욕구 6명(18.8%),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 4명(12.5%), 맞벌이에 대한 죄책감 4명(12.5%),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감 3명(9.4%) 순이었다.

〈표 VII-1-9〉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		7세 이하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	27	21.8	4	12.5
열등감, 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	24	19.3	9	28.1
성취욕구	18	14.5	6	18.8
타인과의 비교	14	11.3	1	3.1
과잉기대	13	10.5	3	9.4
맞벌이에 대한 죄책감	10	8.1	4	12.5
자녀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8	6.5	2	6.3
자녀의 강점을 살려주기 위해	4	3.2	1	3.1
부모의 무기력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	4	3.2	2	6.3
기타	2	1.6	-	-
계	124	100.0	32	100.0

아. 사교육의 종류

내담아동이 받고 있던 사교육의 종류는 영어 107명(16.9%), 수학 85명(13.4%), 운동 80명(12.6%), 학습지 57명(9.0%), 논술 47명(7.4%), 악기46명(7.2%), 국어 44명(6.9%) 순이었다. 7세 이하 아동은 영어와 운동이 각각 1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악기(11.3%), 창의성(9.9%), 학습지(9.3%), 수학(9.3%), 미술(6.6%) 순이었다.

〈표 VII-1-10〉 사교육의 종류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	7세 이하	구분	전체 아동	7세 이하
영어	107(16.9)	25(16.6)	창의성	43(6.7)	15(9.9)
수학	85(13.4)	14(9.3)	과학	38(6.0)	7(4.6)
운동	80(12.6)	25(16.6)	미술	34(5.4)	10(6.6)
학습지	57(9.0)	14(9.3)	영재교육	22(3.5)	2(1.3)
논술	47(7.4)	6(4.0)	제2외국어	11(1.7)	4(2.6)
악기	46(7.2)	17(11.3)	기타	21(3.3)	9(6.0)
국어	44(6.9)	4(2.6)			

자. 사교육 수

내담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수는 6~7개가 45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4~5개 39명(31.5%), 8~9개 21명(16.9%), 2~3개미만이 16명(12.9%), 10개 이상을 받는 경우도 3명(2.4%)이나 되었다.

〈표 VII-1-11〉 사교육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2 ~ 3개	16	12.9
4 ~ 5개	39	31.5
6 ~ 7개	45	36.3
8 ~ 9개	21	16.9
10개 이상	3	2.4
계	124	100.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교육 개수를 살펴보면, 전체아동의 경우 6~7개 하는 아동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5개(31.5%), 8~9개(16.9%) 순이었다. 7세 이하 아동의 경우 4~5개가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7개(25.0%), 부모의 양육태도별로 보면, 전체아동의 경우 애정-자율 유형이 사교육을 비교적 많이 시키며, 그 다음은 애정-통제, 거부-통제, 거부-자율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애정-통제 유형의 5%는 10개 이상의 사교육을 시킨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세 이하만 보면, 애정-자율 유형이 사교육을 많이 시키며, 그 다음은 거부-자율, 애정-통제, 거부-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단, 사례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VII-1-12〉 부모 양육태도와 사교육 수

단위: 명(%)

부모 양육태도	전체 아동						7세 이하					
	2~3개	4~5개	6~7개	8~9개	10개 이상	계	2~3개	4~5개	6~7개	8~9개	10개 이상	계
애정-자율	3 (20.0)	2 (13.3)	2 (13.3)	8 (53.3)	0 (0.0)	15 (100.0)	0 (0.0)	0 (0.0)	0 (0.0)	7 (100.0)	0 (0.0)	7 (100.0)
애정-통제	6 (10.0)	16 (26.7)	29 (48.3)	6 (10.0)	3 (5.0)	60 (100.0)	3 (20.0)	6 (40.0)	6 (40.0)	0 (0.0)	0 (0.0)	15 (100.0)
거부-자율	1 (6.7)	9 (60.0)	4 (26.7)	1 (6.7)	0 (0.0)	15 (100.0)	0 (0.0)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거부-통제	6 (17.6)	12 (35.3)	10 (29.4)	6 (17.6)	0 (0.0)	34 (100.0)	1 (14.3)	5 (71.4)	1 (14.3)	0 (0.0)	0 (0.0)	7 (100.0)
계	16 (12.9)	39 (31.5)	45 (36.3)	21 (16.9)	3 (2.4)	124 (100.0)	4 (12.5)	13 (40.6)	8 (25.0)	7 (21.9)	0 (0.0)	32 (100.0)

사교육에 주요한 관심을 갖는 부모의 동기가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인 경우 사교육을 6~7개 시키고 있는 경우가 13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열등감과 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인 경우 또한 사교육을 6~7개 시키고 있는 경우가 11명(45.8%)로 가장 많았다.

〈표 VII-1-13〉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동기와 사교육 수

단위: 명(%)

사교육에 관심 갖는 부모의 동기	2~3개	4~5개	6~7개	8~9개	10개이상	계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	1 (3.7)	5 (18.5)	13 (48.1)	8(29.6)	0(0.0)	27(100.0)
열등감, 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	3(12.5)	9(37.5)	11 (45.8)	0(0.0)	1(4.2)	24(100.0)
부모의 강한 성취욕구	2(11.1)	4(22.2)	6 (33.3)	5(27.8)	1(5.6)	18(100.0)
타인과의 비교	2(14.3)	4(28.6)	7 (50.0)	0(0.0)	1(7.1)	14(100.0)
과잉기대	1 (7.7)	5(38.5)	4 (30.8)	3(23.1)	0(0.0)	13(100.0)
맞벌이에 대한 죄책감	1(10.0)	3(30.0)	1 (10.0)	5(50.0)	0(0.0)	10(100.0)
자녀의 강점을 살려주기 위해	1(25.0)	2(50.0)	1 (25.0)	0(0.0)	0(0.0)	4(100.0)
자녀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2(25.0)	5(62.5)	1 (12.5)	0(0.0)	0(0.0)	8(100.0)
부모의 무기력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	1(25.0)	2(50.0)	1 (25.0)	0(0.0)	0(0.0)	4(100.0)
기타	2(100)	0(0.0)	0 (0.0)	0(0.0)	0(0.0)	2(100.0)
계	16(12.9)	39(31.5)	45(36.3)	21(16.9)	3(2.4)	124(100.0)

어머니와의 친밀도에 따라 아동이 받은 사교육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아동 가운데 어머니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교육 수가 보통으로 친밀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교육 수보다 더 많았다. 7세 이

하 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친밀도에 따라 아동이 받은 사교육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교육 수가 매우 친밀하다와 보통으로 친밀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교육 수보다 더 많았다.

〈표 VII-1-14〉 관계에 따른 사교육 수

단위: 개

구분	전체 아동			7세 이하		
	부-아동 관계	모-아동 관계	부부 관계	부-아동 관계	모-아동 관계	부부 관계
전체	2.65	2.65	2.65	2.56	2.56	2.56
매우 친밀	2.64	2.17	2.63	2.50	1.83 ^a	1.00
친밀	2.71	2.86	2.83	2.00	2.56	2.75
보통	2.67	2.16 ^a	2.64	2.93	2.00 ^a	2.75
친밀 안함	2.65	3.05 ^b	2.59	2.33	3.56 ^b	2.67
매우 친밀 안함	2.45	2.50	2.62	2.00	2.00	2.00
<i>F</i>	0.12	5.34 ^{***}	0.99	1.23	6.45 ^{***}	1.29

*** $p < .001$.

주: 알파벳 표시는 사후검증 결과로 a, b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상담사례 심층분석

본 절에서는 서울, 경기 소재 상담센터에서 사교육으로 인한 정서, 사회, 행동문제를 보이는 상담 사례 5가지를 질적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5가지 사례 개요는 <표 VII-2-1>과 같다.

〈표 VII-2-1〉 상담사례 개요

구분	개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4학년 여아, 4학년이 되어 왕따를 당하고 친구에 대한 집착 보임 · 아버지는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 어머니는 급한 성격 · 여섯 살까지 조모가 양육, 아동이 만 여섯 살 때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학습적인 면에 더욱 더 신경 씀 ·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내담아동에게 영어 테이프를 틀어주거나 교육용 영어 비디오를 보여줌 · 아동이 영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믿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원어민 영어회화, 학습지 등을 시키면서 학습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안 재우기도 함. · 3학년부터는 영재교육원에 다님

구분	개요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6학년 여아, 산만한 경향이 있음 · 아버지가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경제관념이 없어 부모는 7년째 별거 중이며 큰 이모, 큰 이모의 친구와 살고 있음 · 어머니는 책임감이 강하고 자녀에게 헌신적인 반면, 자녀에 대한 비난과 통제가 많고, 성격이 급하며 화를 잘 내는 다혈질 성격임. 인성검사에서도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많이 보임 · 주양육자인 큰 이모는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양육태도의 일관성이 부족함. 인성검사에서는 불안, 우울, 무기력이 나타남 · 영어학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또래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으나, 어머니는 격려하기보다는 심하게 비난하고 체벌함 · 아동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과다한 사교육(영재교육, 영어, 수학, 수영, 노래 부르기, 악기, 논술, 학습지 3개)을 받으며 시간을 보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5학년 여아, 눈 깜박임과 입을 벌리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운동틱 증상 보임 · 학업능력, 영어실력, 운동이나 악기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또래에 비해 탁월한 실력을 보이는데, 꼭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음 · 부모, 외조모, 여동생과 거주하며, 외조모가 주양육자임 · 외조모가 교육열이 강하고 아이들 양육에 적극적이어서 부모는 지켜보는 입장임. 외조모는 아이들의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아이들이 제 때 숙제를 하지 않으면 다그침 · 아버지는 깔끔하고 가정적이며 어머니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잘 챙겨주는 스타일로 잔소리가 많음. 타인의 감정에 둔감함 · 어머니는 야근을 많이 하며, 대부분의 생각이 일에 집중되어 있음 · 유아기부터 영어, 중국어, 수학학원, 전 과목 학습지, 수영, 방송 댄스, 손글씨 아트, 플루트, 줄넘기, 발레, 하모니카 등의 많은 사교육에 노출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6세 남아, 수업 참여를 안 하며 대화를 나눌 때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또래들을 오해해 화를 내는 경우가 잦고 관심 있는 부분에만 집중함 · 아버지의 외도로 7개월 전부터 아버지와 별거상태로 이혼 진행 중 · 아버지는 표현이 거의 없으며,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 아동의 수학공부에 신경을 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성격 · 어머니는 다혈질 성격으로 급하고 욕하는 경향이 있으며, 확실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맞고 틀린 것을 따짐.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음 · 아동은 겁 많고 잘 울고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며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 어머니와 마찰이 큼 · 두 살 때부터 네 살 까지 영재교육을 받았고, 다섯 살부터는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숙제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음. 이 외에도 검도, 수학영재교육, 플룻을 배우고 있었으며 매일 국어, 영어, 중국어, 수학 학습지를 함 · 아동은 지속해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가족에게 불안정, 긴장감, 갈등을 느낌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를 사용하는 놀이학원에 다니는 6세 남아, 대인관계나 환경에 예민함. 특히 어른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나타냄. 낯선 곳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면 긴장을 해서 손톱을 물어뜯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함

구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는 답답하고 꼼꼼한 성격이며, 가족을 아끼나 매우 바쁘며 익숙한 것을 좋아함. 자신과 타인의 실수에 대한 허용이 부족함 · 어머니는 현실적, 지시적이고 조용하며 말수가 별로 없고 자존감이 낮음. 원 가족 안에서는 강압적인 양육방식에 억눌려 성장함 · 아동은 억압된 내적인 분노감이 있고, 애정욕구에 대한 좌절감이 큼 · 네 살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놀이학원을 다니고 있고, 방과후 중국어, 발레 교육을 함. 놀이학교가 끝나면 태권도, 축구, 미술, 한글 학습지를 하고 놀이 선생님을 불러 주 3회 놀이학습을 함

이상의 5가지 사례를 가지고 취학 전 연령부터 학령기 아동들의 사교육 관련 경험 및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양육 경험을 이해하여 사교육과 아동의 정서·사회·행동적인 문제, 부모-자녀 관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내담아동의 상담 내용 및 어머니의 이야기 안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상담 중에 내담아동의 사교육과 관련한 보고가 있는 회기에 집중하였으며, 내담아동이 사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와 사고에 대해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상담 시 어머니가 보고하는 사교육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과 사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머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보려는 자세를 가지기로 했다.

본 연구는 아동과 부모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연속되는 사교육과 관련된 경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하며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고자 Stake(1995)가 소개한 범주 합산 혹은 직접 해석방법에 따라 모-자녀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영역 및 범주를 <표 VII-2-2>와 같이 4가지 영역과 19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가 어떻게 개인적·실천적 지식을 내러티브적 일관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를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들을 관찰하고 경청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표 VII-2-2> 모-자녀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영역 및 범주

영역	범주
자녀 기억 속의 사교육 경험	1. 너무 일찍 무언가를 배웠어요.
	2.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3.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좌절	1. 완수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2. 친구들은 너무 잘해요.
	3. 나에게 잘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영역	범주
	4. 왜 그렇게 공부만 해야 되요?
	5. 지금 멈추면 다 망쳐요.
사교육에 집착하게 된 어머니와 길들여진 자녀	1. 아이가 원해서 시킨 거예요.
	2. 우리 아이는 특별해요.
	3.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하고 싶어요.
	4.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아이가 이뤄주길 바래요.
	5. 공부를 잘해야 사회적으로 특별할 수 있어요.
	6. 아이가 실패할까봐 불안해요.
사교육에 저항하는 자녀와 한계에 직면한 어머니	1. 친구들과의 소통이 불편해요.
	2. 가족들이 나만 보고 있어요.
	3. 사교육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4. 1등이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5.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요.

가. 자녀 기억 속의 사교육 경험

1) 너무 일찍 무언가를 배웠어요.

아동과 어머니는 상담회기가 진행되면서 사교육과 관련된 유아기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동에게 영유아기 때 경험한 사교육과 관련된 기억은 아주 어릴 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어려서부터 인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으로 기억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인지적인 자극이 아동에게는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과제를 성취한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영어는 내가 4살 때부터 배워서 영어는 절대 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체스를 사촌 동생에게 졌는데, 지고 나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사례A 아동)

선생님, 저는 아기 때부터 한글나라 선생님이 오셔 한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이들은 한글 수업 마치면 영재교육원과 영어유치원을 다녀야 해요. 그게 코스예요. 또 학교들어가기 전에 바이올린, 피아노, 미술, 태권도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 해요. (사례B 아동)

애가 두 살 때 제가 전뇌교육 하는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 나이 때 두뇌발달이 중요하다고 텔레비전에서 보고 찾아 갔죠. (사례D 어머니)

2)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동은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 보고에서 어머니의 선택이나 욕구에 의해서 자신이 사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정서적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아동은 자아가 어머니로부터 아직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머니의 성취 욕구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엄마가 5살 때부터 한자공부를 시켰어요. 동생은 요즈음 중국어를 배워요. 저는 절대 중국어 안 배울 거예요. (사례A 아동)

영어유치원 다니면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며 따돌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큰이 모도 아프고 아빠는 집 나가고 저희 집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죠. (사례B 아동)

결국 지금은 영어를 잘하게 되었지만 한번 아이 어릴 때를 생각하면 혹시나 너무 심하게 나무라고 멍청하다고 때리기도 해서 상처가 되지 않았나 미안하고 그래요. (사례C 어머니)

그 때 안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례D 어머니)

3)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례 A, B, C의 어머니는 뚜렷한 목적 없이 유아기 사교육을 접하게 되었으나 사교육에 노출된 이후에 아동이 남과 다른 재능을 보이거나 기대 이상의 성취를 해내게 되면서 욕구가 과잉되는 측면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그 이후의 모-자녀 관계는 사교육과 관련된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아동은 어머니의 부정적 피드백에 자주 노출되면서 정서적 만족감이 감소하였다.

어렸을 때는 영어나 영재교육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영어 테이프나 동영상 틀어주면 잘 듣고 있기도 하고 암전히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부터 영어 테이프로 들은 것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로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례A 어머니)

영어유치원 다니면서 영어 못 한다고 친구들이 놀리고 왕따 당하는 게 화가나 더 열심히 영어공부 시켰어요. 매일매일 영어단어 외우게 하고 온라인 영어동화 사이트에서 영어동화책 읽고 화상영어통화도 하고 영어방문선생님도 하고... 이렇게 많이 공부시켰는데 영어를 또래친구들 보다 잘한다고 느껴지지 않아 불안해요. (사례B 어머니)

두 살 때 사교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정서발달을 하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양육서적을 읽으면 정서발달이 잘 된 아이가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사실 시작한 거죠. (사례C 어머니)

나. 사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좌절

1) 완수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례 A, B, C의 아동은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사례 D, E 아동은 게임 놀이 상황에서 반드시 이기려는 경쟁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과제 완수를 하고 자녀가 잠들기 원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잠자는 시간은 10시 30분인데... 오늘은 공부가 9시4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게임도 못하고 동영상도 못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8시 25분에 TV에서 하는데 공부 때문에 거의 못 봐요. 한글 동영상은 30분 이하, 영어 동영상은 30분 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한글 자막이 나오는 동영상은 엄마가 자막을 가리기도 해요. (사례A 아동).

엄마는 보통 9시에서 10시에 집에 들어와요. 제가 인사하면 숙제부터 보여 달라고 해요. 엄마랑 약속한 그 날의 숙제와 공부를 다 하고 엄마에게 검사 받은 후 통과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밤12시가 넘어야 잘 수 있죠. (사례B 아동).

선생님 저 어제도 새벽 1시에 잤어요. 그 때까지 영어말하기 대회 준비했어요. 이번 시험에 짱치기(친구별명)를 꼭 이겨야 해요. 다른 애들하고는 나와 상대도 안 되고 짱치기와 내가 1등을 번갈아가며 하는데 꼭 이기고 싶어요. 지면 절대 안 되요. (사례C 아동).

아이가 1등을 하거나 상을 타면 동네에 할머니가 소문을 내요. 1등을 하지 못한 날에는 아이의 숙제가 늘어나요... 울면서도 끝까지 숙제를 하고 잠이 들어요. (사례C 어머니).

(스매싱 축구게임을 하며 두 번째 판에 아동 대 상담자가 5 대 9 상황. 상담자가 1점을 더 넣으면 이기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골을 넣음) 숙 숙 숙~ 아니라구요. 제가 넣었다구요. 선생님이 반칙한 거예요.(라고 하며 게임판을 뒤집음.) (사례D 아동)

(인생게임을 열고는) 이걸 대학생할이 먼저 하는 거고 대학생할 한 사람은 무조건 의사를 할 수 있어요(의사가 가장 월급이 높아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엄마가 저한테 의사가 되라고 했는데 의사가 되려면 잠을 자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한대요. 저 매일 밤 3시에 자요. (사례E 아동)

2) 친구들은 너무 잘해요

사례 A, B, C의 아동은 친구들을 많이 의식하고 경쟁적인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이런 특성은 사교육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커지는 현상을 보였으며 타인과의 비교에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안, 위축 또는 강박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표출되었다. 사례 D 아동은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영어로만 해야 하는 학원 생활에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감 및 적응에서의 어려움이 놀이에서 표현되었다. 사례 D 어머니는 영어학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 염려되지만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한다.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동상인데... 안타까워요. 난 4살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엄청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시험 치는 거라서 나만 많이 틀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사례A 아동)

선생님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전 과목에서 하나만 틀려도 망했다고 난리들 이에요. 세상에 친구들은 공부만 해요. 제가 공부가 재미있는지 물어보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사례B 아동)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영어말하기 대회 나가서 짱치기가 금상을 받아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영어학원 알아봤어요. 시험까지 지면 나 진짜 죽을 거예요. (사례C 아동)

(호랑이 4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꺼낸다) 애네들이(호랑이 4마리)가 강아지 괴롭혀요. 제임스(아동의 영어이름, 강아지)보고 영어 못한다고 여기로 오지 말래요. 너 저리가! 그래요. 제임스는 숫자만 좋아하지 영어 싫대요. (사례D 아동)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잘 못 어울리네요. 유치원에서 그러는데 혼자 숫자만 쓰고 있대요. 말도 거의 안하구요... 영어는 지금 안하면 나중에도 못하게 되고 거기 있으면 영어를 계속 들으니깐 두기는 할 거예요. (사례D 어머니)

3) 나에게 잘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사례 A, C 아동은 자신의 과제 성취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특징을 보였지만 높은 성취 욕구가 좌절된 상황은 아동에게 무력감과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학예회에 합주를 하는데 나는 멜로디언 연주를 해요.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는 거라서 어려워요. 노력을 많이 해야 해 낼 수 있어요. 많이 노력해야 하는 일은 너

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례A 아동)

영어 스피치 대회에 나갔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준비한 것만큼 잘 못했어요. 더 이상 잘하는 건 힘들어요. 잘하는 친구들 보면 많이 불안해요. (사례C 아동)

4) 왜 그렇게 공부만 해야 돼요?

사례 A, B 아동은 강요에 의한 학습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학습동기가 상실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자발적인 성취욕구 및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면서 현실상황에 대한 불평과 정서적 불만족감을 갖게 했다. 사례 D, E 아동은 공부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해야 하는 학습지와 비난형의 어머니 태도로 인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고 있음이 표현되었다.

내 소원은 아무거나 하고 놀거나 아무 할 일 없이 지내는 거예요. 예전에 편도선 수술하고 너무 아팠지만 마음대로 놀고, 학교도 안가고, 엄마가 게임도 다운로드 받아주고...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은 아프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픈 건 싫지만... 토요일만이라도 놀면서 지내고 싶어요. (사례A 아동)

영어학원은 영어단어 50개 시험 봐 80점이 넘어야 집에 갈 수 있고, 수학은 틀리면 오답노트 써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 밖에 수영, 노래 부르기, 논술, 과학, 구몬 학습지 (연산, 한자, 국어) 등 해야 해요. 또 학교 숙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따로 매일매일 풀어야 할 문제집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만 하루 종일 해야 할까요? (사례B 아동)

친구들은 80점 이상 받아도 좋아하지 않아요. 100점 아니라고. 이렇게 공부만 해도 대학 못 갈까봐 걱정해요. 우리 엄마는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엄마도 이모도 매일매일 한숨 쉬어요. (사례B 아동)

(역할놀이를 하며) 너 너 너 공부 안 해? 계속 숫자만 쓸 거야? 그거 엄마가 찢어버린다! 빨리 선생님 도망가야죠. 저기 숨어요. 나 중국어 학습지 안 할 거야! 나 중국인 아니야! 나 한국인이야! 너 그러다 노숙자 되 노숙자 될 거면 하지 마~ 그런데 선생님 노숙자가 뭐예요? (사례D 아동)

(한글 학습지를 들고 들어오려고 했고 이를 제한하니 갑자기 울면서 떼를 씌. 놀이실 문 앞에 두기로 약속하고 놀이실에 입실함) 이거 안하면 이제 놀이 안 간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학습지 앞에 인형 하나를 두고) 네가 이거 해줘. 나 놀고 싶어. (지난번에 했던 인생게임을 꺼내며) 나 대학생활할거예요. 직장인은 힘들어. (사례E 아동)

5) 지금 멈추면 다 망쳐요

사례 A, C의 아동은 사교육으로 인해 지금까지 성취해 놓은 학습능력이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해야만 자신의 학습능력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로 인해 사교육을 멈추는 것은 곧 성취해 놓은 목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여겨져 사고를 유연하게 전환하지 못했다. 사례 D, E의 어머니들은 유아기 때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령기의 학업성취의 승패가 갈린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했다. 유아기 때의 학습이 학령기의 성적에 영향을 주고 좋은 성적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로 연결될 것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었다.

난 공부 조금만 멈추어도 다 망칠까봐 걱정되어서 못 그만두는 거예요. 가끔 엄마가 힘들면 그만 해도 된다고 하는 데 난 그러면 다 엉망 될 것 같아요. (사례A 아동)

어제 아침에 너무 아파서 학원안가고 싶었는데 안 간다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진짜 엄만 가지 말라고 했을 거거든요. 학원을 한번이라도 빠지면 나보다 친구들이 더 많이 배운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아파도 안가면 뒤쳐질까봐 안가면 안돼요. (사례C 아동)

지금 하고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이것보다 더 해요... 요즘 왕따는 공부 못하는 애가 왕따가 되요. 첫째 아이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그럴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아무리 산만해도 선생님도 좋아해요. (사례D 어머니)

지금 애가 자신감 없이 저렇게 말도 안하고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뭔가 특출 난 게 있으면 친구들이 볼것죠. 솔직히 지금보다 초등학교가 걱정이예요. 초등학교 가면 애가 잘 적응하려나. 초등학교 때문에 지금 시키는 거예요. (사례E 어머니)

다. 사교육에 집착하게 된 어머니와 길들여진 자녀

1) 아이가 원해서 시킨 거예요.

사례 A, C의 어머니는 사교육의 문제를 처음 인식했을 때 사교육에 집중하게 된 원인을 아동의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교육을 시작하게 된 욕구를 아동의 자발적인 동기로 생각함으로써 인해 어머니는 사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D 아동은 숫자에 매우 집착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놀이 시간에 수학 공식을 쓰고 풀이하는 놀이를 했다. 부모는 현재 별거 상태이며 아동은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동이 자기가 원해서 숫자 공부를 하며 수학에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아동이 수학

공부할 때 과하게 칭찬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이 수학에 집착하는 것은 수학에 몰입하는 것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투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좋아하고 원해서 시키는 거예요. 뭐든 하면 그만 두려고 하지 않아서. (사례A 어머니)

아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더 놀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잠시도 쉬는 시간을 두지 않고 학원에 다니려고 해요. 그래 놓고 밤 되면 피곤하다고 울죠. (사례C 어머니)

(스케치북에 구구단을 10단부터 20단까지 쪽 쓰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10 \times 1 = 10$, $10 \times 2 = 20$, $10 \times 3 = 30$, $10 \times 4 = 40$ $20 \times 1 = 20$, $20 \times 2 = 40$, $20 \times 3 = 60$
 (사례D 아동)

2) 우리 아이는 특별해요.

사례 A, C의 어머니와 아동은 공통적으로 아동이 타고난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다.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고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스스로 특별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에 좀 더 집중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례 D 아동은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고, E 아동은 우수한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습하는 것마다 빠르게 흡수하면서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피드백은 사례 D와 E 어머니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면서 사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원인이 되었다.

많은 준비 없이 치른 전국단위 영어경시대회에서 장려상 땀어요.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들 해요. (사례A 어머니)

영어학원 선생님이 저보고 최고래요. 우리 반에 언니들이 더 많고 제가 쎄 어리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쎄 잘해요. (사례C 아동)

신문사에서 하는 수학대회를 나갔는데 동상을 타왔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진짜 천재가 나왔다고 했죠. (사례D 어머니)

놀이학교에서 애가 행동은 가장 느려도 머리는 가장 빠른 것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해주셨어요. 손톱 물어뜯고 있고 뒤로 숨어도 뛰어난 애는 알아볼 거예요. 난 애 IQ가 그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영재교육 받으라고 할 때 받을 걸 그랬어요. 초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시키려구요. 애가 잘해야 내가 살아요. (사례E 어머니)

3)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하고 싶어요.

사례 B, C의 어머니는 미래에 대한 불안정감 및 자신의 성취욕구로 인해 부족한 양육자로서의 죄책감을 사교육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특징이 보였다.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인 결핍감과 불안감을 사교육에 집착하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사례 D, E 어머니는 가정의 혼란과 건강 이상으로 인해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사교육을 통해 보상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우리 아이만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도 대학을 못 갈수도 취업을 못해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례B 어머니)

제가 좀 이기적인가 봐요. 전 아이보다는 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엄마가 공부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 돌 지나면서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려 했어요. 난 내가 일하려면 엄마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돈으로 아이를 키우려 했어요. (사례C 어머니)

애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여자문제 때문에 남편과 싸웠어요. 둘째를 가진 건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한 건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애가 두 살 때인가부터 시찌다라고 전뇌교육을 받는 곳인데 그곳에 다녔어요. 하도 남편과 싸우니까 발달에 이상이 생길까봐 정말 알아보고 알아봐서 다닌 거예요. 아이는 잘 키우고 싶더라고요. (사례D 어머니)

내가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애들을 붙잡고 있으면 서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계속 입주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지만 저도 아동복지를 전공해서 엄마의 중요성은 알거든요.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안되겠다 싶어서 내가 마음을 주지 못하면 밖에서 좋은 걸 배워오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E 어머니)

4)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아이가 이뤄주길 바라요.

사례 A, B, C는 좌절된 성취욕구가 세대 전이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원가족 내에서의 미해결 과제로 인한 좌절감을 보상하고자 자녀를 동일시하여 세대 간의 역기능적 관계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 내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교육과 같은 외적 환경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사례 D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의사가 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이는 자신의 좌절된 성취 욕구를 보상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는 아동의 병원놀이에서 의사 역할에 어머니, 환자 역할에 자신을 투사해 공감을 받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게 하였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아동에게 괜한 욕심을 부리게 되어서 많은 시간을 아이의 마음과 함께 해주지 못해서 요즈음은 볼 때 마다 미안해요. 그 욕심이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해요. (사례A 어머니)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니고 공부에 신경 썼다면 지금의 남편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불안한 것은 아이가 아빠를 닮아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 될 까봐 겁이 나요... 제 아이는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례B 어머니)

제가 원래 어릴 때 거의 2등만 했었어요. 1등을 못했었어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니 난 속상해 할 수 없었어요... 전 시골 학교에 가서라도 1등이란 걸 하고 싶더라구요. 아이에게 1등을 바랬던 게 제가 1등을 못해서였네요. (사례C 어머니)

(아동이 직접 의사와 환자 1인 2역으로 역할극 진행함) 환자: 선생님. 배가 아파요. 선생님: 환자는 머리가 아파요. 환자: 선생님. 나요, 팔이 아파요. 선생님: 환자는 다리가 아파요. 환자: 선생님. 나 손이 아파요. 여기 대일밴드 붙였어요. 선생님: 대일밴드 떼요. 안 아파요. 환자 : (사례D 아동)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을 보면서 하얀 가운이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도 나도 고등학교만 나왔잖아요. 돈도 없었지만 공부를 못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잖아요. 우리 집에 의사 사짜 아들 하나 나오면 제가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왜 그 많은 돈을 애한테 투자하겠어요. (사례E 어머니)

5) 공부를 잘해야 사회적으로 특별할 수 있어요.

사례 C의 아동은 공부를 잘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의 성취가 곧 자신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생각은 학업 성취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사례 B, C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아동의 성취에 대한 강박과 불안은 어머니에게서 전이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공부를 잘 해야 되잖아요. OO에 사는 것도 아이의 교육 때문 이에요. 회사가 분당에 있는데 2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해요. 제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조금 만 공부를 더 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곳에 취직도 할 수 있고. (사례B 어머니)

엄마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 다니잖아요. 엄마도 나처럼 어릴 때부터 공부 잘 했대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야 나중에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잖아요. (사례C 아동)

학원 스케줄이 영, 수, 영재학원, 제2외국어, 발레, 음악 다 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된다고도 하대요. 다행인건 저와 제 남편이 아이를 그렇게 보내 줄 능력이 있다는 거고 아이도 잘 따라주긴 하는데 틱 하는 걸 보면 속으로는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틱을 선택할래 1등을 선택할래’라고 하면 난 솔직히 1등을 선택하고 있네요. (사례C 어머니)

6) 아이가 실패할까봐 불안해요.

사례 B의 어머니는 한 부모 가족이라는 결핍감과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동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동의 성공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게 되었고 이것은 아동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행동문제가 강화되었다. 사례 C의 어머니는 아동의 성취욕구가 지나쳐서 심리적으로 지친 것 같다는 불안감을 표현했다. 이런 어머니의 불안감은 아동을 더욱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례 E 아동의 문장완성검사에서 ‘아동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몽둥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동의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한다고 했지만 아동의 기질적 예민함으로 인해 우수한 지적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실패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기인된 통제방식으로 보였다.

아이가 숙제를 다 하지 않고 숙제를 다 했다고 거짓말해요. 걱정되고 불안해요! 남편의 도박, 실직, 거짓말, 무책임함을 아이가 배울까봐 걱정 되요. 그리고 나 혼자 키워야하는 책임감이 너무 커요. 집에 가도 쉬지 못하고 아이 숙제와 공부를 봐주어야 해요. (사례B 어머니)

아이가 저러다가 갑자기 다 그만둔다고 할까봐 불안해요. 저렇게 욕심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렇게 울고. 스스로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공부 욕심이 너무 많아 저렇게 붙잡고 하지만 다 필요 없다고 다 놓아버리지는 않을까 한편 걱정도 되요.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C 어머니)

애가 매일 해야 하는 숙제를 안 할 때 매를 들어요. 학교가면 숙제가 있고 숙제는 매일 해야 하는 거니까 미리 제대로 습관을 잡아야 해요... (남편이) 지난번에 좀 세계 때리더라구요. 강해지라고. 지금은 어리니까 배우는 데로 잘하는데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저 성격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예요. (사례E 어머니)

라. 사교육에 저항하는 자녀와 한계에 직면한 어머니

1) 친구들과의 소통이 불편해요.

사례 A, B, C의 아동과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나친 사교육의 집중은 또래관계의 경험을 다양하게 노출시키지 못하여 상호 소통 능력, 관계 기술의 발달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아동들의 또래관계 문제는 저학년 시기를 벗어나 또래집단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고학년 시기에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불안정한 또래관계는 어머니의 불안을 더욱 강화시켜 사교육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욕구로 나타나 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례 D 아동은 영어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놀이를 하며 또래관계에서 오해를 해서 화를 내거나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며, E 아동은 환경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도 예민함이 두드러져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보고하면서 D, E 아동 모두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런 또래관계의 어려움은 자기만의 판타지에 깊게 몰입해 안전감을 확보한 후 그 안에서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놀이에 나타난다. 사례 D, E의 어머니는 아동이 겪는 또래관계에서의 좌절감을 공감하지 못한 채 답답함을 표현했고 이는 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화가 나서 학교생활에 대해서 다그쳤더니, 이기적인 친구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상처만 더 받았어요. (사례A 어머니)

학원에 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영어단어를 다 외우지 못해 20점 받죠.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져요. 왜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와 성적만 신경 쓰는 친구들과 통하지 않아요. (사례B 아동)

매 학년마다 친구들 문제가 없던 적이 없네요. 친구들이 많이 붙으면 시끄럽고 귀찮다고 싫다고 하고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면 안 놀아준다고 뭐라고 하고. 경쟁적으로만 친구를 생각하니 친구들이 안 붙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네요. (사례C 어머니)

애만 유치원에서 따로 논데요. 자폐증이라고 있던데 검사했더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집에서 영어 공부할 때 보면 다 알아듣고 말도 하는데 유치원에만 가면 친구들과 못 어울리네요. (사례D 어머니)

(큰 공룡 네 마리와 악어 한 마리를 꺼냄. 공룡에게 화살 쏘아 맞추고는) 안 되

겠다~ 칼도 꺼내야겠다. (칼을 두 개 꺼내 공격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고 찌름. 다시 활 쓰고 칼로 찌르고는) 아휴 숨차~ (그리고는 다시 점프해서 칼로 때리고 찌르고 칼로 들어 바닥에 내동맹이치고는 찌름) (사례E 아동)

애는 밖에서 친구를 만나도 인사를 안 해요. 친구는 반갑다고 신나서 이름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드는데 애 내 뒤에 숨어요. 친구가 얼마나 무안하겠냐고 인사하라고 해도 안 해요. (사례E 어머니)

2) 가족들이 나만 보고 있어요.

사례 A, B의 아동은 사교육과 학습에 집중되어 있는 가족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압박감을 느꼈으며 이는 아동에게 가족 간의 불편한 상황이 자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사례 D 아동은 볼풀 공에 영어로 글씨를 써서 붙여 집안에 가둬둔 여자인형에게 던지는 놀이를 통해 영어공부를 강압적으로 시키는 어머니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냈으며, 사례 E 아동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자존감이 낮아 상담자가 인정해주는 반응에 거부적인 공격성을 드러냈다. D, E 아동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주목하지만 비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서의 주목에서 좌절감을 드러냈다.

자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혀가 혈어서 너무 아프고 쓰러요.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게 하셨어요. 주사도 맞고, 약도 바르고, 약도 먹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좋겠는데. (사례A 아동)

매일매일 학교 가기 전에 꼭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 않으면 비난하는 이모와 엄마가 싫어요. 엄마와 이모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도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잔소리를 하시고, 또 해 놓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고 혼내요. 가족들이 저만 보고 있어요. (사례B 아동)

글씨 써지는 테이프 주세요. 테이프에 영어 쓸 거예요. (볼풀 공 하나하나에 영어 단어를 쓴 테이프를 붙임. 벽돌로 네모를 만들어) 이거 집이에요. 선생님 여기에 들어가요. (상담자 안에 들어가니 볼풀 공을 던짐. 이를 제한하고 아동이 선택한 여자 인형으로 대체함. 여자 인형에 집중적으로 영어 단어를 쓴 볼풀 공을 던짐) 맞아라!! 아싸~!! 맞았다 히히 여기 봐요 넘어졌어요. 히히 (사례D 아동)

상담자: 네가 이걸 만든 거구나.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구나. 금세 모양이 달라졌네. 아동: 나 쳐다보지 마요. 뒤돌아요. 상담자: 선생님 반응이 불편하구나. 아동: 말하지 마요. (사례E 아동)

3) 사교육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사례 B, C의 어머니는 결핍된 양육환경과 자녀의 문제행동을 사교육과 학업 성취로 보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례 D와 사례 E의 어머니는 취학 전부터의 여러 교육이 학령기에 가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했으나 주 호소로 나타난 행동문제의 원인 또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여러 사교육으로 인해 외부 경험을 통한 추억을 쌓지 못한 아쉬움을 느끼면서 아동에게 진정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 까지만, 중학교 까지만 고생해라... 뭐 이런 말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학교 공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학 가기도 힘들고 대학을 간다고 해도 취업되기도 힘들잖아요. 여기까지 해야 할까요? (사례B 어머니)

아이들의 사교육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틱보다 1등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아이의 틱이 더 심해지니 사교육을 그만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처럼 좋은 것 이란 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없고 만족감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찾는 건데 아이도 나도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사례C 어머니)

유치원에서의 모습을 CCTV로 봤어요. 아이들이 서로 싸운 사건 때문에 CCTV를 부모들에게 개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 모습이 정말.... 정말로 불행해 보였어요. 계속 불행한 기분으로 유치원을 억지로 다닌 거잖아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엄마가 엄마도 아니네요. (사례D 어머니)

내 체력이 안 되어 못나간 것도 있지만 참 안 데리고 다녔나 봐요. 그 흔한 에버랜드도 몇 번 안 갔어요... 밖으로 놀러 다니지 않으니 안에서라도 놀라고 애들이 그래도 좋아하니깐 여러 가지를 시켜준 건데... 선생님 말처럼 밖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구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뒤에 숨겠죠. 아 알겠어요. (사례E 어머니)

4) 1등이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사례 A, C의 아동은 1등이라는 목표를 성취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이는 목표상실의 불안한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한 불안감은 모호한 걱정을 증폭시키거나 문제행동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사례 C의 어머니는 아동의 불안정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양육태

도를 나타냈다. 사례 D 아동은 자신의 연령보다 높은 단계의 수학기념을 알고 있었고 이를 드러내서 인정받고자 했으나, 인정받았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정서도 표현하지 않았다.

VOCA를 외워서 영어로 워드를 쳐야 해요. 잘하는 순서로 랭킹을 매겨요. 아이들이 많이 빠져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하면 다시 1등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 되요. (사례A 아동)

이번에 수학 테스트에서 97.5 점 받았어요. 바로 밑이 97.4였어요. 완전 가슴이 조마조마. 이러다가 금세 1등 빼앗길 것 같아요. 어제 밤에 2시간 자고 공부한 건데. (사례C 아동)

난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1등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학원에서 시험보고 나왔는데 잘 못 봤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더 좋은 학원을 알아보지 않냐고, 왜 자기에게 관심이 없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사례C 어머니)

아동: 선생님 제가 문제를 낼게요. $850 \times 850 = ?$ 전 850부터 900까지 똑같은 숫자를 곱한 수를 알아요.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네가 개념을 알게 되었구나. 아동: (무표정으로 다른 곳을 쳐다봄) (사례D 아동).

5)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요.

사례 A의 어머니와 아동은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가족 내의 관계 욕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상호소통의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가족 간의 상호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가족 내의 정서적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례 B의 어머니는 불안정한 결혼 생활로 인해 아동과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고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사례 D, E 아동은 놀이를 통해 부모의 갈등 및 지시적인 양육환경 속에서 느꼈던 소외감, 부모에 대한 불안전함, 불안정감을 표현했다. 사례 D의 어머니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 아동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표현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하는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도 서로 대화가 부족하였고 자녀들에게도 늘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지시하거나 설명했던 것 같아요. (사례A 어머니)

엄마는 뭐 할 때 하고 싶은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하기 싫다고 대답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고 싶다고 대답한 적도 있어요. (사례A 아동)

나에게 충격적인 일은 엄마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게 나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컴퓨터 게임하면 풀릴 것 같은데 엄마가 중독된다고 해서 겁나요. 난 내가 중독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례A 아동)

아이를 임신 했을 때부터 분노감과 불안감이 컸어요. 남편의 도박문제로 자주 싸웠고, 친정엄마와 큰 언니가 번갈아 가며 큰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아이도 이 모든 것을 함께 지나온 거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례B 어머니)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여자를 만났어요. 별거 중에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래서 혹시나 돌아올까 하고 다 받아줬는데 내가 또 착각을 했네요.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있는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백번 불렀다고. 그 백번 부른 소리를 난 전혀 못 들었거든요. (사례D 어머니)

(커팅푸드, 바둑, 장기, 체스를 바닥에 모두 깔아놓음.) 어제 엄마아빠 싸웠어요. 아빠랑 체스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저보고 들어가래요. 방에 들어가도 소리 다 들리는데~ 선생님. 나 친구랑 싸우면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엄마아빠는 사과 안 해요. 그거 나쁜 건데.... (라고 하면서 보보인형을 들고 깔아놓은 커팅푸드, 바둑, 장기, 체스 위로 방아 찧듯이 찧음) (사례E 아동)

3. 소결

아동이 상담을 받게 된 주 호소문제로는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미성숙이 가장 많았다. 부모성격유형은 사고중심적 성격이 가장 많았고,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으로는 비난형, 초이성형이 가장 많았으며 양육태도는 애정-통제형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와 아동 간 친밀도는 친밀하지 않음, 어머니와 아동 간 친밀도는 친밀하지 않음, 부부간 친밀도의 경우 친밀하지 않음이 가장 많았다.

특성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애정-자율형과 애정-통제형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동기로서 자녀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 부모자신의 열등감, 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를 가장 많은 수의 부모들이 갖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은 수의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사교육 시작 시기를 보면 5, 6세 이전에 기타를 제외한 부모의 모든 학력범위에서 대부분 사교육을 시작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친밀도 및 부부간의 친밀도에 따른 사교육 수의 차이에

서는 어머니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 아동의 사교육 수가 보통으로 친밀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아동의 사교육 수 보다 더 많았다.

조기 사교육에 노출되었거나 과도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정서, 사회, 행동 문제와 부모-자녀 관계의 연관성을 상담의 회기 진행을 따라 분석한 결과 일관된 흐름이 발견되었다. 상담의 초기에는 영유아기부터 시작된 사교육의 관련한 혼란스러운 기억이나 경험들로 인하여 심리적 좌절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보고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내담아동과 어머니에게서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사교육과 관련한 혼란과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집착하거나 길들여지게 된 상황을 내담아동과 어머니가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인식은 자연스럽게 내담아동의 저항과 어머니의 사교육으로 채우지 못하는 양육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사교육과 부모-자녀 관계의 관련성을 상담의 장에서 만나게 되면서 내담아동과 어머니는 비로소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고 사교육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다.

위의 과정을 4가지로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자녀 기억 속의 사교육 경험'이다. 상담 과정에서 아동은 영유아기 사교육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으며 어머니가 사교육 시작 동기에 대해서 보고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아동의 정서·사회·행동문제 같은 주 호소 문제들이 조기사교육과 관련되어 있음을 다루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좌절'이다. 어머니와 자녀가 사교육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알게 되는 영역으로 관계문제, 과도한 성취욕구 및 경쟁심으로 인해 좌절감이 불안, 위축, 강박, 불만족감 등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문제가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양육에서 힘듦과 좌절을 겪게 되었다.

세 번째는 '사교육에 집착하게 된 어머니와 길들여진 자녀'이다. 여기에서는 사교육에 집중하게 된 원인과 모-자녀의 역기능적인 관계의 관련성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자신의 개인적인 결핍감과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좌절된 성취 욕구는 세대전이 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원가족 내에서의 미해결 과제로 인한 좌절감을 보상하고자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가족 간의 역기능적인 관계가 되풀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교육과 같은 외적 요소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사교육에 저항하는 자녀와 한계에 직면한 어머니'이다. 지나친 사교육의 집중은 내담아동이 다양한 또래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상호소통 능력, 관계 기술의 발달을 방해했음을 참여자들은 인식했다. 결핍된 양육환경과 자녀의 문제행동을 사교육과 학업성취로 보상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지나친 사교육의 집중이 가족 간의 질적인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와 아동의 욕구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이 역기능적인 모-자녀 관계를 보상하고자 한 하나의 수단임을 의미한다. 연구사례는 초기 상담 시에 주 호소로 보고되지 않았던 사교육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 사례들이다. 조기사교육 및 과도한 사교육과 관련한 주 호소를 상담에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 현상 속에서 새로운 앎을 발견하게 된 것이 본 심층 사례연구의 중요한 의미다. 특히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부모-자녀의 관계가 변화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주 호소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사교육이 단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영유아기 사교육에 과다 노출되면 학령기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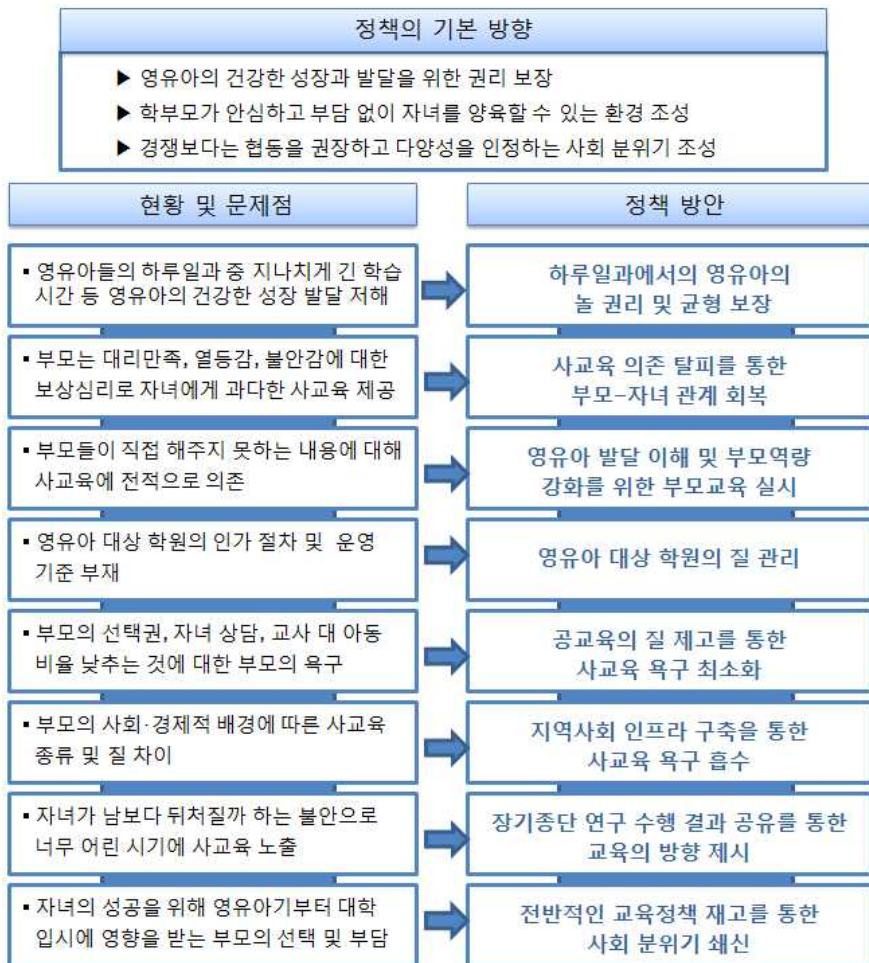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담실 내원 아동의 사교육 실태조사에서도 애정-통제적인 부모가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고 애정이라는 이유로 사교육을 많이 시킨 것처럼 사례분석에서도 부모-자녀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교육 과다하게 의존하고 이로 인해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아동의 정서·사회·행동문제가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면 사교육의 수가 줄어들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감소되었다. 이 또한 사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모-자녀관계 측면과 강력하게 맞물려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에 참여한 다섯 사례 모두 주 호소 문제에 부모-자녀 간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관계의 불만족감이 높았다. 이러한 부모-자녀의 관계의 양상은 내담아동의 사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담아동에게 왕따와 같은 또래관계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를 학습 성취로 보상하고자 사교육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이 초래하게 되는 아동 발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단편적인

사교육의 영향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부모-자녀 관계, 나아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부모-자녀관계가 조기사교육에 집중하게 되면 아동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또래관계의 외현화문제를 발현하게 된다. 또한 사교육의 노출 연령이 낮을수록 사교육이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심층사례연구의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 하겠다.

VIII.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사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의 종합적인 내용은 <그림 VIII-1-1>과 같다.



[그림 VIII-1-1] 사교육 정책 기본 방향 및 방안

1. 기본 방향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시키고, 자녀는 사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다. 부모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희생하고, 결과적으로 자녀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모는 불안 혹은 보상심리나 대리만족을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사교육으로 메꾸기도 하며, 자녀는 놀고 싶지만 학습을 해야만 하는 압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유아 사교육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교육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안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3가지로 잡았다.

첫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하루일과가 연령특성에 따라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가 안심하고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으로 학원을 선택하고,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학원을 선택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자녀와 가족이 누려야 하는 다른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경쟁보다는 협동을 권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누구나 같은 길을 달리면 1등은 한명 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길을 마련해주고 아동이 가진 장점에 따라 여러 가지 길을 가게 해준다면 그 길의 수만큼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의 대부분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누구나 같은 길을 향해 똑같은 속도로 갈 필요도 없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전력을 다해 달릴 필요도 없다.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늦게 가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혹은 늦게 가는 사람을 이끌고 도우면서 함께 갈 수도 있는 일이다.

2. 정책 방안

가. 하루일과에서의 영유아의 놀 권리 및 균형 보장

본 조사 대상의 밤잠 시간은 2세와 5세 모두 10시간 정도로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밤잠 시간이 외벌이 자녀에 비해 2세는 18분, 5세는 10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수면재단(NSF)의 기준을 살펴보면 권장수면시간은 영아의 경우 11~15시간, 유아의 경우 10~14시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시간은 영아의 경우 9~11시간, 유아의 경우 8~10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경우 권장 수면 시간보다는 짧지만, 적당한 범위 안에 있다.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도 등의 평일 시간제 교육시간은 가정양육 2세아의 경우 69분, 5세아의 경우 175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2세아는 각각 13분, 71분이며, 5세아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 68분, 유치원 재원아 59분, 학원 재원아가 81분이었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제시된 시간에 기관이용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들은 더 긴 시간을 학습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국외학자들이 제시하는 권장 숙제시간(집에서의 공부시간)에 영유아는 아예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도 하루에 0~30분(Cooper, 2008) 혹은 1주일에 15~20분 정도의 1~3개의 숙제(Zentall, 1999)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재인용).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습시간은 지나치게 긴 편이다.

평일 바깥놀이 및 외출시간은 2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가 54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3분, 가정양육의 경우 106분이며, 5세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아 각각 47분, 46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가 58분, 가정양육이 105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별도로 바깥놀이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체로 2시간 내외의 실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권장 운동시간은 5~17세 아동의 경우 하루 최소 60분 이상이며, 호주 보건부는 영아는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3~5세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해야 하며, 영유아 모두 1회에 1시간 이상 앉아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6). 이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일 전자기기 놀이 시간은 2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 57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 56분, 가정양육 96분이었으며, 5세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아 64분, 유치원 재원아 59분, 반일제 이상 학원 재원아 73분, 가정양육 84분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아과의사협회(AAP)에서는 2세 이하의 영아는 TV나 다른 오락 매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2세 이상이라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1~2시간 시청하는 것 이외는 해서는 안 된다고 권장하고 있다. 호주 보건부에서도 0~2세 영아는 TV 등 전자 매체를 보지 않아야 하며 2~5세는 1시간 이하로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의 전자기기 노출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며 특히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길며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시간도 다소 길게 나타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 기본생활을 위한 시간을 제외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이 학습으로 이루어져 초등학생도 소화하기 어려운 일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점이다.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북유럽 영유아들이 이후 성취가 뛰어나다는 사실과 어린 시기에 지나친 학습에의 노출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영유아의 놀 권리와 하루일과에서의 균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 간의 아동 생활시간조사는 대부분 초등학생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향후 영유아를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 변화의 맥락 안에서 변화의 추이를 살피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학습시간은 많은 부분 지나친 사교육과 관련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교육 의존 탈피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 회복

상당사례분석에서 사교육은 역기능적인 모-자녀 관계를 보상하고자 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통해 대리만족하기 위함이거나 부모 자신의 열등감, 불안감에 대한 보상심리로 자녀에게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향성 분석에서 애정-자율 혹은 애정-통제적인 부모가 애정이라는 이유로 사교육을 많이 시킨 것처럼 심층사례분석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교육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이로 인해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아동의 정서·사회·행동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사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모-자녀 관계측면과 강력하게 맞물려있으며, 자녀가 또래관계 문제를 나타낼 경우에도 어머니는 이를 학습 성취로 보상하고자 사교육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다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발달의 부정적인 영향은 단편적으로 과다한 사교육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부모-자녀 관계 나아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보상심리로 인해 과다한 사교육을 시키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가 건전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올 것이다. 한편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바빠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사교육을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은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이 사교육을 보육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아이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 부모-자녀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키고,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등에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 인프라는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고르게 구축해야 한다. 한편 부모가 사교육을 보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필요 시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영유아 발달 이해 및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부모가 영유아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부모라면 자녀가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

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아 발달을 이해한다면 돌 이전부터 이런 저런 사교육에 자녀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구는 학습과 준비교육 위주인 경우가 많은데, 영유아에게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 친구들과 바깥에서 충분히 뛰어 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부모들은 본인들이 직접 해주지 못하는 영역이나 내용에 대해 사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부모들이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어렵다고 하고, 영어학원에서 내주는 문제도 풀기 어렵다고 한다. 자녀들의 교육과정을 모두 꿰고 학원 선택과 스케줄을 관리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모른 채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불안한 마음에 자녀를 여러 학원에 돌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교육철학이 뚜렷하다면 사교육기관의 광고나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적기교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발달 이해와 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은 자녀 연령이나 부모 배경에 적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 배경에 따라 양육 형태, 양육 지식,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준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영유아 발달과 더불어 유아교육의 중장기 효과,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사교육의 피해, 지식주입 중심 교육의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부모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TV나 언론매체를 통한 부모교육 캠페인,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부모교육,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부모교육, 부모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예비부모가 병원에 방문할 때 실시하는 부모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되기 이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혹은 군대 복무기간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온 국민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라. 영유아 대상 학원의 질 관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기관들은 ‘학원’이기 때문에 유아

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인가 절차 없이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비해 낮거나 미미한 인력, 시설, 비용, 교육내용 기준 하에 운영된다.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 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 교구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부재하다.

이상의 결과로 학원사례조사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부모들은 학원 강사의 학력이나 자격 등의 배경, 학원의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일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원의 이야기만 믿고 보내는 실정이다. 그러나 같은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기관이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가 기준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영유아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학원의 질 관리를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학원이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향후 영유아 대상 학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 욕구 최소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학원사례조사에서 사교육과 특별활동의 차이는 분명하며,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요구도 명확하였다. 사교육 강사는 해당 분야 전공자가 많은 반면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의 강사는 해당 분야 기술자나 기능 보유자가 가장 많았다. 비용은 사교육이 프로그램당 7만2천원 내외인 반면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은 2세가 1만7천원 5세가 1만2천원 수준으로 4~6배 차이가 났다. 그러나 교·강사 대 아동 비율은 이와 반대로 사교육 프로그램이 낮았다. 1 대 1을 제외한 사교육의 반 구성은 2세인 경우 6~10명이 가장 많고 5세인 경우 2~5명이 가장 많았던 반면 특별활동이나 특성화프로그램의 경우 2세는 10~15명, 5세는 16명 이상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의 소질이나 재능개발

을 위해서와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학원사례조사의 반일제 이상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모들이며, 이후에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각종 학원을 선택하였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보살피거나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부모들이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포함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오후시간이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을 이용하여 다루어 주되, 집단의 크기를 줄여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와 협력적으로 질을 관리할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사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세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1/4 정도였다. 특별활동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세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의 72%가, 5세아의 경우 절반 정도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유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진행하며, 사교육보다 질이 낮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의 선택권이 적고, 상담이 어려우며,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는 응답이었다. 또한 사교육 정책에 있어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었다. 따라서 학부모의 욕구를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형태로 흡수해줄 수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통해 수용함으로써 사교육의 욕구를 최소화하고, 그 밖의 다양한 혹은 특별한 사교육의 요구는 점차 공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 욕구 흡수

가구특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교육비용을 낮추어서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다. 본 연구 결과, 맞벌이 자녀가 학습관련 사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이유 중 하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교육 선택기준은 고졸 이하일 경우 비용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예체능보다는 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처음 접하게 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비율이 높고 사교육의 숫자도 늘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다양한 사교육을 적은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부모, 특히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장소는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는 예체능계 대학생의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사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좀 더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수요일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월, 화, 목, 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정규교육을 받지만, 수요일은 지역의 레크리에이션센터에 가서 레크리에이션 강사에게 다양한 수업을 받는다. 이러한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은 지역사회 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부모뿐 아니라 영유아들 간에도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성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 장기종단 연구 수행 및 결과 공유를 통한 교육의 방향 제시

학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키면서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남이 하니까 불안하여, 혹은 이후 초등학교에 가서 남보다 뒤쳐질까봐 이름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사교육에 자녀를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성장한 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취학 전 자녀를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시키는 것이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이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과하다는 응답보다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응답과 지나친 사교육이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동의가 4점 척도에 3점 정도였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보면, 과도한 사교육은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현재 본인이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양은 과하지 않으며 적절하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현재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사교육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중단 이유는 자녀의 신체적 부담,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기대한 효과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5세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실제로는 훨씬 어린 연령부터 사교육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인식과 현실이 다른 부분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국외의 장기종단 연구는 종종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장기종단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사교육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 수준에서 사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에 초점을 둔 장기종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학부모에게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아. 전반적인 교육정책 재고를 통한 사회 분위기 쇄신

설문조사에서 영유아들이 처음 접하는 사교육 유형은 국어가 가장 많았다. 학부모들이 국어와 한글에 집착하고 걱정을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적응과 더불어 초등 교육과정이 어려워 자녀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에서이다. 최근 보도된 기사들만 봐도 현재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낱말, 문장부터 등장하는 1학년 교과서가 한글 선행학습을 부추기며(한교닷컴, 2016. 10. 7.),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서가 한글 선행교육을 전제로 구성되어 한글교육이 대폭 강화된 국어 교과서와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한겨레, 2016. 8. 23)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7년 새 학기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의 기초 한글과 수학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진다고 발표했다(아시아경제, 2016. 8. 30).

가깝게는 초등학교 적응과 학습을 걱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내모는 이유는 다름 아닌 좋은 대학 입학에 통한 성공이다. 이러한 기대와 욕구는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등 사교육 수요의 일부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정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18년부터 수능영어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대학입시에서 영어를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 제도로 바꾸어 영어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고 발표된 후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영어학원 600여 곳이 문을 닫은 반면 수학 사교육 기관은 2013년 839곳에서 2015년 956곳으로 117곳(14%) 늘어났다(조선닷컴, 2016. 9. 7)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학부모들이 이번 정책으로 대입 당락이 이제 국어, 수학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입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학원과 학부모들은 민감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들조차 대학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맞추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원사례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부모들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불안한 마음에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내보였다.

정부의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쇠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2016). 2016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 경기도교육청(2016). 2016 경기유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
-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 교육부(2014).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안).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101-121.
- 김영명·서영숙(2006).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발달 적합성과 사회, 문화 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15-136.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이운진·강수경·박수연·차기주(2010).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부산광역시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장명림·김시내·심재연(2010).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2차 시범 운영. 경기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장명림·심재연(2012).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권역별 운영 방안 연구 II. 교육과학기술부·부산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장명림·심재연·황미영(2011).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 권역별 운영 방안 연구. 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원·이정아(2002). 유아의 방과후 활동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121-137.
- 김정은·허영림(2013).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교육논총, 32, 87-111.
- 김지경(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 김지하·김창환·박상욱·주소현·구경호·황순옥·문성빈·박정화·정민주(2015). 학교교과학습 학원의 운영 실태 분석: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미(2014). 육아지원기관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지출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5-23.
- 김홍주·한우경·김현철(1999). 한국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연구, 37(4), 307-328.
- 김희정(2010).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 유아의 일과 실태 분석: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293-311.
- 김희정(2014).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 한국과 일본 유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6, 209-238.
- 도남희·김정숙·하민경(2013). 영유아의 생활시간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도현심·박보경·김수진·조숙인(2009).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아동학회지, 30(4), 135-153.
- 민선옥·배지희(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동교육, 23(4), 263-285.
- 박은혜·박신영·최성진(2015). 서울특별시 공, 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조사. 유아교육연구, 35(3), 241-262.
- 배선미(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인성특성이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변형유아교육연구, 4(1), 27-46.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1), 23-43.
- 보건복지부(2014).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양미선(2013). 유아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 9(3), 189-207.
- 서울특별시(2016). 2016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 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29-42.
-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10). 한국 어머니들의 아동발달에 대한 인식과 자녀 사교육의 실제. 생태유아교육연구, 9(2), 81-104.
- 우남희·김유미·신은수(2009). 조기교육/사교육. 한국아동학회지, 30(6), 249-265.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이경미·이기숙(2009).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일과. 교육과학연구, 40(3), 171-193.
-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 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광현·권용재(2015). 유아 사교육비 지출규모·실태 및 지출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2(3), 83-107.
- 이기숙·손수연(2012). 한국·중국·일본·대만 유아의 일상생활 비교. 유아교육연구, 32(2), 49-71.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a).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b).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3(4), 137-152.
- 이명순(2007). 유아 조기교육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대안 탐색.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 157-181.
- 이미화·김은영(2008).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2(1), 61-80.
- 이부미·이수정(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 18(단일호), 85-107.
- 이수경(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희·민수현(2001). 반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1), 77-102.
- 이양희·최서운(2001). 유아용 반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3), 137-165.
- 이정림·배육진·조혜주·송요현·고성률·이정희(2015).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2009).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9, 29-55.
- 이정화·정선아(2004). 사립 유치원 원장이 바라보는 특별활동 운영의 의미. 열린 유아교육연구, 8(4), 69-87.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장유진(2014). 목동 엄마들의 분재(盆裁) 만들기: 유아 사교육의 상황적 구조와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17(1), 159-195.
- 장은미(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육아지원연구, 3(2), 33-50.
- 전지형(2005). 유아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의 인식조사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51-167.
- 정영희(2015). 직장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및 부모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 64-88.

- 정영희·김덕희(2012).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 361-393.
- 정익중(2012). 방입, 과보호,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32(4), 255-278.
- 조미영·이문옥(2009). 유아기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인식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57, 23-51.
- 지성애·정대현·정효은·안지송·박은영(2006). 유아의 초등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27-249.
- 차성현·김순남·김지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윤(2010). 유아 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천희영(1992). 한국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아동권리지표 개발연구보고서: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 활용 및 분석.
- 최광희·이연승(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교육의 실태 및 바람직한 방향. 인문학논총, 11(1), 49-74.
- 최미진·유희정(2013).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 나타나는 만 3, 4, 5 세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 117-141.
- 차영례·정효은(2009). 기관변인에 따른 5세 유아의 문제행동. 한국영유아보육학, 57, 171-191.
- 하정희(2007). 조기영어교육 현장을 통해 본 어머니들의 개별화된 욕망과 계급 불안에 대한 연구. 변형영유아교육연구, 85-100.
- 한유미(2010).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신념이 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81-90.
- 황혜신(2004).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이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97-506.
- 황혜정(1998). 취학전 아동행동목록표(PBCL) 기준점수의 문화적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154-165.

- McGuire, J., & Richman, N. (1988). The preschool behaviour checklist handbook. UK: NFER-NELSON.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1), 83-104.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홍용희·노경주·심종희(2000).(역). 질적 사례 연구. 창지사.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신경식, 서아영(역) (2011).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법령 및 자치법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95호, 2014.3.11., 제정]
- 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2016.5.29.,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6147호, 2015.12.31.,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2016.2.3,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6.3.30.,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법률 제13226호, 2015.3.27.,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26호, 2016.6.21,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158호, 2016.5.29., 일부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보도자료, 신문기사]

- 경향신문(2016-06-06). '학생·학부모 사교육 걱정 여전한데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한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12-29). '신고포상금제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추진 성과 및 2010년 지속추진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05-18).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4-12-18).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6-02-26).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뉴스1(2016-6-25). '공교육정상화법,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논란'.

아시아경제(2016-08-30). '서울 초등 1~2학년 선행유발 숙제 사라진다'

조선닷컴(2016-09-07).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발표 후... 강남·서초 영어학원 670곳 문 닫아'

조세일보(2016-02-26). '月 평균 24만원...해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

한교닷컴(2016-10-07). '한글 선행교육 부추기는 초1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Priv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I: Focused on Two, Five-Year-Old Children

Eunyoung Kim, Hyomi Choi, Jieun Choi, Mikyung Jang

South Korean parents have a faith that an entry into a recognized university guarantees success of their children or, at leas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their children's success. With this faith, they put their children in various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by setting a goal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as an entry into a famous university. Such private education gradually lowered the target age of the education and it was extended to the age of young children. However,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can have negative influence on young children. In this context,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general status of private education through surveys on private 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cused on two-year-old children, the age passing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and five-year-old children, the age passing from early childhood to the age of entering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se analyses,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policy support measures on private education for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urvey research, workshop and advisory conferences. In literature research, different analyses were carried out on definition of term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private education related laws,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impacts and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researches related to extracurricular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daily schedule of young children. In terms of deter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education, existing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ere analyzed. In survey research, surveys, studies on the cases of private institutes and studies on counseling cases were carried out. Firstly,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general status and perception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study analyzed the responses of total 2,276 persons: 537 parents with two-year-old children, 434 teachers teaching two-year-old children, 704 parents with five-year-old children and 601 teachers teaching five-year-old children. Secondly,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otal 16 persons: 3 parents with two-year-old children and 4 parents with five-year-old children attending playschool, 4 parents with five-year-old children attending private English institutes and 5 parents with children attending kids sports club. Third, with the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on young children' mental health and to draw implications, a counseling cas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124 pairs of parents-children and among them, 5 cases were selected for in-depth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hours for private education in daily schedule of two-year-old and five-year-old children was considerably high. Although differences exist depending on the types of private institutes, children attending full-time private institutes were spending considerably high number of hours in learning. Among the subjects of the survey, 35.5% of two-year-old children and 83.6% of five-year-old children were found to receive private education. It was also found that two-year-old children are taking 1.7 types of private education, 2.6 times per week and 47.6 minutes per session whereas five-year-old children are taking 2.2 types of private education, 5.2 times per week and 50.1 minutes per session. The types of private education program participated by young children are more of academic education rather than education focusing on physical exercise, art and music, and many of two-year-old and five-year-old children are taking private lessons on Korean language. However, the parents considered that the current hours of the education are either appropriate or insufficient. It

was revealed that th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per child is about 4% of monthly household income. It was found that the parents of two-year-old children spend average of 134,300 KRW and the parents of five-year-old children spend average of 161,300 KRW per month. The parents with two-year-old children responded that the average age of starting private education is 22 months-old. However, desirable private education starting age was found to be 3.6-year-old for physical education, art and music, whereas it was 4.6-year-old for academic private education and this shows huge difference between recognition and reality. As a desirable direction of private education policy, high proportion of parents of both two-year-old and five-year-old children responded that the vitaliz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are required and it was followed by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due to advertisement of the neg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ivate edu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cases of private institutes, it was revealed that the parents who chose full-time private institutes over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have high demand on private education that cannot be provided by daycare center or kindergarten. The mothers, especially,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expectations on different types of full-time institutes. For example, in case of parents sending children to English institute, they had high demand on learning whereas parents sending their children to playschool ten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rsonality and sociality. On the other hand, the parents who send their children to kids sports club took high interest on physical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As they sent their children with such expectation, they reported that private institutes had high impact on children's development in English skill, personality and confidence. However, they also reported t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quality of private institutes as they do not know detail information about full-time private institutes and as the institutes have ambiguous standard of teacher certificate. Besides, they also reported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high cost of private education. The parents who participated in case study responded that their children started to attend private education before their first birthday, starting from cultural center program, and gradually increased the types, numbers and institutes of private education.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reasons for sending their children to private institutes are to develop children's personality, to enable their children to have special experience, to prevent them from falling behind and to make their children to enter into a recognized univers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udies on counseling cases, the highest number of parents with child rearing attitude of control- affection tend to send their children to private institutes due to vicarious gratification through their children's achievement, their inferiority complex and compensation mentality for uncertainty. For them, private education was used as a measure to compensate the dysfunctional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But when there is problem in the relationship, the parents tend to have excessiv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which deteriorated the relationship and led children to have emotional, social and behavioral problems. Besides, the lower the exposed age of private education, the more effect the private education had on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However, rather than merely consid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children's development caused by excessive private education as the fragmentary influence of private education, it needs to be viewed from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and it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social context.

Based on the above result of th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basic direction of private education policy that needs to be improved for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such as securing the rights of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creation of environment for parents to safely rear their children without any burden, creation of social atmosphere that encourages cooperation over competition and that acknowledges diversity. As a measure of policy support, the study proposes basic direction such as securing young children's rights of happiness by

harmoniously balancing their daily schedule, recovery of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by breaking from dependency on private education,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with public education that can absorb the demand of private education, proposition of educational direction by conducting longitudinal study and by sharing the study results,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providing parental education for strengthening parental competency and reformation of social atmosphere through reconsideration of general educational policy.

Keywords: Privat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extracurricular activity, after-school specialization program, daily schedule of young children

부 록

부록 1. 어린이집 2세·5세 학부모 대상 설문지

부록 2. 어린이집 2세·5세 교사 대상 설문지

부록 3. 유치원 5세 학부모 대상 설문지

부록 4. 유치원 5세 교사 대상 설문지

부록 5.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2·5세아 부모 대상 설문지

부록 6. 반일제 이상 학원 사례조사 설문지 및 면담목록


부록 7. 상담사례분석을 위한 상담자 설문지

부록 1. 어린이집 2세·5세 학부모 대상 설문지

ID				
----	--	--	--	--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 어린이집 이용 2세·5세아 부모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Ⅱ : 2세, 5세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2세 영아나 5세 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조사진행 관련: (주) 한국리서치 성현정 차장 02-3014-0168 hjseong@hrc.co.kr
 김보미 과장 02-3014-1056 kimbm@hrc.co.kr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최지은 연구원 02-398-7765 cje1123@kicce.re.kr

- ※ 귀하의 자녀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세(5세) 영(유)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 (이후 자녀의 이름이 자동으로 뜨도록 함)
- ※ 설문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지난주에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등 특별한 한 주였다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자녀의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녀 특성		응답자 특성		가족 특성		
자녀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응답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졸 이상	맞벌이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만 일함 <input type="checkbox"/> ③ 어머니만 일함
				직업 형태	부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모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근로 시간	부	주당 평균 ____ 시간
자녀 연령	____년 ____개월	응답자 연령	만 ____세	월평균 가구수입	____만원(세후소득)	
형제 순위	____명 중 ____째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	가족 형태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①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②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없음	
거주지역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보조양육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조부모, 유급 육아도우미 등)		

I. 자녀의 하루 일과

※ **지난주(일상적인 한 주) ○○이의 하루 일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는 보통 밤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2-1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들어감)

평일 (주중)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토요일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일요일 (휴일)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2. ○○이는 평일(월, 화, 수, 목, 금)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 동안 하나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기타시간은 24시간에 맞추어져 설정됨)

		하루 평균 참여 시간		
		평일(주중)	토요일	일요일
1) 밤잠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2)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3)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강사에 의한 교육	학습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예체능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4)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5)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9)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10) 기타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11) 총합		일 24시간	일 24시간	일 24시간

* 부모님이 직접 답하시기 어려운 경우 주양육자에게 질문하여 답해 주세요.

3. ○○이는 평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가족과의 문화활동(전시관람, 연극관람 등)이나 야외활동(여행 포함)을 하나요?

- ① 예 (☞ 3-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4번으로 이동)

3-1. ○○이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가족과의 문화활동(전시관람, 연극관람 등)이나 야외활동(여행 포함)을 월 평균 몇 회 정도 하나요?

월 평균 ()회

4-5.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 가지를 할 경우 평균으로 적어주세요.

예체능				구분	학습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비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프로그램 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교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강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집단구성 (연령구성, 집단 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방과 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5-1로 이동)
- ② 아니오 (☞ 5-2로 이동)

5-1. (예 라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6번으로)

- ①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하므로
- ② 사교육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 ③ 어린이집에서 1차적으로 선별된 프로그램이므로
- ④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시켜주므로
- ⑤ 기타()

5-2.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아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 ② 사교육에 비해 질이 낮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 ③ 학부모의 선택권이 적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필요해 의해 시작하고 그만두기 어려움)
- ④ 진행 과정에서 아이 발달에 대한 보고, 상담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 ⑤ 시설이나 교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 ⑥ 기타()

Ⅲ. 사교육 현황 및 인식

※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이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어린이집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6. ○○이는 어린이집 하원 후나 주말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 6-1 로 이동)

② 아니오 (☞ 10 으로 이동)

6-1. ○○이는 현재 어린이집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6-2. ○○이는 현재 어린이집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사교육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1주일 기준)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총(자동합계)	주() 가지

6-3. ○○이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명을 기입해 주세요.

→ (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본 프로그램은 어떤 요일에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명	요일
1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input type="checkbox"/> 토 <input type="checkbox"/> 일
2		
3		
4		

6-4. ○○이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다음을 체크하거나 기록해 주세요. (6-4.에 입력한 프로그램 모두 응답)

프로그램 A(부모가 기록한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뜨도록 함)		
요일별 시간	(6-3에서 체크한 요일 제시) a요일: ()시 ()분~()시 ()분 b요일: ()시 ()분~()시 ()분 c요일: ()시 ()분~()시 ()분	
프로그램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음악 <input type="checkbox"/> ②미술 <input type="checkbox"/> ③체육 <input type="checkbox"/> ④무용 <input type="checkbox"/> ⑤수학 <input type="checkbox"/> ⑥과학·창의 <input type="checkbox"/> ⑦국어 <input type="checkbox"/> ⑧영어 <input type="checkbox"/> ⑨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⑩기타()	
장소	<input type="checkbox"/> ①학원 <input type="checkbox"/> ②문화센터 <input type="checkbox"/> ③집 <input type="checkbox"/> ④체육관 <input type="checkbox"/> ⑤육아종합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주된) 이동 수단	<input type="checkbox"/> ①도보 <input type="checkbox"/> ②학원 차량 <input type="checkbox"/> ③유치원·어린이집 차량 <input type="checkbox"/> ④자가용 <input type="checkbox"/> ⑤해당없음	
강사	강사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강사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①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②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③유아교육이나 아동학 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집단구성	반 규모	<input type="checkbox"/> ①1명 <input type="checkbox"/> ②2~5명 <input type="checkbox"/> ③6~10명 <input type="checkbox"/> ④11~15명 <input type="checkbox"/> ⑤16~20명 <input type="checkbox"/> ⑥21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모름
	연령 구성	<input type="checkbox"/> ①단일 연령 <input type="checkbox"/> ②혼합 연령(두 연령 이상으로 반이 구성됨) <input type="checkbox"/> ③모름
교재·교구 (복수 응답)		<input type="checkbox"/> ①학습지나 워크북 <input type="checkbox"/> ②책 <input type="checkbox"/> ③교구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모름
월 납입 비용		수강료 월 ()원 / 교재교구 비용 월 ()원 ※교재교구 비용을 별도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기입
선택 경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		<input type="checkbox"/> ①주변 부모가 함께하자고 권유 <input type="checkbox"/> ②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input type="checkbox"/> ③인터넷 검색 <input type="checkbox"/> ④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 <input type="checkbox"/> ⑤지인에게 물어서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학습 <input type="checkbox"/> ②발달 <input type="checkbox"/> ③재능 발견 <input type="checkbox"/> ④흥미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자녀의 흥미 및 몰입도		<input type="checkbox"/> ①전혀 흥미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별로 흥미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몰입함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흥미 있어 하며 몰입함
만족도 (4점 만점)		<input type="checkbox"/> ①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만족

6-5. 귀하가 ○○이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총 비용은 가구 월 소득의 몇 % 정도입니까?

약 ()%

※ ○○이가 하고 있는 사교육 전반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7. 현재 ○○이가 받고 있는 사교육이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조금 부족하다
- ③ 적당하다
- ④ 조금 과하다
- ⑤ 매우 과하다

8. 귀하가 자녀를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1~3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소 ③ 강사 ⑤ 비용 ⑦ 인지도(주변에서 많이 하는 유명 프로그램) ⑨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시간 ④ 프로그램 내용 ⑥ 자녀 흥미 ⑧ 초등학교 준비(연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9. ○○이에게 어린이집 하원 이후나 주말에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0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가 원해서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⑦ 어린이집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 ⑥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별활동만으로는 부족해서 ⑧ 기타() |
|--|--|

10. ○○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0-1번으로)
- ② 아니오 (☞ 문6이 '예'인 경우 11로, 문6이 '아니오'인 경우 10-2로)

10-1. ○○이의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1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자녀가 피곤해 하므로(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 ②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③ 교육 수준이 자녀 연령에 맞지 않아서
- ④ 유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생겨서
- ⑤ 교육기관이나 자택이 이사해서(폐원 포함)
- ⑥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 ⑦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⑧ 자녀가 이동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 ⑨ 기타()

10-2. ○○이에게 지금까지 한번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2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자녀가 피곤해 하므로(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 ②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③ 사교육을 시키기에는 아직 어리므로
- ④ 어린이집 특별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⑤ 주변에 보낼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서
- ⑥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⑦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⑧ 자녀가 이동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 ⑨ 기타()

11. ○○이는 처음 사교육을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습니까?

11-1. ○○이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

만 ()년 ()개월

11-2. ○○이가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 ① 음악 ② 미술 ③ 체육
- ④ 무용 ⑤ 수학 ⑥ 과학·창의
- ⑦ 국어(한글, 독서, 논술 포함) ⑧ 영어 ⑨ 기타 외국어()
- ⑩ 기타()

12.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12-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13번으로 이동)

12-1. 사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연령을 적어주세요.)

1) 예체능 사교육	만 () 세
2) 학습 사교육	만 () 세

13. 귀하는 가구 월 소득의 최대 몇 %까지 ○○이의 사교육에 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10% 미만 ② 10~20% ③ 20~40%
- ④ 40~60% ⑤ 60~80% ⑥ 80% 이상

13-1.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활성화) 귀하는 가구 월 소득의 최대 몇 %까지 자녀들의 사교육에 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10% 미만 ② 10~20% ③ 20~40%
- ④ 40~60% ⑤ 60~80% ⑥ 80% 이상

14. 다음은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1)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낮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조기 외국어교육은 효과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조기 영어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지나친 조기 사교육은 공격성, 정서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진지한 학습태도를 갖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고 쉽게 싫증을 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V. 자녀와 부모의 행동 특성

15. 다음은 영유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목욕할 때 물을 튀기며 활발히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놀이터에서 뛰고 미끄럼틀에 기어오르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날씨가 나빠서 집안에 있어야 할 때, 답답해하며 실내를 왔다갔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팔과 다리 등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더 즐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상한 냄새를 빨리 맡으며 이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예쁘다거나 밍다고 말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엄마가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입어서 모습이 달라지면 그 변화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 놀이감을 잠시 가지고 놀다가 곧 다른 놀이감을 찾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잠자리에 든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옷을 입힐 때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음식을 먹는 동안 발을 차거나 상체를 움직이는 등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만들거나 그림책 보기 같은 조용한 활동을 더 많이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차를 탔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새 놀이감을 보면 큰소리를 내며 좋아서 반기거나, 싫어하는 표현을 강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목욕할 때 특별히 좋다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음식의 맛이 이제까지 먹던 것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살짝 꼬집어도 별 반응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몸이 아프면 계속해서 보채거나 언짢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혼자 남겨놓아도 울지 않거나 기분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다른 집을 한두번 방문하면 그 곳 사람들과 쉽게 어울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낯선 어른에 대한 긴장이나 수줍음을 빨리(10분 이내) 극복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유치원에 갈 수 없는 등) 쉽게 새 일과에 따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낯선 곳(가게, 놀이터 등)에서도 10분 이내에 잘 적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잠자는 장소가 바뀌어도 1-2일 정도만 지나면 곧 익숙해져 잘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낯선 곳에서 처음 잠자기 되면 싫어하거나 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공원에서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낯선 아동에게 접근하며 함께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여행지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을 쉽게 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우리 집을 방문한 낯선 어른에게 접근하며 쉽게 친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낯선 곳에 처음 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0) 싫어하는 일(예를 들어 손톱깎기, 머리빗기 등) 이라도 이유를 설명하거나 즐겁게 해주면 쉽게 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일어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아침에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다음은 귀하가 평상시에 ○○이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양육방식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이가 놀고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어린이들이 노는 방식대로 놀아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이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칭찬도 자주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가 버릇없이 행동할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이가 빠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귀하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가 혼자 무얼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이 스스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이가 집이나 부모를 떠나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이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할 때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워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이에게 겉으로 애정 표현을 자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이를 슬하에 둔 것이 기쁘다고 ○○이에게 말해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이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이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이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놀이를 찾아서 놀게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이의 과거 잘못된 행동을 다시 고집어내지 않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V.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7. 향후 영유아(취학 전) 사교육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 ②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시키는 방향
- ③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
- ④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활성화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 ⑤ 기타()

18.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오랫동안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어린이집 2세·5세 교사 대상 설문지

ID				
----	--	--	--	--

영유아 사교육 및 특성화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 어린이집 2세·5세 담임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II : 2세, 5세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조사진행 관련: (주) 한국리서치 성현정 차장 02-3014-0168 hjseong@hrc.co.kr
김보미 과장 02-3014-1056 kimbm@hrc.co.kr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최지은 연구원 02-398-7765 cje1123@kicce.re.kr

※ 설문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지난주가 일상적이지 않은 한 주였다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일주일 기준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남 <input type="checkbox"/> ②여		연령	만 ___세
경력	보육교사 경력 ___년 ___개월 / 총 교육 경력 ___년 ___개월			
학력	전공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①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③ 아동(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④보육학 <input type="checkbox"/> ⑤간호학 <input type="checkbox"/> ⑦영양학 <input type="checkbox"/> ⑧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⑨(유아)특수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⑩기타()		
기관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①국공립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민간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③법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④가정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⑤직장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⑥부모협동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공공형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공공형 어린이집 아님			
기관 원아수	영유아 총 ___명	기관 반 수	총 ___개 반	
담당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2세 <input type="checkbox"/> ②5세	담당 학급	<input type="checkbox"/> ①단일연령 (총 ___명) <input type="checkbox"/> ②혼합연령 (총 ___명)	

I. 기관의 특별활동 운영 현황

※ 소속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기관은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1-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3번으로 이동)

1-1. 귀 기관에서는 유형별로 몇 개의 특별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관 전체 프로그램과 귀하의 담당 연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적어주세요.

	운영 여부		프로그램 개수	
	①운영함	②운영 안 함	기관 전체	2세(5세) 대상
1) 음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2)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3) 체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4) 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5) 수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6) 과학·창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7) 국어 (한글, 독서, 논술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8)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9) 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10)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11)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12)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2. 귀 기관의 특별활동은 모든 유아에게 필수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만 참여합니까?

- ① 모든 유아가 필수로 반드시 참여함
 ②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만 참여함

2-1. 그렇다면 특별활동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한 학급의 유아가 동일한 특별활동에 참여함
 ② 한 한급의 유아더라도 서로 다른 특별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함

Ⅱ. 해당 아동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

※ 귀하의 학급 아동 중 출석부의 가운데 있는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중간이 2명이면 앞쪽의 아동을 선택해 주세요. 학부모가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아동을 중심으로 출석부 앞뒤앞뒤 순으로 선택하여 학부모의 참여 허락을 받아주세요. 참여 허락을 받은 해당 아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_ (이후 자동으로 쓰도록 함)

3. ○○이의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 자동 계산)

등원 시간	오전 ()시 ()분	하원 시간	오후 ()시 ()분
-------	--------------------	-------	--------------------

4. ○○이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4-1로 이동)
- ② 아니오 (⇒ 5로 이동)

4-1. ○○이는 현재 특별활동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1주일 기준)

주 ()가지

4-2. ○○이가 현재 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 (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본 프로그램은 어떤 요일에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명	요일
1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input type="checkbox"/> 토 <input type="checkbox"/> 일
2		
3		
4		

4-3. ○○이가 하는 특별활동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별로 다음을 체크하거나 기록해 주세요. (4-4.에 입력한 프로그램 모두 응답)

특별활동 A (교사가 기록한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뜨도록 함)		
요일별 시간	(4-2에서 체크한 요일 제시) a요일: ()시 ()분~()시 ()분 b요일: ()시 ()분~()시 ()분 c요일: ()시 ()분~()시 ()분	
프로그램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음악 <input type="checkbox"/> ②미술 <input type="checkbox"/> ③체육 <input type="checkbox"/> ④무용 <input type="checkbox"/> ⑤수학 <input type="checkbox"/> ⑥과학·창의 <input type="checkbox"/> ⑦국어 <input type="checkbox"/> ⑧영어 <input type="checkbox"/> ⑨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⑩기타()	
강사	강사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강사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①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input type="checkbox"/> ②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input type="checkbox"/> ③유아교육이나 아동학 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④전문능력을 가진 지역주민(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input type="checkbox"/> ⑤해당 어린이집 및 타 어린이집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교원포함)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input type="checkbox"/> ⑦모름
집단구성	반 규모	<input type="checkbox"/> ①1명 <input type="checkbox"/> ②2~5명 <input type="checkbox"/> ③5~10명 <input type="checkbox"/> ④10~15명 <input type="checkbox"/> ⑤15~20명 <input type="checkbox"/> ⑥20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모름
	연령 구성	<input type="checkbox"/> ①단일 연령 <input type="checkbox"/> ②혼합 연령 <input type="checkbox"/> ③모름
교재·교구 (복수 응답)		<input type="checkbox"/> ①학습지나 워크북 <input type="checkbox"/> ②책 <input type="checkbox"/> ③교구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모름
비용	유아 1인당 월 총 비용	()원
	월 학부모 1인당 부담 비용	수강료 월 ()원 / 교재교구 비용 월 ()원 ※교재교구 비용을 별도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기입
프로그램 개설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학부모의 요구 <input type="checkbox"/> ②원장의 철학 <input type="checkbox"/> ③어린이집 운영에 도움 <input type="checkbox"/> ④타 기관의 추천 <input type="checkbox"/> ⑤기타()
○○이의 흥미 정도		<input type="checkbox"/> ①전혀 흥미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별로 흥미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약간 흥미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흥미 있음
○○이의 발달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①매우 부적절함 <input type="checkbox"/> ②다소 부적절함 <input type="checkbox"/> ③비교적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적절함

Ⅲ. 해당 아동의 행동 특성

※ ○○이의 평상시 행동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지켜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5. 다음은 영유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2세는 ㉔, 5세는 ㉕ 가 활성화되도록 함)

㉔ 2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과잉행동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옷에 오줌을 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옷에 대변을 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주의집중을 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통제하기가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많은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마지못해 이야기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발버둥치며 떼를 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교사에게 칭얼거리며 우는 소리로 불평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예민하고 쉽게 당황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이유 없이 싸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목적 없이 왔다갔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친구들을 방해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오랜 기간동안 불행해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친구를 괴롭히거나 심술을 부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교사에게 움츠러져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장난감이나 시설을 망가뜨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두려워하며 공포를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여러 가지 습관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㉕ 5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때리고, 물고, 밀고, 물건을 던지는 등 타인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부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아무데서나 심하게 떼를 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갑자기 이유 없이 고향이나 과성을 지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5)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거나 시무룩해 지는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성질이 급하여 원하는 것은 즉시 얻어내야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방해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어른의 지시나 요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싸움을 자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과민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기분이 상한다 (잘 빠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욕박지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샘이 많고 자신에게만 관심이 기울여지길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심한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자주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잘난 척을 많이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달려 조르고 성가시게 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가게나 어린이집에서 물건을 훔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잠수도 가만있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사소한 일에도 크게 성내고 분노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놀이나 학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V. 사교육 관련 인식 및 요구

※ 사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6.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6-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7번으로 이동)

6-1. 사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연령을 적어주세요.)

1) 예체능 사교육	만 () 세
2) 학습 사교육	만 () 세

7. 다음은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1)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낮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조기 외국어교육은 효과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조기 영어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지나친 조기 사교육은 공격성, 정서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진지한 학습태도를 갖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고 쉽게 싫증을 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8. 향후 영유아(취학 전) 사교육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 ②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시키는 방향
- ③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
- ④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활성화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 ⑤ 기타()

9.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오랫동안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유치원 5세 학부모 대상 설문지

ID				
----	--	--	--	--

영유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 유치원 이용 5세아 부모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II : 2세, 5세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2세 영아나 5세 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조사진행 관련:** (주) 한국리서치 성현정 차장 02-3014-0168 hjseong@hrc.co.kr
 김보미 과장 02-3014-1056 kimbm@hrc.co.kr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최지은 연구원 02-398-7765 cje1123@kicce.re.kr

- ※ 귀하의 자녀 중 유치원 만 5세반에 다니는 유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 (이후 자녀의 이름이 자동으로 뜨도록 함)
 ※ 설문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지난주에 아파서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등 특별한 한 주였다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자녀의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녀 특성		응답자 특성		가족 특성	
자녀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맞별이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만 일함 <input type="checkbox"/> ③ 어머니만 일함	직업 형태	부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모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근로 시간			부 주당 평균 _____ 시간	
				모 주당 평균 _____ 시간	
자녀 연령 ____년 ____개월	응답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졸 이상	월평균 가구수입 _____만원(세후소득)	가족 형태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①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②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없음		
형제 순위 ____명 중 ____째		보조양육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조부모, 유급 육아도우미 등)			
거주지역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_읍면동					

I. 자녀의 하루 일과

※ 지난주(일상적인 한 주) ○○이의 하루 일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는 보통 밤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2-1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들어감)

평일 (주중)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토요일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일요일 (휴일)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2. ○○이는 평일(월, 화, 수, 목, 금)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 동안 하나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활동 시간 총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제시됨)

		하루 평균 참여 시간		
		평일(주중)	토요일	일요일
1) 밤잠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2) 유치원 이용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3)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강사에 의한 교육	학습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예체능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4)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5)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9)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10) 기타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11) 총합		일 24시간	일 24시간	일 24시간

* 부모님이 직접 답하시기 어려운 경우 주양육자에게 질문하여 답해 주세요.

3. ○○이는 평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가족과의 문화활동(전시관람, 연극관람 등)이나 야외활동(여행 포함)을 하나요?

- ① 예 (☞ 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4번으로 이동)

- 3-1. ○○이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가족과의 문화활동(전시관람, 연극관람 등)이나 야외활동(여행 포함)을 월 평균 몇 회 정도 하나요?

월 평균 ()회

4-5. 유치원에서 하는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 가지를 할 경우 평균으로 적어주세요.

예체능				구분	학습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비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프로그램 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교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강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집단구성 (연령구성, 집단 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5-1로 이동)

② 아니오 (☞ 5-2로 이동)

5-1.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6번으로)

①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하므로

② 사교육에 비해 질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③ 유치원에서 1차적으로 선별된 프로그램이므로

④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시켜주므로

⑤ 기타()

5-2. 방과후에 사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고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② 사교육에 비해 질이 낮으므로 (강사 수준, 프로그램 내용 등)

③ 학부모의 선택권이 적으므로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필요해 의해 시작하고 그만두기 어려움)

④ 진행 과정에서 아이 발달에 대한 보고, 상담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⑤ 시설이나 교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⑥ 기타()

Ⅲ. 사교육 현황 및 인식

※ 유치원에 다녀온 후 ○○이가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6. ○○이는 유치원 하원 후나 주말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6-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10번으로 이동)

6-1. ○○이는 현재 유치원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6-2. ○○이는 현재 유치원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사교육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1주일 기준)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총(자동합계)	주() 가지

6-3. ○○이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명을 기입해 주세요.

→ (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본 프로그램은 어떤 요일에 하고 있나요?

→ (요일을 클릭하면 시간 활성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명	요일
1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input type="checkbox"/> 토 <input type="checkbox"/> 일
2		
3		
4		

6-4. ○○이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다음을 체크하거나 기록해 주세요. (6-2.에 입력한 프로그램 모두 응답)

프로그램 A (부모가 기록한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뜨도록 함)		
요일별 시간	(6-3에서 체크한 요일 제시) a요일: ()시 ()분~()시 ()분 b요일: ()시 ()분~()시 ()분 c요일: ()시 ()분~()시 ()분	
프로그램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음악 <input type="checkbox"/> ②미술 <input type="checkbox"/> ③체육 <input type="checkbox"/> ④무용 <input type="checkbox"/> ⑤수학 <input type="checkbox"/> ⑥과학·창의 <input type="checkbox"/> ⑦국어 <input type="checkbox"/> ⑧영어 <input type="checkbox"/> ⑨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⑩기타()	
장소	<input type="checkbox"/> ①학원 <input type="checkbox"/> ②문화센터 <input type="checkbox"/> ③집 <input type="checkbox"/> ④체육관 <input type="checkbox"/> ⑤육아종합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주된) 이동 수단	<input type="checkbox"/> ①도보 <input type="checkbox"/> ②학원 차량 <input type="checkbox"/> ③유치원 차량 <input type="checkbox"/> ④자가용 <input type="checkbox"/> ⑤해당없음	
강사	강사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강사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①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②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③유아교육이나 아동학 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집단구성	반 규모	<input type="checkbox"/> ①1명 <input type="checkbox"/> ②2~5명 <input type="checkbox"/> ③6~10명 <input type="checkbox"/> ④11~15명 <input type="checkbox"/> ⑤16~20명 <input type="checkbox"/> ⑥21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모름
	연령 구성	<input type="checkbox"/> ①단일 연령 <input type="checkbox"/> ②혼합 연령(두 연령 이상으로 반이 구성됨) <input type="checkbox"/> ③모름
교재·교구 (복수 응답)	<input type="checkbox"/> ①학습지나 워크북 <input type="checkbox"/> ②책 <input type="checkbox"/> ③교구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모름	
월 납입 비용	수강료 월 ()원 / 교재교구 비용 월 ()원 ※교재교구 비용을 별도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기입	
선택 경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	<input type="checkbox"/> ①주변 부모가 함께하자고 권유 <input type="checkbox"/> ②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input type="checkbox"/> ③인터넷 검색 <input type="checkbox"/> ④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 <input type="checkbox"/> ⑤지인에게 물어서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학습 <input type="checkbox"/> ②발달 <input type="checkbox"/> ③재능 발견 <input type="checkbox"/> ④흥미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자녀의 흥미 및 몰입도	<input type="checkbox"/> ①전혀 흥미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별로 흥미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몰입함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흥미 있어 하며 몰입함	
만족도 (4점 만점)	<input type="checkbox"/> ①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만족	

6-5. 귀하가 ○○이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총 비용은 가구 월 소득의 몇 % 정도입니까?

약 ()%

※ ○○이가 하고 있는 사교육 전반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7. 현재 ○○이가 받고 있는 사교육이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조금 부족하다
- ③ 적당하다
- ④ 조금 과하다
- ⑤ 매우 과하다

8. 귀하가 자녀를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1~3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 | |
|---------------------------|--------------------------|
| ① 장소 | ② 시간 |
| ③ 강사 | ④ 프로그램 내용 |
| ⑤ 비용 | ⑥ 자녀 흥미 |
| ⑦ 인지도(주변에서 많이 하는 유명 프로그램) | ⑧ 초등학교 준비(연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⑨ 기타() | |

9. ○○이에게 유치원 하원 이후나 주말에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1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 | |
|-----------------------------|--|
| ① 자녀가 원해서 | |
|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
|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 |
|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 | |
|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 |
| ⑥ 유치원에서 하는 특성화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 |
| ⑦ 유치원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
| ⑧ 기타() | |

10. ○○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10-1번으로)
- ② 아니오 (☞ 문6이 '예'인 경우 11로, 문6이 '아니오'인 경우 10-2로)

IV. 자녀와 부모의 행동 특성

15. 다음은 영유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목욕할 때 물을 튀기며 활발히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놀이터에서 뛰고 미끄럼틀에 기어오르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날씨가 나빠서 집안에 있어야 할 때, 답답해하며 실내를 왔다갔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팔과 다리 등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더 즐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상한 냄새를 빨리 맡으며 이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예쁘다거나 밍다고 말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엄마가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입어서 모습이 달라지면 그 변화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 놀이감을 잠시 가지고 놀다가 곧 다른 놀이감을 찾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잠자리에 든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옷을 입힐 때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음식을 먹는 동안 발을 차거나 상체를 움직이는 등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만들거나 그림책 보기 같은 조용한 활동을 더 많이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차를 탔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새 놀이감을 보면 큰소리를 내며 좋아서 반기거나, 싫어하는 표현을 강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목욕할 때 특별히 좋다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음식의 맛이 이제까지 먹던 것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살짝 꼬집어도 별 반응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몸이 아프면 계속해서 보채거나 언짢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혼자 남겨놓아도 울지 않거나 기분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다른 집을 한두번 방문하면 그 곳 사람들과 쉽게 어울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낯선 어른에 대한 긴장이나 수줍음을 빨리(10분 이내) 극복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유치원에 갈 수 없는 등) 쉽게 새 일과에 따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낯선 곳(가게, 놀이터 등)에서도 10분 이내에 잘 적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잠자는 장소가 바뀌어도 1-2일 정도만 지나면 곧 익숙해져 잘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낯선 곳에서 처음 잠자게 되면 싫어하거나 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공원에서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낯선 아동에게 접근하며 함께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여행지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을 쉽게 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우리 집을 방문한 낯선 어른에게 접근하며 쉽게 친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낯선 곳에 처음 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0) 싫어하는 일(예를 들어 손톱깎기, 머리빗기 등) 이라도 이유를 설명하거나 즐겁게 해주면 쉽게 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일어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아침에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다음은 귀하가 평상시에 ○○이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양육방식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이가 놀고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어린이들이 노는 방식대로 놀아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이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칭찬도 자주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가 버릇없이 행동할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귀하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가 혼자 무얼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이 스스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이가 집이나 부모를 떠나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이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할 때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이에게 겉으로 애정 표현을 자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이를 슬하에 둔 것이 기쁘다고 ○○이에게 말해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이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이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이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놀이를 찾아서 놀게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0) ○○이의 과거 잘못된 행동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V. 사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7. 향후 영유아(취학 전) 사교육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 ②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시키는 방향
- ③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
- ④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활성화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 ⑤ 기타()

18.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오랫동안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4. 유치원 5세 교사 대상 설문지

ID					
----	--	--	--	--	--

영유아 사교육 및 특성화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 유치원 5세 담임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II : 2세, 5세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조사진행 관련: (주) 한국리서치 성현정 차장 02-3014-0168 hjseong@hrc.co.kr
 김보미 과장 02-3014-1056 kimbm@hrc.co.kr
-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최지은 연구원 02-398-7765 cje1123@kicce.re.kr

※ 설문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지난주가 일상적이지 않은 한 주였다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일주일 기준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남 <input type="checkbox"/> ②여	연령	만 ___세
경력	유치원교사 경력 ___년 ___개월 / 총 교육 경력 ___년 ___개월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이상	전공	<input type="checkbox"/> ①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②아동(가족)학 <input type="checkbox"/> ③아동(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④보육학 <input type="checkbox"/> ⑤간호학 <input type="checkbox"/> ⑥영양학 <input type="checkbox"/> ⑦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⑧ (유아)특수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⑨기타()
			<input type="checkbox"/> ①국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②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③사립법인 <input type="checkbox"/> ④사립사인
기관 원아 수	총 ___명 / 방과후과정 ___명	담당학급	<input type="checkbox"/> ①단일연령(총 ___명) <input type="checkbox"/> ②혼합연령(총 ___명)
기관 학급 수	___학급		
만5세 원아 수	총 ___명 / 방과후과정 ___명		

I. 기관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 소속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기관은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1-1 로 이동)
 ② 아니오 (☞ 3으로 이동)

1-1. 귀 기관에서는 유형별로 몇 개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관 전체 프로그램과 5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적어주세요.

	운영 여부		프로그램 개수	
	①운영함	②운영 안 함	기관 전체	5세 대상
1) 음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2)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3) 체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4) 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5) 수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6) 과학·창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7) 국어 (한글, 독서, 논술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8)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9) 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10)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11)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12)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개	()개

2. 귀 기관의 특성화프로그램은 모든 유아에게 필수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만 참여합니까?

- ① 모든 유아가 필수로 반드시 참여함
 ②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만 참여함

2-1. 그렇다면 특성화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한 학급의 유아가 동일한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함
 ② 한 한급의 유아더라도 서로 다른 특성화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함

Ⅱ. 해당 유아의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현황

※ 귀하의 학급(만5세반) 유아 중 출석부의 가운데 있는 유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중간이 2명이면 앞쪽의 유아를 선택해 주세요. 학부모가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유아를 중심으로 출석부 앞뒤앞뒤 순으로 선택하여 학부모의 참여 허락을 받아주세요.
참여허락을 받은 해당 유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_ (이후 자동으로 뜨도록 함)

3. ○○이의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유치원에 머무르는 시간 자동 계산)

등원 시간	오전 ()시 ()분	하원 시간	오후 ()시 ()분
-------	--------------------	-------	--------------------

4. ○○이는 특성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4-1로 이동)
 ② 아니오 (⇒ 5로 이동)

4-1. ○○이는 현재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1주일 기준)

주 ()가지

4-2. ○○이가 현재 하고 있는 특성화프로그램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 (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본 프로그램은 어떤 요일에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명	요일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		
3		
4		

4-3. ○○이가 하는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별로 다음을 체크하거나 기록해 주세요. (4-2.에 입력한 프로그램 모두 응답)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A (교사가 기록한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뜨도록 함)		
요일별 시간	(4-2에서 체크한 요일 제시) a요일: ()시 ()분~()시 ()분 b요일: ()시 ()분~()시 ()분 c요일: ()시 ()분~()시 ()분	
프로그램 유형	(1-1에서 만5세반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유형만 제시) <input type="checkbox"/> ①음악 <input type="checkbox"/> ②미술 <input type="checkbox"/> ③체육 <input type="checkbox"/> ④무용 <input type="checkbox"/> ⑤수학 <input type="checkbox"/> ⑥과학·창의 <input type="checkbox"/> ⑦국어 <input type="checkbox"/> ⑧영어 <input type="checkbox"/> ⑨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⑩기타()	
강사	강사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강사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①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input type="checkbox"/> ②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input type="checkbox"/> ③유아교육이나 아동학 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④전문능력을 가진 지역주민(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input type="checkbox"/> ⑤해당 유치원 및 타 유치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교원포함)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input type="checkbox"/> ⑦모름
집단구성	학급 규모	<input type="checkbox"/> ①1명 <input type="checkbox"/> ②2~5명 <input type="checkbox"/> ③5~10명 <input type="checkbox"/> ④10~15명 <input type="checkbox"/> ⑤15~20명 <input type="checkbox"/> ⑥20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모름
	연령 구성	<input type="checkbox"/> ①단일연령 <input type="checkbox"/> ②혼합 연령 <input type="checkbox"/> ③모름
교재·교구 (복수 응답)		<input type="checkbox"/> ①학습지나 워크북 <input type="checkbox"/> ②책 <input type="checkbox"/> ③교구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모름
비용	유아 1인당 월 총 비용	()원
	월 학부모 1인당 부담 비용	수강료 월 ()원 / 교재교구 비용 월 ()원 ※교재교구 비용을 별도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기입
프로그램 개설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학부모의 요구 <input type="checkbox"/> ②원장의 철학 <input type="checkbox"/> ③유치원 운영에 도움 <input type="checkbox"/> ④타 기관의 추천 <input type="checkbox"/> ⑤기타()
○○이의 흥미 정도		<input type="checkbox"/> ①전혀 흥미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별로 흥미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약간 흥미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흥미 있음
○○이의 발달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①매우 부적절한 <input type="checkbox"/> ②다소 부적절함 <input type="checkbox"/> ③비교적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적절함

※ 다음은 ○○(이) 방과후 과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5-0-1. ○○이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참여하고 있다 (☞ 5-0-2로 이동)
- ② 참여하지 않고 있다 (☞ 5로 이동)

5-0-2. ○○이가 참여하는 방과후 과정은 다음 중 어떤 형태에 해당됩니까?

- ① 독립편성 (☞ 5로 이동)
- ② 오후 재편성 (☞ 5-0-3으로 이동)

5-0-3. ○○이가 참여하는 방과후 과정이 오후 재편성된다면 그 반은 단일연령입니까? 혼합연령입니까? 그리고 ○○이가 참여한 방과후 과정 반은 몇 명입니까?

- ① 단일연령 -> 총 ()명
- ② 혼합연령 -> 총 ()명

Ⅲ. 해당 유아의 행동 특성

※ ○○이의 평상시 행동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지켜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5. 다음은 영유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때리고, 물고, 밀고, 물건을 던지는 등 타인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부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아무데서나 심하게 떼를 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갑자기 이유 없이 고함이나 괴성을 지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거나 시무룩해 지는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성질이 급하여 원하는 것은 즉시 얻어내야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방해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어른의 지시나 요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싸움을 자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과민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기분이 상한다 (잘 빠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욕박지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샘이 많고 자신에게만 관심이 기울여지길 원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심한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자주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잘난 척을 많이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달려 조르고 성가시게 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가게나 유치원에서 물건을 훔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사소한 일에도 크게 성내고 분노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놀이나 학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V. 사교육 관련 인식 및 요구

※ 사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6.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6-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7번으로 이동)

6-1. 사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연령을 적어주세요.)

1) 예체능 사교육	만 () 세
2) 학습 사교육	만 () 세

7. 다음은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1) 초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낮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초기 외국어교육은 효과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초기 영어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지나친 초기 사교육은 공격성, 정서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초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초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초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진지한 학습태도를 갖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초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고 쉽게 싫증을 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8. 향후 영유아(취학 전) 사교육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 ②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흡수시키는 방향
- ③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
- ④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활성화시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
- ⑤ 기타()

9.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오랫동안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5.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2·5세아 부모 대상 설문지

ID				
----	--	--	--	--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2·5세아 부모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II : 2세, 5세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2세 영아나 5세 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조사진행 관련: (주) 한국리서치 성현정 차장 02-3014-0168 hjseong@hrc.co.kr
김보미 과장 02-3014-1056 kimbm@hrc.co.kr

조사내용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최지은 연구원 02-398-7765 cje1123@kicce.re.kr

※ 귀하의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2세 혹은 5세 영유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 (이후 자녀의 이름이 자동으로 뜨도록 함)

※ 설문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 지난주에 아프거나 여행에 가는 등 특별한 한 주였다면, 지난주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자녀의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녀 특성		응답자 특성		가족 특성	
자녀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	맞벌이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만 일함 <input type="checkbox"/> ③ 어머니만 일함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직업 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자녀 연령	____년 ____개월	응답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졸 이상	근로 시간	부: 주당 평균 ____ 시간 모: 주당 평균 ____ 시간
형제 순위	____명 중 ____째			월평균 가구수입	_____만원(세후소득)
거주지역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_읍면동		가족 형태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①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②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없음	
				보조양육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조부모, 유급 육아도우미 등)

선문1. OO(이)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하루 3시간 이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에 다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예 (☞ 선문1-1로 이동)
- ② 아니요 (☞ 선문1-2로 이동)

선문1-1. OO이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응답 후 2번으로 이동)

- ①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 ②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
- ③ 유아체능단
- ④ 기타()

선문1-2. OO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자녀가 피곤해 하므로(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 ②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③ 기관에 보내기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 ④ 시간제 사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문화센터, 학원 등)
- ⑤ 주변에 보낼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⑥ 긴 시간 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이 발달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⑦ 내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서
- ⑧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⑨ 또래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해서 (단체생활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⑩ 자녀가 이동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 ⑪ 기타()

선문2. 다음 중 과거에 OO이를 보낸 적이 있는 반일제 이상 기관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유치원
- ② 어린이집
- ③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 ④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
- ⑤ 유아체능단
- ⑥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 ⑦ 이전에 반일제 이상 기관에 보낸 적 없음

I. 자녀의 하루 일과

※ **지난주(일상적인 한 주) ○○이의 하루 일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는 보통 밤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4-1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들어감)

평일 (주중)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토요일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일요일 (휴일)	밤 ()시 ()분에 잠들어	아침 ()시 ()분에 일어남

2. ○○이는 평일(월, 화, 수, 목, 금)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다음의 활동을 얼마 동안 하나요?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활동 시간 총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제시됨)

	하루 평균 참여 시간		
	평일(주중)	토요일	일요일
1) 밤잠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2)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만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3) 개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 (특기교육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강사에 의한 교육	학습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예체능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4)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교재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5)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의 기본생활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9) 집에서 자는 낮잠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10) 기타 시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11) 총합	일 24시간	일 24시간	일 24시간

* 부모님이 직접 답하시기 어려운 경우 주양육자에게 질문하여 답해 주세요.

3. ○○이는 평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가족과의 문화활동(전시관람, 연극관람 등)이나 야외활동(여행 포함)을 하나요?

① 예 (☞ 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반일제 학원 이용자는 4번으로, 반일제 학원 미용자는 8번으로 이동)

3-1. ○○이는 가족과의 문화활동(전시관람, 연극관람 등)이나 야외활동(여행 포함)을 월 평균 몇 회 정도 하나요? (☞ 응답 후 반일제 학원 이용자는 4번으로, 반일제학원 미용자는 8번으로 이동)

월 평균 ()회

Ⅱ. 반일제 이상 학원 프로그램 현황 및 인식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만) ○○이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본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에게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을 시키고 싶어서
② 강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서 우리 아이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줄 것 같아서
③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미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시키고 싶어서
④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프로그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⑤ 아이의 소질이나 재능을 개발해주고 싶어서
⑥ 기타 ()

5. 본 학원에 보내면서 한 달에 지출하는 평균 수강료는 얼마입니까? 월 _____ 원

5-1. 교재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월 _____ 원

* 3개월을 한꺼번에 지출할 경우 3으로 나누어 월 평균 금액을 기록해 주세요.

교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6. 본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1) 비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프로그램 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교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강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집단구성(연령구성, 집단 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만) ○○이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학원의 특별활동은 학원 정규프로그램 이외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미술, 음악, 체육, 수, 과학, 창의, 언어(한글, 외국어)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7. ○○이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현재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7-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8번으로 이동)

7-1. ○○이는 현재 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7-2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8번으로 이동)

7-2. ○○이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종류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7-3. ○○이는 1주일에 몇 가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총(자동합계)	주() 가지

7-4. 본 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월 평균 ()원

* 학원비 외에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는 0으로 표시해 주세요.

7-5. ○○이가 본 학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가 심심할까봐 ③ 학원에서 필수로 해야 해서 ④ 필수는 아니지만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어서 ⑤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 하는 것이 불안해서 ⑥ 아이의 특기를 길러주거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⑦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⑧ 다른 외부 학원이나 단체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⑨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서 ⑩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서 ⑪ 기타() |
|--|

7-6. 본 학원에서 하는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체능이나 학습 중 한 종류만 할 경우 하는 프로그램에만 표시해 주시고, 여러가지를 할 경우 평균으로 적어주세요.

예체능				구분	학습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비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프로그램 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교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강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집단구성 (연령구성, 집단 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Ⅲ. 반일제 학원 이후 사교육 현황 및 인식

※ ○○이가 반일제 이상 학원 외에 참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 관련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8. ○○이는 평일이나(반일제 학원 이용자 : 본 학원을 마친 후나) 주말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 8-1로 이동)

② 아니오 (☞ 12로 이동)

8-1. ○○이는 (반일제 학원 이용자 : 현재 본 학원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어떤 종류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학습 관련(수, 과학, 창의, 언어 등) 프로그램

②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관련 프로그램

③ 학습과 예체능 프로그램 모두

8-2. ○○이는 현재 (반일제 학원 이용자 : 본 학원 하원 이후 혹은 주말에) 사교육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1주일 기준)

학습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주() 가지
총(자동합계)	주() 가지

8-3. ○○이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 이름과 요일을 기입해 주세요.

	프로그램명	요일
1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 <input type="checkbox"/> 토 <input type="checkbox"/> 일
2		
3		
4		

8-4. ○○이가 현재 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 본 학원 이외의) 사교육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다음을 체크하거나 기록해 주세요. (8-2에 입력한 프로그램 모두 응답)

본 학원 이외 사교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_____) : 학부모에게 줄 경우 프로그램 10까지 제공		
요일별 시간	(8-3에서 체크한 요일 제시) a요일: ()시 ()분~()시 ()분 b요일: ()시 ()분~()시 ()분 c요일: ()시 ()분~()시 ()분	
프로그램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음악 <input type="checkbox"/> ②미술 <input type="checkbox"/> ③체육 <input type="checkbox"/> ④무용 <input type="checkbox"/> ⑤수학 <input type="checkbox"/> ⑥과학·창의 <input type="checkbox"/> ⑦국어 <input type="checkbox"/> ⑧영어 <input type="checkbox"/> ⑨기타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⑩기타()	
장소	<input type="checkbox"/> ①학원 <input type="checkbox"/> ②문화센터 <input type="checkbox"/> ③집 <input type="checkbox"/> ④체육관 <input type="checkbox"/> ⑤육아종합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주된) 이동 수단	<input type="checkbox"/> ①도보 <input type="checkbox"/> ②학원 차량 <input type="checkbox"/> ③자가용 <input type="checkbox"/> ④해당 없음	
강사	강사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강사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①해당 분야 기술·기능 보유자(비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②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③유아교육이나 아동학 전공자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모름
집단구성	반 규모	<input type="checkbox"/> ①1명 <input type="checkbox"/> ②2~5명 <input type="checkbox"/> ③6~10명 <input type="checkbox"/> ④11~15명 <input type="checkbox"/> ⑤16~20명 <input type="checkbox"/> ⑥21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모름
	연령 구성	<input type="checkbox"/> ①단일 연령 <input type="checkbox"/> ②혼합 연령(두 연령 이상으로 반이 구성됨) <input type="checkbox"/> ③모름
교재·교구 (복수 응답)	<input type="checkbox"/> ①학습지나 워크북 <input type="checkbox"/> ②책 <input type="checkbox"/> ③교구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모름	
월 납입 비용	수강료 월 ()원 / 교재교구 비용 월 ()원 ※교재교구 비용을 별도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기입	
선택 경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	<input type="checkbox"/> ①주변 부모가 함께하자고 권유 <input type="checkbox"/> ②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input type="checkbox"/> ③인터넷 검색 <input type="checkbox"/> ④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 <input type="checkbox"/> ⑤지인에게 물어서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학습 <input type="checkbox"/> ②발달 <input type="checkbox"/> ③재능 발견 <input type="checkbox"/> ④흥미 <input type="checkbox"/> ⑤없음 <input type="checkbox"/> ⑥기타()	
자녀의 흥미 및 몰입도	<input type="checkbox"/> ①전혀 흥미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별로 흥미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③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몰입함.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흥미 있어 하며 몰입함	
만족도 (4점 만점)	<input type="checkbox"/> ①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②불만족 <input type="checkbox"/> ③만족하는 편 <input type="checkbox"/> ④매우 만족	

8-5. 귀하가 ○○이의 사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총 비용은 가구 월 소득의 몇 % 정도입니까?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용 포함)

약 ()%

※ ○○이가 하고 있는 사교육 전반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9. 현재 ○○이가 받고 있는 사교육이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조금 부족하다
- ③ 적당하다
- ④ 조금 과하다
- ⑤ 매우 과하다

10. 귀하가 자녀를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반일제 학원 이용자는 11-1번으로, 반일제 학원 미이용자는 11-2번으로 이동)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장소		② 시간		③ 강사	
③ 강사		④ 프로그램 내용		⑤ 비용	
⑤ 비용		⑥ 자녀 흥미		⑦ 인지도(주변에서 많이 하는 유명 프로그램)	
⑦ 인지도(주변에서 많이 하는 유명 프로그램)		⑧ 초등학교 준비(연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		⑨ 기타()	

11-1. (반일제 학원 이용자) ○○이에게 본 학원 마친 이후나 주말에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2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⑥ 본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⑦ 본 학원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		⑧ 기타()			

11-2. (반일제 학원 미이용자) ○○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⑥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해서		⑦ 특정 시간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뒤쳐질까봐		⑧ 기타()			

12. ○○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반일제 학원 이용자는 12-1-1번으로 이동, 반일제 학원 미용자는 12-1-2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반일제 학원 이용자는 13번으로 이동)
(☞ 반일제 학원 미용자 중 문8=1 응답자는 13번으로, 문8=2 응답자는 문12-2번으로 이동)

12-1-1. (반일제 학원 이용자) ○○이의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3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자녀가 피곤해 하므로(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 ②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③ 교육 수준이 자녀 연령에 맞지 않아서
- ④ 다니고 있는 학원에 유사한 특별활동이 생겨서
- ⑤ 교육기관이나 자택이 이사해서(폐원 포함)
- ⑥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 ⑦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⑧ 자녀가 이동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 ⑨ 기타()

12-1-2. (반일제 학원 미이용자) ○○이의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3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자녀가 피곤해 하므로(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 ②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③ 교육 수준이 자녀 연령에 맞지 않아서
- ④ 교육기관이나 자택이 이사해서(폐원 포함)
- ⑤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 ⑥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⑦ 자녀가 이동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 ⑧ 기타()

12-2. ○○이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제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 후 14번으로)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① 자녀가 피곤해 하므로(신체적으로 부담이 됨)
- ②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 ③ 사교육을 시키기에는 아직 어리므로
- ④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 ⑤ 주변에 보낼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서
- ⑥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⑦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⑧ 자녀가 이동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 ⑨ 기타()

13. ○○이는 처음 사교육을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습니까?

13-1. ○○이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

만 ()년 ()개월

13-2. ○○이가 처음 시작한 사교육 유형은 무엇인지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음악 | <input type="checkbox"/> ② 미술 | <input type="checkbox"/> ③ 체육 |
| <input type="checkbox"/> ④ 무용 | <input type="checkbox"/> ⑤ 수학 | <input type="checkbox"/> ⑥ 과학·창의 |
| <input type="checkbox"/> ⑦ 국어(한글, 독서, 논술 포함) | <input type="checkbox"/> ⑧ 영어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외국어() |
|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 | |

14.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14-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15번으로 이동)

14-1. 사교육의 바람직한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연령을 적어주세요.)

1) 예체능 사교육	만 ()세
2) 학습 사교육	만 ()세

15. 귀하는 가구 월 소득의 최대 몇 %까지 ○○이의 사교육에 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10%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0~20% | <input type="checkbox"/> ③ 20~40% |
| <input type="checkbox"/> ④ 40~60% | <input type="checkbox"/> ⑤ 60~80% | <input type="checkbox"/> ⑥ 80% 이상 |

15-1.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활성화) 귀하는 가구 월 소득의 최대 몇 %까지 자녀들의 사교육에 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10%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0~20% | <input type="checkbox"/> ③ 20~40% |
| <input type="checkbox"/> ④ 40~60% | <input type="checkbox"/> ⑤ 60~80% | <input type="checkbox"/> ⑥ 80% 이상 |

16. 다음은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1)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창의성이 낮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조기 외국어교육은 효과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조기 영어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지나친 조기 사교육은 공격성, 정서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진지한 학습태도를 갖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고 쉽게 싫증을 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V. 자녀와 부모의 행동 특성

17. 다음은 영유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목욕할 때 물을 튀기며 활발히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놀이터에서 뛰고 미끄럼틀에 기어오르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날씨가 나빠서 집안에 있어야 할 때, 답답해하며 실내를 왔다갔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팔과 다리 등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더 즐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상한 냄새를 빨리 맡으며 이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예쁘다거나 밍다고 말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엄마가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입어서 모습이 달라지면 그 변화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 놀이감을 잠시 가지고 놀다가 곧 다른 놀이감을 찾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잠자리에 든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옷을 입힐 때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음식을 먹는 동안 발을 차거나 상체를 움직이는 등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만들거나 그림책 보기 같은 조용한 활동을 더 많이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차를 탔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새 놀이감을 보면 큰소리를 내며 좋아서 반기거나, 싫어하는 표현을 강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목욕할 때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음식의 맛이 이제까지 먹던 것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살짝 꼬집어도 별 반응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몸이 아프면 계속해서 보채거나 언짢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혼자 남겨놓아도 울지 않거나 기분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다른 집을 한두번 방문하면 그 곳 사람들과 쉽게 어울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낯선 어른에 대한 긴장이나 수줍음을 빨리(10분 이내) 극복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학원에 갈 수 없는 등) 쉽게 새 일과에 따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낯선 곳(가게, 놀이터 등)에서도 10분 이내에 잘 적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잠자는 장소가 바뀌어도 1-2일 정도만 지나면 곧 익숙해져 잘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낯선 곳에서 처음 잠자게 되면 싫어하거나 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공원에서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낯선 아동에게 접근하며 함께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여행지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을 쉽게 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우리 집을 방문한 낯선 어른에게 접근하며 쉽게 친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낯선 곳에 처음 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0) 싫어하는 일(예를 들어 손톱깎기, 머리빗기 등) 이라도 이유를 설명하거나 즐겁게 해주면 쉽게 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일어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아침에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다음은 귀하가 평상시에 ○○이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양육방식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이가 놀고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어린이들이 노는 방식대로 놀아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이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칭찬도 자주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가 버릇없이 행동할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귀하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가 혼자 무얼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이 스스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이가 집이나 부모를 떠나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이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할 때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이에게 겉으로 애정 표현을 자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이를 슬하에 둔 것이 기쁘다고 ○○이에게 말해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이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이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이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놀이를 찾아서 놀게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이의 과거 잘못된 행동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 반일제 이상 학원 학부모용 -

I. 자녀·응답자·가족 배경 특성

자녀 특성		응답자 특성		가족 특성	
자녀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응답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맞벌이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만 일함 <input type="checkbox"/> ③ 어머니만 일함
		응답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고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③대졸 <input type="checkbox"/> ④대학원졸 이상	직업 형태	부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모 <input type="checkbox"/> ①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②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근로 시간	부 주당 평균 ____ 시간 모 주당 평균 ____ 시간
		자녀 연령	____년 ____개월	응답자 연령	만 ____세
형제 순위	____명 중 ____째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	보조양육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조부모, 유급 육아도우미 등)
거주 지역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Ⅱ. 자녀 재원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프로그램 시간표를 적어주세요. 학원에서 배부한 시간표가 있다면 붙여주셔도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2. 수업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

① 강의식 ③ 문제 풀이 ⑤ 역할극 ⑦ 현장 학습(체험학습)	② 토론식 ④ IT 활용한 개별 학습 (탭북, 패드 등) ⑥ 놀이 중심 ⑧ 기타()
--	--

3. 사용하는 교재는 어떤 것입니까? 교재명과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교재명	설명
1		
2		
3		
4		
5		

Ⅲ. 자녀의 하루일과 기록

◎ 다음은 귀하의 자녀가 한 주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 동안 ○○이가 한 일을 시간에 따라 적어주세요. 일상적이지 않은 한 주를 보냈다면 일상적인 한 주의 일과를 적어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 전	6:00							
	7:00							
	8:00							
	9:00							
	10:00							
	11:00							
오 후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IV. 자녀와 부모의 행동 특성

◎ 다음은 영유아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목욕할 때 물을 튀기며 활발히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놀이터에서 뛰고 미끄럼틀에 기어오르는 등 끊임없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날씨가 나빠서 집안에 있어야 할 때, 답답해하며 실내를 왔다갔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팔과 다리 등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더 즐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상한 냄새를 빨리 맡으며 이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색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예쁘다거나 밍다고 말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엄마가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입어서 모습이 달라지면 그 변화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한 놀이감을 잠시 가지고 놀다가 곧 다른 놀이감을 찾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잠자리에 든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옷을 입힐 때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음식을 먹는 동안 발을 차거나 상체를 움직이는 등 많이 움직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만들거나 그림책 보기 같은 조용한 활동을 더 많이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차를 탔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새 놀이감을 보면 큰소리를 내며 좋아서 반기거나, 싫어하는 표현을 강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목욕할 때 특별히 좋다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음식의 맛이 이제까지 먹던 것과 다르면 금방 차이를 알아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살짝 꼬집어도 별 반응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몸이 아프면 계속해서 보채거나 언짢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혼자 남겨놓아도 울지 않거나 기분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다른 집을 한두번 방문하면 그 곳 사람들과 쉽게 어울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낯선 어른에 대한 긴장이나 수줍음을 빨리(10분 이내) 극복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매일의 일과에 변화가 생길 때(유치원에 갈 수 없는 등) 쉽게 새 일과에 따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낯선 곳(가게, 놀이터 등)에서도 10분 이내에 잘 적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잠자는 장소가 바뀌어도 1-2일 정도만 지나면 곧 익숙해져 잘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낯선 곳에서 처음 잠자게 되면 싫어하거나 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공원에서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낯선 아동에게 접근하며 함께 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여행지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을 쉽게 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우리 집을 방문한 낯선 어른에게 접근하며 쉽게 친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낯선 곳에 처음 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0) 싫어하는 일(예를 들어 손톱깎기, 머리빗기 등) 이라도 이유를 설명하거나 즐겁게 해주면 쉽게 응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휴일에도 다른 날과 거의 같은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일어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아침에 비슷한 시각(1시간 이내의 차이)에 잠을 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귀하가 평상시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양육방식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이가 놀고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어린이들이 노는 방식대로 놀아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이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칭찬도 자주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가 버릇없이 행동할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이가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귀하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가 혼자 무얼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이 스스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이가 집이나 부모를 떠나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이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할 때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워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가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이에게 겉으로 애정 표현을 자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이를 슬하에 둔 것이 기쁘다고 ○○이에게 말해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자녀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이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이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이를 일일이 돌봐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놀이를 찾아서 놀게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이의 과거 잘못된 행동을 다시 고집어내지 않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V. 면담 질문 목록

구분	질문
자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특성은 어떤 편입니까? (정서, 행동)
개인 및 가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편입니까? • ○○이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하루 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하루 일과는 바쁜 편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 학부모가 기록한 내용에 기초한 상세한 질문(일상, 부모와의 시간, 사교육 비중 등)
학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본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규 프로그램 외에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정규 프로그램, 교재교구, 특별활동 등) • 강사가 어떤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격, 전공 등) • 본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원 이외의 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언제 사교육을 처음 시작하였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 하루일과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가 수강하는 사교육의 특성 질문 (각 프로그램 유형, 장소, 이동수단, 강사, 집단구성, 교재·교구, 비용, 선택경로, 기대, 만족도) • (현재 본 학원 이외에 다른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반일제 이상 학원 이외에 별도로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교육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프로그램별, 총비용) • 사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사교육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바람직한 사교육의 시작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체능과 학습) • 만약 내 아이를 다시 키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교육 관련하여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부록 7. 상담사례분석을 위한 상담자 설문지

아동상담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문적 경험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센터의 내담아동 중 특히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나 사교육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는 설문을 하고자 합니다. 설문대상자는 아동상담 경험이 3년 이상인 관련전공 대학원 재학 이상의 아동상담자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오직 연구목적만으로 사용되오니 솔직하고 정확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신 하나하나의 문항은 소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관련 연구내용은 연구 최종 보고 후 3년 이내 모두 폐기됩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잠재적 혹은 알려진 위험과 관련한 질문을 언제라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다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 장 미경 010 7545 4399

▣ 다음은 귀하에 관한 몇 가지 개인적 정보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란에 √나 O표를 해 주시거나 내용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 / ② 여 ()
2. 연령 : 만 세
3. 결혼여부 : ① 미혼 () / ② 기혼 ()
4. 학력 : ① 석사학기 (학기) ② 석사수료 () ③ 석사졸업 ()
 ④ 박사과정 (학기) ⑤ 박사수료 () ⑥ 박사졸업 ()
 ⑦ 기타 ()
5. 현재 귀하께서 아동상담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서울 ② 경기 ③ 충남 ④ 기타
6. 아동 상담의 임상 경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7.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8. 개인상담(또는 자기분석, 교육분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9. 귀하가 상담한 사교육 관련 사례에서 내담아동이 가진 주 호소 문제는 무엇인가요? (중복체크 가능)

- ① 불안 ② 위축 ③ 우울 ④ 무기력 ⑤ 분노
 ⑥ 공격성 ⑦ 낮은 사회성 ⑧ 학습부진 ⑨ 주의산만 ⑩ 틱 증상
 ⑪ 학교부적응 ⑫ 관계의 어려움 ⑬ 감정조절의 어려움 ⑭ 신체화 ⑮ 기타 ()

10. 귀하가 상담한 사교육 관련 사례에서 내담아동의 부모 성격유형은 어떠한가요? (중복체크 가능)

- ① 내향적 ② 외향적 ③ 사고중심적 ④ 감성적 ⑤ 수용공감적
 ⑥ 기타 ()

11. 귀하가 상담한 사교육 관련 사례에서 부모상담시 상담자가 관찰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은 어떠한가요?

- ① 회유형 ② 비난형 ③ 초이성형 ④ 산만형 ⑤ 일치형
 ⑥ 기타 ()

12. 귀하가 상담한 사교육 관련 사례에서 내담아동의 부모 양육태도는 어떠한가요?

- ① 애정-자율 ② 애정-통제 ③ 거부-자율 ④ 거부-통제

13. 귀하가 상담한 사교육 관련 사례의 내담아동과 부와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① 매우 친밀함 ② 친밀함 ③ 보통 ④ 친밀하지 않음 ⑤ 매우 친밀하지 않음

14. 귀하가 상담한 사교육 관련 사례의 내담아동과 모와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① 매우 친밀함 ② 친밀함 ③ 보통 ④ 친밀하지 않음 ⑤ 매우 친밀하지 않음

15. 귀하가 상담한 사교육 관련 사례의 내담아동 부모의 부부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① 매우 친밀함 ② 친밀함 ③ 보통 ④ 친밀하지 않음 ⑤ 매우 친밀하지 않음

연구보고 2016-13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

-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 2266-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84-4 93370